

畿道象徴物總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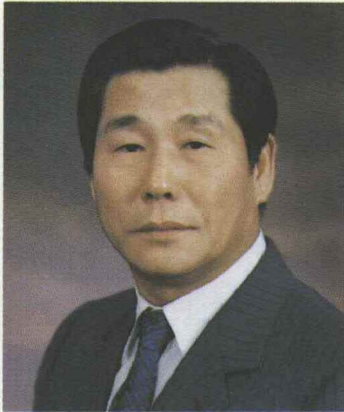
京畿道

배고장象徴物總覽

京畿道

題字：菖石 金昌東

發 刊 辭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象徵하는 國旗와 國歌 그리고 國花 등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象徵物이 있음은 물론 各級 地方自治團體인 市道 및 市郡에도 자기 고장을 象徵하는 徽章과 노래 그리고 꽃, 나무, 새가 指定되어 있습니다.

한 고장을 象徵하는 對象物을 그 고장 住民이 아끼고 가꾸는 마음 가짐이 愛鄉心을 북돋우게 되고 鄉土民의 和合과 團結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愛國하는 마음과도 그 脈을 같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고장을 象徵하는 徽章이나 내고장의 자랑과 歷史가 담긴 노래 그리고 내고장에서 많이 自生하고 棲息하며 귀여움을 받는 特有的 動植物中에서 어떤것이 내고장의 것으로 指定되었는지를 잘 아는 地域住民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때늦은 느낌이 없지 않으나 全國各地의 내고장을 象徵하는 對象物들을 한눈에 보고 익힐 수 있도록 集大成함으로써 鄉土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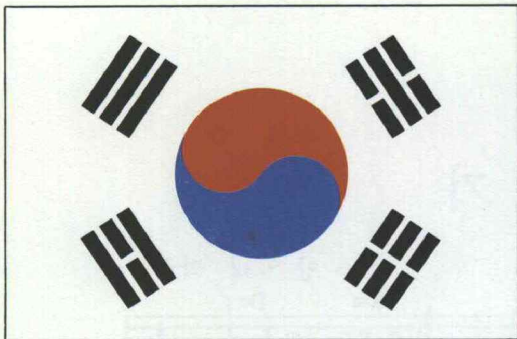
自然, 歷史 및 傳統에 대한 矜持와 愛着心を 심어가는 愛郷運動으로 發展시키고자 이 冊子を 發刊하게 된 것입니다.

이 冊子を 全國의 各級 地方自治團體와 그 傘下機關을 비롯하여 敎育機關과 圖書館에서 保存・活用하여 郷土文化의 暢達에 寄與하고 특히 내고장의 노래가 故郷사람들간에 널리 愛唱되어 地域住民의 和合과 더불어 愛郷, 愛國의 運動으로 메아리 쳐 나갈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1987年 4 月 30日

內務部長官

鄭 錫 濬



國旗：太極旗



徽章：나라紋章



國花：無窮花

애국가

장엄하게

안익태 작곡



1. 동 해 물과 백 두 산 이 마 르 고 님 도 록
2. 남 산 위에 저 소 나 무 철 갑 을 두 른 듯
3. 가 을 하늘 공 활 한 데 높 고 구 름 없 이
4. 이 기 상과 이 맘 으 로 충 성 을 다 하 여



하 느 님 이 보 우-하 사 우 리 나 라 만 세
 바 람 서 리 불 변-함 은 우 리 기 상 일 세
 밝 은 달 은 우 리-가 숨 일 편 단 심 일 세
 파 로 우 나 즐 거-우 나 나 라 사 랑 하 세

(후렴)



무 - 궁 화 삼 - 천 리 화 려 강 - 산



대 한 사 람 대 한-으 로 길 이 보 전 하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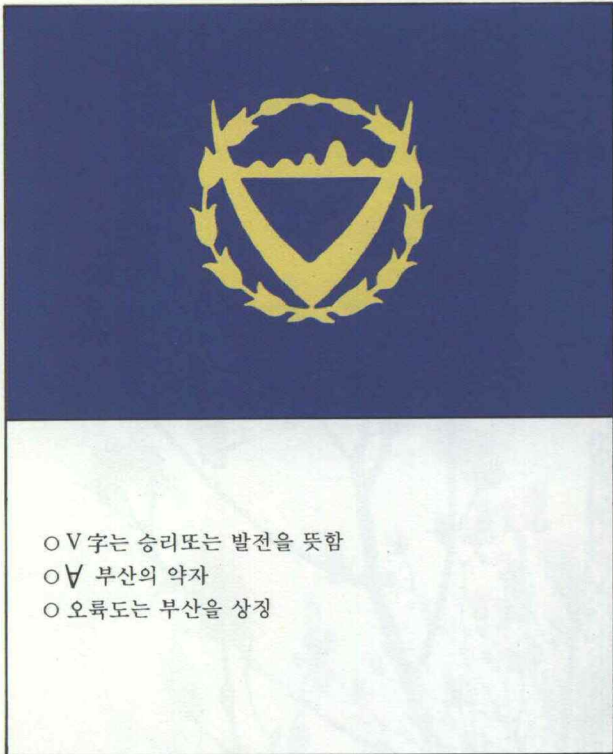
目 次

1. 市道 象徴物(휘장, 꽃, 나무, 새)	9
2. 市郡의 徽章	27
3. 市郡의 꽃	83
4. 市郡의 나무	95
5. 市郡의 새	107
6. 市道・市郡民의 노래	117
7. 내고장을 讚美하는 노래	323
〈索引目錄〉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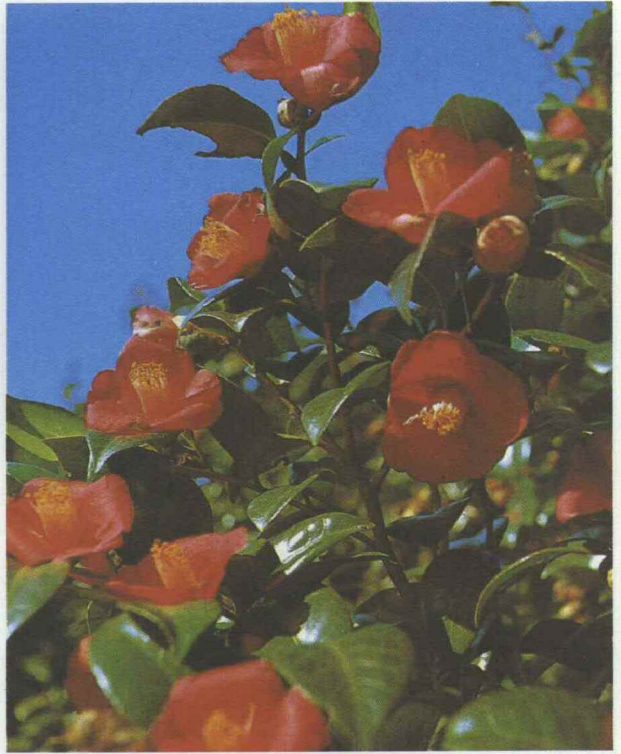
市道象徴物

(휘장, 꽃, 나무,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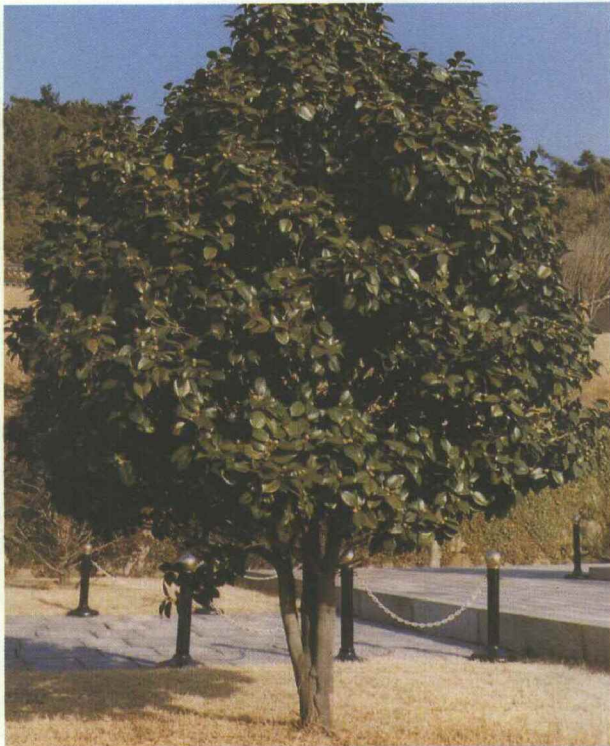
釜山直轄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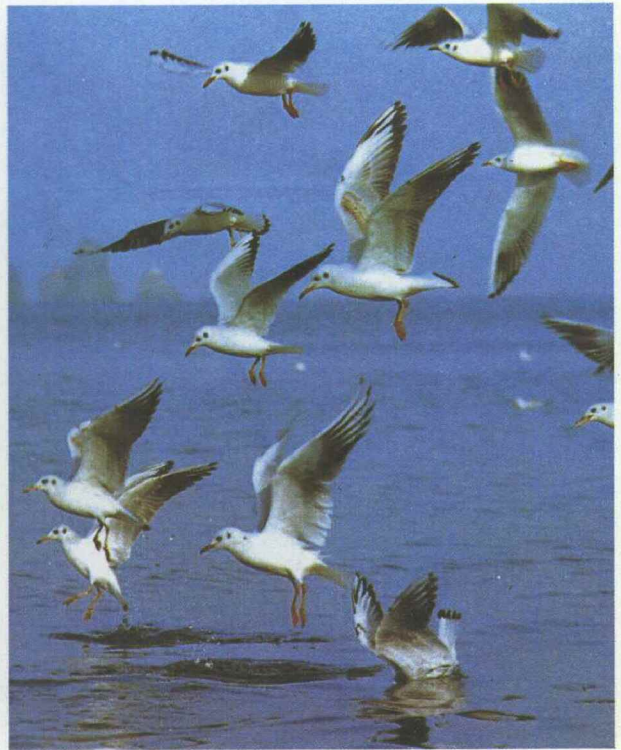
(휘 장)



(꽃)동 백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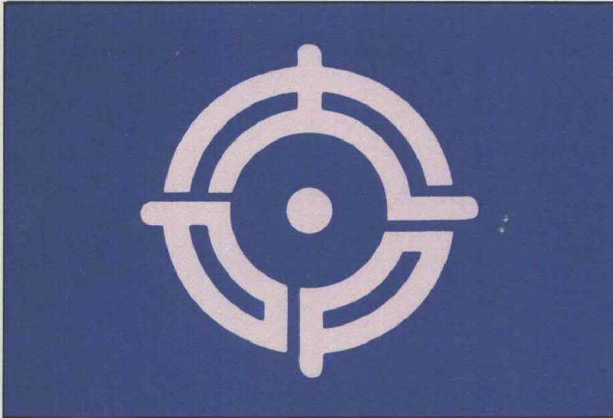


(나무)동백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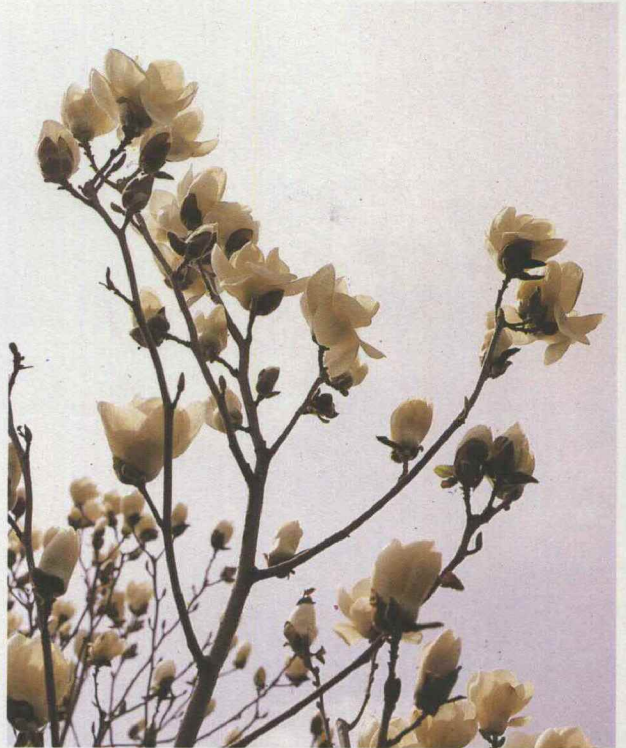
(새)갈 매 기

大邱直轄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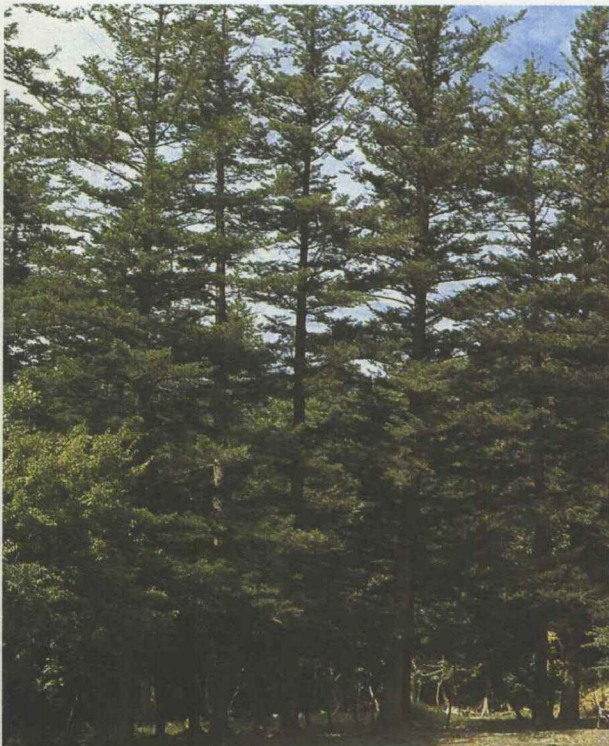


○  는 大邱란 漢字를 도안하여 그림
○ 중앙의 ●은 태양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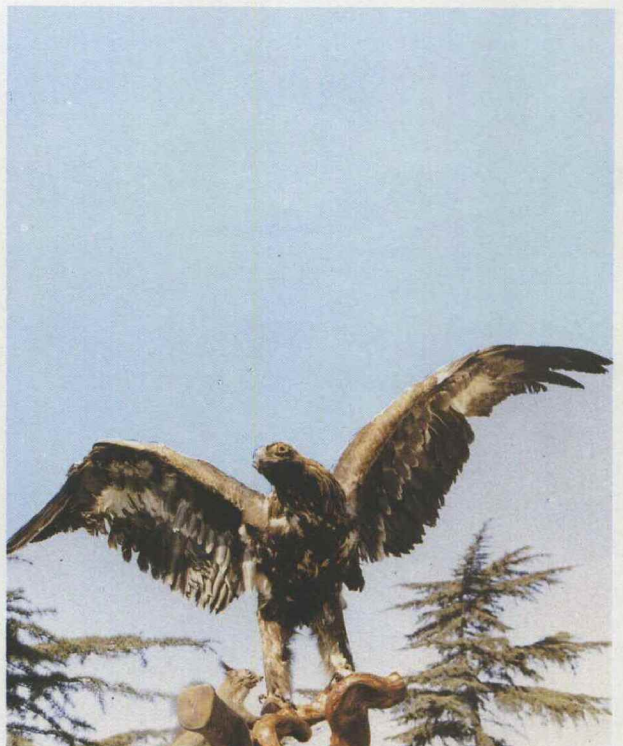
(회 장)



(꽃)목련



(나무)전나무



(새)독수리

仁川直轄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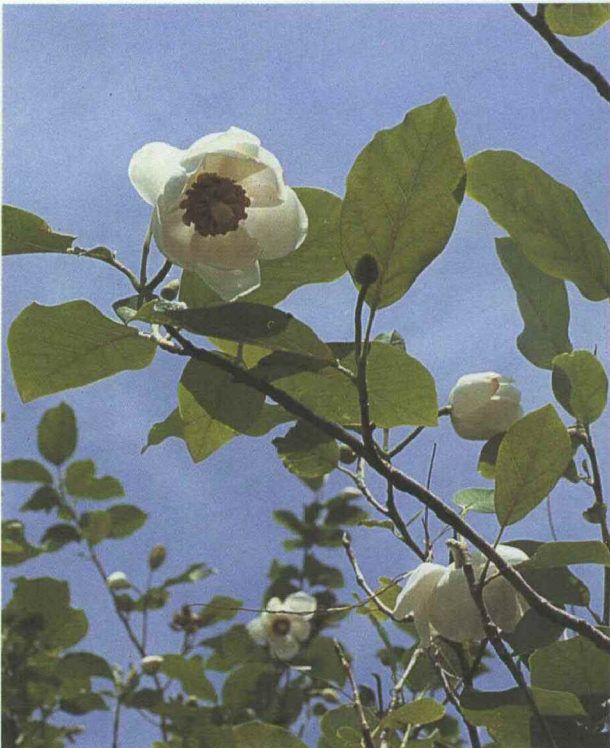


○船舶의 舵輪과 톱니바퀴는 港口都市 工業都市를
象徴하고 中心部는 인천의 “○”과 “ㄷ”을 五角型으로
圖案하여 國際港口仁川의 市勢가 五大洋에 빛날것을
뜻하며 無窮花는 仁川의 無窮한 發展을 國花와 함께
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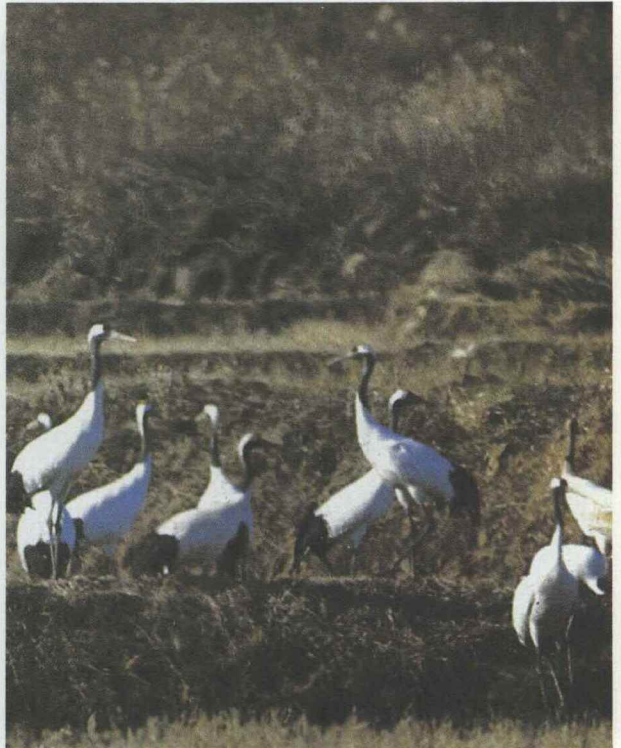
(휘 장)



(꽃)장 미



(나무)목 백 합



(새)두 루 미

光州直轄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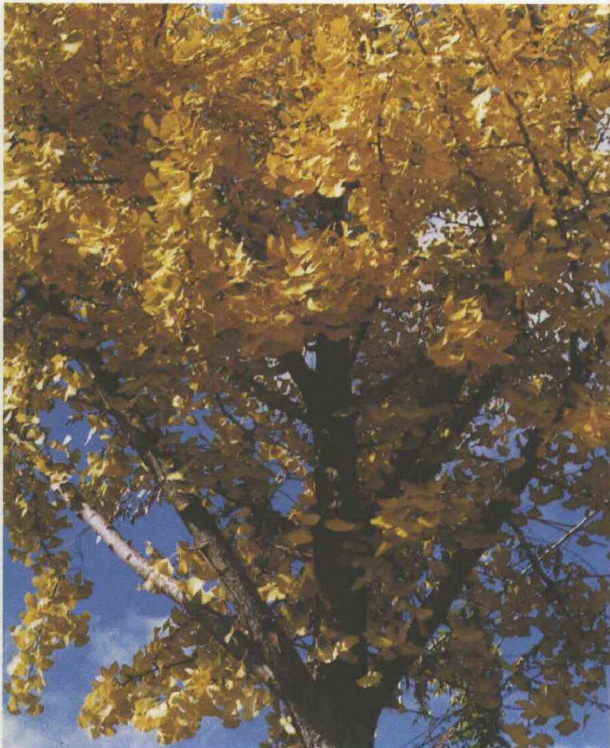


- 전체도안은 광주의 빛(광)을 상징함
- 록색 외부의 원은 강화 단결을 상징하며 원 하부의 산은 호남의 웅도 광주 무등산을 상징함
- 주홍색의 햇불은 청사에 빛날 광주학생독립 운동을 상징함
- 레몬 황색의 도안은 근대 도시로서의 약진을 상징하고 명랑하고 살기 좋은, 인심좋은 광주를 상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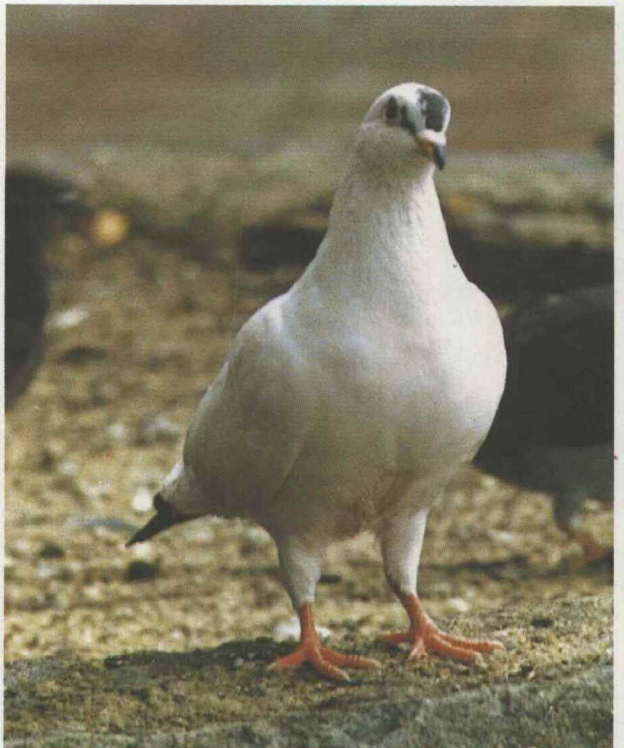
(휘 장)



(꽃)철 쪽



(나무)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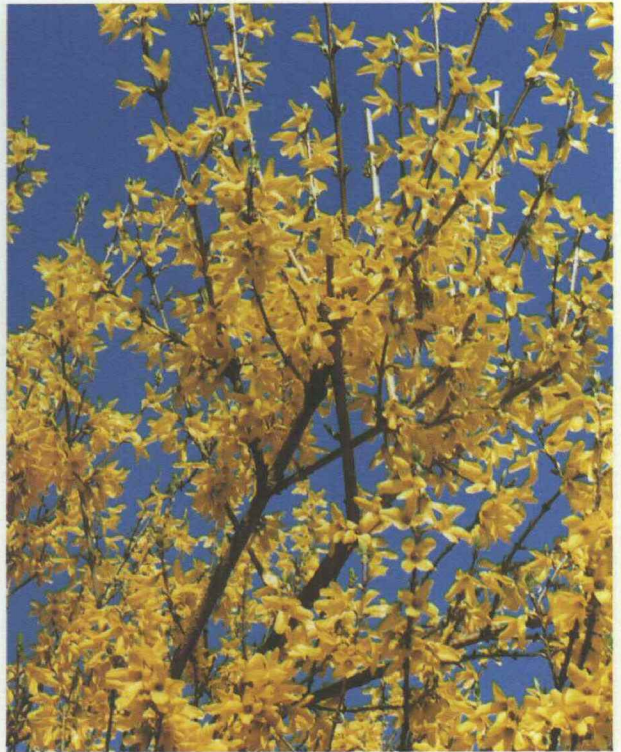
(새)비 둘 기

京畿道



- 중심원은 근원을 뜻하며 문화적 지역적 중심지인 한국속에 경기를 뜻함
- 외곽원은 단결, 조화 균형속에 경기를 뜻함
- 외곽원을 안고 뻗어나간 3각은 자조, 자립, 협동을 기반으로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뜻함

(휘 장)



(꽃)개 나 리



(나무)은행나무



(새)비 둘 기

江 原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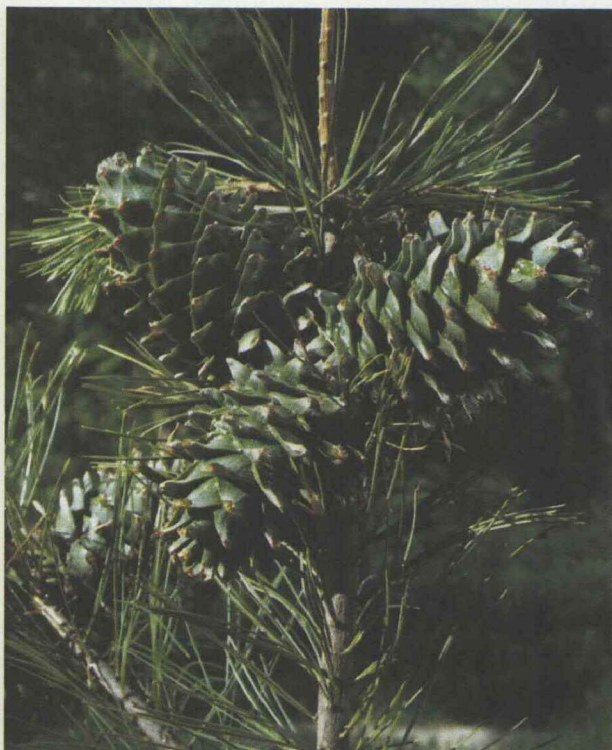


- 흰색은 순박성과 신성·소박을, 푸른색은 유구평정의
도민성과 동해의 푸른물결을 뜻함
- ☼ 는 밝아오는 동해의 새아침과 미래의 강원도 의미
- m 는 산악과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뜻함

(휘 강)



(꽃)철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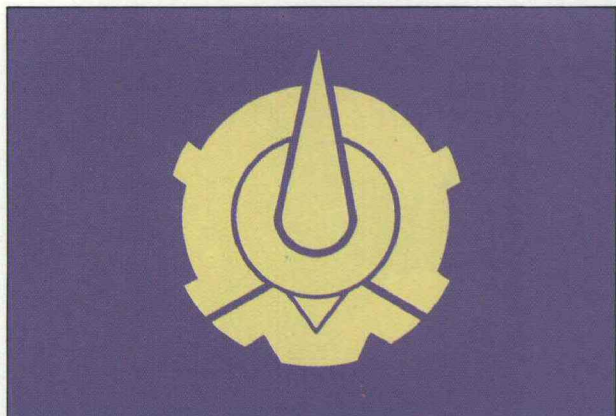


(나무)잣 나 무



(새)빼 꼭 새

忠 清 北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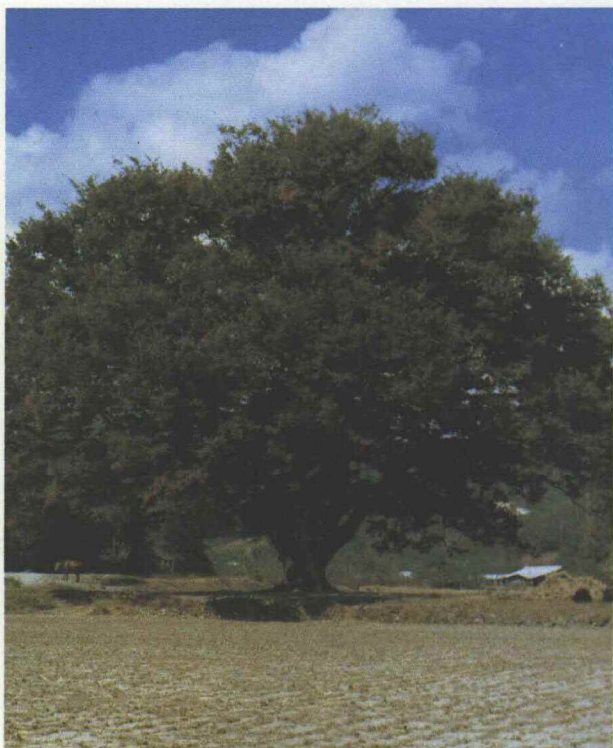


-  는 忠을,  는 北을 표시
- 금색은 평화와 번영, 신념을 표상
- 보라색은 수려한 강산에 온후한 인심으로 찬란하게
떨어나가는 충북도의 기상
- 마크 전체의 모양은 농업기반위에 공업화된 충북의
약진상

(휘 장)



(꽃)백 목 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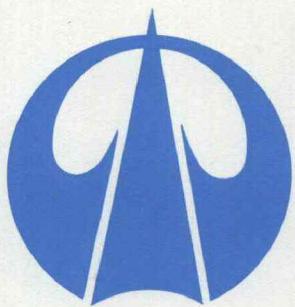


(나무)느티나무



(새)까 치

忠 清 南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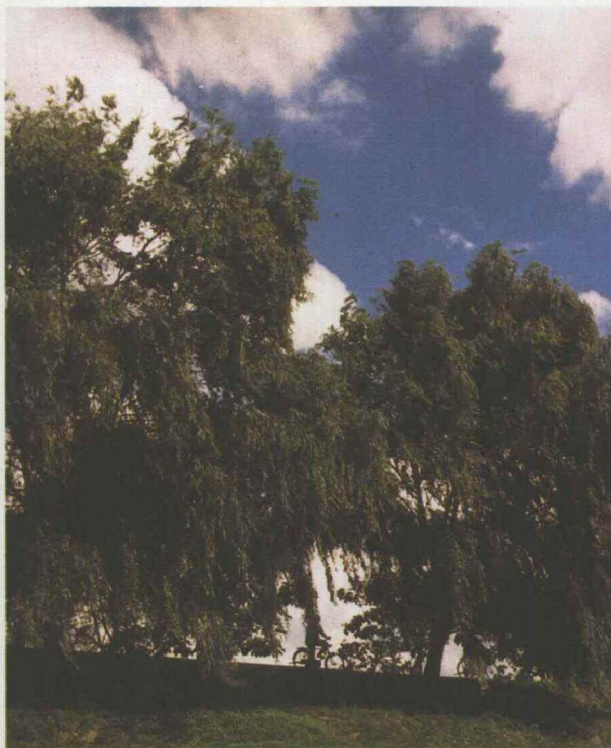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첫음 “ㄷ”자를 나르는 새 모양으로
구성하여 의욕적인 재건의 모습과 경제개방의 힘찬
진군을 상징함

(휘 장)



(꽃)국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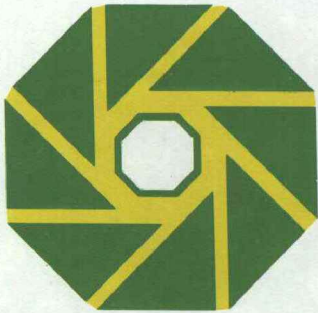


(나무)능수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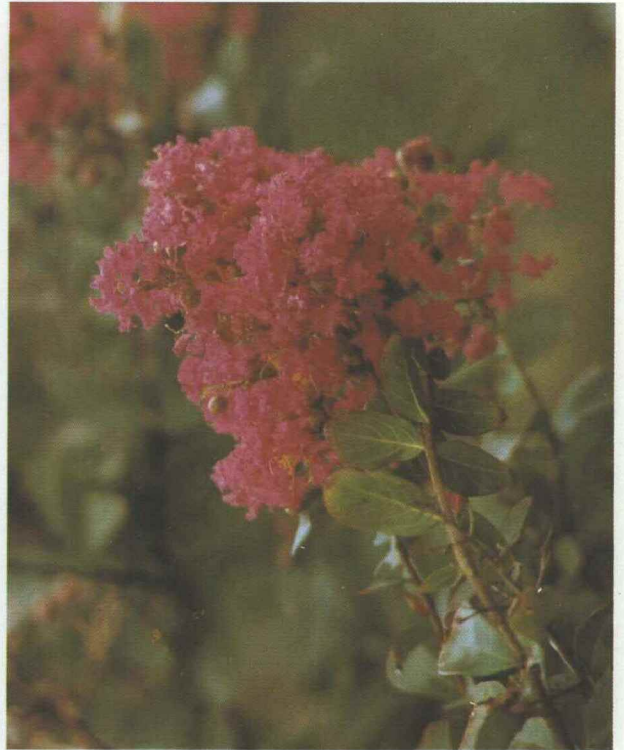
(새)원 앙 새 (ㄱ)

全羅北道



- 전체적으로 동적이며,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도민의 기상을 표현
- 농도의 주요생산품인, 벼, 보리를 평면화하여 중앙의 황색은 이삭을, 황색선은 이삭의 까락, 녹색 삼각형은 곡식의 잎사귀를 표현하여, 풍요한 농도를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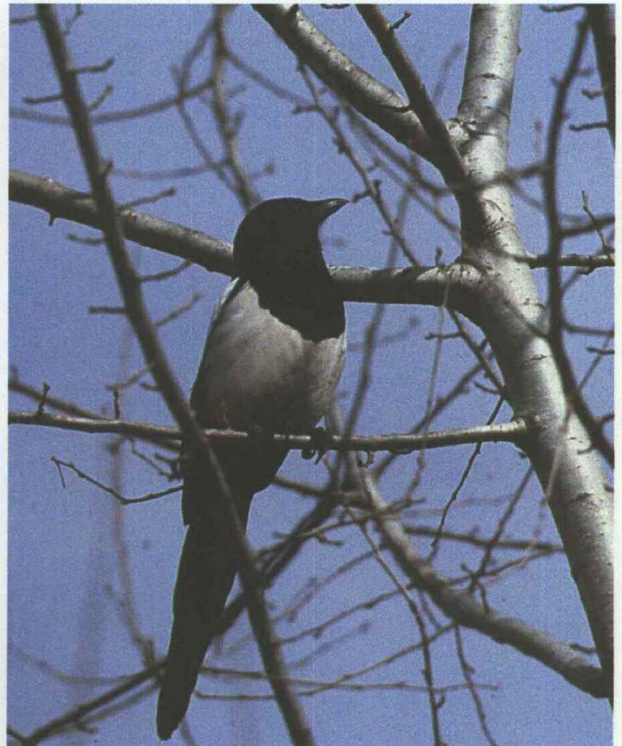
(휘 장)



(꽃)백 일 홍 (목 백일홍)



(나무)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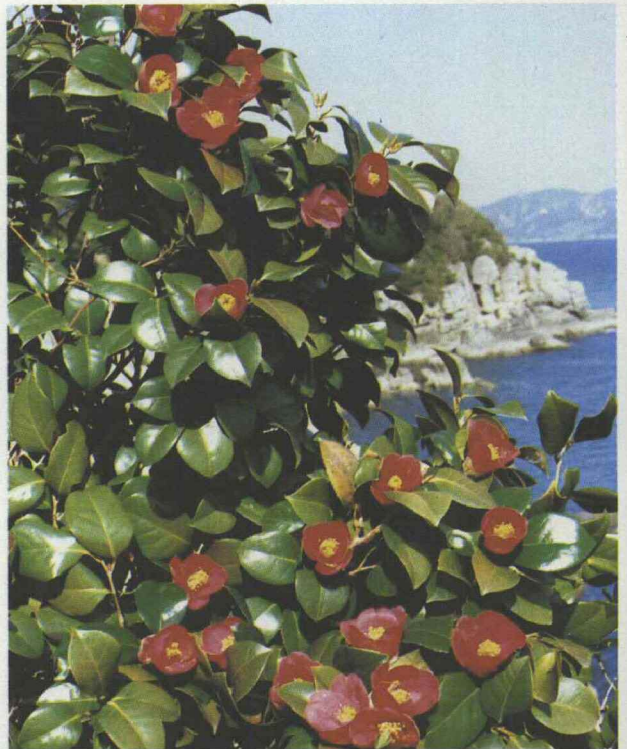
(새)까 치

全羅南道



- 황색 : 곡창지대, 청색 : 바다
- 벼의 잎 : 市, 벼의 알 : 郡, 고기 : 수산물
- 벼와 고기의 丹型 : 도민성의 원만함을 상징
- ㄸ : 전남의 “ㅈ”과 공업화를 의미
- ㅍ : 전남의 “ㄴ”과 선박의 닻으로서 해운발전을 표징

(휘 장)



(꽃)동 백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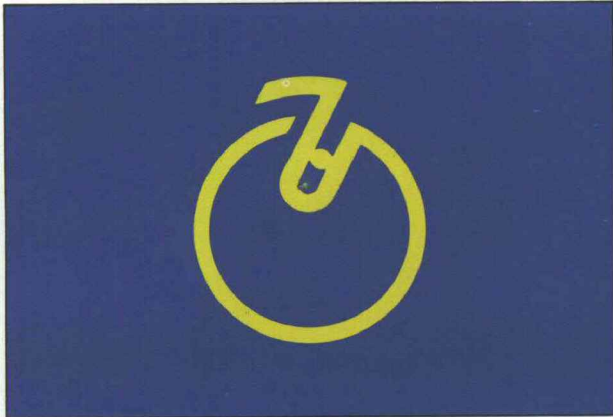


(나무)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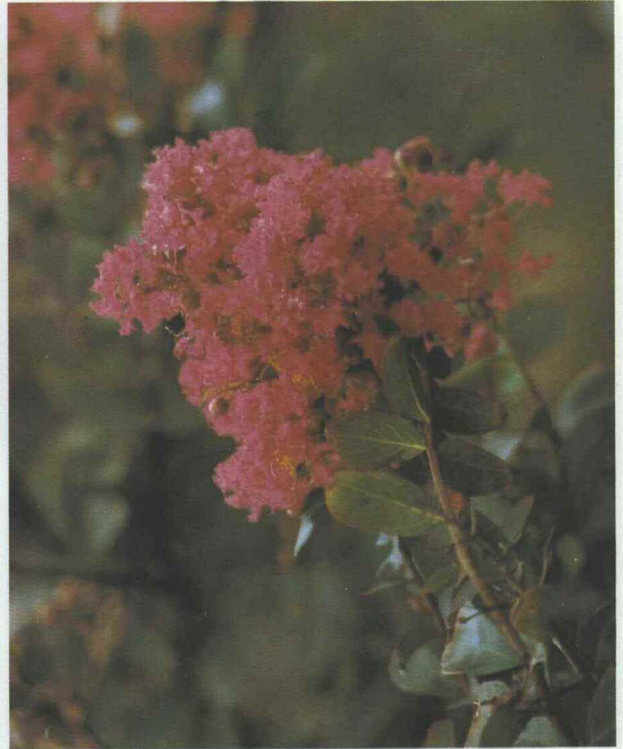
(새) 산비둘기 (뿔비둘기)

慶尙北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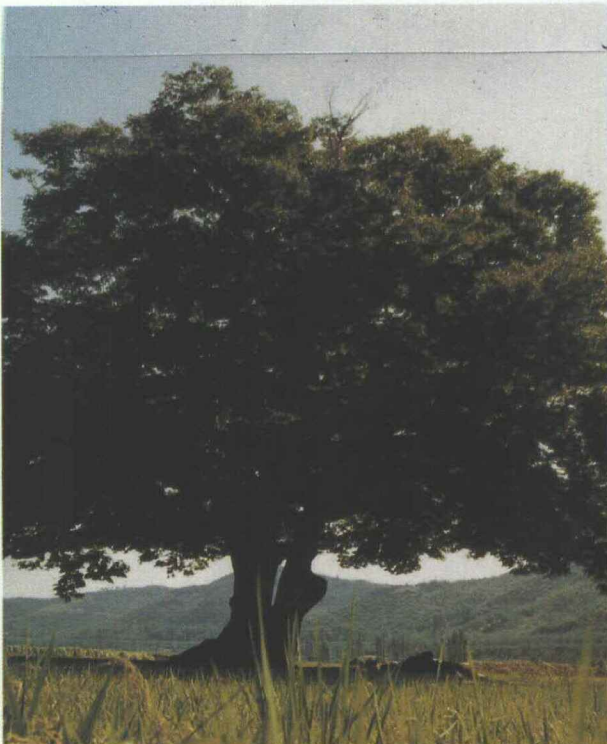


○全體의 모양이 앞을 向해 前進하는 자세로서 의욕과 進就的인 氣像을 나타내고 있으며 道民의 協同團結과 圓만한 性品, 그리고 本道의 特産物인 사과를 象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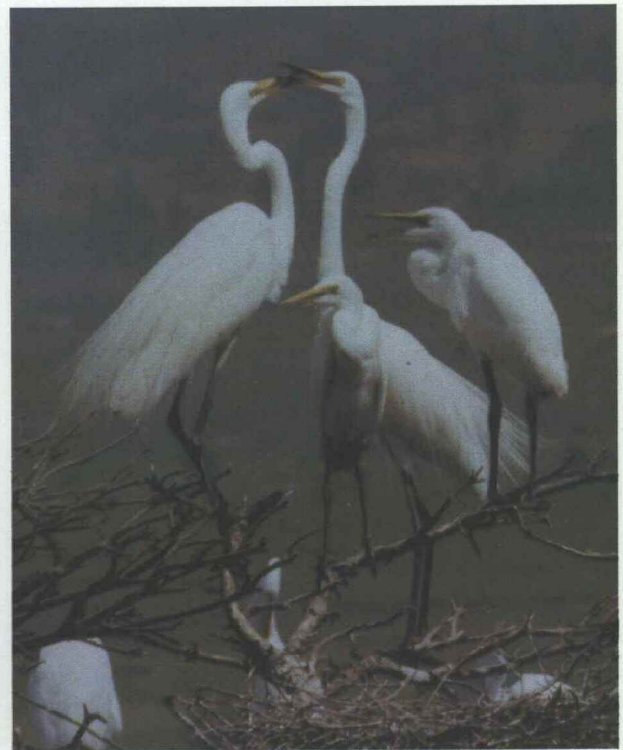
(휘 장)



(꽃)백 일 홍 (목 백일홍)



(나무)느티나무



(새)왜 가 리

慶尙南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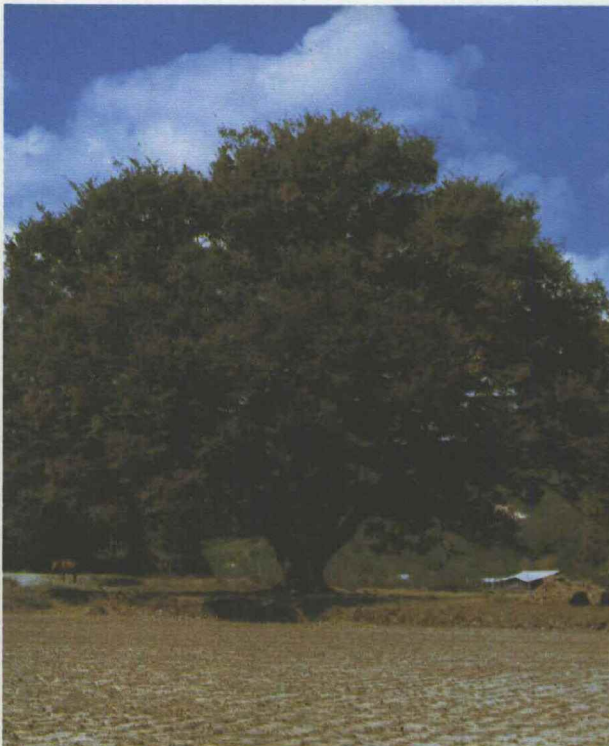


- ㄱ ㄴ 은 경남을 뜻함
- 청색은 도민의 하늘처럼 높고 푸른 기상을 상징
- 황색은 광명과 희망에 찬 풍요한 대지와 발전에의 최우수성인 단합상징

(휘 장)



(꽃) 장 미



(나무)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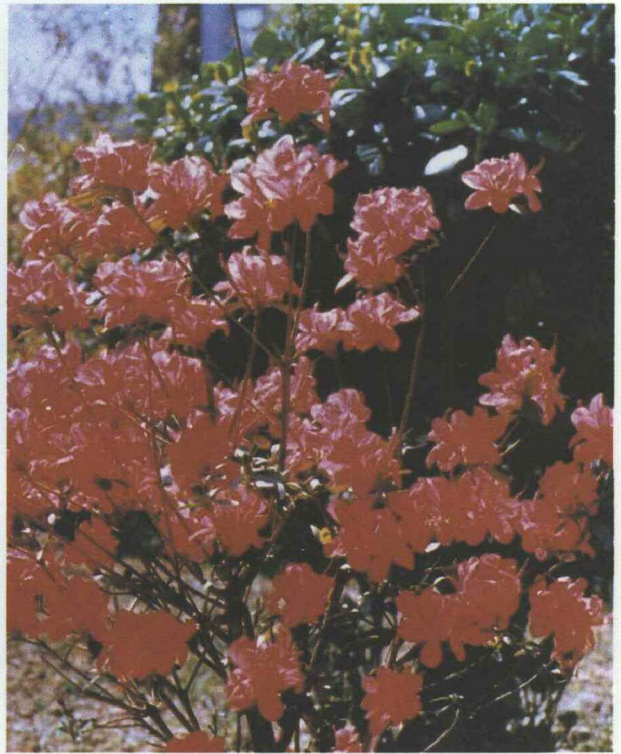


(새) 백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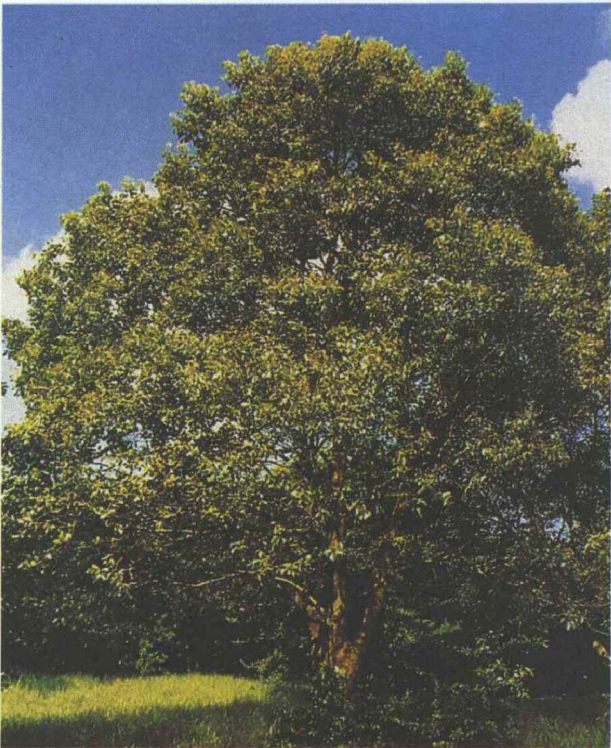
濟 州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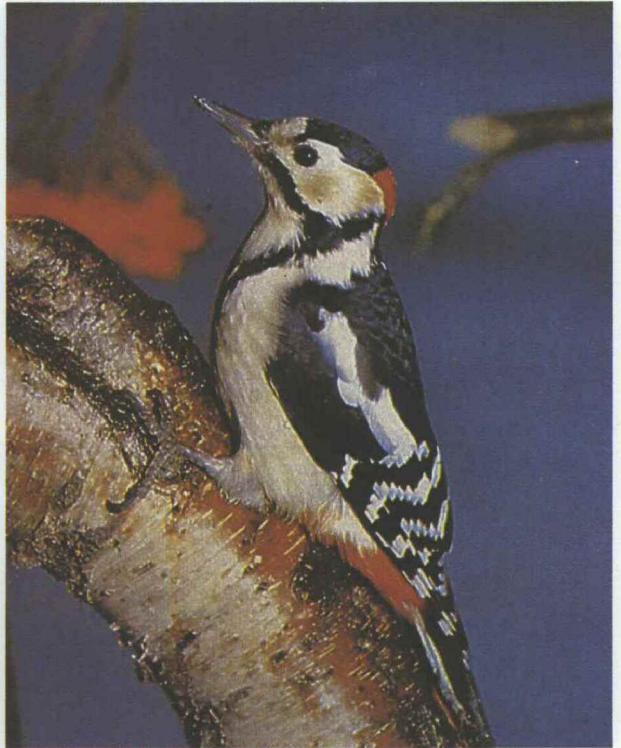
(휘 장)



(꽃)영 산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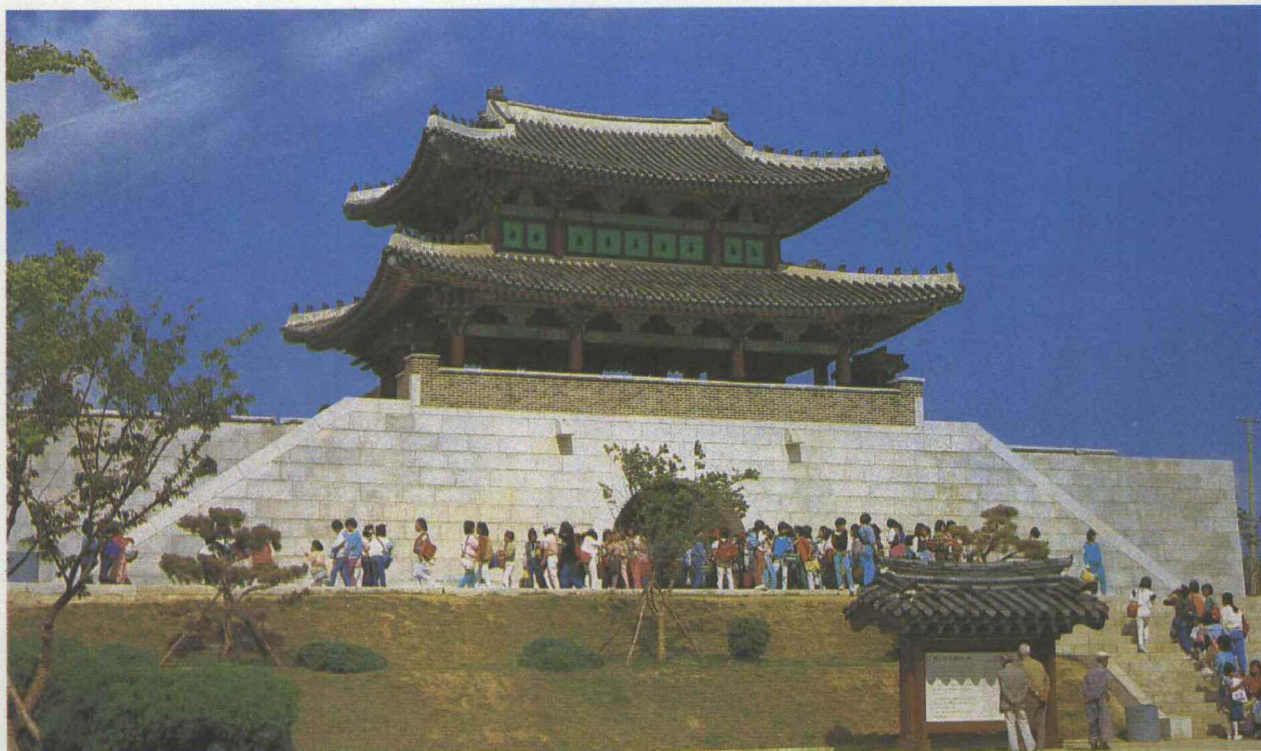
(나무)녹 나 무



(새)큰오색딱다구리



부산직할시(오륙도)



대구직할시(영남제일관)



인천직할시(인천상륙작전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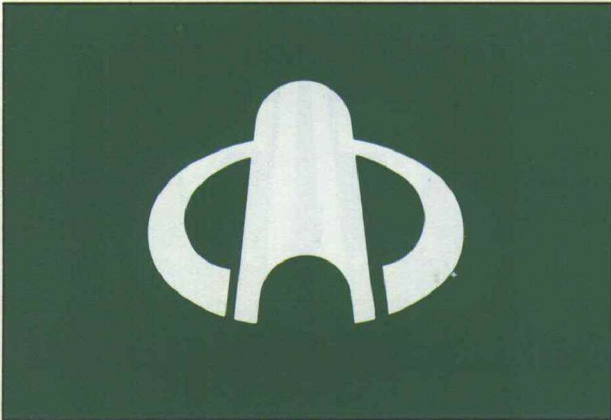
광주직할시(무등산)

市郡의 徽章

- * 凡例 ① 市郡 指定 꽃
② 市郡 指定 나무
③ 市郡 指定 새

京畿道

水原市



○수원의 휘장은 “수” 및 “水”자의 모양과도 같아 수원시가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함을 상징하고 성곽 좌우로 뻗어나간 사통팔달하는 교통 중심지로서 중요한 임무를 다하는 위용을 상징하고 있음

① 철쭉 ② 은행나무 ③ 미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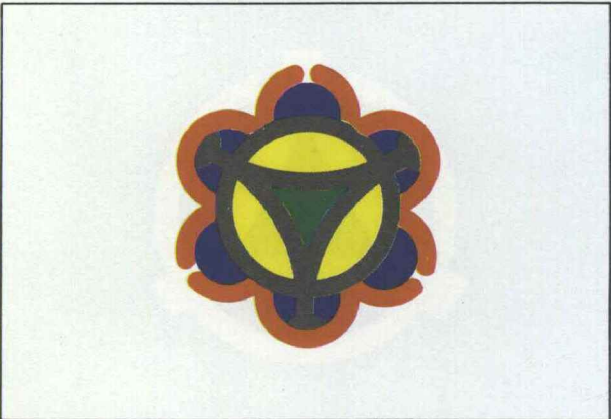
城南市



○우뚝 솟은 남한산,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는 창의, 개척, 성장을 상징한 것이며 이는 또한 내일의 풍요로운 복지도시건설을 위한 시민의 영원한 총화단결을 뜻함

① 철쭉 ② 은행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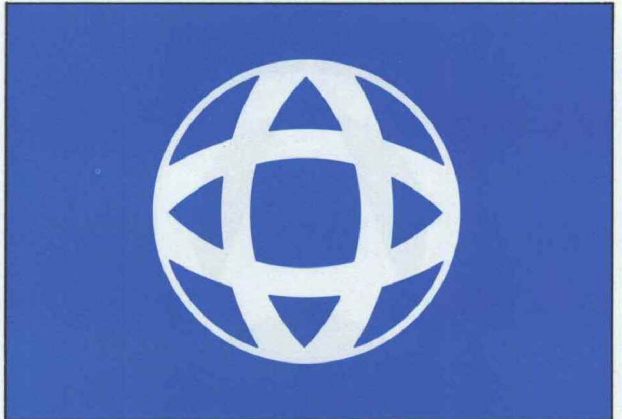
議政府市



○주황색 : 본시의 무궁한 발전을 뜻하며 본색부분은 이조 3대 태종시 정사를 논하던 대신들의 관모양으로서 본시의 유래
○황 색 : 달걀의 노른자 모양으로서 알찬 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등으로 중요한 지역임을 표시하며 전시민의 단합을 상징
○청 색 : 도시환경의 청아함을 상징

① 철쭉 ② 잣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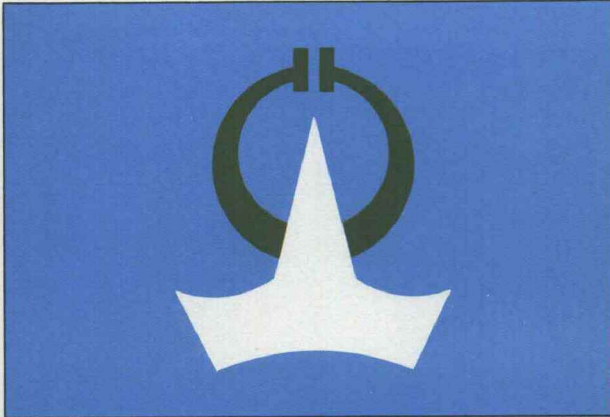
安養市



○백의민족의 순결과 시민 생활의 안정 단결 번영
○사방으로 뻗어가는 희망찬 발전문화교류 현대화를 상징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독수리

富 川 市



○고유한 시민정신과 끝없는 도약을 상징하고 파란 하늘빛의 자유와 평화를 나타냄

① 복사꽃 ② 은행나무 ③ 미지정

光 明 市



○전진하는 광명시 상징
○시민화합과 발전추구
○푸른의지와 진취적 기상

① 장미 ② 은행나무 ③ 까치

松 炭 市



○원안의 삼각형은 “송”자의 “人”을 상징하며, 전진 발전의 무궁함을 상징
○원은 단결과 화합을 뜻함.
○전체의 형태는 “송”자의 이미지와 영광의 관을 상징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東 豆 川 市



○진취적인 기상, 무한히 뻗어가는 시민의 기상을 의미하며 한국전 당시 참전하였던 우방국의 탑신을 표시
○단합된 시민, 포용력 있는 시민을 상징
○수도권 1일 관광지이며 동두천의 대명사이기도 한 소요산을 의미

① 장미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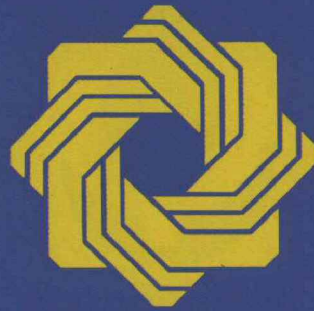
安山市



○핵을 중심으로 공업, 상업, 교육, 문화, 주거생활이
고루 이루어져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상징함

① 장미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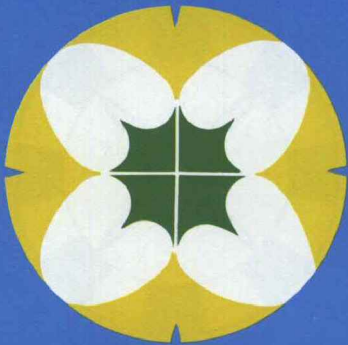
果川市



○과천은 전원, 문화행정의 도시로 삼위일체가 되어
영원무궁토록 발전해가는 과천시를 상징하며
과천시민의 높은 이상과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고
있음

① 철쭉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九里市



○화합으로 무궁히 뻗어가는 구리 시민의 발전상을 뜻함

① 철쭉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平澤市



○평택시 상징의 비둘기(평화와 사랑)를 중심으로
전시민이 협동단결하여 6개동이 함께 결속을 다지며
조용하고 깨끗한 전원도시로서의 애향심 상징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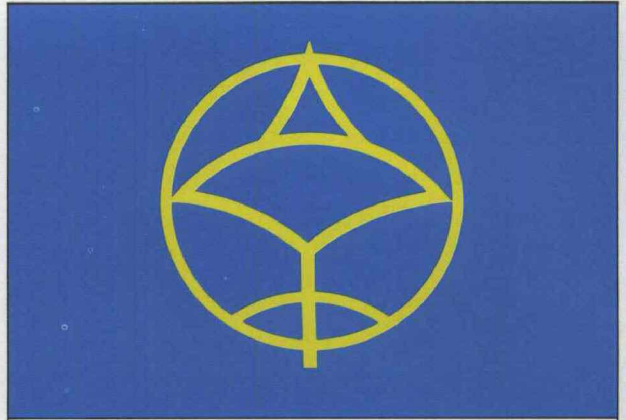
楊 州 郡



- 노란색의 중앙원과 외곽원은 영문 Y, J자로 양주를 표시하고
- 밤색 검은원은 특산물인 밤을 표시하였으며 수도권인접군으로 전군민이 단합 발전하자는 뜻
- 밤색 반달형은 풍요한 생활로 대양주 건설과 다같이 보호하고 가꾸자는 뜻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까치

南 楊 州 郡



- 南 : 남양주군을 뜻함
- O : 군민의 단결을 뜻함
- △ : 슬기로운 군민의 기상과 용기를 뜻함
- Y : 경춘 경강국도 및 남북한강의 합류점으로 산업과 교통의 요충지를 뜻함
- 8개공간은 8개읍면을 뜻함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크낙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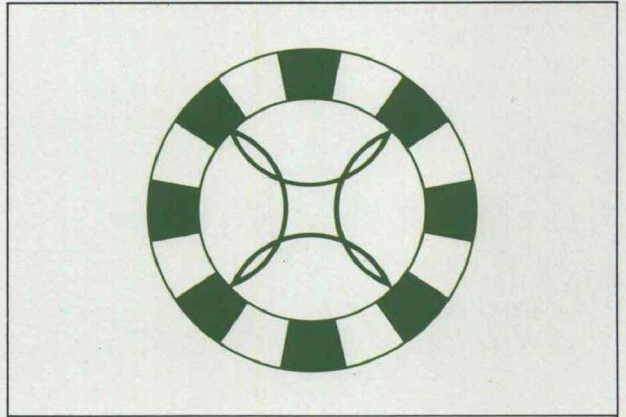
驪 州 郡



- 미곡의 주산지이며 민족문화유산의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관광군으로,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이념으로 관과 민이 굳게 뭉쳐 끝없이 발전하는 희망에 찬 대약진의 여주를 상징함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백로

平 澤 郡



- 중앙 표자는 평택을 뜻하고 군민의 단결을 뜻하며, 증산, 수출, 건설, 국토방위 4가지를 뜻함
- 톱니바퀴 8개는 읍면을 뜻함. 읍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톱니바퀴원형 : 대한민국을 뜻함, 한국속의 평택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까치

華 城 郡



○“ㅎ”으로 「화」자를 도식하고 “ㅅ”과 “ㅇ”로 「성」자를
도시 화성을 표하고 있음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始 興 郡



○[시]자와 [興]자의 형태로서 융성발전하는
안정성있는 시흥군의 미래상과 단결, 협동하는
정신을 나타내고 있음
○원형은 우주 섭리속에서 절대로 국민에게
봉사기여하는 뜻을 나타냈고 중앙선은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국도임

① 진달래 ② 느티나무 ③ 종달새

坡 州 郡



○중심부를 뻗어나간 삼각은 파주의 중심부를 통과한
통일로를 상징하며, 또한 통일을 뜻함
○외곽원에서 뻗어나간 두개의 삼각은 자조자립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파주를 뜻함

① 코스모스 ② 은행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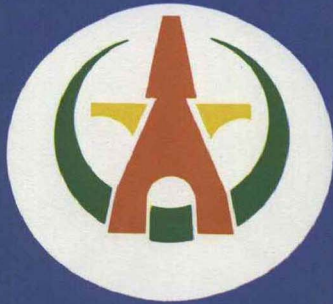
高 陽 郡



○윗부분 녹색은 북한산성을, 7개 돌출부분은
7개읍면을, 가운데 탑은 행주대첩비로서 자랑스런
조상을 모시고 있으며 푸른 바탕은 한강을 끼고 있는
곡창지대로 번영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음

① 장미 ② 향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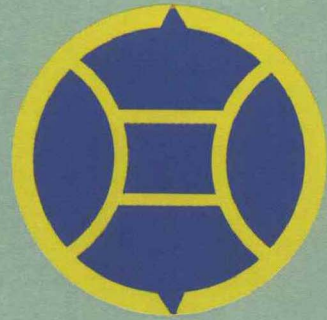
廣州 郡



○광주군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성문을 중심으로
관과 민이 새마을운동의 자조, 자립, 협동의 테두리
안에서 대광주의 앞차고 새로운 전진을 계속함을
상징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제비

漣 川 郡



○ ⊕ “연”자를 표시한 것임
○ ∪ “V”자는 승리를 상징함
○ ㄱ 계단으로 전진과 향상을 뜻함
○ ○ 황금색원형은 성실 원만을 뜻함

① 개나리 ② 대추나무 ③ 비둘기

抱 川 郡



○청색 바탕은 희망을 상징하며, 녹색바탕은 산지가
많은 입지조건에서 산지 개발과 농업을 위주로하여
무궁한 번영을 누리는 우리군의 기상을 뜻함
○중앙의 황금색 휘장은 포천의 첫 “포”자로서 원내의
두개의 종선은 우리군의 힘찬 신장을 뜻한 것이고
원형은 융성발전하는 진취적인 기상을 표상하였음

① 개나리 ② 잣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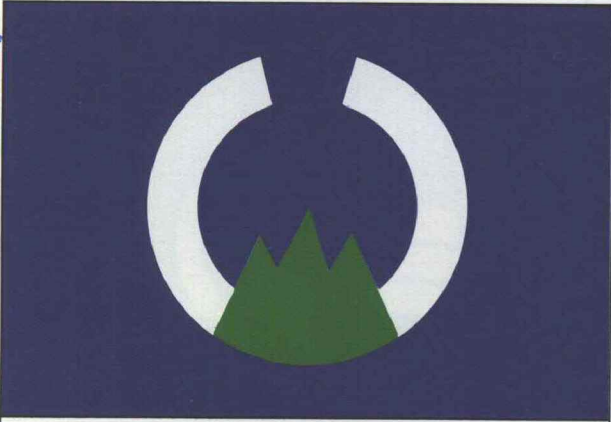
加 平 郡



○ ㄱ ㅍ은 “가” “교”를 뜻하며 ㅅ은 여를, ㅅ은 “오”의
변형으로 가평의 특산물인 밤을 상징하며 “오”를 나
타낸 것으로서 가평군을 뜻한 것임

① 개나리 ② 잣나무 ③ 꿩

楊 平 郡



- 은 색 :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되어 흐르고 있다는 양평군의 지역적특성을 도시함
- 진녹색 : 웅대한 용문산의 모습처럼 무궁한 발전과 창조의 정신을 뜻함

① 개나리 ② 잣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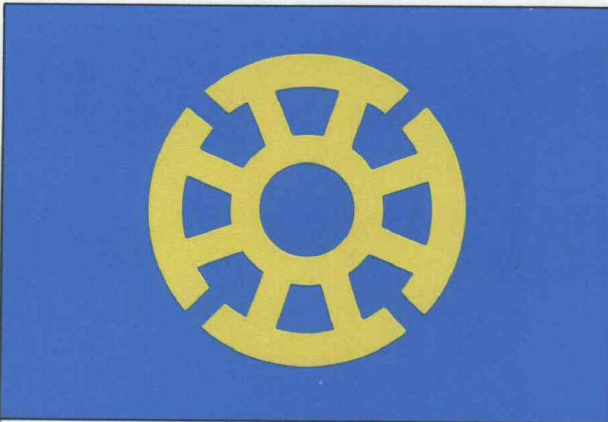
利 川 郡



- 내부원은 문화적, 지역적으로 전국의 중심지인 이천군을 뜻하며
- 내부의 “三”자는 “川”를 뜻하며 一자 하나 하나가 자조, 자립, 협동으로 힘차고 줄기차게 전진하는 군민정신을 뜻함

① 진달래 ② 소나무 ③ 까치

龍 仁 郡



- 중심원은 경부고속도로 및 영동선이 관통하는 관문으로 인터체인지를 상징하며 힘찬 용인의 기상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군민의 단합을 상징함
- 용인의 용자를 나타냈고 순국열사 이한웅, 충정공 민영환, 포은 정몽주선생의 묘가 있음을 나타냈고 그 정신이 깃들어 살아온 군민의 기풍을 상징함

① 철쭉 ② 전나무 ③ 꿩

安 城 郡



- ◎은 안자의 〇(이응)을 표상하고 원(圓)을 의미하는 끝없는 단결과 ▲는 성자의 “人”(시웃)을 나타냄
- 자조자립과 무한히 뻗어나가는 발전을 상징
- 바탕색은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나타냄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까치

金 浦 郡



- 벼이삭과 벼이삭 밀었은 김포군의 주곡인 벼를 뜻하며, “자조”“자립”“협동”으로 증산을 이룩한 농촌의 부유함을 만방에 자랑함
- 가운데 선은 희망과 발전 건설을 뜻하며 경지정리된 논과 국토를 상징함

① 개나리 ② 느티나무 ③ 까치

江 華 郡



- 황색, 적색 : 성화로서 개국의 성역임을 나타내며 뿔뿔 타오르는 햇불과 같은 강화군민상 상징
- 청색 :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도서를 상징
- ☪ : 江자를 나타내는 것임
- 三 : 임진, 예성, 한강의 즐거운 물줄기를 상징하며 끊임없는 부지런한 강화군민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뜻함

① 백일홍 ② 감나무 ③ 종달새

甕 津 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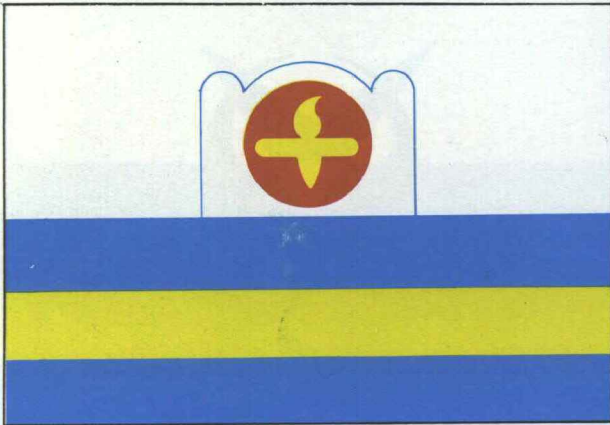


- 웅진군의 두음자인 웅자의 열서체로 형을 이루고 있음
- 2자와 6자의 결합으로 8자를 구성하였으니 백령, 송림 2개면과 영종, 북도, 용유, 덕적, 영흥, 대부 6개면의 통합으로 8개면을 상징함(현재 10개면)
- 녹색은 성장과 무성을 상징함

① 해당화 ② 해송 ③ 갈매기

江 原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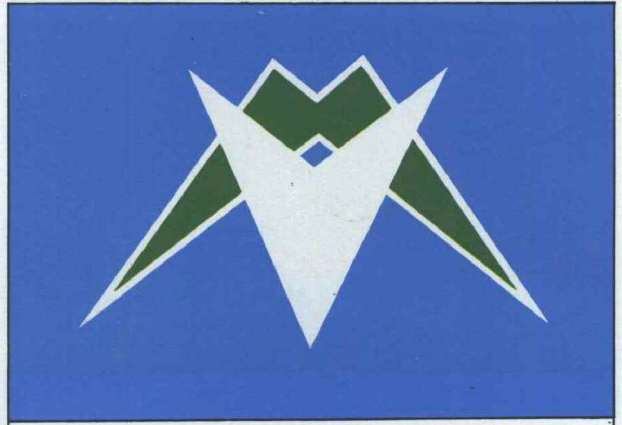
春 川 市



- 흰색은 백의의 민족혼과 시민의 순결성
- 푸른산은 봉의산의 푸른정기로 무궁한 발전
- 붉은원은 전체시민의 단결과 정열적인 생활의욕
- 푸른산은 소양강을 말하며 유구한 지역사 상징
- 노란선은 바다가 아니고 소양강임을 재강조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산까치

原 州 市



- 하늘색바탕은 시민의 포부와 희망의지를 표시
- 녹색 M은 치악의 웅장함과 기상을 받아 젊음의 발랄함과 자연의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이 진취적 기상 표시
- V는 시민의 결백, 친절성의 표시이며 승리상징

① 장미 ② 은행나무 ③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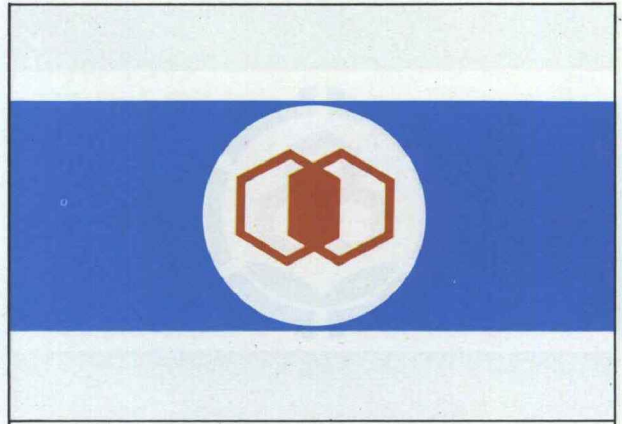
江 陵 市



- 상단의 하늘색은 천혜의 관광풍치를 표현
- 백색은 영동지방의 심장부인 강릉을 상징
- 하단의 청색은 동해의 푸른꿈을 싣고 시민의 의지와 진취적 기반을 나타냄
- 중심부의 원형은 동해에 솟는 태양을 상징
- 원내의 오죽 세잎은 울곡선생의 유지를 상징

① 백일홍 (목 백일홍) ② 소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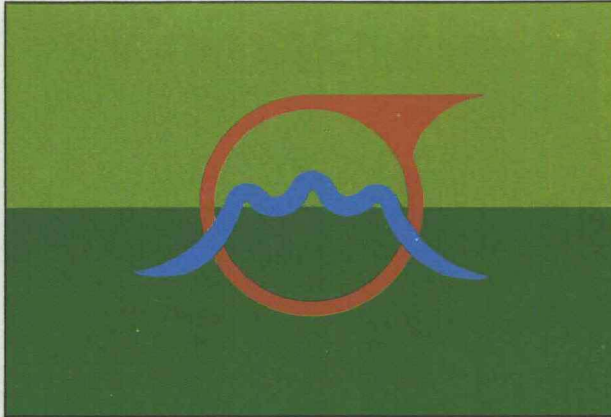
東 海 市



- 青色과 白色은 東海의 푸른 바다와 市民의 깨끗한 마음을 象徵
- { 東海의 水産資源 太白山의 地下資源 및 臨海工業團地 協同과 團結로 郷土建設의 發展
- 가운데 원은 東海의 希望찬 해와 달을 象徵

① 매화 ② 은행나무 ③ 갈매기

太 白 市



- 상단의 연두색은 크고 밝은 태백의 미래상
- 하단의 녹색은 안정과 평화를 표현
- 등근원은 시의 주자원인 석탄광 갱구를 의미
- 불꽃은 영원한 발전을 표시
- 산표시는 태백산 및 무궁한 개발의지를 표현

① 산목련 ② 주목 ③ 산까치

東 草 市



- 흰색은 결백하고 소박한 유구평정의 시민성
- 는 향도의 무궁한 발전과 수자원 개발의 어항을 의미
- V는 선체의 선단과 수자원개발의 진취성을
- 山자로는 설악산을 국제관광도시로 개발

① 월계화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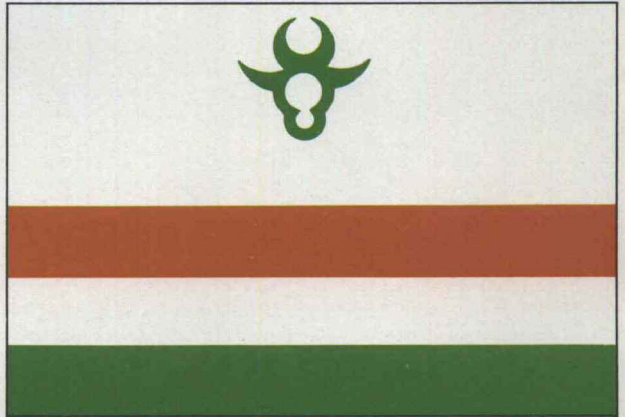
三 陟 市



- 원은 화합과 단결을
- 6개의 통로는 6개동의 무궁한 발전과 개척정신
- 대나무잎은 죽서루와 강직한 시민정신
- 육각형 3개는 삼척시를, 별집은 근면 성실 풍요로움과 자원의 보고를 뜻함

① 국화 ② 향나무 ③ 갈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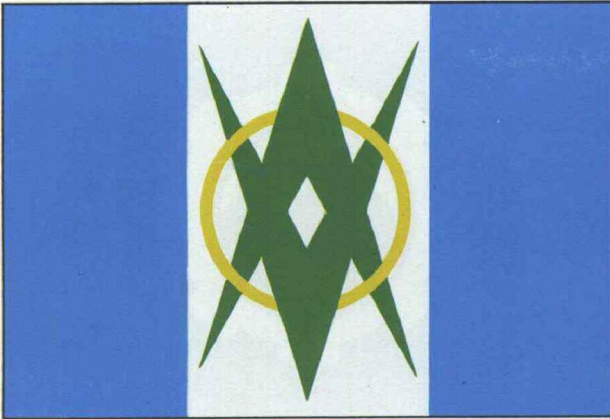
春 城 郡



- 흰색은 백의 민족의 민족혼과 순결성을 상징
- 군지의 형이 소머리와 비슷하여 표시
- 큰원과 작은 원이 한데뭉쳐 군민의 평등과 단합을 상징
- 적색은 군민의 정열과 건설의 원동력인 電源상징
- 녹색은 농업군으로 식량의 풍족함과 증산의육상징

① 철쭉 ② 대추나무 ③ 청둥오리

洪 川 郡



- 청색은 군민의 참신한 기풍과 농사에 천혜적인 화양강을
- 백색은 군민의 결백과 소박한 성품을 표시
이상 세 부분은 홍천의 “川”자로도 표시함
- ××는 석화, 공작, 오음 세산을 표시하며 V는
군민의 희망과 진취적 생활의욕을
- 원중심의 ◇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 황색원은 군민의 단결과 노력으로 무궁한 군발전에
기여함을 뜻함

① 진달래 ② 잣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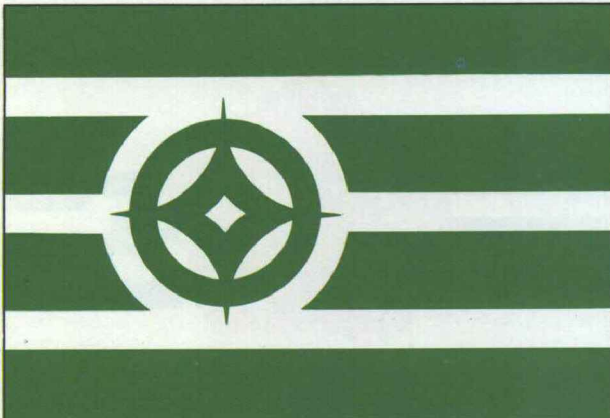
橫 城 郡



- 상부의 백색은 평화와 순결을 상징함
- 하부의 하늘색은 섬강을 뜻하며 군민의 밝은 정기를
상징함
- 중앙부의 3각 녹색 산모양은 덕고산을 의미하며
군민의 장엄한 굳은 의지를 상징함
- 중앙부의 황색 반달형은 옥토와 맑은 자원을 뜻함
- 중앙부의 녹색 반달형은 옥토로부터 성장과 자원의
개발을 뜻함

① 작약 ② 느티나무 ③ 백로

原 城 郡



- 백색은 순결성을 지닌 아름다운 군민의 마음
- 녹색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옥돌을 말하며
- 마크의 원형은 단결을, 외부로 도출된 4단은 인, 의,
예, 지를 가르킴
- 4선은 평행된 발전을 상징

① 도라지 ② 느티나무 ③ 꿩

寧 越 郡



- 청색바탕은 순수한 군민성과 무궁한 번영상징
- 백색원형은 군민의 단결을 표시
- 다이아몬드(◇)는 보물을 표시한 것으로 무궁무진한
지하자원과 고색이 짙은 각종 고적을
- W 자는 전력과 의욕적인 증산 건설 발전 상징

① 철쭉 ② 대추나무 ③ 두견새

平昌郡



- 흰색은 순결한 군민의 기상표시로 쭈자를 뜻함
- 녹색은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무궁발전 할 수 있는 바탕을 상징하는 동시 昌자를 뜻함
- 농작물의 잎은 8개면을, 줄기는 성장으로 특산물인 고냉지작물로 무한히 뻗어감을 상징
- 붉은원은 정열로 단결하여 무궁한 발전을 표현

① 살구꽃 ② 전나무 ③ 까치

旌善郡



- 공장의 기아형은 9개읍면과 정선아리랑을 상징하는 물레방아를 뜻하며
- 형은 무한대와 군민의 대동단합을 의미
- ♣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 많은 산을 표시하고 발전을 기약하는 뜻임

① 철쭉 ② 잣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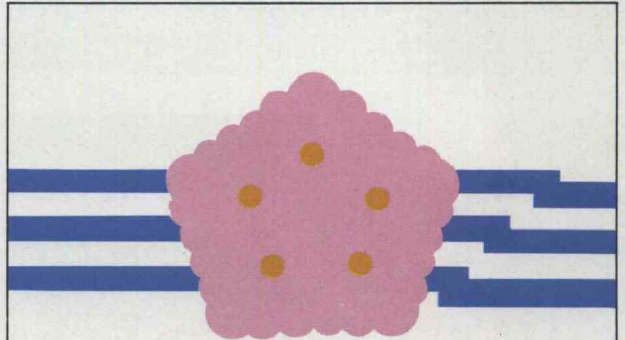
鐵原郡



- 녹지는 쌀의 주산지임을 상징
- 大원은 고려때 鐵員이라고 일컬음에 그원을 상징
- 小원은 궁예왕의 도읍지인 월경리를 뜻하는 달과 우물의 표상이고 타원은 곡창지대를 상징
- 삼각화살은 6·25전쟁지인 철의삼각지대를 상기
- 백록은 부강한 철원을 이룩하여 무한한 의지상징

① 개나리 ② 잣나무 ③ 두루미

華川郡



- 무궁화는 국가민족의 찬란한 역사전통에 대한 자랑, 조국에 대한 열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하는 군을 건설하려는 군민의 결의와 생명력을
- 세줄기강물은 군의 중앙부를 흐르는 북한강을 뜻하며, 푸르고 활기 넘치는 세화천 건설의 부강한 미래를 상징

① 진달래 ② 층층나무 ③ 피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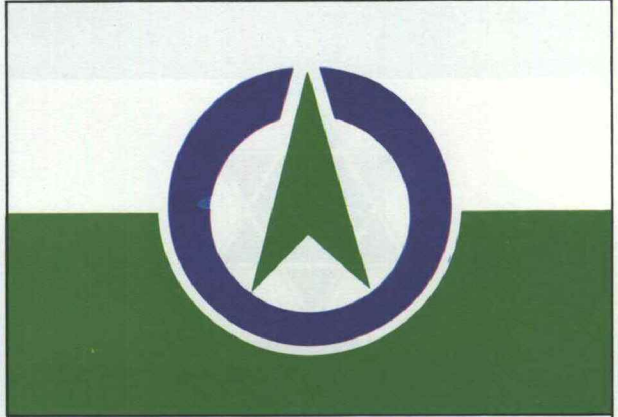
楊 口 郡



- 은 달, ▼은 별을 뜻하며 별을 보고 일터에 나가 달을 등지고 돌아오는 근면성실한 군민 상징
- ▼은 양구군의 명칭 첫머리자 버들양자인 버들잎을 뜻하며 건실한 새싹이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자람
- 세모형은 군관민을 의미, ●은 온 협력을, 상단 ㄴ과 하반부 ㄷ은 음과양으로 태극을 뜻하며 일치단결 매진함

① 살구꽃 ② 주목 ③ 피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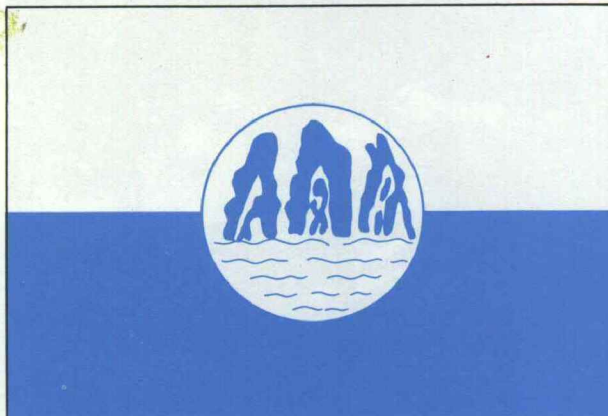
麟 蹄 郡



- 흰판은 순박 청렴 결백한 군민성을 표시
- 녹색판은 무진장의 자원과 생동하는 증산의욕
- 군민이 뭉쳐 힘을 낚는 단결
- ▲ 설악산의 정기를 탄 군민은 뭉쳐진 힘을 바탕으로 발전과 전진을 향한 의욕적 상징

① 철쭉 ② 주목 ③ 백비둘기

高 城 郡



- 상단의 흰색은 군민의 순박성을 표시하고
- 하단의 청색은 동해의 청담한 물결을 상징하며
- 중앙원내는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으로서 군민의 드높은 의지와 긍지를 상징함

① 해당화 ② 은행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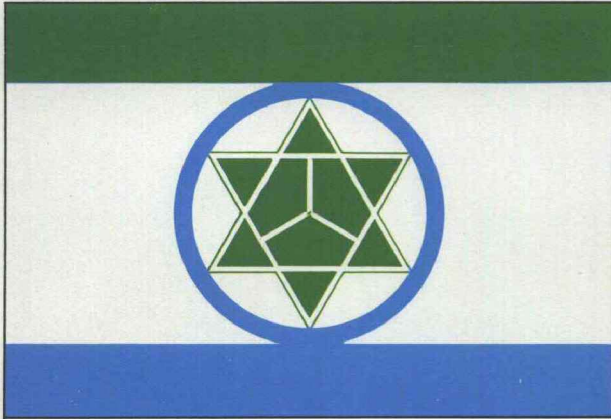
襄 陽 郡



- 적색의 원은 동해의 찬란한 얼과 정의의 약진표시
- 양쪽의 녹색 6개 선은 농업위주인 6개면을 나타냄
- 중앙의 삼각산은 관광군임을 나타냄
- 양양의 양자를 볼 때 원이 두개이고 선이 3선이기에 외의 적색원 중앙의 청색원을 두개의 원으로 생각하여 원 두개와 한쪽의 3선을 합하여 양자로 표시

① 황매화 ② 은행나무 ③ 까치

溟州郡



- 청색은 동해의 무진장한 수자원
- 백색은 순결하고 진실한 군민의 심성과 지형
- 녹색은 젊음과 활기와 승리
- 중간원은 군민의 단결이고 육각형은 수를 ㉞는 산을 표시

① 매화 ② 적송 ③ 크낙새

三陟郡



- 청색은 수자원의 보고인 동해바다를 뜻함
- 녹색은 지하자원 및 농업을 바탕으로 한 육지를
- 덧잎 7개는 7개면과 관동팔경인 죽서루를 상징
- 동근원은 군민의 단결과 무궁한 발전을
- 원내 톱니바퀴는 공도 삼척의 상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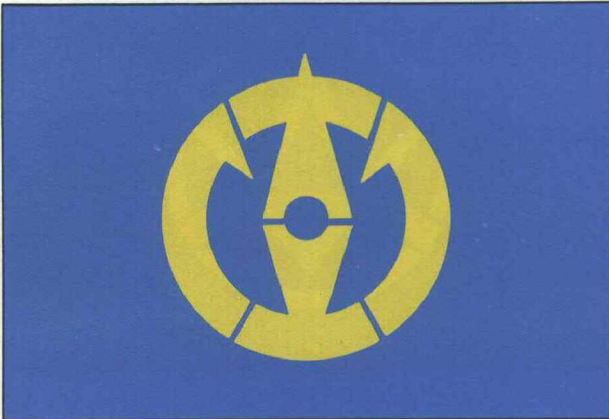
① 철쭉 ② 석류나무 ③ 갈매기



강원도(반달곰)

忠 清 北 道

清 州 市



- 하늘색은 웅대한 스케일을, 황금색은 으뜸과 영광을 뜻함
- “청”자의 “ㅈ”은 약진하는 청주를
- 가운데 ㅈ는 펜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육도시를, 펜가운데 ○은 행정교육의 중심지를 표현

① 백목련 ② 느티나무 ③ 까치

忠 州 市



- 자색은 고상, 고귀, 우아, 수려한 감정의 색채로서 충주시의 우아한 발전상의 상징
- 충주시의 자음만을 딴 ㅈㅈㅈ의 종합 상징체
- ♣ 3개의 결속체는 충주의 3대 특산물(고추, 사과, 연초)의 상징이며 앞으로 더욱 비약적인 발전상의 표현

① 코스모스 ② 은행나무 ③ 까치

堤 川 市



- “ㅈ”은 “제”자의 ㅈ을 川은 제천시의 “川”을 의미
- 짙은 청색은 굳건한 제천시민의 기상 상징
- 흰색은 원만하고 화목하여 평화를 이루려는 것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清 原 郡



- ㅈ은 “ㅈ”을, ○은 ○과 단결을 뜻하며 人은 도약발전을 상징
- 청색은 희망을 상징하며 황금색은 평화와 부강을 뜻함

① 백목련 ② 느티나무 ③ 까치

報 恩 郡



-  은 11개 읍면의 단합을 상징하며
-  은 보은의 “보”자를 나타냄
- 청남색은 활기와 약동을 상징하며 황금색은 평화를 상징

① 개나리 ② 대추나무 ③ 까치

沃 川 郡



-  은 “오”을,  은 “川”이고  은 “一”자를 뜻함
- 청색은 비옥한 자연풍토를
- 백색은 순결성과 대동단결한 해심을
- 황색은 희망찬 복지군 건설의 결실을 뜻함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永 同 郡



-  은 “영”자  을,  은 “동”자  을, 구부러진 것은 정체하지 않고 약동하는 것을 뜻함
- 녹색은 무궁한 발전과 평화를 상징
- 백색은 영광을 뜻함

① 진달래 ② 감나무 ③ 비둘기

鎭 川 郡



-  은 진천의 머리글자로  을 상징
-  은 火,  은 山으로 진천 봉화산을 뜻하며
-  부분이 필봉을 뜻하며 진천의 약진을 의미

① 장미 ② 은행나무 ③ 까치

槐山郡



- ①은 “괴”자로 원형은 우주전체를 황금색은 영광과 긍지를 뜻함
- ②은 “山”자로, △형은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군민상을
- 초록색은 풍요와 번영의 뜻으로 알찬 영광의 괴산을 뜻함

① 미선나무꽃 ② 느티나무 ③ 까치

陰城郡



- ①은 9개 읍면을 상징, 보리이삭의 황금색으로 농업군을 표현
- ②은 “—”자로 보리잎을 표현
- ③은 “口”자로 안정기반 위에 총화단결하는 군민상 상징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까치

中原郡



- ①은 대한의 중앙을, ②은 비약 약진을 상징하며 중원의 동근원자 표시
- ③은 녹색은 비옥한 풍토와 무궁한 발전을
- 황색은 숭고한 빛을 발산하는 광채로 희망과 발전을 상징

① 진달래 ② 은행나무 ③ 까치

堤原郡



- ①은 제원군의 “ㄸ”을 ○은 “원”을 ②은 용이 활발하게 생동하는 것을 상징
- 초록은 평화를 노랑색 원은 번영을 상징

① 진달래 ② 잣나무 ③ 산비둘기

丹 陽 郡



-  와  을 합쳐 “丹”자를 표시,  은 도담삼봉을
 은 초생달이 도담삼봉을 감싸주어 미묘한 관광자
 원을 내포
- 녹색은 군민의 평화스럽고 흐뭇한 희망을 상징
 황색은 황금같은 지하자원 표시

① 철쭉 ② 주목 ③ 까치



충청북도(법주사)

忠 清 南 道

大 田 市



- △ 도시 발전의 기본이 되는 교통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을 표시
- 大 대전의 “大”자
- 田 대전의 “田”자 및 도시의 안전과 정연한 도시의 표시
- 군관민의 삼위일체의 뜻으로 단결을 표시

① 백목련 ② 백합나무 ③ 까치

天 安 市



- 大: 대도시에의
- : 평화적
- △: 항상발전
- ▽: 삼거리
- : 천안시 일원을 뜻하며
- △: 외부로 선양을 뜻함

① 개나리 ② 능수버들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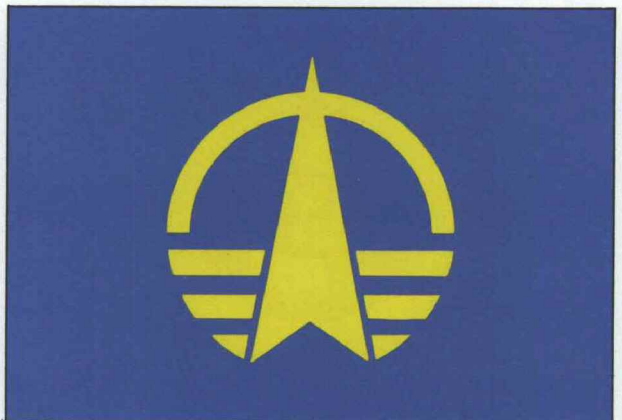
公 州 市



- △: 공주의 공자로 공주시를 상징
- △: 위로 뻗어 올라 굳건한 기상과 무궁한 항상발전을 뜻함
- △: 백제의 고도를 상징함
- : 지구를 뜻하는 동시에 협동단결과 영원한 발전을 뜻함

① 개나리 ② 느티나무 ③ 까치

大 川 市



- ↑: 大川의 “大”字를 표시 뻗어나는 발전상을 상징함
- ≡≡: 大川의 “川”字를 표시 바다물결을 표현함

① 해당화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溫 陽 市



○  온양의 한글 “온”자를 뜻하며 또한 온천수의 표시인
 卍을 상징하기도 함
 3온의 원형은 온양시민의 원만한 성품과 화합및
 단결을 의미함

① 목련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錦 山 郡



○  금산군의 첫 글자인 “금”자를 뜻함

① 백일홍 (목 백일홍) ② 은행나무 ③ 까치

大 德 郡



○  은 대덕의 “대”자의 ㄷ과 “덕”자의 ㄷ을 뒤집은
 것이며 두개의 ㄷ자가 한데 뭉쳐 대덕군을 뜻하고
 군민의 총화된 모습을 상징
 ○  은 총화된 군민을 평화롭게 감싸주고 보호함을
 상징하며 동부의 경부 고속도로와 서부의 호남
 고속도로도 뜻함 뽕죽한 화살끝은 알차게
 발전하여 가는 대덕군의 기상임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까치

燕 岐 郡



○ 가운데의 제비모양은 연기군의 “연”자로 제비를
 상징함
 ○  7개 읍면을 나타내고 단합과 원만을 상징
 ○  연기군의 특산물 복숭아잎을 나타냄
 ○  “비우”의 뜻으로 전진

① 복사꽃 ② 향나무 ③ 제비

公 州 郡



-  飛翔
郡勢
-  鷄龍山
-  公州의 公字
-  11個 面の 團結

① 개나리 ② 느티나무 ③ 까치

論 山 郡



-  3邑 12面을 象徵
-  쌀 主産地 表示.

① 개나리 ② 느티나무 ③ 까치

扶 餘 郡



-  국보 제 9 호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나타내어
백제의 고도임을 상징
-  보리와 벼 표시로서 평야지대의 곡창임을 상징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까치

舒 川 郡



-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꽃으로 대한민국 내의 1개
행정구역임을 표시하고
- 무궁화 꽃안의 13개 톱니바퀴수는 13읍면을 표시하며
질서있고 지속적인 회전이 생명인 톱니바퀴는 모든
군민의 조화있는 일체감을 나타냄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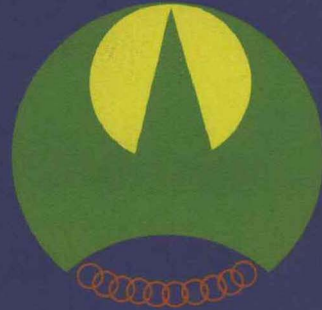
保寧郡



-  : 보령군의 “보”의 첫음 “ㅂ”자형으로서 승리와 환희를 뜻함
- ○ : 결실과 원만을 표상
-  : “보”자를 이루기 위하여 “ㅡ”자가 원을 형성함으로서 즉, 군민의 단결을 뜻함

① 동백 ② 느티나무 ③ 까치

靑陽郡



-  : 청양군의 첫소리인 “ㅈ”을 뜻하며 칠갑산을 의미
-  : 10개 읍면 10만 인구를 뜻함
- ○ : 전체 원의 형태는 단결(단합, 협동)을 뜻함

① 진달래 ② 느티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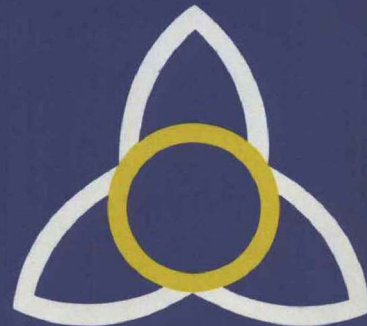
洪城郡



- 영원한 발전과 단결 건설을 상징한 것임
-  형은 비약적인 발전과 번영을 나타냄
-  형은 일치단결을 뜻하는 동시에 옛 부터 성을 뜻했음

① 개나리 ② 느티나무 ③ 까치

禮山郡



- ○ : “예”자의 첫음 ㅕ과 사과상징
-  : “산”자의 첫음 ㅅ과 사과와 상징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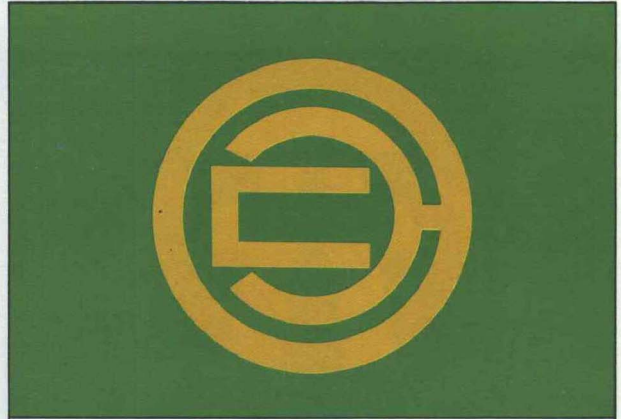
瑞 山 郡



- 삼각은 삼개군이 접(홍성, 당진, 예산)
- 3개의 산업도로(당진, 태안, 홍성)
- 3개의 개발권(북부해안, 남부해안, 대륙권)
- 3면이 바다임을 의미
- 양편 월계수의 18개 잎은 전국 제 1의 웅군으로 전진하는 서산군의 단합된 18개 읍면을 표현함 (잎 18개)

① 국화 ② 동백나무 ③ 갈매기

唐 津 郡



- ㉺ 당진군의 첫글자인 “당”자를 뜻함

① 개나리 ② 백합나무 ③ 학

牙 山 郡



- ㉺ 아산의 “아”字로 아산군을 象徵
- A 아산의 “산”字로 아산군을 象徵

① 장미 ② 은행나무 ③ 까치

天 原 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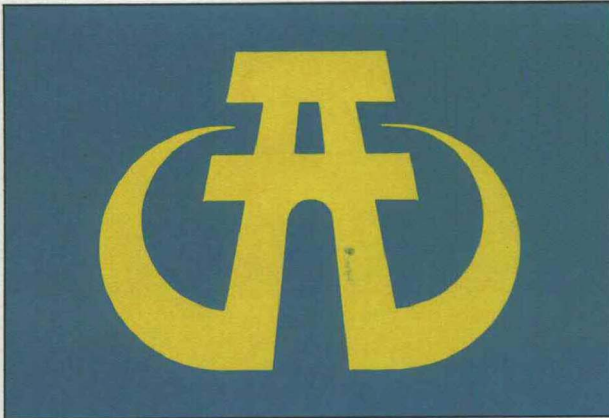


- ㉺ 천원군의 첫음(天)과 (元)으로서 天~元+人……천 원~원
- ㉺ 낙농의 표시 소 또는 소뿔을 나타낸 것
- ㉺ 유관순을 비롯한 독립열사들이 기미독립운동때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부르는 모습
- ㉺ ㉺ 군의 특산물 호도, 배, 밤을 뜻함

① 장미 ② 호두나무 ③ 까치

全羅北道

全州市



- 바탕의 청록색은 청신하고 발랄한 진취의 기상을 나타내며
- 중앙의 금색으로 표시된 것은 호남 제일성이라 일컫는 풍남문으로서
- 현대감각을 살린 고층건물, 공장 탑 등으로 상징화 하여 고전문화도시, 생산도시등을 표시함
- 또한 끝없이 뻗어나간 타원형의 성곽은 무궁한 발전을 뜻하는 것임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까치

群山市



- 1959. 10 당시의 개항 60주년을 맞이하여 군산시를 상징할 휘장을 제정하였음
- 영구 불변토록 웅비적 발전향상을 상징하는 초록색의 바탕에 휘장도표의 외곽 3개자형의 백색선은 “군”자로 표현하고 중앙의 산형 백색은 “산”자를 표현하여 “군산”을 표현한 것임

① 동백 ② 동백나무 ③ 까치

裡里市



- 본바탕의 백색은 시민의 순결과 평화를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 전통인 백의민족을 상징함
-  부분의 특색은 발전을 상징하고 삼등분된 외원
- 은 우리시를 둘러싼 삼남평야를 표시함
- 삼각형체(△)는 시의 표시이며 외부곡선은 녹색, 그 내부는 황색임으로 황금같이 빛나는 이리를 중심으로 각 방면으로 뻗어가는 교통 중심지를 표시하고 이리시 도시확장도 삼각형체로 진출하자는 것이며, 아울러 외원밖으로 돌출된 3개의 끝은 무한한 전진을 뜻함

① 백목련 ② 히말라야 시다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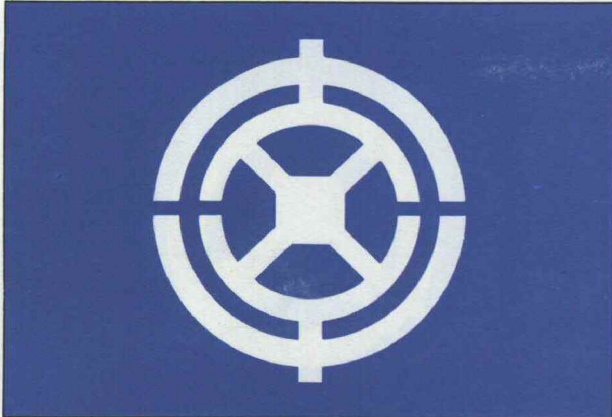
井州市



- 청록색은 물이 많은 정주시를 상징하며 또한 정주시민의 정의로운 기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노랑색과 깨끗한 정주시를 흰색으로 표현 했음
- 노랑색 : 광명, 희망, 발랄
- 청록색 : 물, 평화, 영원
- 백 색 : 청결, 순박

① 백목련 ② 단풍나무 ③ 비둘기

南 原 市



- 남원의 “남”자를 원형으로 변형시켜 시민의 화합·단결 표시. 4통8달의 가로망을 연결 새시대에 탄생하는 새 도시의 무궁한 발전 표상
- 문화 예술의 전통을 원내 4개의 부채형으로 표시함 겨례의 맥박에 유구히 흐르는 충·효·의·열 상징
- 좌우에 관통선을 두어 영호남을 연결하는 88고속도로를 나타냄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임을 과시
- 바탕색의 청색은 참신하고 발랄한 진취의 기상을 뜻하며, 문형의 백색은 백의민족의 얼을 승화시켜 이 고장을 지켜온 만인의 애국충절 상징

① 국화 ② 은행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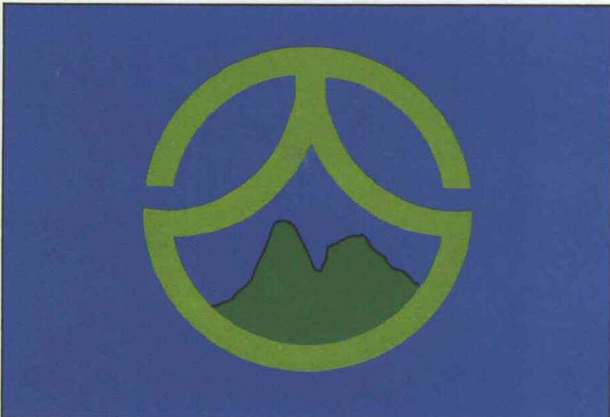
完 州 郡



-  완주군의 머리글자
- 자주색 바탕: 적극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군민상
- : 풍요하고 인심좋은 고장
- : 발전과 무궁한 가능성
- : 단합 및 특산물인 생강의 상징

① 철쭉 ② 느티나무 ③ 까치

鎭 安 郡



- 화합과 안정속에서 복된 내일의 희망과 꿈을 전군민에게 고루나누며 동·서·남·북으로 무한히 발전하는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약진하는 진안군을 상징

① 철쭉 ② 전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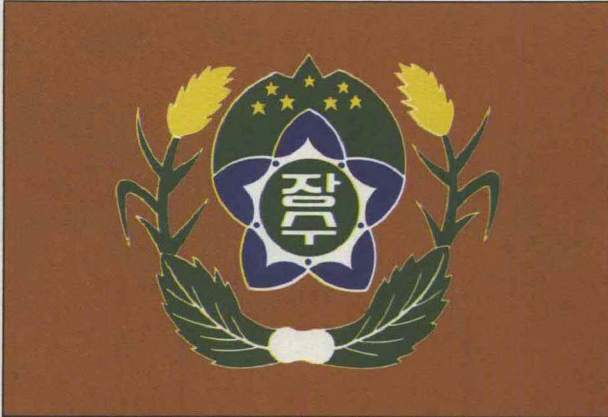
茂 朱 郡



- : 무주군의 영원무궁함과 군민의 근면하고 소박함을 표현
- : 농공병진을 통한 지역발전 표현
- : 군민의 단합과 소득원 개발표현

① 철쭉 ② 주목 ③ 꿩꼬리

長 水 郡



- 산간부 부군으로 발전을 상징하고 7개읍면을 표시
- 벼와 보리로 주산물 표시
- 누에고추와 담배로 특산물 표시

① 철쭉 ② 은행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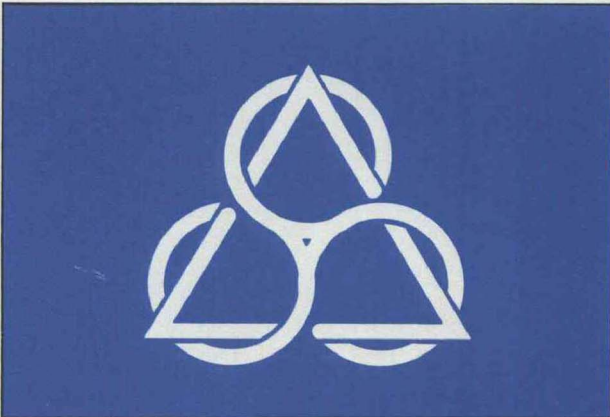
任 實 郡



- 은 임실의 첫글자 ○을 표기하였으며, 悠久圓滿의 군민성을 뜻함
- ▲ 은 임실의 첫글자 人을 表記하였으며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의미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왜가리

南 原 郡



- 바탕의 청색은 지리산의 웅장한 자태와 깨끗한 굳은 정절을 나타내며 남원군의 영원한 발전을 뜻함
- 원형은 백색으로 평화와 고결하며 단합된 군민의 순결함과 소박함을 상징함

① 철쭉 ② 전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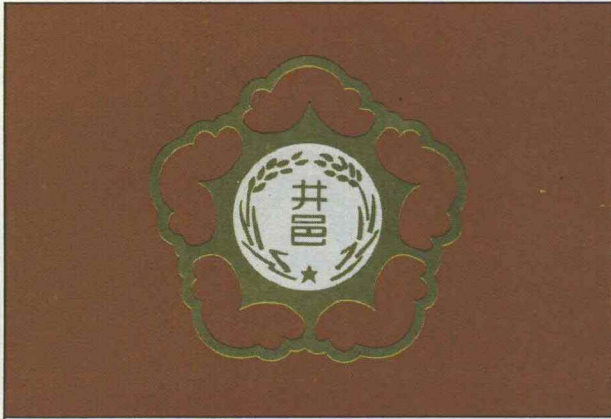
淳 昌 郡



- 중앙과 번두리의 황색표시는 순창군의 머리글자이고 황금같이 빛나는 순창을 표현
- 본바탕의 남색은 순창군민의 무한한 희망
- 녹색의 산은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록을 표시하며 순창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나타냄
- 중앙의 백색지도는 순창군의 지도를 표시하며 순박하고 평화스러운 군민상을,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 전통인 백의민족을 상징함

① 백일홍(목 백일홍) ② 느티나무 ③ 까치

井 邑 郡



- 바탕 : 정결, 이지적 군민상징
- 벼잎과 낱알 : 호남곡창지대인 평야와 읍면을 상징
- 단풍잎 : 관광정읍 상징

① 백일홍 (목 백일홍) ② 느티나무 ③ 파랑새

高 敞 郡



- 전체적 깃발의 초록색은 풍성한 푸른들을 상징하였으며,
- 노랑색의 톱니바퀴 무늬는 영속 발전의 표시이며 모향성과 14개 읍면을 나타냈고
- 월계잎은 15만 고창군민을 표시하였으며
- 흰색의 손 무늬는 백의민족을 상징하고 협동의 표시임

① 동백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扶 安 郡



- 바다 진청색—변산주위의 바다
- 중앙의 원호(윗부분)—협동
- 중앙의 원호(아래)—변산

① 철쭉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金 堤 郡



- 삼각형은 야산개발과 근대화 상징
- 벼이삭은 17개 읍·면 상징
- 내부의 백색형체는 잠업상징
- 휘장내 파란색은 광활한 김제푸른들 상징

① 백일홍 (목 백일홍) ② 느티나무 ③ 두견새

沃溝郡



- 녹색은 호남곡창지대 상징
- ○ 형은 굳게 뭉친 군민을 뜻함
- ▲ 형은 본군의 상징인 오성산과
- ㄱ 형은 농기구를 나타냈으며
- ㄴ 형은 선박을 뜻하고
- 위형태를 합해 “옥구”라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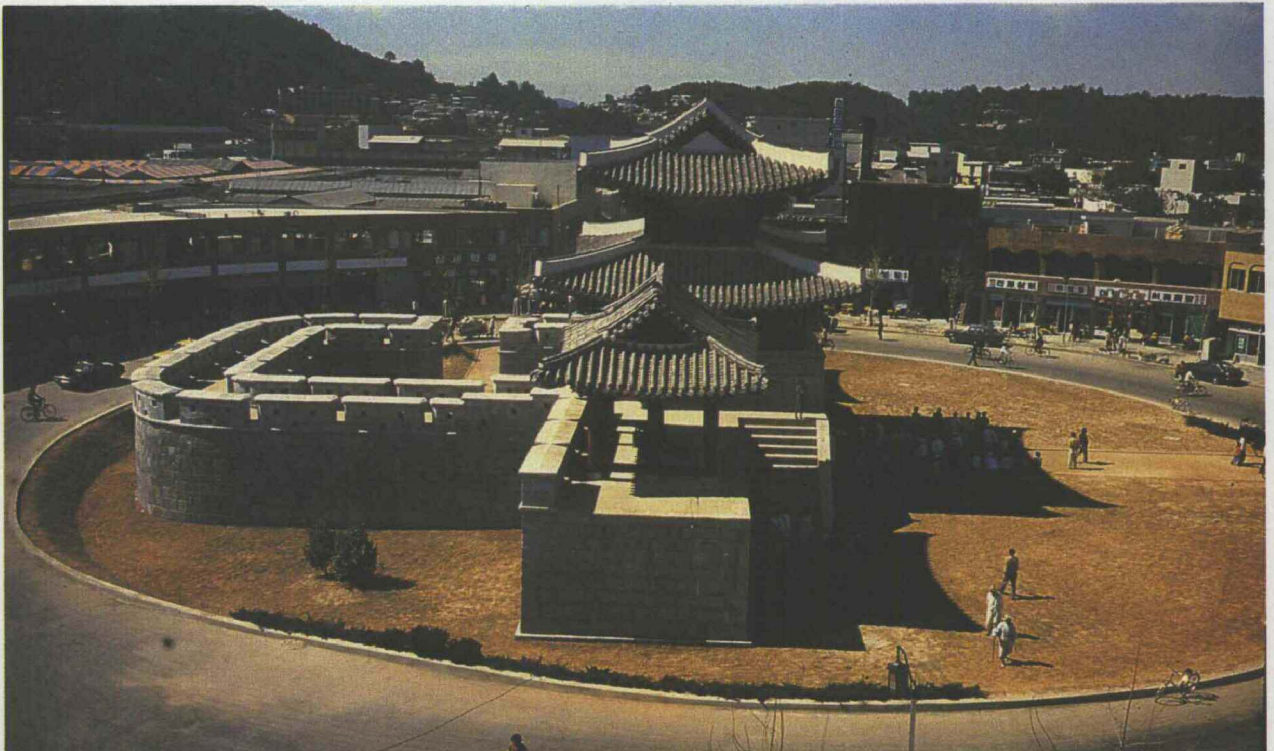
① 목련 ② 은행나무 ③ 까치

益山郡



- 15개 읍면의 지역총화를 나타냄
- ○ 원활한 행정과 익산의 0자로서 황색은 황금 벌판을 나타냄
- ▲ 익산의 ㅅ자로서 무궁한 발전을 나타냄

① 백일홍 ② 은행나무 ③ 까치



전라북도(풍남문)

全羅南道

木浦市



- 푸른색 바탕 : 바다
- 여섯개의 돌출모양 : 木자및 다도해섬들
- 왼편쇠줄 : 해운
- 오른쪽 고기 : 수산물
- 아래의 톱니 : 공업
- 파도따라 모여든 풍요로운 농·수산물 집산지로 갈매기의 순결한 발전을 의미한 목포의 상징임

① 목련 ② 비파나무 ③ 학

麗水市



- 하늘색 : 하늘, 황색 : 땅, 남색 : 바다, 녹색 : 풍요한 평화
- : 여수의 “0”, ▲ : 여수의 “人”
- : 여수의 반도를 의미

① 동백 ② 동백나무 ③ 갈매기

順天市



- 하늘색 : 발전하는 순천의 이수의 맑은물
- 백색 : 백의 민족, 평화상징
- 월계수 : 16개 동을 표시
- ▲ : 삼산 이수를 표시
- ▼ : 순천의 고동원예지 의미
- 불꽃 : 봉화(결실)의미, 원은 교통의 중심지 의미

① 철쭉 ① 매화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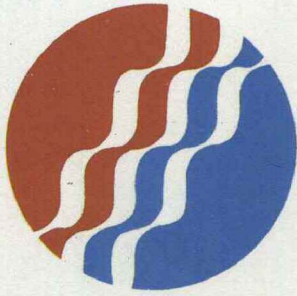
羅州市



- 노란색 : 시민의 성품이 온후하고 예절바름
- 파란색 : 풍요하고 평화로운 고장을 상징
- 산 : 금성산(시민의 긍지와 발전하는 기상)
- 파란 원 : 영산강(단결과 화합 의미)
- 백색 무늬 : 배꽃(나주시의 무궁한 발전)
- 둘레의 청록색 도안 : 배의 키를 상징

① 배꽃 ② 은행나무 ③ 산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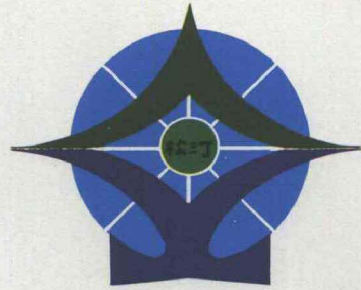
麗 川 市



- “○”(圓)은
 - 市の 첫 글자인 “여” 字의 ○
 - 和合과 團結을 意味하고 永遠히 發展함을 象徵
- “川”은
 - 麗川의 川字와 구비치는 물결로서 前進을 뜻함
 - 工業基地 不減의 불길로서 工團의 活氣찬 稼動을 意味
- 金赤色과 紺靑色은
 - 民族魂을 象徵하는 陰陽의 天理, 根本을 뜻함

① 백일홍 (목 백일홍) ② 느티나무 ③ 학

松 汀 市



- 바탕은 백색으로 시민의 순후함과 원만성을, 원의 외곽은 시민의 무궁한 발전과 진취성을 표상하고 어등산과 황룡, 극락강, 공항과 송정시 8개동을 의미 4통8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전남의 관문을 뜻함과 동시 곡창 시민의 단합, 화합을 표상함

① 들국화 ② 소나무 ③ 비둘기

光 山 郡



- △: 임곡면의 鎭山인 어등산(안정 의미)
- : 극락강과 황룡강을 상징하며 농업의 풍요를 의미

① 백합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潭 陽 郡



- 녹색은 녹색혁명과 평화스러운 전원상징
- ◎은 군민의 총화단결 의미
- ◎안의 문장은 죽(竹)자로 군나무이며 특산물인 대와 죽공예 의미
- 전체문장은
 - 고속도로 · 경지정리 · 용수로(담양 · 광주호)의미(풍요한 담양발전)

① 매화 ② 대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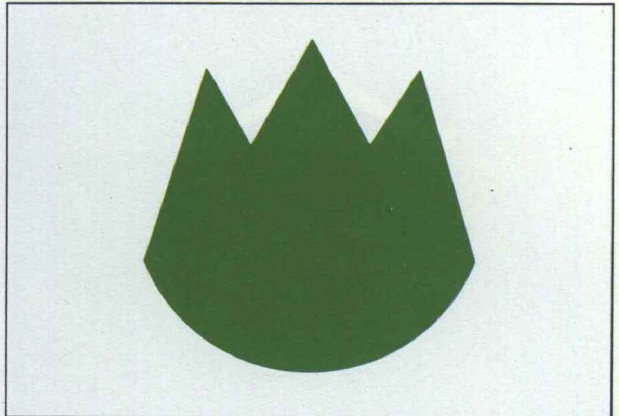
谷 城 郡



- 봉화 : 필승신념, 군민의 의지단결
- ☯은 단군묘의 상징, 군민의 기본정신
- ◯은 향토방위와 풍요사회 ○벼알 : 11개읍면
- △ : 동악산표시, 개척정신 “谷” : 곡성의 “고을곡”
- 붉은색 : 정열, 광명 ○주황색 : 풍요, 평화
- 은빛 : 영광, 희망 ○푸른빛 : 젊음, 생동

① 개나리 ② 느티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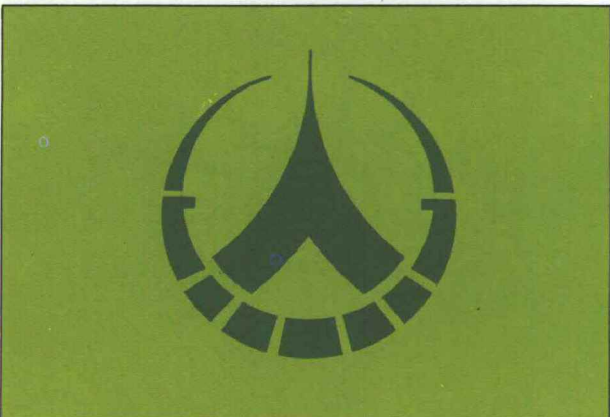
求 禮 郡



- 백색 : 백의민족(평화, 순결을 의미)
- 녹색 : 임야, 농토(젊음, 생동을 의미)
- ▲ : 지리산(진취적 기상을 의미)
- ☯ : 구례의 고명 “구리” 즉 “고리”처럼 생긴 구례의 분지 상징(온화한 고장, 섬진강을 의미)

① 철쭉 ② 산수유 ③ 산비둘기

光 陽 郡



- 바탕색인 연두색 : 푸르고 알찬 광양의 빛 상징
- 원형의 녹색 : 단결된 군민의 협동심 상징
- “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백운산 밑에서 영원히 번영할 것을 상징

① 동백 ② 고로쇠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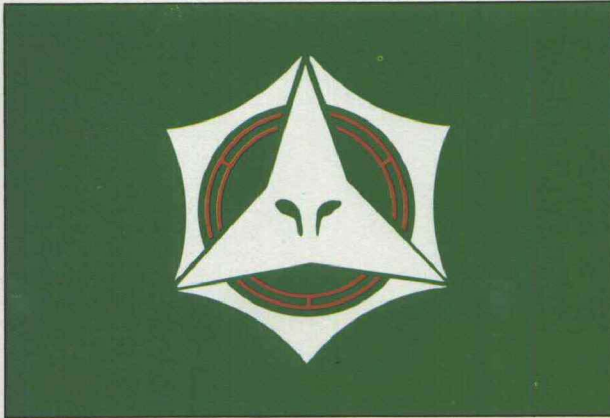
麗 川 郡



- 원형 : 조화와 무궁한 가능과 발전을 상징
- 세가지 원형 : 공업, 수산, 농업 여천을 의미하고 다도해의 물결처럼 굳세고 깨끗한 군민의 기상을 나타냄

① 동백 ② 동백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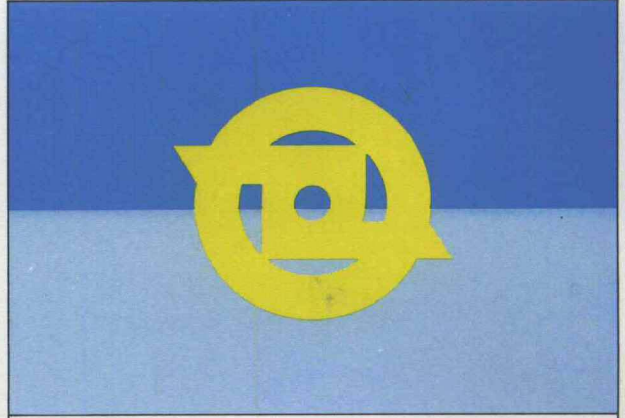
昇州郡



- 녹색바탕: 農林郡
- 백색: 순박하고 온순한 성품
- 주황색: 협동과 단결과 정의감을 상징
- 11개 읍면과 새싹, 6대산, 팔마비, 3대천을 표징함

① 국화 ② 감나무 ③ 비둘기

高興郡



- 청색: 3면이 바다인 水産郡을 의미
- 하늘색: 공기맑고 순박한 고흥군민의 인심
- 황색: 풍요한 농작물, 황금의 해산물과 평화
- : 전 군민이 일치단결, 총화약진하는 고흥군을 상징

① 동백 ② 유자나무 ③ 비둘기

寶城郡



- 녹색은 산림자원과 국내유일의 다원을 의미
- 밤색은 기름지고 넓은 들판과 특산물인 밤을 의미
- 청색은 59km의 해안선과 황금어장, 수산자원과 섬진강의 젖줄인 보성강을 의미

① 영산홍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和順郡



- 꽃잎은 순박, 원만한 군민성과 총화단합을 상징
- 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인 산과들 3대강을,
- 는 썩씩한 기상과 변영을 상징
- 하늘색 바탕은 평화와 희망을 상징.

① 국화 ② 느티나무 ③ 비둘기

長興郡



- 전체도안은 향토의 특색과 군민의 협동단결로 약진장흥 상징
- 청색 : 젊음과 희망, 황색 : 평화와 발전
- 주황색 원형 : 보림줄다리기의 “고”모형으로 상부에 고리를 지어 협동단결 상징
- 녹색 봉우리 : 국사봉, 천관산, 억불산, 사자산
- 원내 푸른 평행선 : 바다와 탐진강 상징

① 진달래 ② 동백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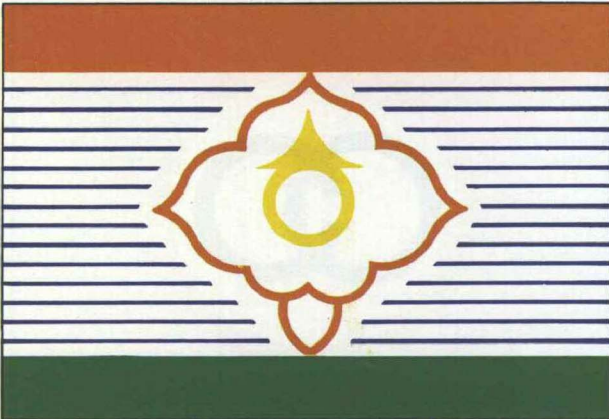
康津郡



- 금색 모양 : 강진군 지도 상징
- V자 : 강진읍이 중심지에 있음을 의미
- 곤색 하트형 모양 : 9개면을 의미
- 원은 군을 정점으로 군과 읍면의 단결 상징

① 동백 ② 은행나무 ③ 까치

海南郡



-  : 군화인 동백,  : 해남의 “ㅎ”상징
- 전체를 3등분하여 군화를 받치고 중앙 14개 청색선은 3면의 바다와 14개읍면 상징
- 상부의 황금색 : 복지 해남건설
- 하부의 연초록색 : 녹색혁명과 군민의 기상을 뜻함

① 동백 ② 은행나무 ③ 산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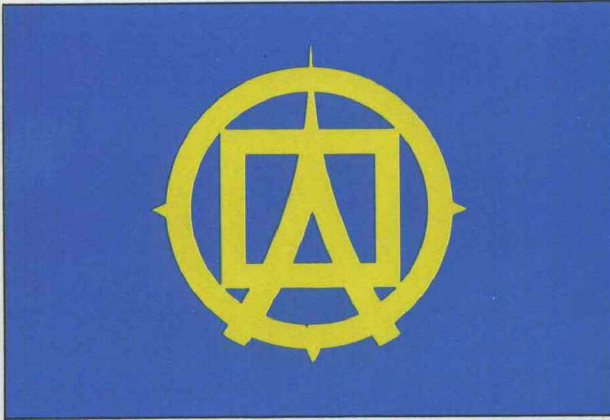
靈岩郡



- 양쪽 청색 : 평화
- 녹색의 큰원 : 영암의 “ㅇ”자 상징
- 도립공원 월출산은 영암군의 상징
- 매화는 영암군화 상징
- 중앙의 원은 월출산의 달을 상징
- 영암군은 교통의 요충지

① 매화 ② 느티나무 ③ 산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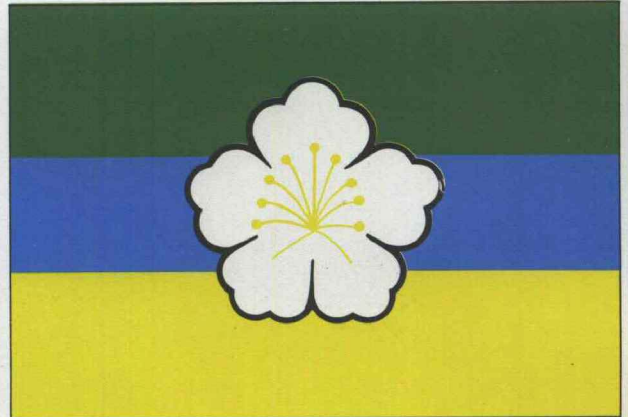
務 安 郡



- 人 : 새무안 또는 사람인
- : 무안의 “口”자, ○ : 무안의 “o”자
- “人”자로 표시되는 새무안 군민이 “口”형으로 표시된 무안군을 감싸안고 뭉쳐서 근면, 협동, 창조, 개척, 자립의 기상으로 발전의 길을 찾아 전진하는 모습임

① 국화 ② 느티나무 ③ 백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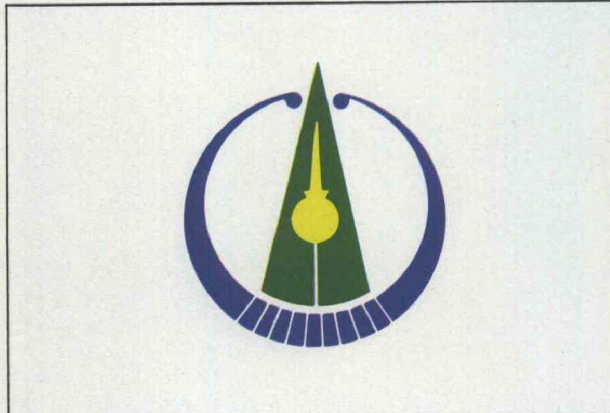
羅 州 郡



- 초록색 : 유서깊은 금성산을 표현
- 청색 : 영산강을 상징
- 황색 : 곡창 호남벌에 오곡백과의 풍요한 결실을 뜻함
- 중심부의 배꽃 : 군화를 표현

① 배꽃 ② 배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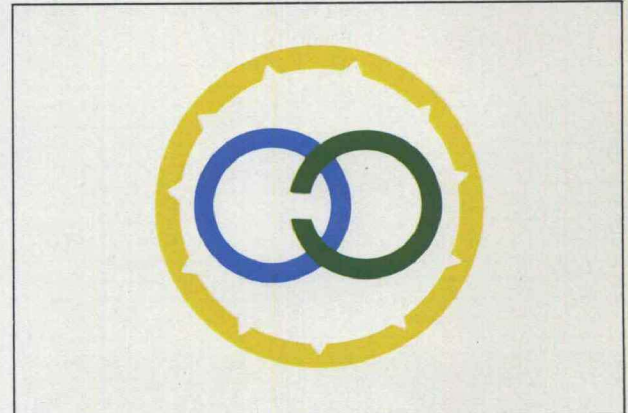
咸 平 郡



- 진청색 갑모형은 군민상을 심었으며 9개모형은 9개면을 상징
- 황색은 “함”자의 “ㅎ”자 이고 특산물인 양파를 부각시켰으며 근면, 자립, 협동 표현
- 녹색은 “평”자의 “ㄹ”이고 곡창지대의 평야를 상징하고 팬촉을 이루고 있는 모양은 문학발전상 표현

① 백일홍(목 백일홍) ② 은행나무 ③ 산비둘기

靈 光 郡



- 외곽빗살 11개 : 3읍 8면의 평화로운 발전
- : “영”자의 첫음, ○ : “광”의 ㄱ자 표시
- ⊙ : ○자와 ○자의 결합(단결, 발전을 상징)
- 청색 : 수산물의 풍요로움과 이상, 희망 상징
- 녹색 : 푸른대지, 농산물의 알찬결실을 상징
- ⊙=⊙=영자의 다양한 변화로 무궁한 발전 의미

① 진달래 ② 소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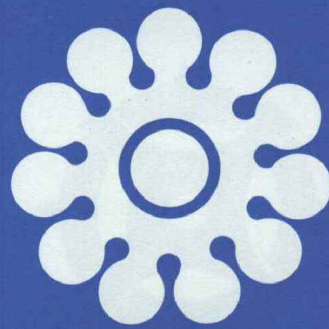
長 城 郡



- 전체의 형태는 군화인 난초(풍난)의 잎모양으로, 무궁한 발전과 단결을 상징
- 三人의 모양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이념을 앞세운 단결, 협동, 전진을 상징
- 백색 바탕에 녹색은 풍요와 희망을 나타냄

① 백양난 ② 단풍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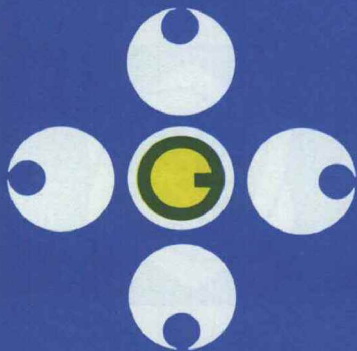
莞 島 郡



- 청색바탕 : 바다를 상징하는 향토색
- 중앙백색 : 백의민족을 상징
- 형 11개 輪은 11개 읍면을 뜻하고 난국을 헤쳐나가는 漕舵機형 상징

① 동백 ② 동백나무 ③ 갈매기

珍 島 郡



- 백색 : 4면에 둘러있는 섬을 의미
- 황색 : 황금의 땅, 살기좋은 금빛과 같이 찬연함을 의미
- 녹색 : 근대화의 농토, 풍요한 옥토, 희망에 부른 진도를 의미
- 청색 : 풍부한 수산물과 원대한 포부를 상징

① 동백 ② 후박나무 ③ 백조

新 安 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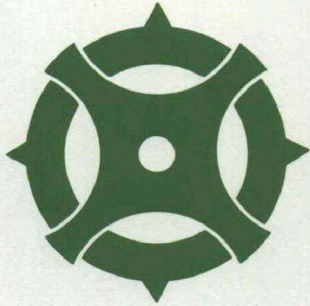


- 풍요롭고 끝없는 바다를 표시
- ◎ 신안의 "안"으로 군민의 기상과 총화단결을 의미
- ^ 신안의 "신"으로 희망과 평화를 의미하며 섬 · 산 · 파도 · 갈매기를 표시
- ☼ 난알은 14개면을 잇는 7개출장소를 표시
- ☼ 무궁한 농수산물의 발전을 상징

① 해당화 ② 소나무 ③ 갈매기

慶尙北道

浦項市



- 백색은 순결 녹색은 바다를 표시
- ☐는 포항의 四角 돌출은 배의 “키” 상징
- ^는 “上”를 표시
- 하은 “항”자를 표시
- ⊙은 파도를 표시

① 장미 ② 향나무 ③ 갈매기

慶州市



- 푸른색바탕: 높고 큰 新羅人의 기상
- 金冠: 新羅千年의 歷史를 代表的으로 象徵
- 별: 新羅가 花郎精神을 바탕으로 三國統一
별의 位置는 그 時代 三國의 境界를 意味
별의 바탕이 흰것은 白衣民族의 後裔

① 개나리 ② 백일홍(목 백일홍) ③ 켜

金泉市



- 청백색 바탕: 배달민족과 영원한 평화및 건설
- 마-크: 김천을 도안, 원형은 시민의 원만한 단합및
영원한 지속, 황금색은 찬란한 문화및 시민생활 번영
- 人자는 항상 발전을 뜻함

① 목련 ② 은행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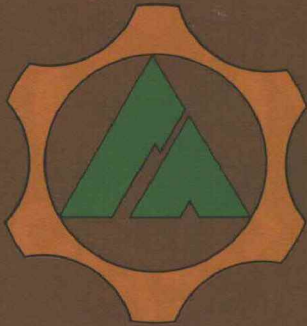
安東市



- 중앙 환상부는 “安”자의 변형이고, 中心部는 “東”이니
합쳐 安東의 명사로서 장식하였음

① 백일홍(목 백일홍) ② 느티나무 ③ 까치

龜尾市



- △은 굳게 치솟아오름과 금오산을 뒤로 발전하는 기상
- 거북(구미) 형상(6각은 거북머리, 다리, 꼬리)
심장생의 영생의 터전, 수와 복을 누림
- 6개의 톱니바퀴 내륙최대 공업기지로 6대륙으로 수출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榮州市



- 象徵：龜城公園의 거북의 모습을 榮州의 象徵으로 圖案한 것임
- 六角 突出部分은 어디로나 無限한 發展可能性을 象徵
- 톱니바퀴는 工業都市로 發展可能性을 象徵
- 白色은 潔白과 純潔을 象徵
- 綠色은 平和와 젊음을 象徵
- 黃金色은 榮州의 文化와 傳統市民 生活의 繁榮을 象徵

① 개나리 ② 느티나무 ③ 까치

永川市



- 동근지구상에 영천지역사회가 이수의 품안에 三山을
떠 받들고 굴렁쇠처럼 굴러가며 무한히 발전
- 지구를 뜻하며 동시에 무한한 발전
- () 남천·북천의 이수를 의미
- 三 삼산(미현, 유봉, 작산) 및 영천지역사회

① 장미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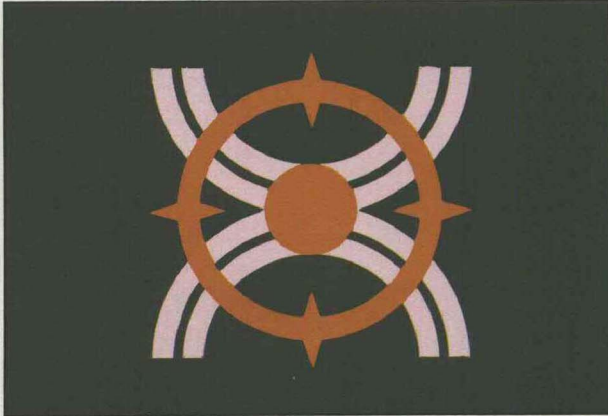
尚州市



- 장의구성：상주의 글자중 자음을 따서 구성
 (^)：상자의 入 (개발의지)
 ○：상자의 〇 (생명의 배아)
 ㄱ：주자의 ㄱ (기반의 안전성)
- 장의 전체：평화와 질서, 협동과 화합 상징

① 목련 ② 느티나무 ③ 까치

店 村 市



- 중앙의 원은 시민의 화합과 단결 상징
- ☙ 사통팔달한 교통요충지 ☞ 광산궤구
- ☪ 광차를 형상화하여 광산배후도시 의미
- ☼은 농촌거점도시로 육성발전함을 표시하며 네잎크로바형은 행운을 상징

① 철쭉 ② 은행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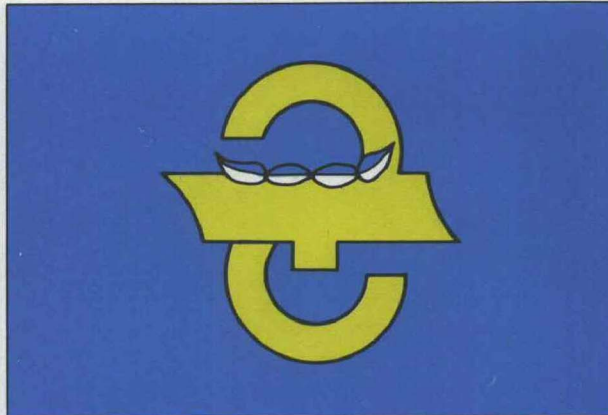
達 城 郡



- ☞ 달성을 뜻하며 향토발전의 기상을 상징
- ☾ 비슬산맥과 낙동강이 성을 이루고 군민의 단합표시

① 국화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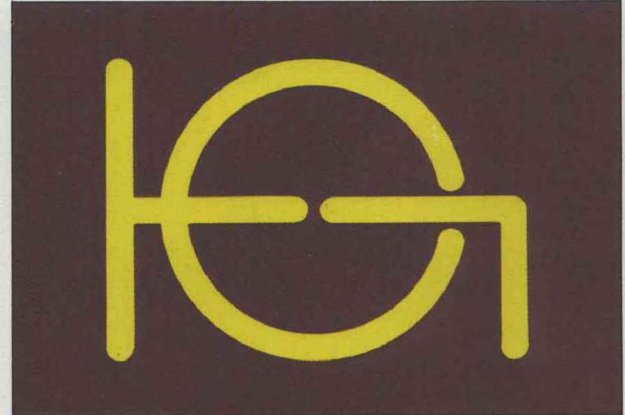
軍 威 郡



- 중앙 벼 8알은 1알 1개면과 단결된 8만군민을 상징하고 주산물이 벼임을 나타냄
- “군”은 군위군의 첫자로서 노랑색은 명랑하고 온화하며 부강을 표시

① 개나리 ② 느티나무 ③ 왜가리

義 城 郡



- 마크는 슬기로운 의성군을 상징하며, 자주색 바탕은 군민의 강인한 의지를 표시

① 백일홍(목 백일홍) ② 느티나무 ③ 왜가리

安東郡



- 형백 3선은 3강, 중 5선은 5륜
백색은 향민의 순박한 심정
- 형 3선과 중 5선의 교차는 3×5로 15개 읍면을 표시
- 바탕의 녹색은 희망과 평화

① 매화 ② 은행나무 ③ 먹황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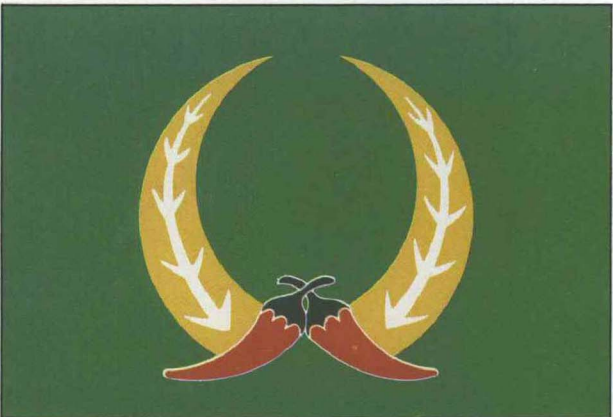
青松郡



- 녹색의 바탕은 청송이름 그대로 항상 푸르고 싱성한 군민의 기상을 상징
- 백색의 원은 평화를 사랑하는 군민의 힘찬 단합된 힘을 상징
- 원내 소나무는 군민의 의지와 진취적 기상을 나타냄

① 작약 ② 소나무 ③ 꿩

英陽郡



- 바탕 푸른색은 영양군민의 밝은 희망과 포부와 젊음을 상징
- 금빛 찬란한 담배잎과 주홍빛 고추는 영양군의 특산물임을 표시

① 국화 ② 소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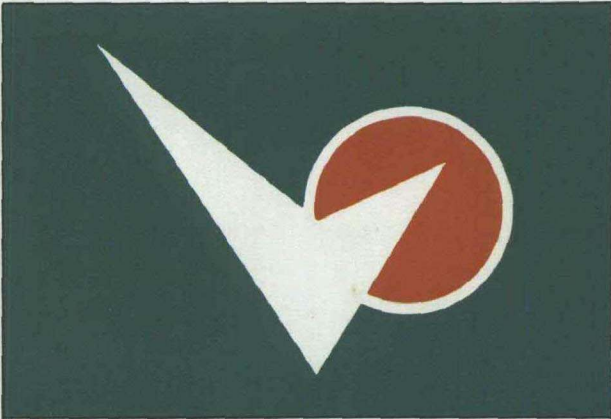
盈德郡



- 청색은 바다와 희망을 상징
- 은 단합표시
- Y는 젊은(young)과 영덕(young Deog) 표시
- Y는 영덕군의 명산 “대게” 표시

① 복숭아꽃 ② 해송 ③ 갈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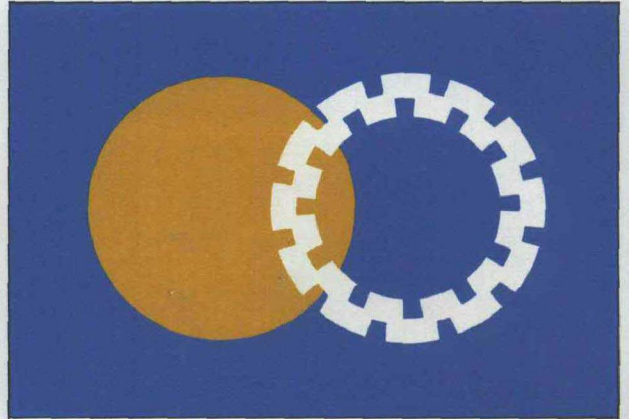
迎 日 郡



- 푸른바탕은 동해바다와 젊음과 희망
- 흰색 V 형은 한반도중 본군의 지형, 승리
흰색은 순수와 정결
- 붉은원은 태양을 맞이하는 본군 이름, 희망의 서광과
태양을 담은 정열
- 흰색원은 끝없는 번영과 단합

① 국화 ② 은행나무 ③ 갈매기

月 城 郡



- 달과 성은 월성군명을 의미함
- 청색바탕
푸른색은 평화를 상징하며, 하늘과 같이 우주공간에
희망과 의욕이 무한대로 뻗어 나갈수 있다는 뜻임
- 12개의 "톱니" 성
옛 사람들이 성안에 모여 살았다는 뜻으로 현 관할 구
역이 12개 읍면으로 원형의 성안에 16만 군민이 일치
단결되어 있다는 뜻임

① 장미 ② 은행나무 ③ 왜가리

永 川 郡



- 靑色 바탕은 平和를 象徵하고 希望과 意慾을, 圓은 단
결을, 무궁화는 永川의 地形을 담았음
- 月桂樹는 勝利와 榮光을 意味

① 목련 ② 은행나무 ③ 왜가리

慶 山 郡



- 중앙의 ㉿은 특산물 능금 상징
- 은 읍면과 14만 군민의 화합상징
- ㉿(능금잎)은 소득증대를 위한 군민단결 상징

① 목련 ② 은행나무 ③ 까치

清道郡



- 푸른색은 약진하는 창공
- 흙색은 대지에 뿌리박은 청도군의 기상
- 전체모형은 청도 특산물인 “감”

① 철쭉 ② 감나무 ③ 까치

高靈郡



- 삼각형은 고령군을 둘러싼 미송산, 망산, 의봉산 의미
- 삼각형의 7, 7은 고령이며 7은 럭키 세븐을 의미 (행운)
- 삼각형내 하늘색은 옥토를 의미 함

① 철쭉 ② 오동나무 ③ 왜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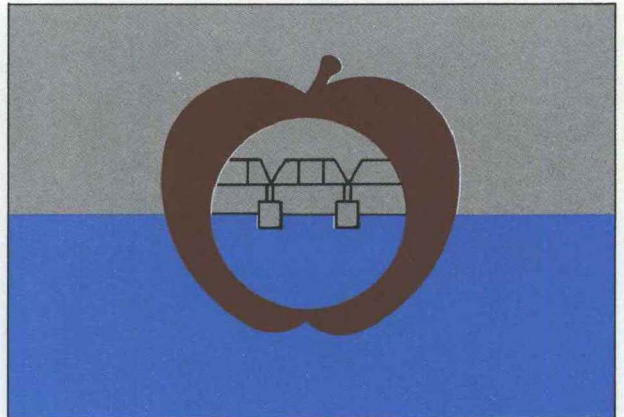
星州郡



- 바탕 녹색은 푸른힘과 평화를
- 중앙흰색원은 태양
- 별은 성주군을 의미
- 별속은 10개 읍면을 상징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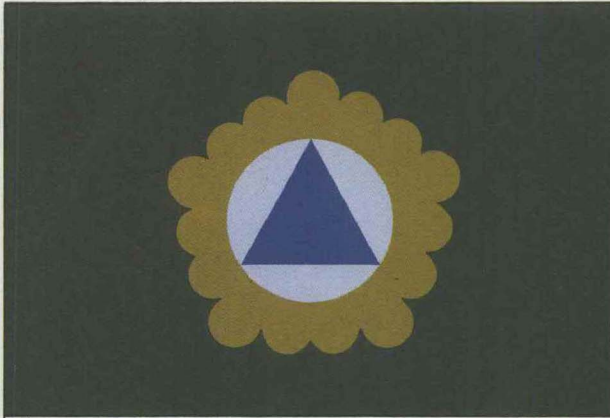
漆谷郡



- 백색 바탕 : 맑고 고소한 지역사회
- 푸른 바탕 : 유서깊은 낙동강
- 사과 : 칠곡명산물
- 낙동강철교 : 칠곡(왜관)교장의 자랑

① 장미 ② 은행나무 ③ 왜가리

金 陵 郡



- 全體의 모양은 우리나라 國花인 무궁화를 본떠 大韓民
國의 一部 상징
- 둘레 꽃모양 15個는 邑面을 나타냄
- 靑色은 萬古靑靑 國土山林綠化 畵을 상징

① 산수유 ② 전나무 ③ 비둘기

善 山 郡



- 도안체는 “山”자를 나타내며 연속선과 위로 뻗어가는
형태는 무궁한 발전을
- 황금색은 풍요로운 들판을 나타냄

① 백일홍(목 백일홍) ② 느티나무 ③ 까치

尚 州 郡



- 백색은 순결을 표시
- 벼날알은 17개 읍면을 표시
- 가운데 누에와 뽕잎 고치는 상주의 특산인 삼백(쌀·
고치·곶감)을 표시
- 반딧불은 어둠을 밝히며 尙州의 “尙”을 상징

① 매화 ② 감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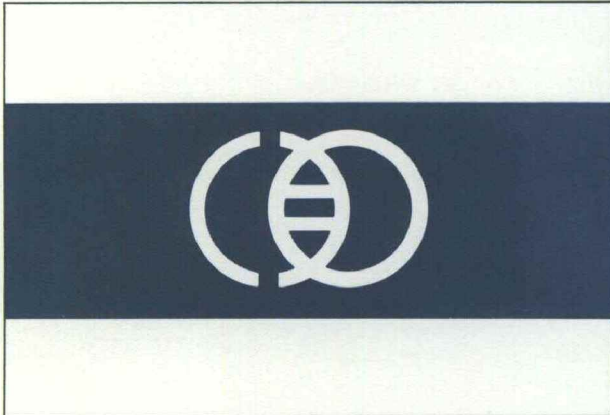
聞 慶 郡



- 하늘색 바탕은 평화 상징
- ∩ 광산지대인 탄맥과 갯구 의미, 중심부의 흰줄은
“문”자의 “口”과 조령에 있는 관문 의미
- “ㄱ”은 “경”자의 “ㄱ”으로 군의 상징인 박달나무 잎을
표현

① 산목련 ② 박달나무 ③ 왜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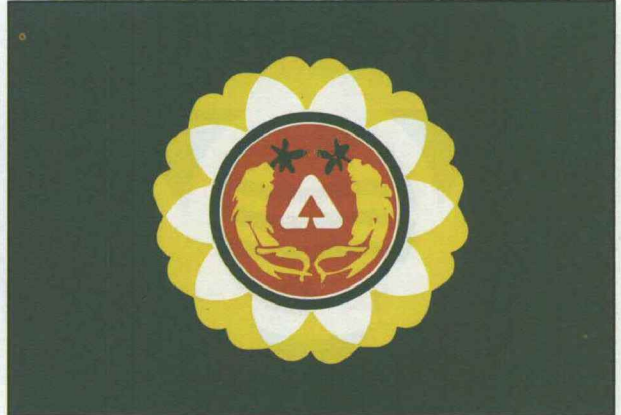
醴泉郡



- 흰색은 배달민족·백의민족 상징
- 청색은 고장의 상징(泉) 푸른샘물과 희망을 뜻하며 단결하며 매진한다는 뜻
- (☉)은 희망을 가진 군민의 상징 “예”자임

① 목련 ② 은행나무 ③ 독수리

榮豊郡



- 녹색바탕은 평화와 무궁한 발전 상징
- 은행잎은 郡木, 10個잎은 邑面
- 중원녹색은 郡民의 단결력 상징
- 내원적색은 특산물인 사과와 인삼 상징
- 삼각백색은 유서깊은 소백산 표시

① 철쭉 ② 은행나무 ③ 왜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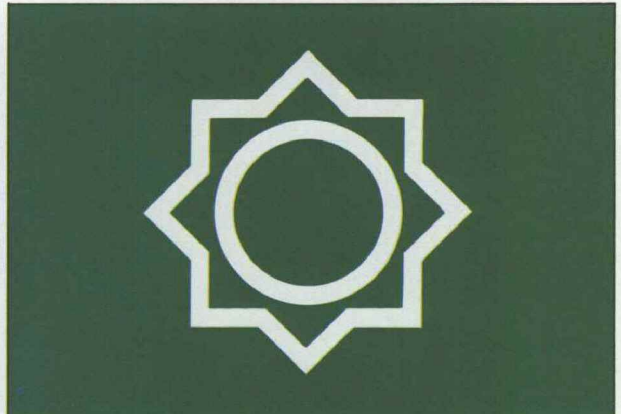
奉化郡



- 녹색 삼각형 세개는 푸른산과 희망을 상징
- 고동색 곡괭이 두개는 무진장의 지하자원 개발
- 가로놓인 두선은 立木을 표현
- 녹색 바탕은 평화를 상징
- 둘레 황금색원은 금속광의 광맥이 풍부한 것을 나타낸 것임

① 산목련 ② 춘양목 ③ 산까치

蔚珍郡



- 원은 울진군을 상징 군민의 융화단결
- 팔각은 다이아몬드의 결정체로서 일각이 일개읍면을 상징하며 원을 중심으로 단결함을 나타냄

① 개나리 ② 굴참나무 ③ 갈매기

鬱陵郡



- ㄱ는 안정된 3개의 닻, 3면을 표시하는 동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단합함을 의미
- ㄴ는 “울릉”을 의미하며 동해의 푸른 파도를 뜻함
- 홍색의 꽃은 울릉도의 상징인 동백꽃
- 푸른색은 동해의 뜻

① 동백 ② 후박나무 ③ 흑비둘기



경상북도(첨성대)

慶尙南道

昌原市



- 바탕의 ㄱ, ㄴ은 경남을 뜻하며
- ㄱ은 창원의 머리글 ㅈ, ㅅ을 표현하며 수출탑을 상징

- ① 개나리 ② 히말라야시다 ③ 까치

蔚山市



- 청색과 초록색으로 대별하여 상부윗쪽 다섯개의 별이 V자 형을 이루고 있는 뜻은 국내외의 각광을 받으며 발전하는 한국중공업의 도시 상징

- ① 철쭉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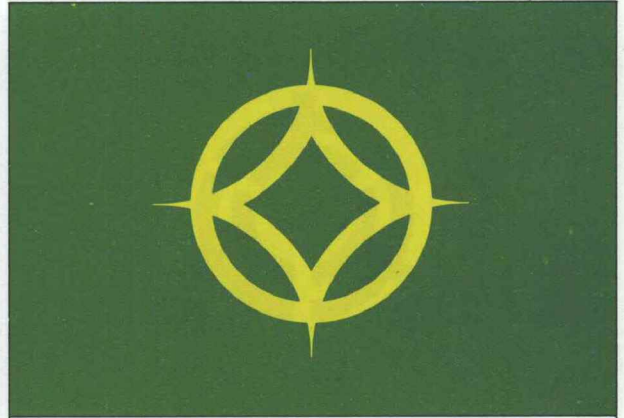
馬山市



- 평화, 자유, 협동, 단합을 상징함

- ① 장미 ② 은행나무 ③ 꿩이갈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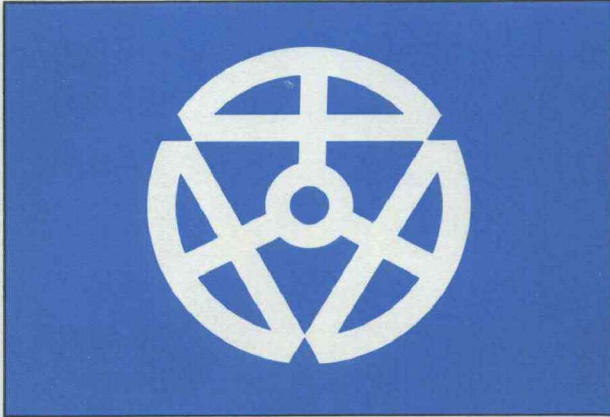
晋州市



-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지, 민족 문화의 진원으로서 금후 생산공업 대도시 건설을 목표로 일익 발전상을 상징

- ① 석류꽃 ② 석류나무 ③ 백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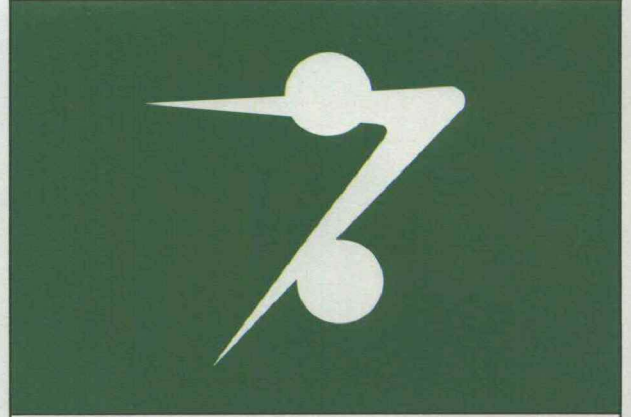
鎮海市



○3개의 “앵커”는 군·관·민의 단결을 상징함

① 벚꽃 ② 편백나무 ③ 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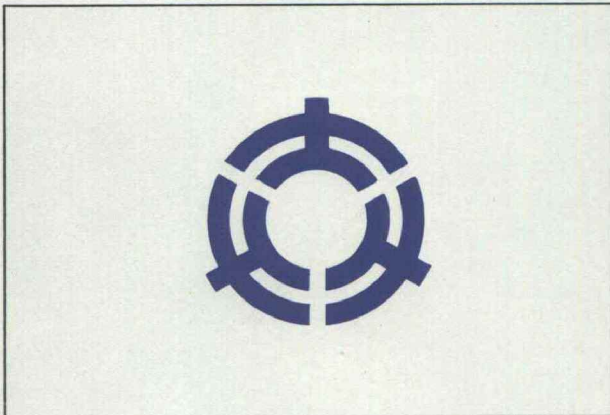
忠武市



○충무시는 한려수도의 중심부이며 이충무공의 승전지로서 수산관광도시의 급진적 발전상을 상징

① 동백꽃 ② 종려나무 ③ 갈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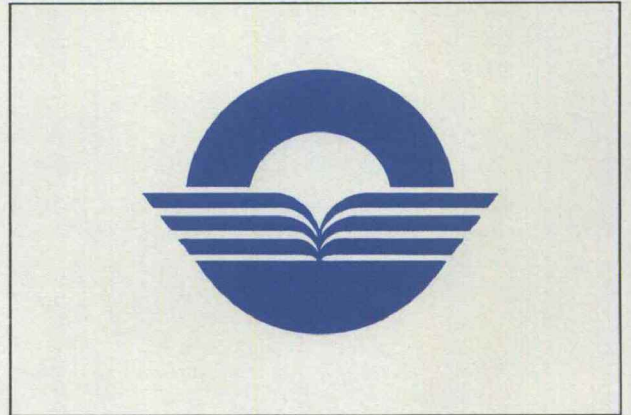
三千浦市



○ㄱ는 삼천포의 “千”자로 구성하고 머리는 중심으로 모아 3방향으로 전개된 비례와 균형의 미를 상징

① 진달래 ② 동백나무 ③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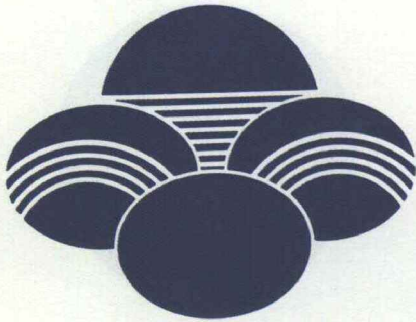
金海市



○전체의 도형은 김해의 머리글 “金”자를 나타내며
○하나의 원을 이룸은 시민의 단결 상징

① 매화 ② 은행나무 ③ 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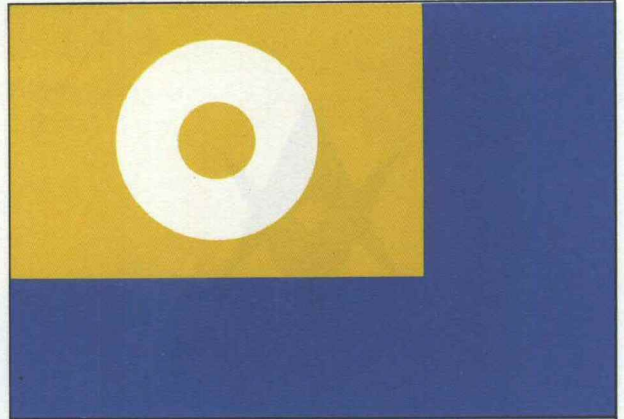
晉 陽 郡



○시각적인 조형은 안정과 조화를 의미하며 파랑색은 정 의롭고 슬기로운 군민의 정신을 상징

① 개나리 ② 대추나무 ③ 부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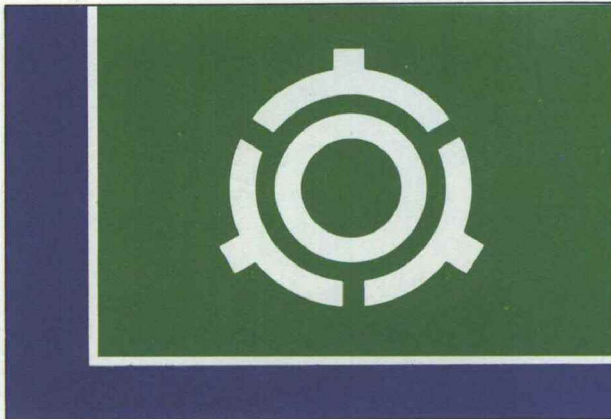
宜 寧 郡



○청색은 낙동강및 남강을 뜻하며 백색의 원은 의령의 머리글 “의”자를 표시

① 진달래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咸 安 郡



○녹색바탕이 풍요한 농업의 성장과 청색의 끝없는 발전 의 욕망 위에 백색으로 자유와 평화를 상징

① 백일홍(목 백일홍) ② 감나무 ③ 까치

昌 寧 郡



○창녕군의 “창”자 머리음 “ㄷ”표시와 발전과 향상을 뜻 하며
○창녕군의 “녕”자 머리음 “ㄴ”을 표시하며 받들어 봉사 함을 표현

① 국화 ② 은행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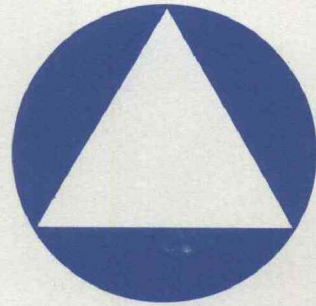
密 陽 郡



○“A”은 평화와 약진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비상을 상징하고 따로따로 나뉘어 밀양의 특산물인 백문동과 벼의 잎을 뜻하고 둥근원은 단결심과 굳건한 의지 상징

① 백일홍(목 백일홍) ② 은행나무 ③ 까치

梁 山 郡



○둥근원은 협동단결을 뜻하며 청색은 원대한 젊은 기상을 상징하고, 양산의 “양”자 “O”을 뜻함
○삼각형은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며 “산”자의 “人” 뜻

① 목련 ② 이팝나무 ③ 까치

蔚 州 郡



○원형톱니바퀴안의 “Z”은 울주군의 “주”자 머리음 “Z”을 표시하고 톱니바퀴는 공업단지를 상징함

① 개나리 ② 은행나무 ③ 까치

金 海 郡



○낙동강에 의하여 이룩된 김해는 2000년전의 가락국을 고이 간직한채 군민의 일심단합으로 오곡을 증산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뜻함

① 개나리 ② 감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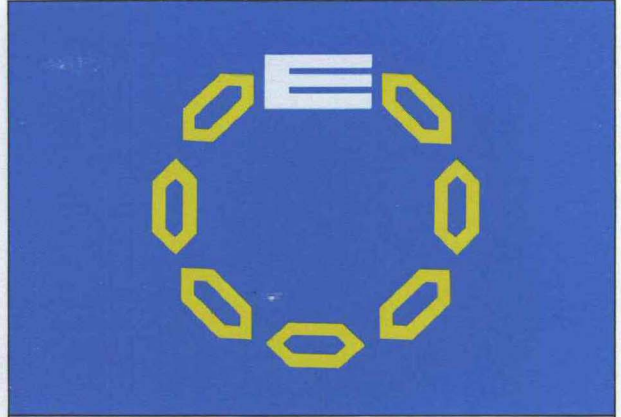
義昌郡



○바다와 육지를 낀 풍족한 농수산물의 여건속에 9개면이 단합하여 영원한 발전과 번영을 뜻함

매화 ② 히말라야시다 ③ 비둘기

統營郡



○통영군 7개면을 7개의 다이아몬드형으로 표현하고 전체의 원형은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아 군민의 단결을 표현

① 동백꽃 ② 팔손이나무 ③ 갈매기

巨濟郡



○붉은색 도형은 거제의 “巨”자와 별은 11개 읍면을 표시하고, 흰색 “V”는 굴하지 않는 군민의 기상과 외적을 물리친 승리를 상징

① 동백꽃 ② 동백나무 ③ 갈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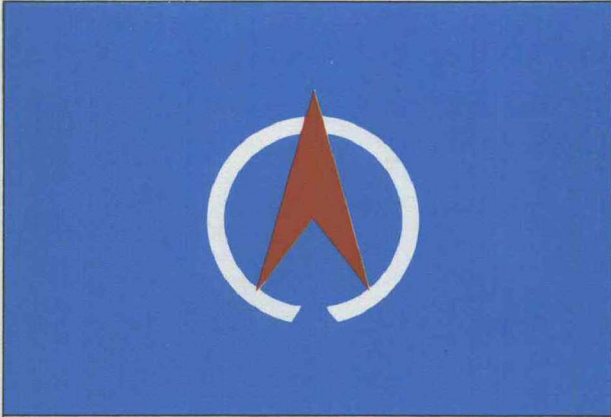
固城郡



○비둘기는 고성의 머리글자 “고”자의 “ㄱ”과 섬을 뜻하고 월계수 1매 14엽은 14개 읍면을 표시하며 녹색은 즐거움, 추억, 자성을 표현

① 국화 ② 은행나무 ③ 까치

泗 川 郡



○사천군민의 밝은 정신을 푸른하늘과 강물에 비유하며
단합되고 평화스러운 고장의 영원한 발전 상징

① 국화 ② 은행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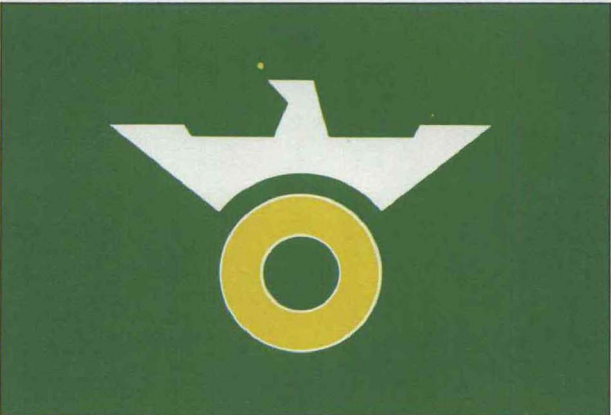
南 海 郡



○가운데 적색도형은 남해의 머리자 “南”자이며 황색원
은 특산물 유자, 외부 월계수 모양은 특산물 치자와
비자의 잎을 상징

① 치자 ② 비자나무 ③ 해오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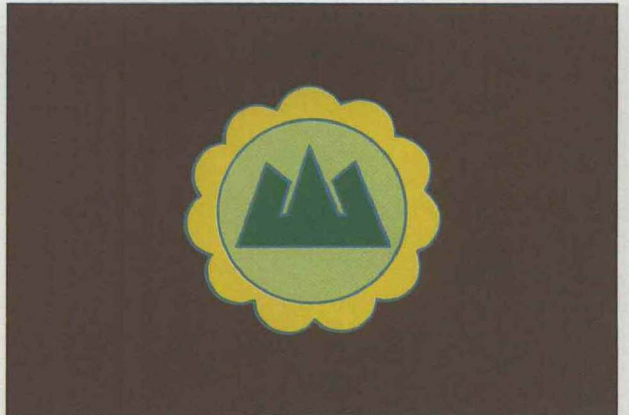
河 東 郡



○중앙의 모형은 하동의 머리글자인 “하”자의 “ㅎ”을 표
하고 두부의 새 날개 모양은 평화와 비약을 상징

① 철쭉 ② 은행나무 ③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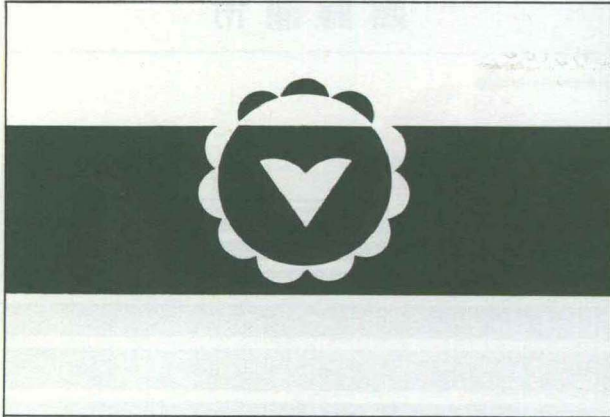
山 清 郡



○녹색의 “山”자형은 영봉 지리산을 상징하고 또한 산청
의 머리글 “山”자를 표현

① 목화 ② 대나무 ③ 찔꼬리

咸陽郡



○원의 꽃잎모양은 11개 읍면을 표시하고 서로 융화단결을 상징하며, 새싹은 새로운 힘의 약동과 앞으로의 발전을 꾀하는 표시

① 철쭉 ② 느티나무 ③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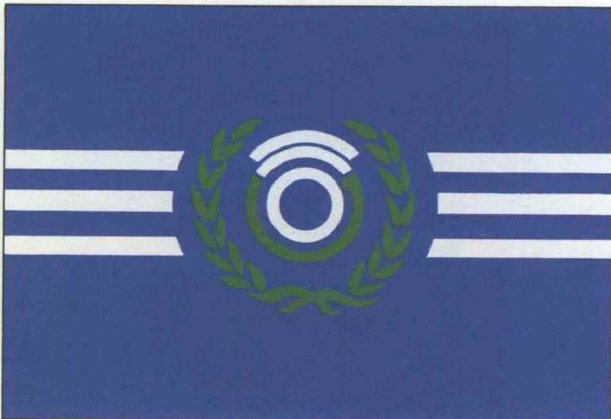
居昌郡



○은 거창의 “창”자의 “文”을 표시하고 흰색선은 군민의 후한 인심을 뜻함

① 개나리 ② 감나무 ③ 비둘기

陝川郡



○백색의 “○”은 합천의 머리글 “합”자의 “ㅎ”을 뜻하며, “C”은 합천의 17개 읍면을 표기하고 녹색은 산업 증산을 뜻함 생생하고 활발한 노력의 상징

① 매화 ② 잣나무 ③ 까치

濟州道

濟州市



- 는 제주의 “Z”으로 약진하는 제주시와 시민의 활동성·근면성을 상징함
- 는 파장과 같이 번져 나감과 삼다, 삼무, 삼보를 나타냄
- 청색바탕은 무한한 바다를 나타내며 제주의 지역성과 원대한 희망을 상징함

① 수선화 ② 노가리나무 ③ 휘파람새

西歸浦市



- 백색과 청색은 서귀포시민의 심상(청결·안정·이상)을 상징하고 청색면의 백색 7선은 서귀포칠십리를 표현
- 주황색의 원형은 태양과 감귤을 상징
- 는 서귀포의 “人”과 “丁”을 상징
- 는 수평선위에 떠있는 범선과 비둘기를 상징하며 희망과 이상, 평화와 행복을 표현

① 한란 ② 동백나무 ③ 동박새

北濟州郡



-  (연초록) 광활한 초자원과 한라산을 뜻함
-  (백색) 자조협동하는 순박한 군민의 성품과 수산발전을 뜻함
-  (짙은초록) 싱그러운 목초지와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는 풍요와 복지의 요람인 북제주군을 나타냄
-  (은색) 축산진흥과 강인한 인내,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북제주군의 기상을 상징

① 문주란 ② 팽나무 ③ 종달새

南濟州郡



-  남제주군의 “나”를 뜻하며, 남제주군의 괄목할만한 진취적인 힘찬군임을 표현
-  남제주군의 “口”를 뜻하며 전 군민의 일치단결로 남제주군의 영원 무궁한 발전을 표현
- 청색은 높고 푸르름을 뜻하고 오렌지색은 남제주군의 특산물인 감귤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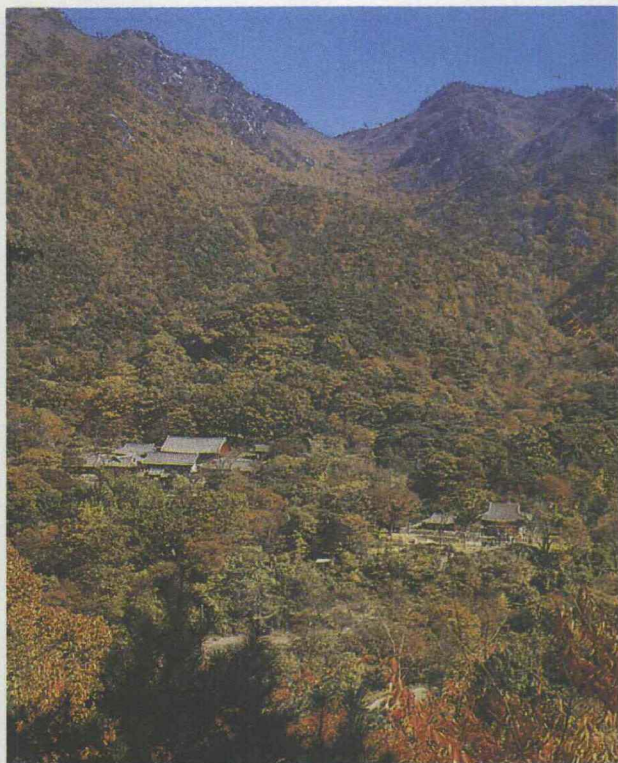
① 금잔화 ② 담팔수 ③ 삿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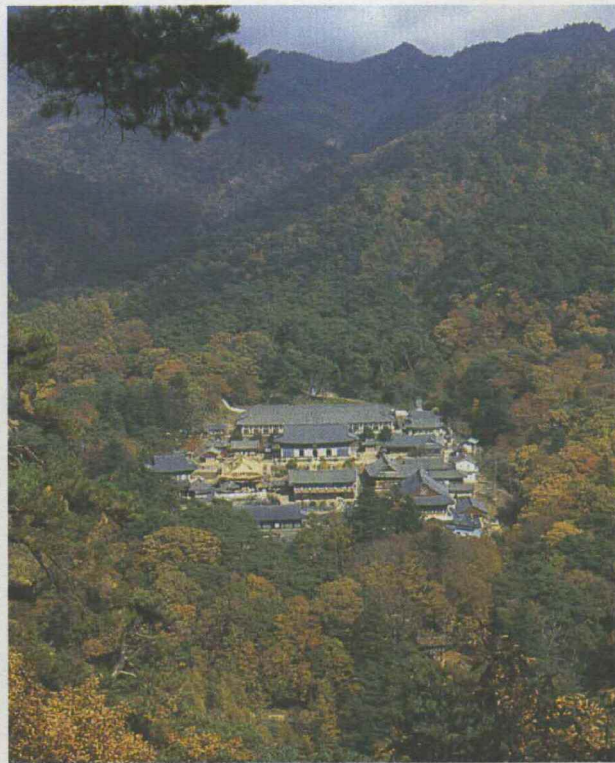
제주도(한라산 백록담)



경기도(통일로)



충청남도(계룡산 갑사계곡)



경상남도(가야산 해인사)



전라남도(백양사)

新旗家集 卷之四

市郡의 꽃

(市郡花)

市郡의 새 指定現況

새	수 량	새	수 량
합 계(27종)	194	크 낙 새	2
까 치	73	두 견 새	2
비 들 기	44	청 등 오 리	1
백구(갈 매 기)	16	백 비 들 기	1
왜 가 리	9	백 조(고니)	1
산비둘기(뫼비둘기)	6	먹 황 새	1
학(두 루 미)	6	흑 비 들 기	1
평	5	괭 이 갈 매 기	1
피 꼬 리	4	부 엉 이	1
백 로	4	해 오 라 기	1
제 비	3	빠 꾸 기	1
종 달 새	3	휘 파 람 새	1
산 까 치(어치)	3	동 박 새	1
독 수 리	2	파 랑 새	1

※196개 시군중 2 개 시군 미지정(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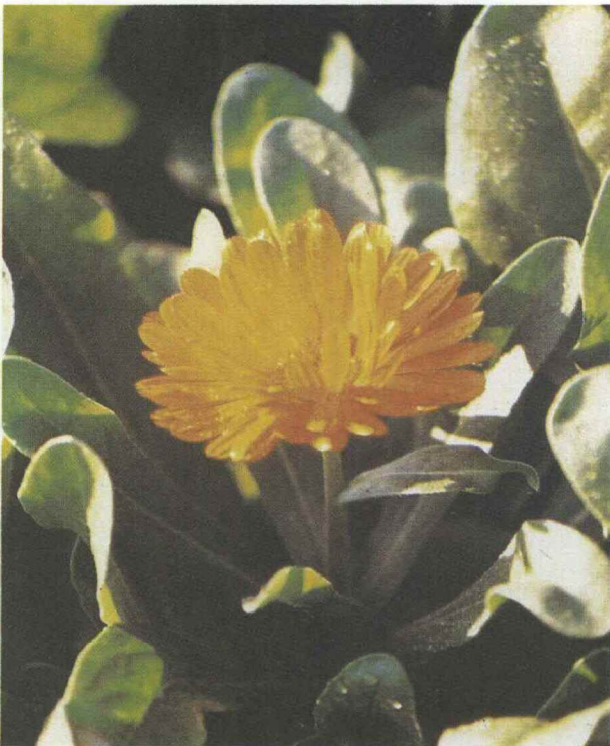
시군의 꽃



개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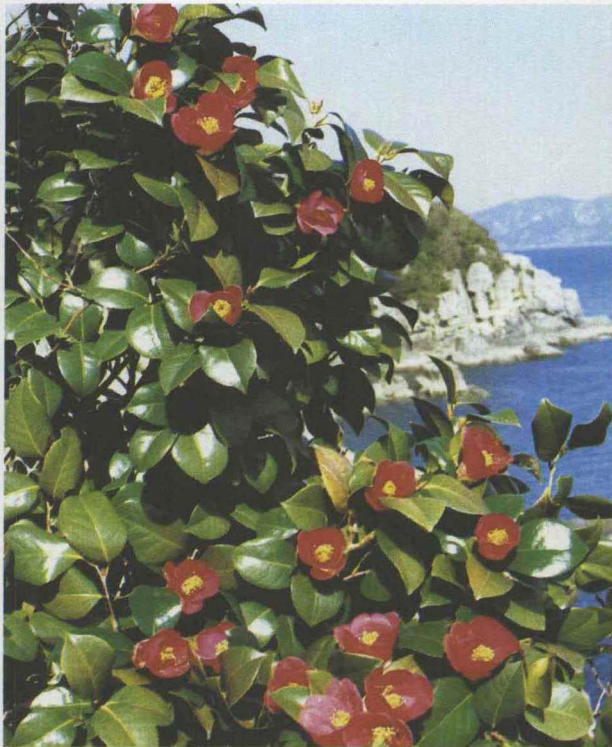
국화



금잔화



도라지



동백



들국화(산국)



들국화(구절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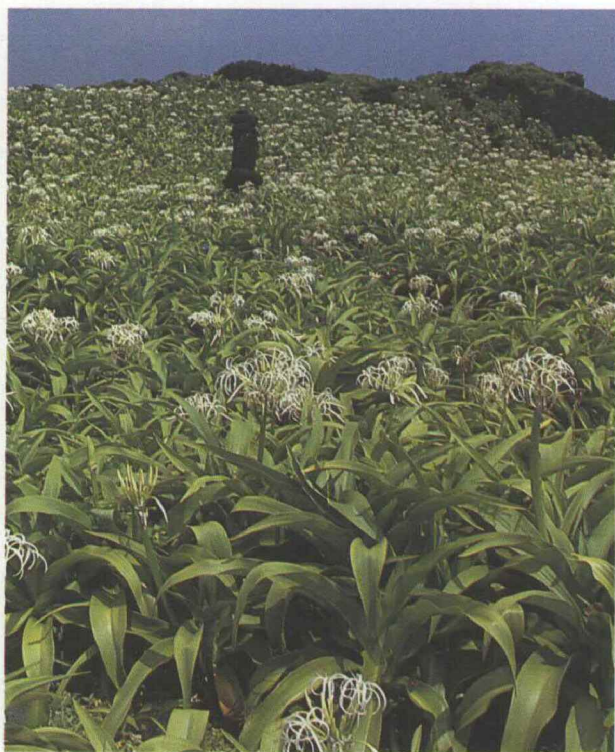
매화



목련



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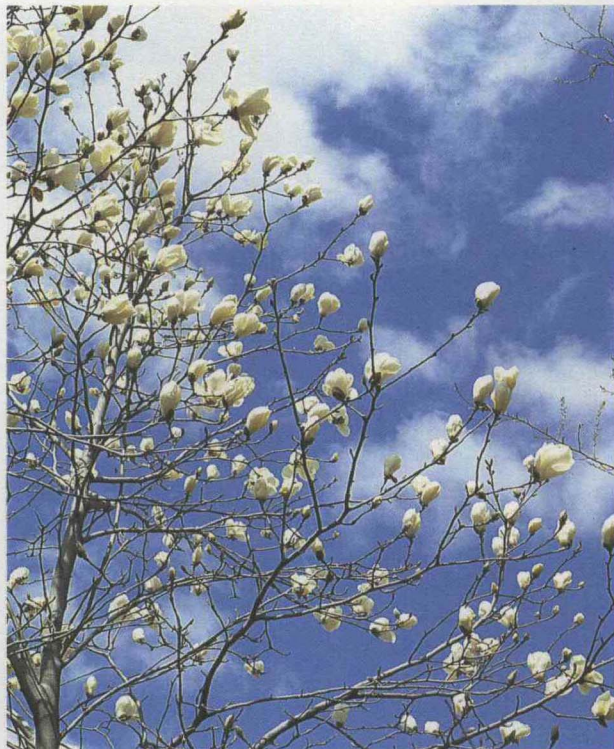
문주란



미선나무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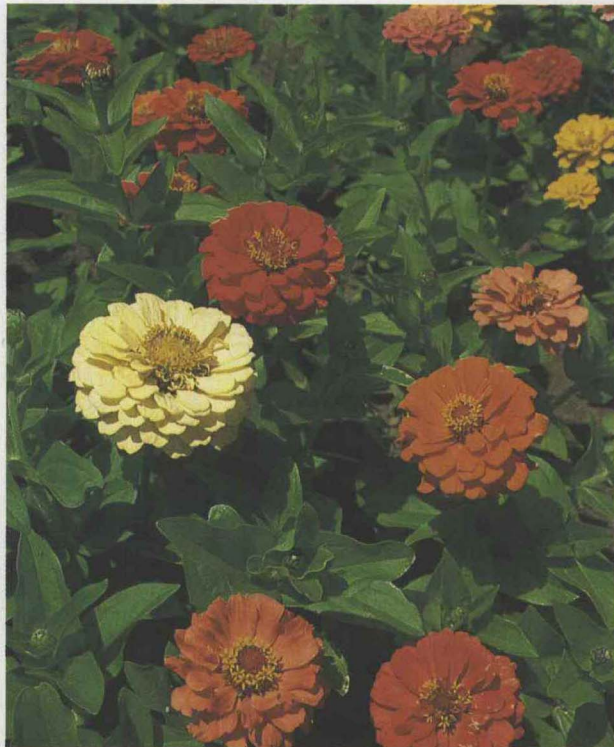
배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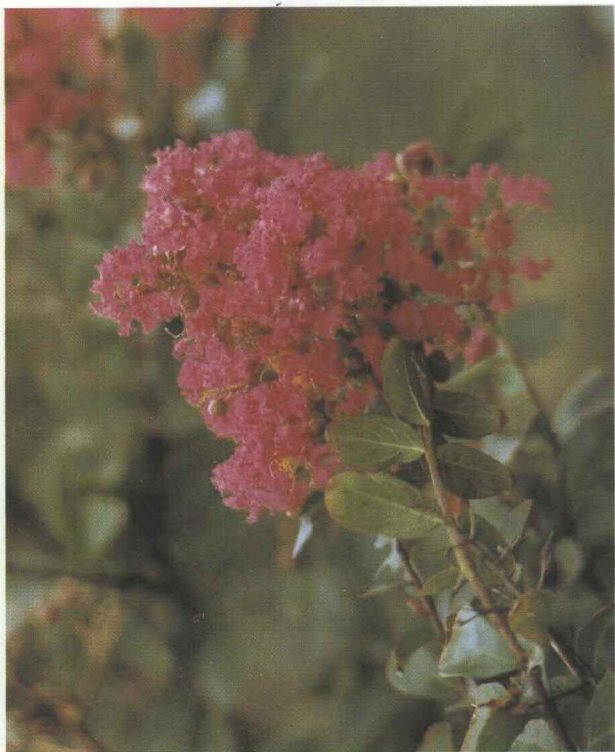
백목련



백양란(상사화)



백일홍



백일홍 (목백일홍)



백합 (나팔나리)



벚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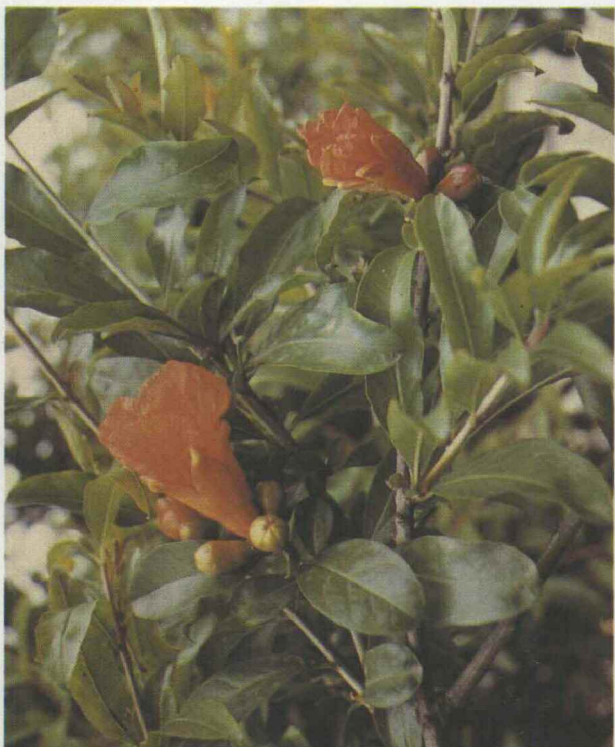
복사꽃 (복숭아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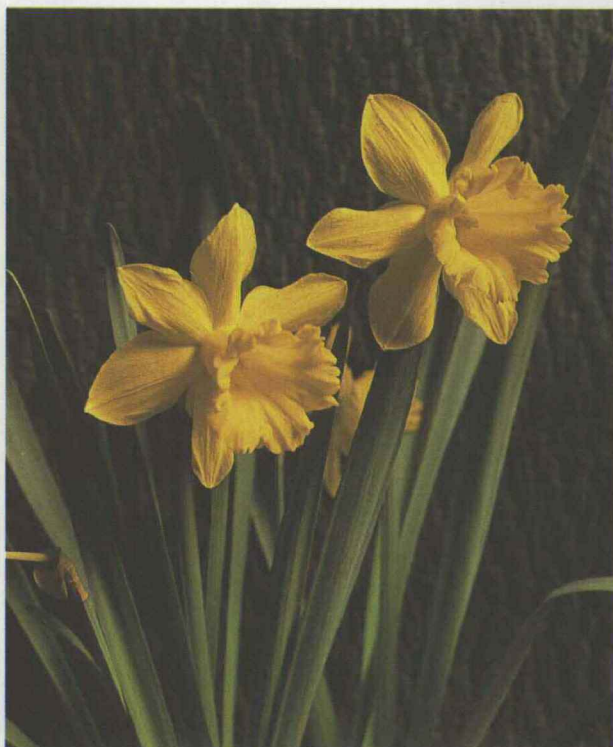
산수유



살구꽃



석류꽃



수선화



영산홍(산철쭉)



월계화



작약



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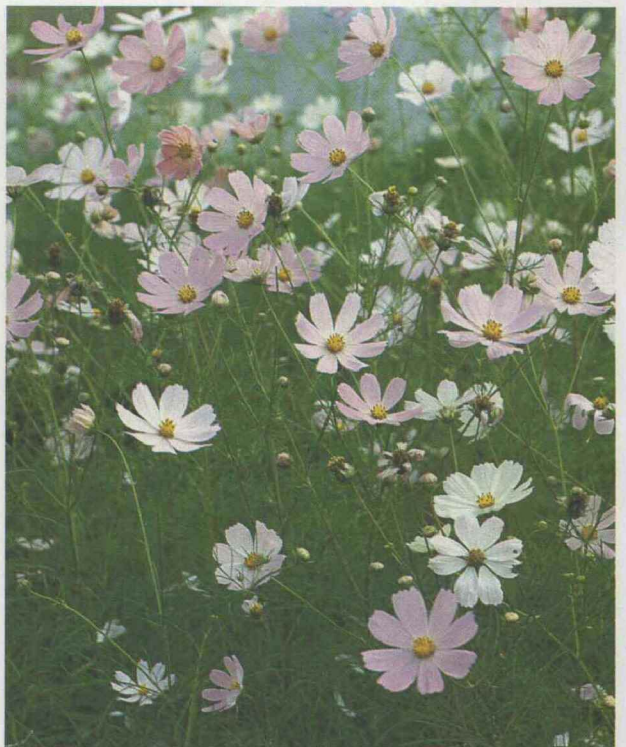
진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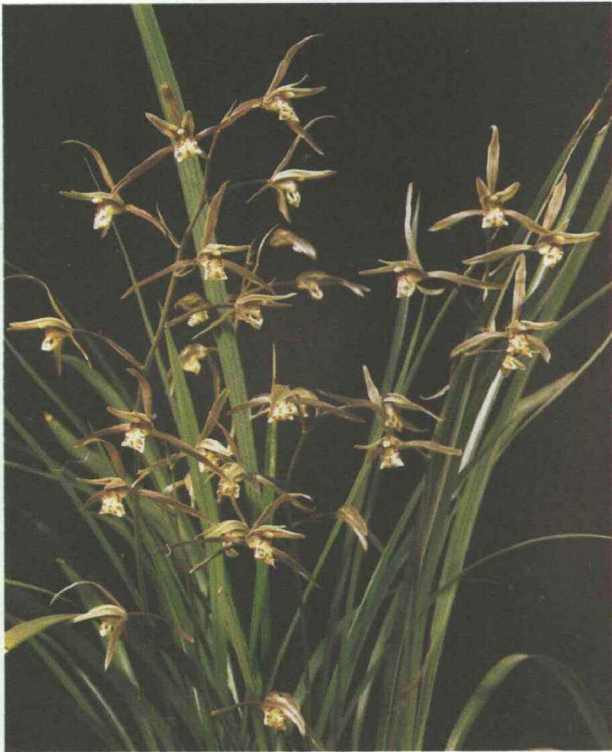
철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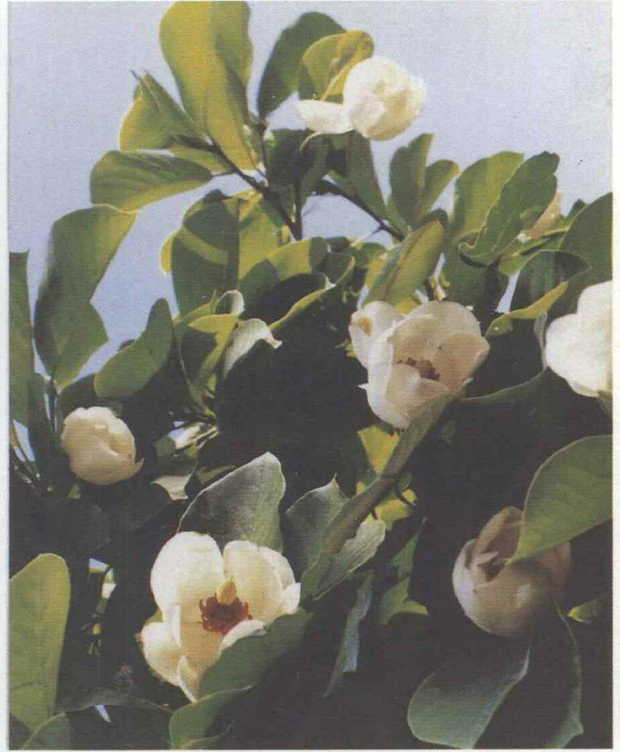
치자



코스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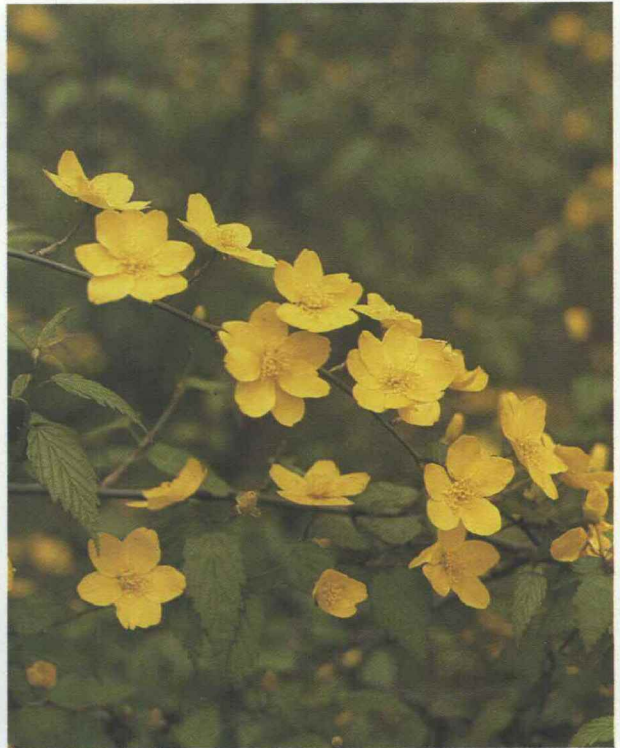
한란



산목련(함박꽃)



해당화



황매화(죽단화)

(市郡木)

(市郡木)

市郡의 나무 指定現況

나 무	수 량	나 무	수 량	나 무	수 량
합 계(38종)	196	석 류 나 무	2	고 로 쇠	1
은 행 나 무	77	백 합 나 무	2	유 자 나 무	1
느 티 나 무	29	대 나 무	2	백 일 홍 (배롱나무)	1
잣 나 무	9	후 박 나 무	2	오 동 나 무	1
동 백 나 무	9	단 풍 나 무	2	박 달 나 무	1
감 나 무	8	적 송(춘향목)	2	굴 참 나 무	1
소 나 무	7	능 수 버 들 (수양버들)	1	편 백 나 무	1
주 목 (노가리나무)	6	호 두 나 무	1	중 려 나 무	1
대 추 나 무	5	배 나 무	1	이 팜 나 무	1
전 나 무	5	비 파 나 무	1	팔 손 이 나 무	1
향 나 무	4	층 층 나 무	1	비 자 나 무	1
히 말라야시 다 (개잎갈)	3	매 화 나 무	1	팽 나 무	1
해 송(곰솔)	2	산 수 유	1	담 팔 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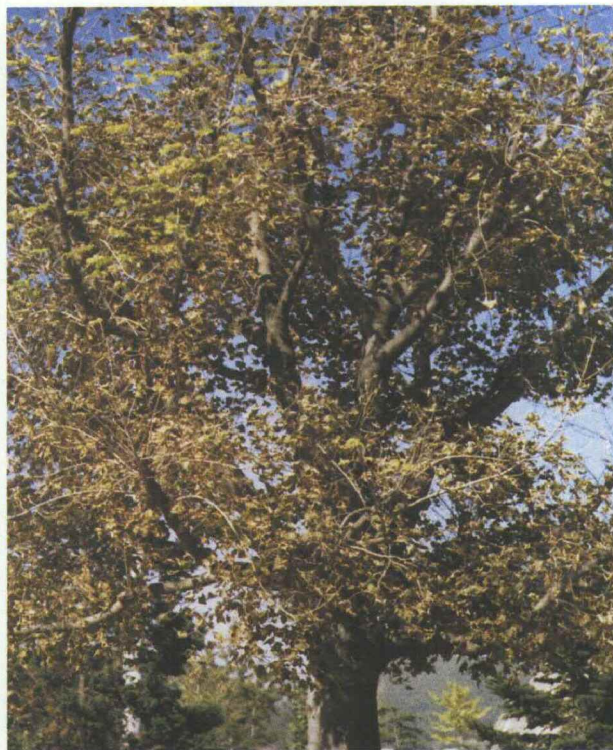
시군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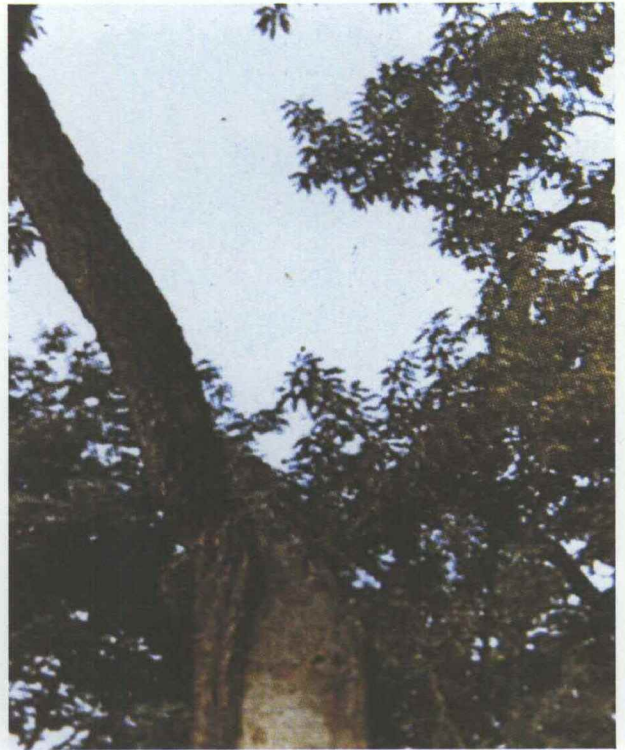
감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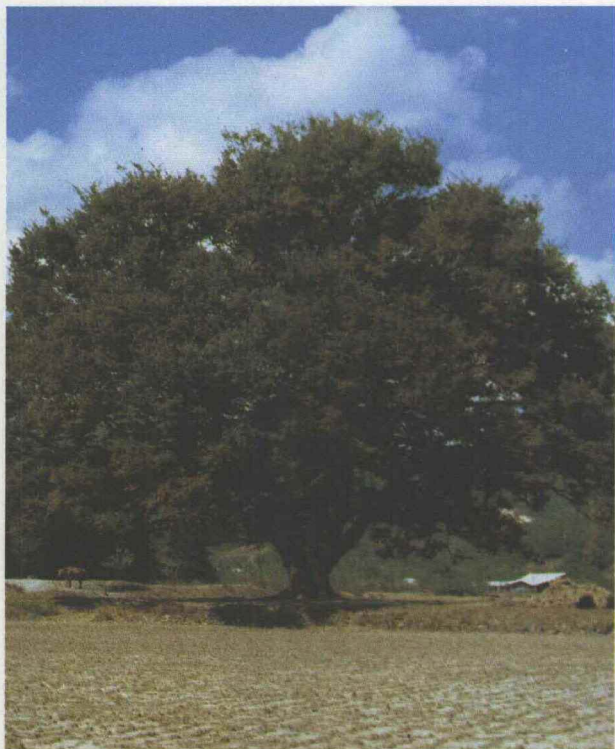
히말라야시다(개잎갈)



고로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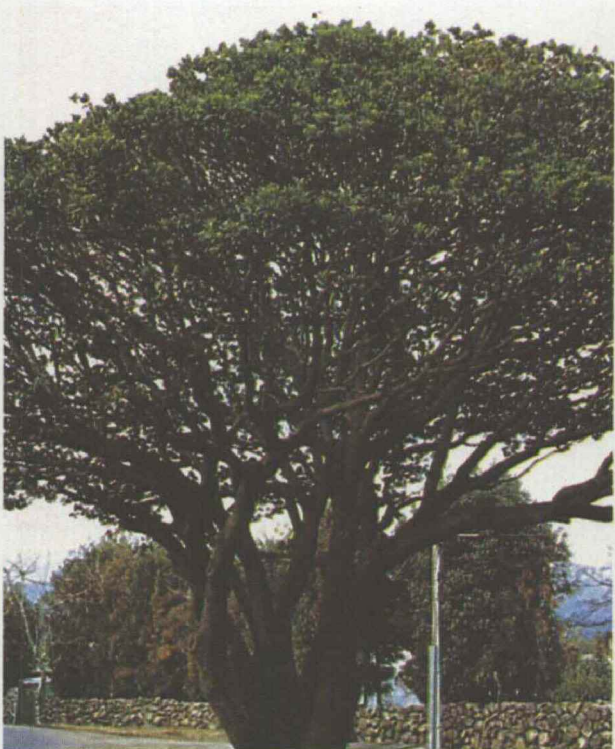
굴참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담팔수나무



담팔수(잎)



대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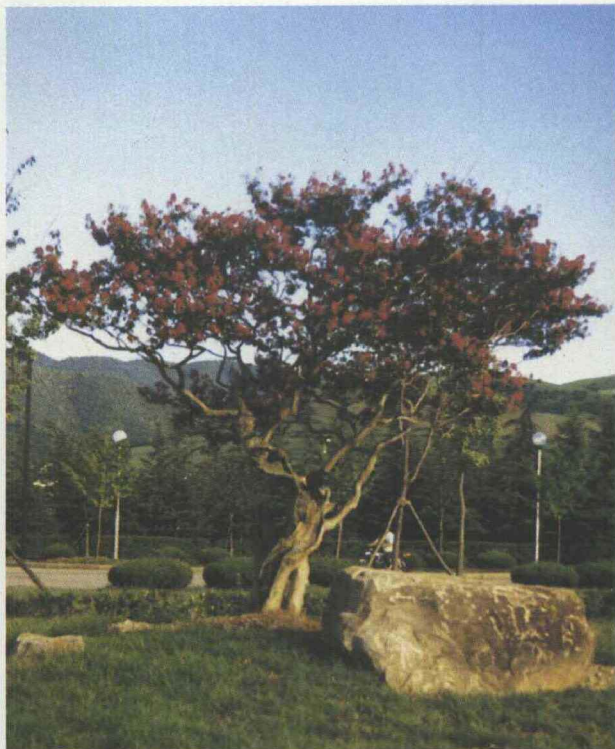
대추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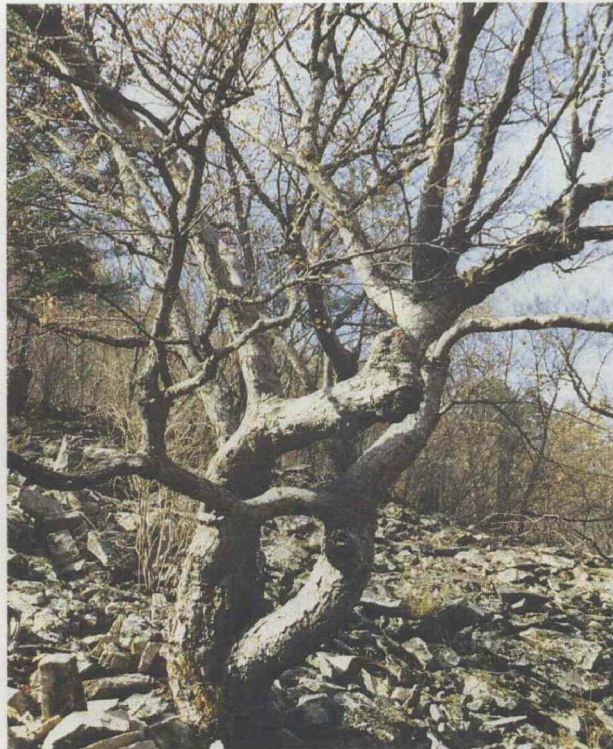
동백나무



매화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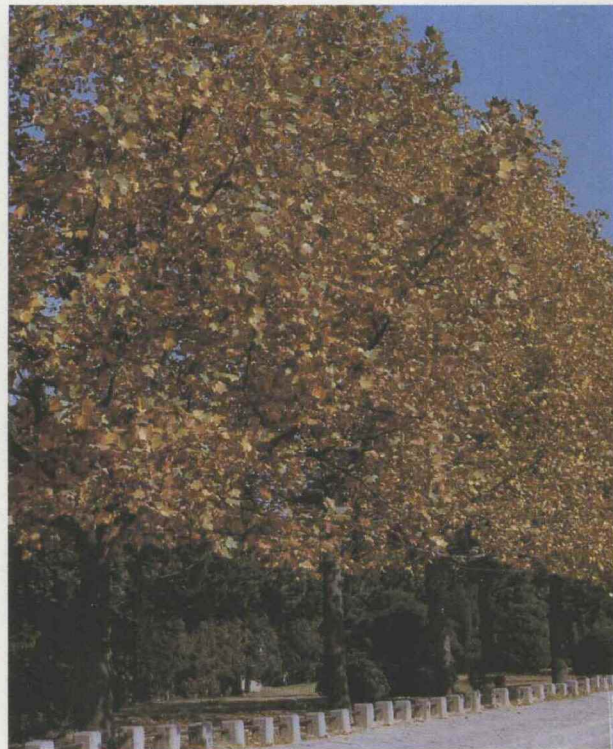
백일홍(목 백일홍)



박달나무



배나무



백합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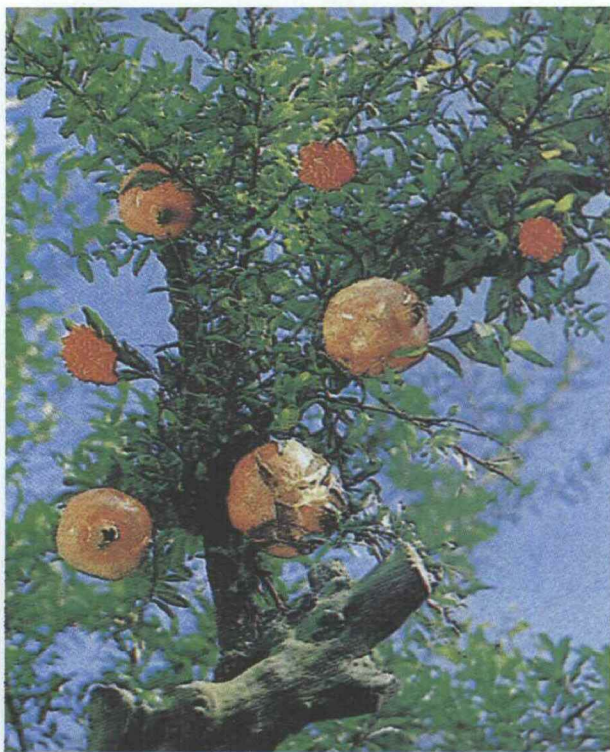
비자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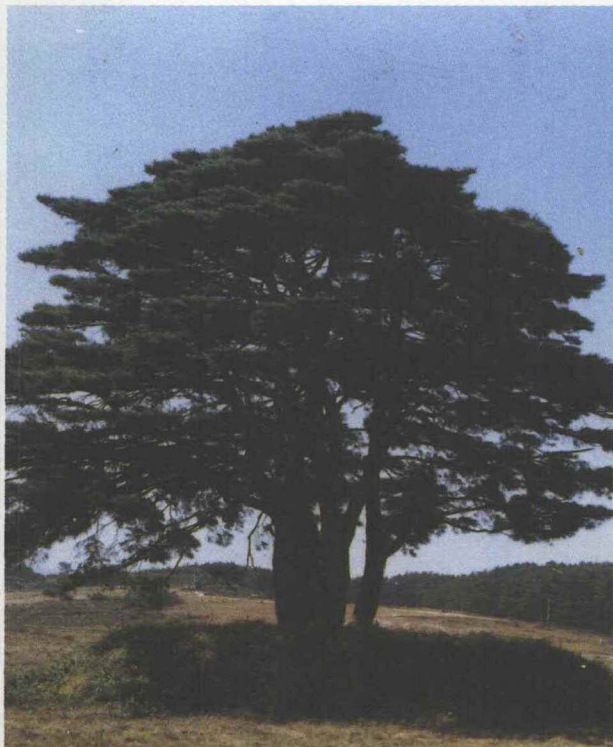
비파나무



산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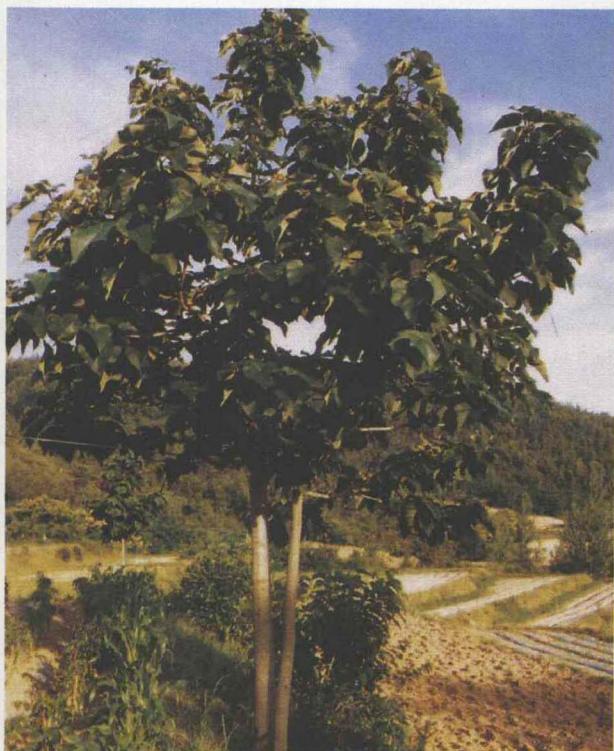
석류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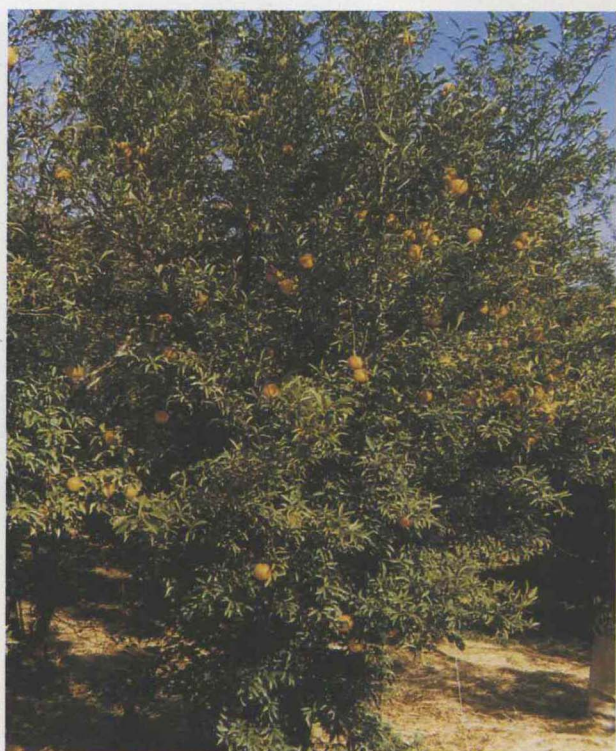
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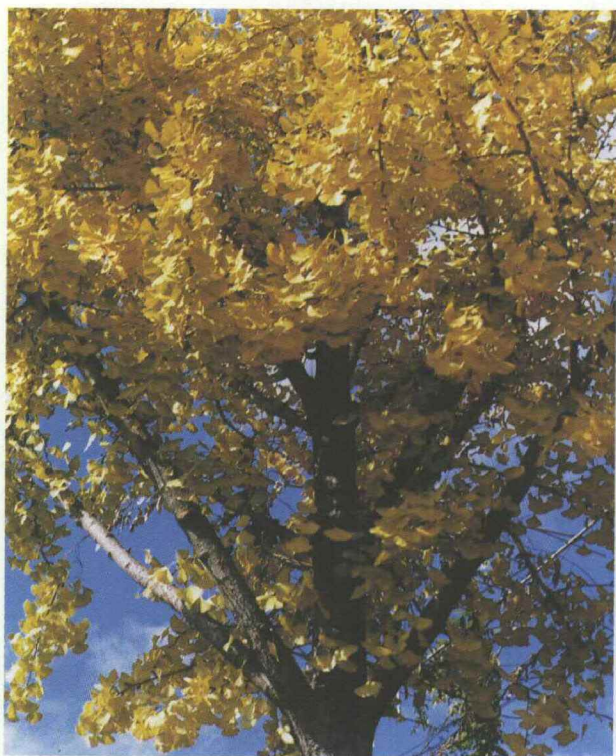
수양버들(능수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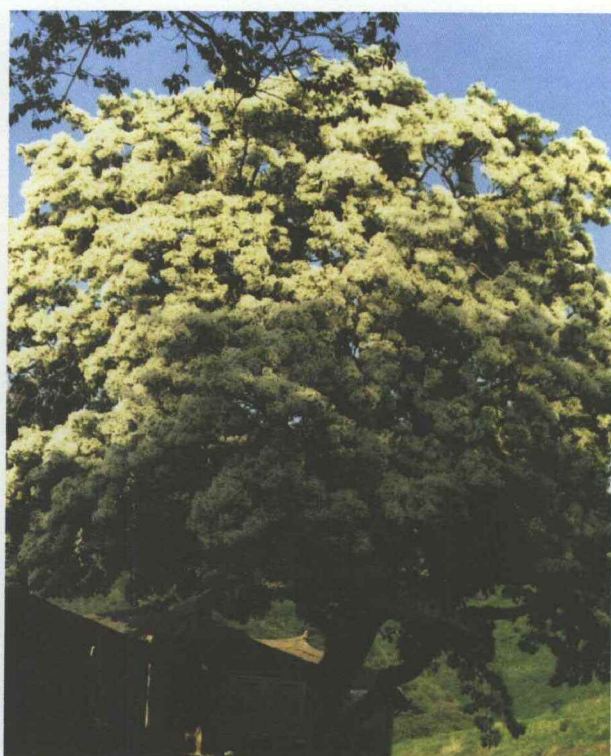
오동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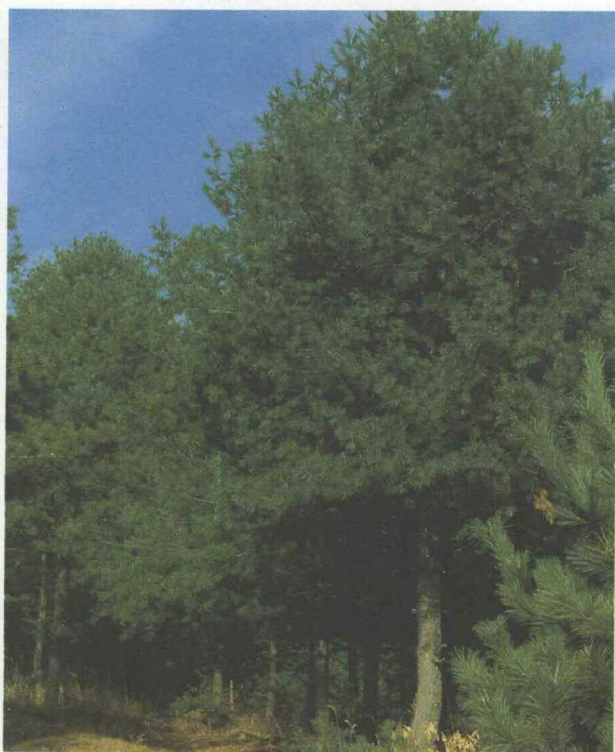
유자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잣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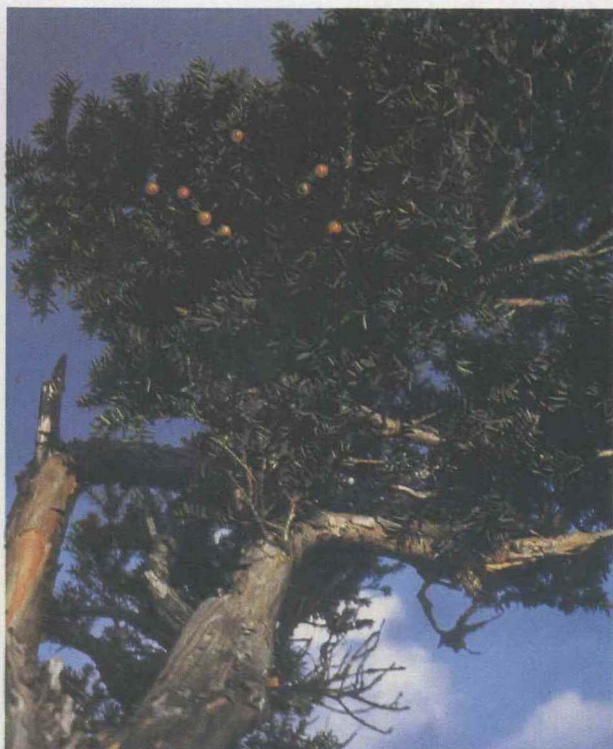
적송(춘향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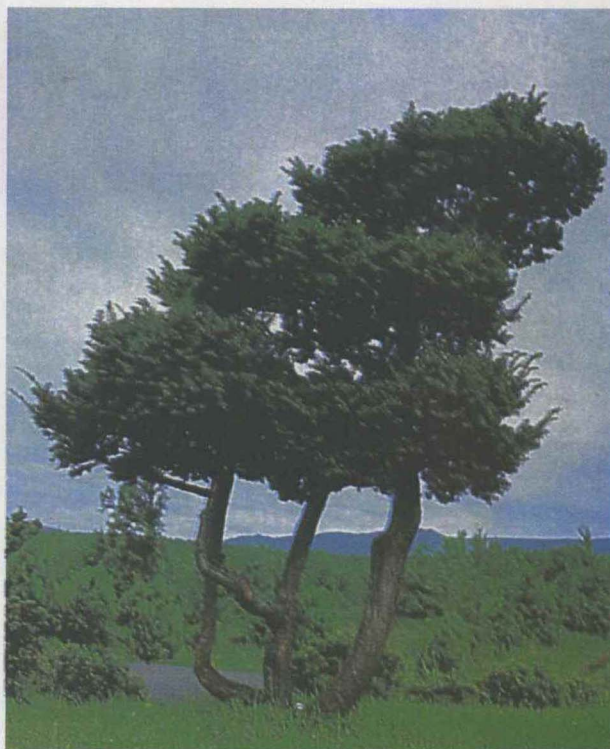
전나무(젖나무)



종려나무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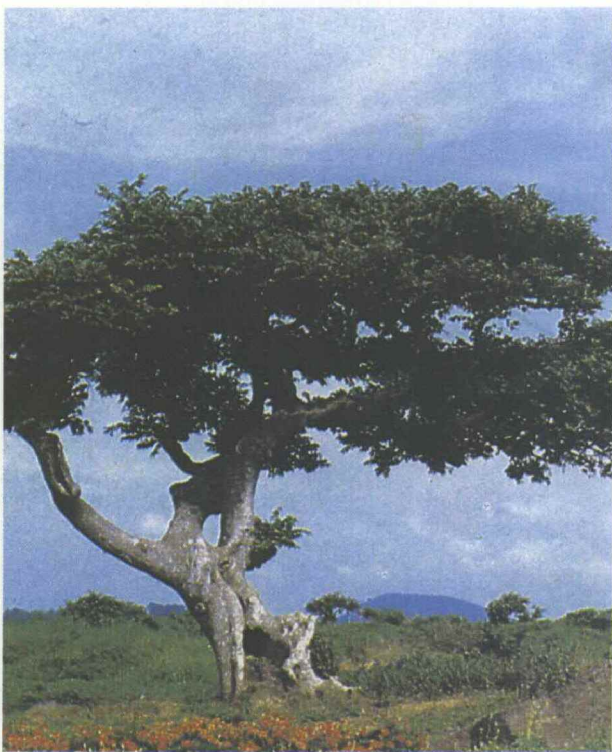
노가리나무(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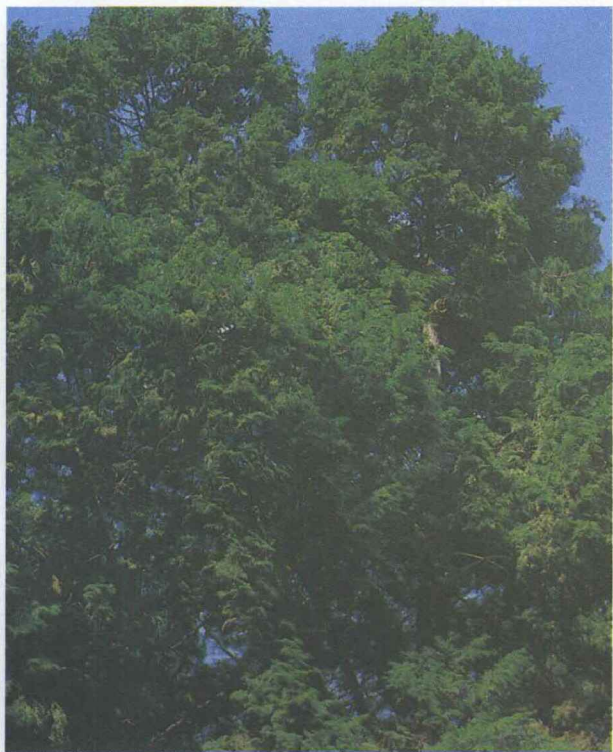
충충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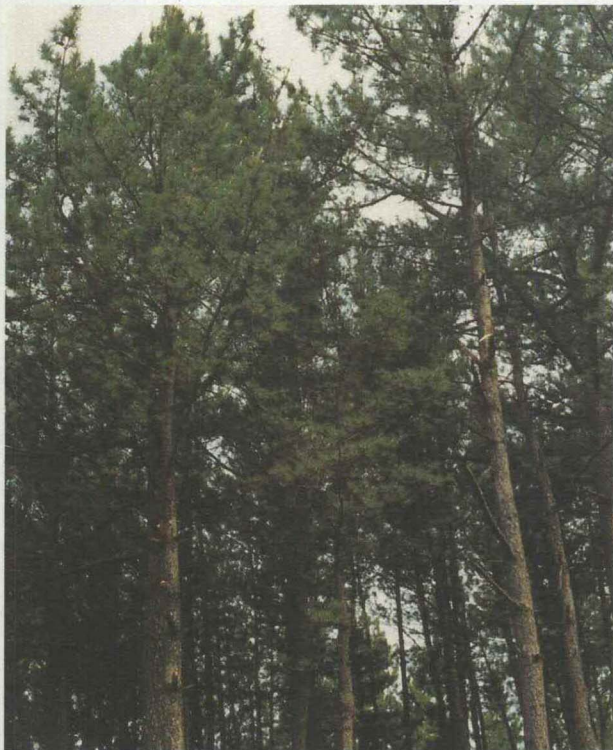
팔손이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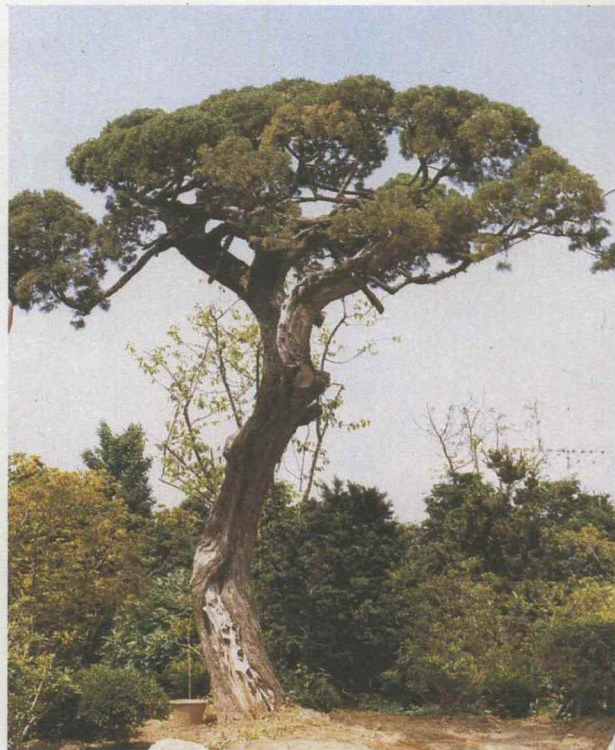
팽나무



편백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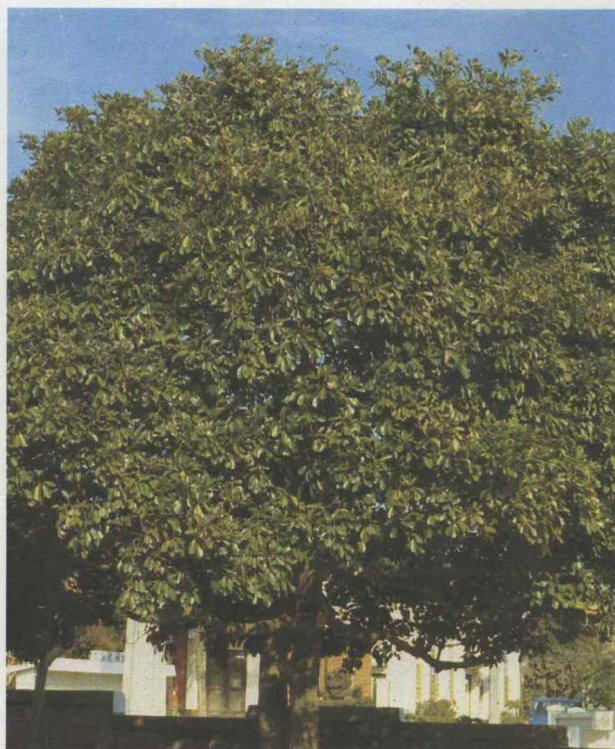
해송(곰솔)



향나무



호두나무



후박나무

시군의 새

(市郡鳥)

市郡의 새 指定現況

새	수 량	새	수 량
합 계(27종)	194	크 낙 새	2
까 치	73	두 견 새	2
비 둘 기	44	청 등 오 리	1
백구(갈 매 기)	16	백 비 둘 기	1
왜 가 리	9	백 조(고니)	1
산비둘기(뫼비둘기)	6	먹 황 새	1
학(두 루 미)	6	흑 비 둘 기	1
평	5	괭 이 갈 매 기	1
꼬 리	4	부 엉 이	1
백 로	4	해 오 라 기	1
제 비	3	빠 꾸 기	1
종 달 새	3	휘 파 람 새	1
산 까 치(어치)	3	동 박 새	1
독 수 리	2	파 랑 새	1

※196개 시군중 2 개 시군 미지정(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시군의 새



백구 (갈매기)



까치



백조 (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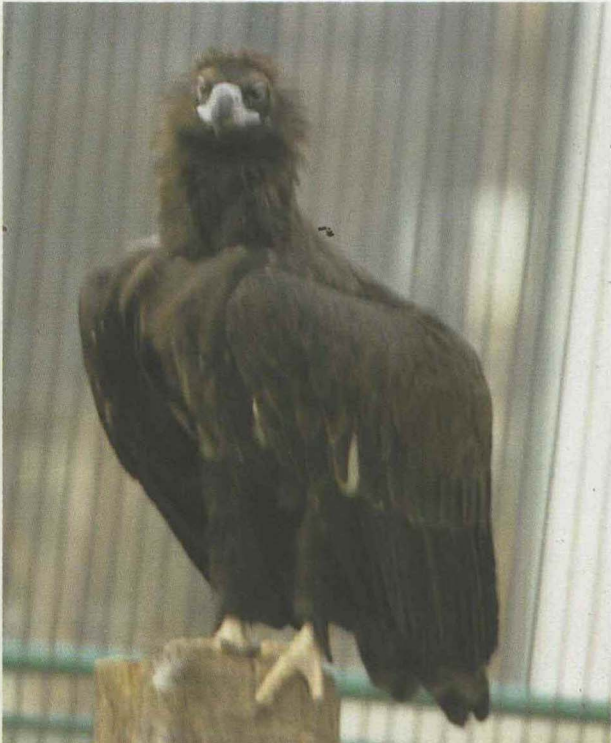
괭이갈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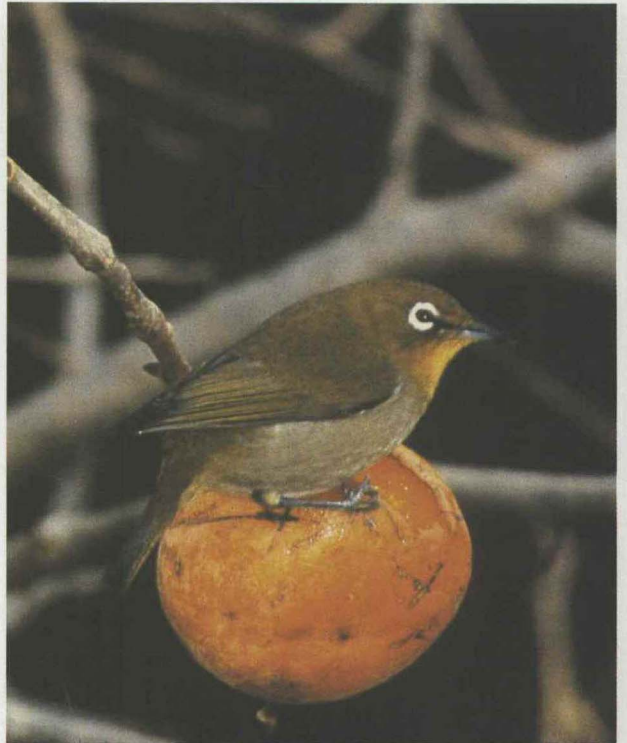
꿩



픽꼬리



독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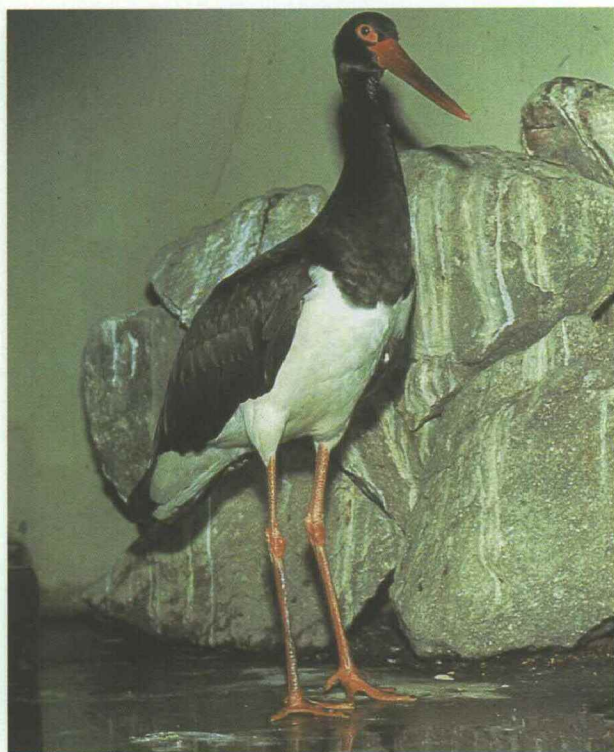
동박새



두견새



학(두루미)



먹황새



산비둘기(윗비둘기)



백로



백비둘기



빠꾸기



부엉이



비둘기



산까치(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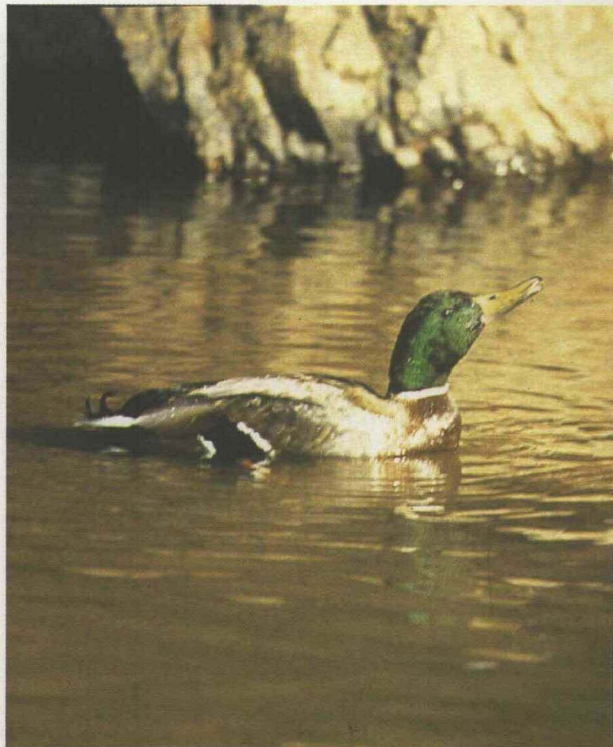
왜가리



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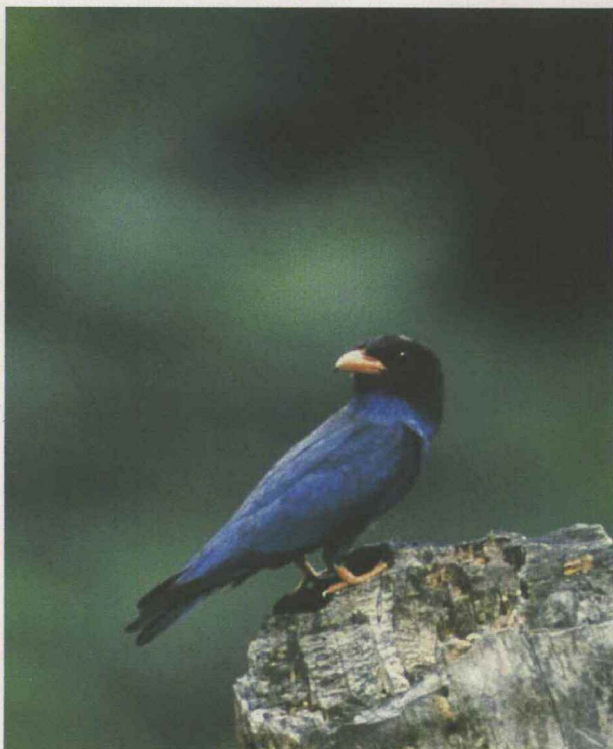
종달새



청둥오리



크낙새



파랑새



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휘파람새



흑비둘기

市·道, 市·郡(民)의 노래

시민의 노래

이 동 섭 작사
김 학 송 작곡

행진곡 F C₇ G F

찬 푸란 한 아 침 해 - 가 오 룩 도 를 비 치
른 꿈 물 결 따 - 라 동 백 꽃 곱 게 피

C F C₇ F

면 면 회 망 이 념 - 친 - 음 다 보 람
즐 거 운 발 - 결 음 에 오 붓

B_b C F F

찬 우 리 살 림 거 리 마 다 여 울 지 는
한 우 리 살 림 집 집 마 다 아 름 다 운

C₇ C₇ F₇

정 다 운 노 래 소 리 서 로 도 와 이 룩 하 자 밝 은 내 고 장 우 리
사 랑 의 노 래 소 리 서 로 도 와 이 룩 하 자 밝 은 내 고 장 우 리

C B_b F C₇ F

의 꿈 부 - 산 부 산 우 리 들 의 보 금 자 리
의 꿈 부 - 산 부 산 우 리 들 의 보 금 자 리

우리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시화인 동백꽃을 기리며 부산의 향토애를 가지고
가꾸기 위해 제정한 노래임

대구시민의 노래

힘차게

백기만 작사
유재덕 작곡

유재덕 작곡

mf

팔지세 공세계 산도에 줄아자 기쁨마 다고는 힘역이 - 맏히 - 고
신라 - 의문 - 어화

낙인온 동심전 강이히 구순이 비후어 돌아고은 보물담 아 주 - 는
우전히이어반은우화리의향다

mf

질끝그 편없문 한이화 백뻔새 리어별 은간이 양 - 름난 복 지
빛 - 양이날때습에

f

그 - 부 판 터 를 열 어 이 - 록 한 - 도 음
삼 - 남 의 제 일 움 도 나 - 라 의 - 심 장
정 - 념 코 은 누 리 가 찬 - 란 하 - 리 라

mp

우 리

f *ff*

는 - 명에로운 대 구 의 시 - 민

들아라 드우치 높은게 회 - 망의 불꽃
들아라 우치 령차개 건 - 설의바퀴
들아라 우치 령차개 건 - 설의바퀴

유구한 전통문화의 계승지에 강직한 의지와 순후한 인심이 어울려있는 명예로운 대구시민의 애향심을 북돋우고 긍지와 자부심 고양으로 희망과 활기가 넘치고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대구건설에 전 시민의 화합과 단결된힘을 모으고자 1956년 6월 제정하였음

인천시민의 노래

인천시문총 제공
최영섭 작곡

장엄하게



여명 이 아 시 아 - 에 - 비 칠 때 부 - 터
여기 서 다 겪 은 처 - 육 - 몇 번 이 던 - 가
저 바 다 뜬 배 에 - 도 - 뜻 은 있 어 - 라



한 양 - 길 구 비 구 - 비 백 리 를 뚫 고 흰
되 다 - 시 찻 은 환 - 회 또 한 열 만 가 나
우 령 - 찬 산 들 림 - 에 기 적 소 리 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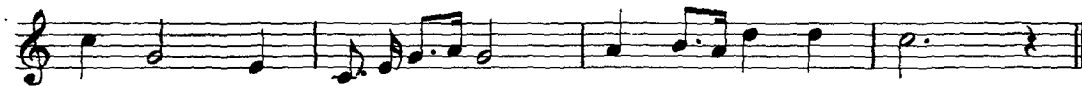
물 - 결 념 어 념 어 사 해 를 퍼 - 서 자
라 - 이 을 슬 풀 때 나 즐 을 때 - 나 다
늘 - 을 휘 여 덮 는 공 장 연 기 - 도 내



라 온 인 천 항 구 우 리 의 고 - 장 한 없
고 간 의 인 천 지 사 해 일 수 없 어 그 님
장 인 인 천 항 구 숨 쉬 는 모 습 문 학



이 (한 없 이) 뻗 어 나 갈 길 을 - 위 하 여
들 (그 님 들) 뜻 을 받 아 세 워 - 갈 하 구
산 (문 학 산) 줄 기 마 다 서 기 - 가 차 고



우 리 손 모 아 보 - 자 마 을 - 도 합 게
빛 내 자 무 리 인 - 천 만 국 - 의 문 호
월 미 도 념 는 회 - 망 끝 이 - 없 고 나

인천을 대표하고 상징할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1955년 시의회에서 인천시민의 노래를 제정기로 의결하여 만든것으로 인천시민의 굳건한 기상과 희망찬 미래의 환희를 표현한 노래다

시민의 노래

(광주시제정)

Moderato

<힘차게 명랑하게>

허정연 작사
용상 작곡



1. 노 령 의 줄 기 뻗 어 솟 은 무 등 산
2. 극 락 강 답 이 은 노 을 이 피 고 물
3. 사 직 단 밝 은 달 빛 고 운 시 냇 물



미 더 운 품 에 안 겨 자 라 는 낙 원
중 심 사 종 소 리 예 먼 동 이 트 다
웃 음 은 집 마 다 녀 흐 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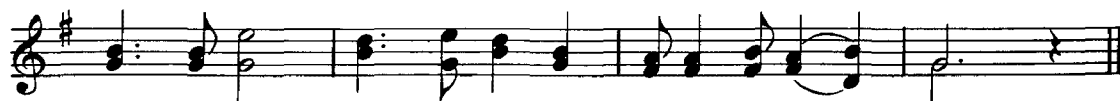
한 맘 으 로 겨 레 위 해 밝 혀 든 헛 불
형 어 제 처 럼 서 로 돛 고 민 는 이 옷 들
어 느 때 나 꽃 받 처 럼 귀 여 운 새 썩



대 대 로 이 어 반 아 빛 내 며 살 자
땀 땀 홀 려 일 을 하 고 알 차 게 살 자
나 라 의 기 등 으 로 가 꾸 며 살 자 어 화



둥 둥 - 살 기 좋 아 인 - 심 - 도 좋 - 아



알 뜰 한 우 리 고 장 정 다 운 광 - 주

市民들의 協同 團結 및 鄉土愛와 愛鄉心을 鼓吹시키고 市民의 和合과 살기 좋고
인심이 후한 내고장을 사랑하는 意志를 심기 입하여 1966년 製作, 위위

경기도 노래

이 은 상 작사
이 흥 열 작곡

(전주)씩씩하게

삼 각 산 솟 은 아 래 고 을 고 을 이
한 강 이 임 진 강 이 감 돌 아 울 흘 러

긴 역 사 아 로 새 긴 전 통 의 터 전
기 름 진 마 을 마 다 생 활 의 무 대

충 의 와 학 문 예 술 빛 나 는 유 적
너 와 나 손 목 잡 고 한 마 음 한 뜻

겨 려 의 열 이 깃 든 우 리 경 기 도
힘 차 게 살 아 가 는 리 경 기 도

나 라 의 힘 과 자 랑 여 기 에 있 다

문 화 의 낙 토 건 설 우 리 손 으 로

통 일 을 다 짐 하 는 보 람 찬 행 진

앞 장 서 우 리 조 국 새 역 사 짓 자

1500년의 긴역사와 전통속에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도민들에게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고양시켜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뜻한 노래로서 1971년 김태경 전경기도지사께서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함께 제정한 노래임

수원의 노래

유 달 영 작사
이 흥 열 작곡
송 대 웅 편곡



1. 이 - 강 산 에 정 - 기 가 한 곳에 모 - -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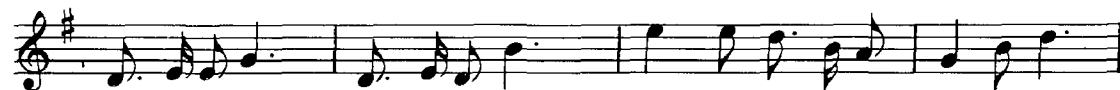
그 - 림 같 이 아 름 다 운 정 - 든 내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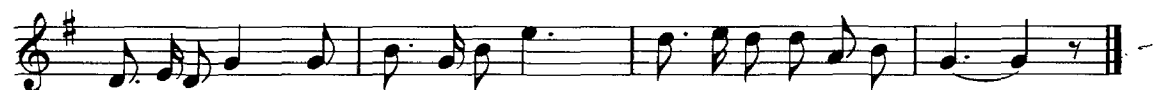
이 끼 푸 른 옛 - - 성 에 역 사도 깊 - - 어



어 - 덜 가 나 그 - 욱 한 고 적의 향 - 기



(후렴)수 - - 원 우 리수 원 정 든 내 고향 수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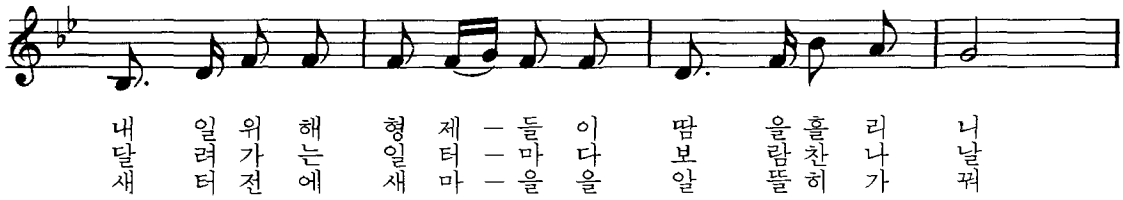
날 - 로 달 로 융 성 하 는 복 지가 여 - 기 . 다

2. 주-옥으로 부서지는 화홍칠간--수, 버-들푸른 여-기가 내-고향이라
옥야천리 넓-은데에 호수가넘--쳐, 노-래소리 드높으니 낙토아니-나
3. 낙-낙정정 푸른솔에 자연의품--에, 이-나라의 농-학의 샘이 흐르고
끓-임없는 건-설에 마치가울--려, 눈-부시게 새아침의 동-이터온다

역사깊은 고적의 향기와 더불어 향토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고 수원의 무궁한 발전과 융성으로 복지수원을 이룩하기 위한 시민의 노래로서 당초 민요조의 노래였으나 1951년경 이흥열 선생이 곡을 만들어 동년 수원의 노래로 제정

성남시민의 노래

이 만 향 작사
김 학 송 작곡



남한산의 푸른정기를 뚝뚝안고 굳센 의지와 노력으로 내일을 위한 복된 땅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장엄하고 경쾌하여 누구나 즐겨 부를수 있는 노래로서. 1973년 7월 1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서 성남시로 시 승격이 됨에 따라 시민의 노래를 제정

의정부시가

썩썩하고 명랑하게

박 목 월 작사
김 동 진 작곡



도 봉 산 맑은모습 바라보면서 마음이 청결한 시민이 사는



이 곳은 의 정부 평 화한 낙 원 서로돕 고도와가며 즐겁게 살자



서로돕 고 도 - 와 가 며 한 데 뭉 쳐 한 데 뭉 쳐



(후렴) 날 로 날 로 뻗 - 어 가 세 우리 우리의 정 부

수락산 아침해가 뜨기도 전에 근면한 시민이 힘써 일하는
이곳은 의정부 화목한 거리 명랑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자
명랑한 마음으로 한데뭉쳐 한데뭉쳐 날로날로 뻗어가세 우리우리의정부
만장봉 한가로운 환구름송이 유서깊은 망월사 솔바람소리
이곳은 의정부 코스모스가 시민의 가슴마다 환하게 핀다
다정한 손과손을 마주잡고 마주잡고 날로날로 뻗어가세 우리우리의정부

명랑, 인화, 단결의 시민상을 심어주고 활기찬 시 발전을 위하여 1968년 3월26
일 제정된 노래임

안양시민의 노래

명랑하고 씩씩하게

김대규 작사
김동진 작곡



1. 관악정기 이 어반 고 수 리 기 습 닦 은 터 예
2. 관악따라 높은 의 기 수 리 닦아 맑은 인 정



모일 이 었 다 힘찬 역 - 군 이 집 루 었 다 복 지 사 회
일 터 마 다 힘찬 노 - 래 집 집 마 다 환 한 웃 음



포 도 알 알 서 린 전 통 더 빛 내 어 물 려 주 리
안 양 천 은 구 비 구 비 내 내 일 향 해 뻗 어 간 다



내 몸 마 음 다 - 바 - 쳐 내 고 장 을 빛 내 리 라
내 한 정 성 한 결 같 - 이 내 고 장 을 빛 키 리 라



아 아 슬기로 맞 이 할 새 날 의 새 역 사



아 아 그 이름 영 원 무 궁 영 광 의 안 양

시민의 명랑과 화합을 위한 노래로서 1973년 7월 1일 시흥군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지역 유지들의 중지로 시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민의 노래로 제정

부천시민의 노래

부천시민의 노래 제정위원 작사
이 동 순 작곡

행진빠르기 ♩=120

성 주 산 기 슬 따 라 는 복 사 꽃 피 고 고 동
앞 에 는 부 - 천 별 아 - 느 한 터 전 상
드 힘 높 이 휘 날 리 자 애 향 의 깃 발
밭 흠 모 아 일 하 - 고 즐 겁 게 사 는
땀 흘 리 는 일 터 마 다 서 광 념 치 네
행 - 복 이 샘 솟 - 는 부 천 이 라 네
(후렴) 뜻 모 아 자 손만 대 번 영 누 릴 곳
살 기 좋 은 낙 원 으 로 가 꾸 어 가 세

1973년 부천시로 승격되면서 시 노래 제정위원회를 구성 가사를 공모하여 1974년 5월 7일 부천시민의 노래로 제정

광명시민의 노래

임영순 작사
한세용 작곡

보통빠르기

구름 - 산 - 정기반은 우 - 리 - 광 - 명 - 시
꿈 - 과 - 줄기어린 아 - 름 - 다 - 운 - 우 - 리 - 고 - 장

언제 - 나 - 밝은 햇살 큰 마음 - 큰 - 뜻 - 되 - 어
찬란 - 한 - 전 - 통 - 과 내 일의 - 의 - 영 - 광 - 위 - 해

사 - 랑 - 과 - 지 - 혜 - 로 땀 흘리 - 는 - 보 - 람 - 속 - 에
손 - 과 - 손 - 을 - 마 - 주 - 잡 - 은 - 역 - 군 - 이 - 되 - 어

mf
오늘도 웃음꽃피는 자랑스런 광명시민

빛과 밝음이 시에서 가장 높은 구름산의 정기에 의해 시민의 영광으로 이어짐을 뜻한 노래로서 1981년 7월 1일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시 승격이 됨에 따라 땀흘려 일하는 자랑스런 시민상을 표상하기 위하여 동년 10월 시가로 제정

송탄시민의 노래



찬란한햇살 비쳐-진곳에 복지의터전 펼쳐있-네
 숭고한정신 애국-의지로 유구한전통 이어받-아



화목과인정 사랑이넘치는 희망찬삶의 요람이아라
 찬란한미래 건설하여나갈 영원한삶의 터전이아라



서로믿고 뜻을모으는 의욕에찬 송탄시-민



내일의영광 즐기차게뻗어 역사의 빛이되리라

시의 고유성을 살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표현하였으며, 특히 애향심 고취와 시민의 전진 화합을 뜻한 노래로서 1985년 7월 1일 시 승격이 됨에 따라 시가로 제정하였음

동두천의 노래

류 달 영 작사
김 동 진 작곡

썩썩하고 명랑하게



소요산 작은금강 아름다운 선경이라
황회정 승어장군 이 정을심어 살던터전



한반도 모든정기 이곳으로 모였구나
의병들이 별 때 처럼 나라위해 싸운고 장



동두천 우리들은 그 정기 타고 나
동두천 우리들은 그 기상 타이어서



인물 좋고 인심 좋 아 하느일 다 잘된 다
억척스리 서로 뽕 쳐 새 낙원 이룩한 다



어화 자살기 좋은 내 고향 어화 자살기 좋은 내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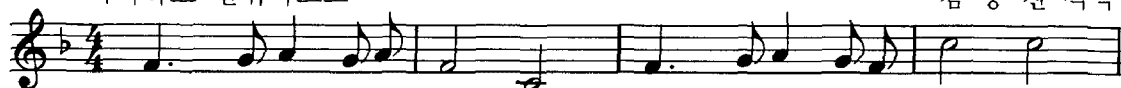
천만 대 살아갈 우리낙천지 천만 대 살아갈 우리낙천지

소요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나날이 발전해가는 평화로운 전원 도시와 구수한 인정과 수려한 자연을 자랑으로 삼고 후손만대에 살기좋은 고향을 물려주고 희망찬 미래를 지켜나가자는 뜻이 담겨져 있는 노래로서 1985년 9월 19일 시가로 제정

안산시민의 노래

씩씩하고 진취적으로

이 정 태 작사
김 동 진 작곡



겨 레 의 슬 기 모 아 이 록 한 터 전 위 에
새 역 사 다 저 가 는 겨 래 의 터 전 위 에



광 덕 산 정 기 타 고 우 뚝 솟 았 네
시 해 로 뻗 어 가 는 우 리 솟 았 네



모 두 가 힘 을 모 아 세 우 고 가 꾸 어 서
내 일 의 영 광 위 해 다 듬 고 가 꾸 어 서



살 기 좋 은 내 고 장 이 록 해 보 세 그
살 기 좋 은 내 고 장 이 록 해 보 세



이 름 안 산 안 산 우 리 의 요 람 회
사



망 의 고 을 이 다 꽃 을 피 우 세
랑 의

우리의 안산은 이상적인 전원공업도시로서의 면모와 함께 이고장 출신의 작사로 만들어진 노랫말로 애향심의 고취와 건전한 근로정신을 함양하는 정주개념을 목적으로 하며 인공계획도시인 안산을 창조하는 긍지와 자랑스런 민족적 대행진에 참여하는 의미를 지닌다.

과 천 시 가

보통속도로(우람차게)

김 용 직 작사
장 일 남 작곡

mf

보 아 - 라 드 높 은 관 악 산 자 - 락
보 아 - 라 질 높 푸 른 한 가 람 남 - 쪽

역 사 - 의 힘 찬 줄 기 뻗 서 있 는 곳
전 통 - 의 진 찬 향 기 뻗 서 있 는 곳

mp

우 리 가 모 - 여 서 큰 꿈 을 엮 - 어
한 마 음 몽 - 치 고 힘 을 합 하 - 어

f

미 뻗 고 자 랑 찬 새 - 날 을 엮 는
다 갈 이 찬 란 한 미 - 래 를 엮 는

아 - 과 천 보 영 람 광 의 고 장
아 - 과 천 보 영 람 광 의 고 장

f

너 와 나 모 두 가 손 을 맞 잡 아
안 정 과 믿 음 을 성 채 로 쌓 아

나 라 와 겨 레 의 큰 꽃 되 리 라
온 누 리 밝 레 히 는 해 가 되 리 라

과천시에 대한 예찬과 시민의 번영, 자유를 기원하는 과천시민의 노래로서 시민의식 고양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고자 '86. 12.5.과천시가로 제정

구 리 시 가

한 명 회 작사
최 동 선 작곡

힘차고 보통빠르기로

아 차 산 양 지 널 에 서 기 어 리 - 고
동 구 통 술 바 람 에 영 기 가 돌 - 고

한 강 변 푸른 들에 무 지 개 이 - 니
왕 속 천 맑은 물의 정 기 서 리 - 니

어 진 이 옷 오순 도순 이 곳 에 모 여
백 의 형 제 도란 도란 이 곳 에 모 여

내 고 장 새 역 사를 가 꾸 어 가 - 네 아 -
내 고 장 새 문 화를 일 구 어 가 - 네 아 -

아 그 - 이 름 다 정스런 나 의 구 리 시 아 -
아 그 - 이 름 영 광스런 나 의 구 리 시 아 -

아 그 이 름 자 랑 자 랑스런 우 리 구 리 시
아 그 이 름 영 원 영 원하리 우 리 구 리 시

구리 시민의 화합과 단결, 일치를 상징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이웃간에 오순도순 살아가는 마음을 그린 노래로 1986년 1월 1일 시 승격과 함께 1986년 5월 2일 시 상징물 제정위원회에서 시가로 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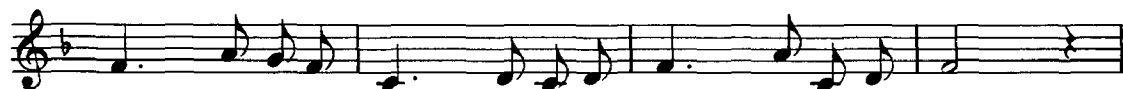
평택 애향가

민요풍으로

유 달 영 작사
이 흥 렬 작곡



바충언조 라-덕상 보무마들 면의다의 가탈풍터 이이겨를 없되나뉘 는어는은 천싸포이 리운도중 평의의은 야용향산 에들기수



비호소개 단적사척 위예별하 의도엔자 무굽화한 뉘하이데 처잡날몽 림은아쳐 고장금지 운쾌물와 솔한결성 뵈기이으 들개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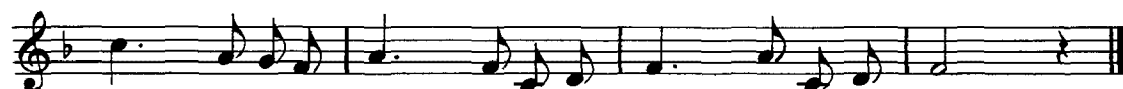
진바닷새 위위를역 안조주사 성차는의 두영어깃 강웅선- 물으들발 이로운도 하승풍우 나리어릴 로거의부 흘렸노른 러네래다



새정그이 해-어생 물의디명 결의나에 굽피캐불 이가어을 치살가달 는아면려 평한무밖 택결진게 내갈한타 고고자보 향나원자



(후렴)아 름 다 운 산 과 바 다 야 정 든 고 향 아



하 느 님 이 나 러 주 신 만 세 의 낙 토

양주군 애국가

박 화 목 작사
전 석 환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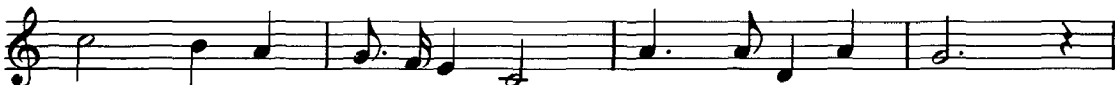
뜻을 생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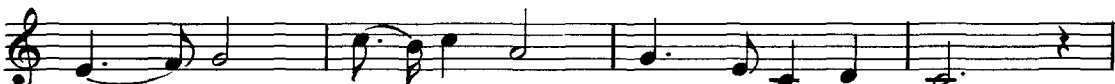
천 감 보 악 산 푸 린 숲 이 은 우 거 진 곳 예 장



맑 양 은 여 울 험 - 없 이 홀 리 - 내 리 네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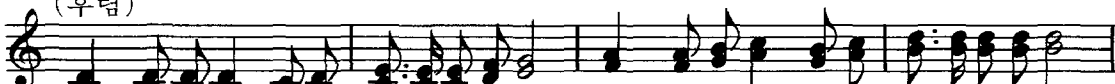


회 오 암 백 사 년 터 역 를 찾 는 긴 유 람 의 발 주 길 군



군 - 민 모 - 두 의 자 랑 이 로 다
저 멀 리 양 주 산 성 호 국 의 표 상

(후렴)



옛 조 상 얼 들 이 여 기 숨 쉬 고 민 족 의 문 화 가 깃 들 인 고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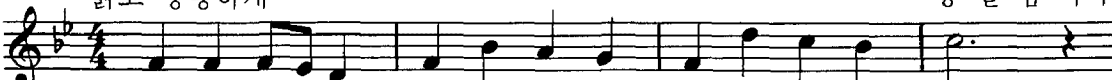
인 심 좋 고 살 기 좋 은 복 지 양 주 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과거의 찬란했던 전통을 이어받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가자는 노래말로 양주군의 노래는 1980년 이전에 제정하였으나 2차에 걸친 행정구역 분리로 다소 약화된 군세를 바탕으로 군민의 애향심 위하여 1980년 가사를 일부 수정하여 양주 애창가로 제정

남양주군가

한 명 희 작사
장 일 남 작곡

밝고 명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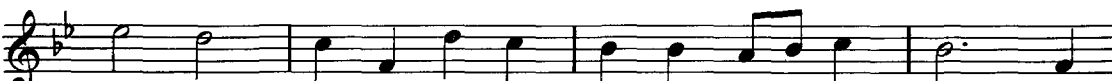
천동 마에 - 봉 빼 난 정 기 명 당 이 되 고
돌 녀 하 - 들 맑 은 햇 살 뽕 광 이 루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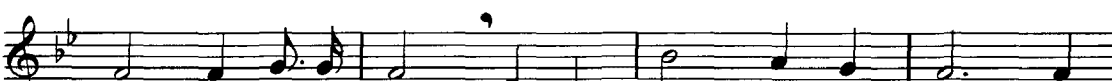
맑은 한 강 구 비 흘 러 옥 토 이 루 니
마 을 마 다 이 는 서 기 누 리 에 차 니



예 부 - 터 백 의 선 조 이 곳 에 모 여 참
겨 레 - 의 깊 은 예 지 여 기 서 자 라 찬



다 운 삶 의 지 혜 익 혁 오 - 던 곳 인
란 한 역 사 의 꽃 피 워 가 - 는 영 영



정 도 따 사 로 운 남 양 주 여 라 인
원 한 우 리 고 장 남 양 주 여 라 영



정 도 따 사 로 운 남 양 주 - 여 라
원 한 우 리 고 장 남 양 주 - 여 라

어느 고장이든 그 고장을 상징하는 노래가 있다. 남양주군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산자수려한 우리 민족역사의 현장이었다. 조상의 슬기로운 얼을 이어 받은 온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역사 창조에 앞장서는 군민의 생활의지의 표현과 구심점 마련을 위하여 1980년 5월 8일 남양주군가를 제정하였다.

여주의 노래

유 달 영 작사
김 동 진 작곡



봉 마 다 푸 른 술 에 싱 싱 히 어 - 린
북 별 의 칼 을 갈 던 우 람 한 뜻 - 과
정 음 을 지 어 퍼 신 어 - 진 슬 기 가
봄 하 늘 태 양 으 로 우 - 린 기 른 다
구 비 쳐 흘 러 가 는 무 궁 한 강 - 물
강물 처 럼 무 궁 한 여 주 의 마 ... 음

2. 명화에 그림같은 여주 팔경에
포은도 찾아와서 시를 읊었네
역사에 피고 진 허다한 인걸
유서깊은 고적마다 신운이돈다

3. 맑은강 넓은들에 검은 멧부리
홍겨운 농부가는 메아리 친다
천만대 살아나갈 우리 복지를
자유의 깃발아래 이룩해 가자

세종, 효종대왕의 위업과 여주가 낳은 수많은 인걸을 찬양하며 여주팔경의 찬란한 경관과 함께 강변의 넓은 들에 풍년을 이루는 복지농촌을 표현한 군민의 노래로 1955년 제정

평택 애향가

유 달 영 작사
이 홍 렬 작곡

민요풍으로



바충언조 라-보면 가 이 는 천 리 평 야 에
 덕-무의 탈 이 어 싸 운 의 용 들
 상 다 풍 겨 포 도 의 향 기
 들 의 터 를 이 은 은 산 수



비호 단 위 의 무 누 처 림 고 운 솔 뫼 들
 적 에 도 곱 히 잘 은 장 쾌 기 개
 개 사 엔 한 이 날 아 금 물 이 는
 척 하 자 한 데 뭉 쳐 지 와 으 로



진 위 안 성 두 강 물 이 하 나 로 흘 - 러
 바 위 조 차 영 용 은 로 승 리 거 - 네
 닷 올 주 는 어 들 도 흥 어 의 - 래
 새 역 사 의 깃 발 도 우 부 른 다



서 해 물 결 굽 이 치 는 평 태 내 고 향
 정 - 의 의 피 가 아 한 결 갈 고 나
 그 어 디 나 캐 어 면 진 한 자 원
 이 생 명 에 불 을 려 밝 게 보 자



(후렴)아 름 다 운 산 과 바 다 야 정 든 고 향 아



하 느 님 이 나 려 주 신 만 세 의 낙 토

한반도 중심 수도권 서쪽에 위치한 군의 지리적 배경이 넓은 평야와 진위천 및 농촌의 광활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정취가 물씬 풍기는 민요풍의 노래로서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즐겨 부를 수 있는 향토의 노래임

화성의 노래

아름답고 힘있게

유달영 작사
김대현 작곡



1. 거울 같 은 호 수 - 마 다 고 기 가 뛰 - 고
2. 세 마 대 의 큰 승 - 리 와 고 죽 미 의 싸 - 고
3. 들 - 에 는 오 른 목 - 백 과 드 러 지 -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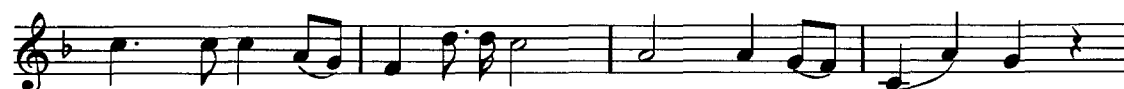
남 양 반 도 환 모 - 래 에 해 당 화 - 피 는
정 양 의 가 기 리 - 빛 내 장 채 하 - 구 나
언 덕 에 는 소 와 양 의 의 흐 - 른 다



아 름 다 운 내 - 고 향 정 다 운 고 향
화 산 의 깊 은 숲 엔 지 극 한 효
들 아 오 는 어 선 마 다 풍 어 의 것 발



푸 른 산 갈 피 - 마 다 꿈 이 서 려ت 네
용 주 사 의 종 소 - 리 가 더 욱 느 려
여 기 가 우 리 - 고 향 화 성 이 라 네



(후렴) 억척스 리 - 서 로 도와 일 하 는 - 화 - 성



어 루 화 좋 구 나 좋 다 자 라 는 - 화 성

남양반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억척스럽게 일하며 충, 효, 신,의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화성군민상을 표현하고 특히 권울장군의 위업을 기리고 군민의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1973년 제정

시흥의 노래

유 달 영 작사
김 동 진 작곡

썩썩하게



구름 같은 오랑캐를 한 칼에 베어
금강이 다시 솟아 관악청룡 산

조국울 굳게 지키는 낙성대의 별
과돌이 아로새겨 새 도원 일세

삼성의 얼이 스며 솔은 푸르니 고
한강 물 구비구비 서해 늪길

망경대의 일편단심 날빛 같고 나
속에도 그리워라 내 고향 산천

망경대의 일편단심 날빛 같고 나
속에도 그리워라 내 고향 산천

3. 즐거운 농부들의 노래소리에
철을따라 흐드러진 오곡과백과
바다에도 땅속에도 무진의자원
검은연기 뭉게뭉게 기계가돈다
검은연기 뭉게뭉게 기계가돈다

4. 상쾌하고 슬기롭다 태산의기개
참을찾아 한결같은 삼성의지성
이기개 이지성을 가슴에지녀
내고향을 낙원으로 개척해가자
내고향을 낙원으로 개척해가자

조국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충성심을 높이 찬양하고 지역에 대
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패기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박진감 넘치는 노래
로 1958년 제정

파주의 노래

행진곡풍으로 쉼없이 $\text{♩} = 08$

이응백 작사
김성태 작곡

mf

봉 서 산 옛 성터 에 아 침 해 가 비 치 니

f *mf*

드 - 높 이 부 품 가 숨 시 원 스 레 트 이 네

화 - 석 정 깊 은 숲 에 꾀 - 꼬 리 소 리 맑 다

f *mf*

기 름 진 논 밭 에 씨 뿌 리 고 거 두 세

f

내 고 장 파 주 는 한 국 의 허 리

ff

우 리 모 두 힘 을 모 아 조 국 의 역 군 되 세

2. 임진강 푸른물이 구비구비 흐르니
매말랐던 땅과맘도 함초롱이 젖었네
월-농산 어린달빛이 아니 선경이라
집집의 창문마다 밝은웃음 퍼나네
내고향 파주는 한국의 중추
우리모두 마음모아 조국의 등불되세

파주군은 조선조의 한양시절부터 현재까지 수도의 근교적 위치를 점유하여 모든 경제, 사회, 문화등의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인한 군민의 기상과 기질을 높이고자 1960년대말 파주 파평출신 이응백 박사가 직접 작사하고 김성태 선생이 곡을 붙여 파주의 노래를 제정

고양의 노래

경쾌하게

정 김 치 생 작사
김 경 희 작곡



한 강 수 푸 른 물 결 맑 게 흐 르 고
행 주 산 산 성 에 서 적 을 막 으 며



북 한 한 - 산 장 한 정 기 감 도 는 곳 에
한 덩 어 리 불 이 되 어 싸 우 던 기 백



새 시 대 를 다 짐 하 는 꿈 을 안 고 서
오 - 늘 도 내 혈 관 에 피 가 되 어 서



내 나 라 내 살 림 을 가 꾸 어 보 세
나 라 의 수 호 받 전 다 짐 하 는 곳



고 양 군 기 림 진 땅 복 된 내 향 토



일 하 자 이 룩 하 자 밝 은 내 일 로

고양군을 자자손손 길이길이 기억케하기 위하여 고양군을 상징하는 한강, 북한산, 행주산성의 유적과 기름진 옥토를 내용으로 담아 현재 고양의 노래로 불리어지고 있음

광주의 노래

민요조로 유 달 영 작사
이 흥 령 작곡



푸 른 산 맑 은 물 기 름 진 들 에
백 제 의 옛 서 울 꽃 피 던 고 장

슬 기 로 운 조 상 들 이 이 룩 한 고 장
남 - 한 산 높 은 성 에 업 힌 역 사 에

돌 하 남 나 나 무 하 나 정 이 어 리 네
옛 님 에 굳 은 충 절 철 석 같 았 네

천 - 만 대 융 - 성 활 무 궁 한 복 지
무 - 망 루 세 운 뜻 도 어 이 잇 으 라

(후렴) 진 - 설 의 마 치 소 리 개 - 척 의 노래 소리

강 물 처 럼 쉬 지 않 아 강 물 처 럼 불 어 간 다

3. 흰구름 감도는 푸른봉마다 옥같은 물이 흘러 내를 이루고
남북의 두강물이 다시모여서 구비 친다 한강물 양양한 앞길

산 좋고 물 좋으며 인심이 온후한 전통문화의 고장에서 슬기와 얼을 이어받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새로운 발전을 표현한 노래로 1960년 제정

연천군민의 노래

힘차게

오 치 성 작사
전 석 환 작곡



보 아 라 보 가 산 푸 른 웅 자 돈 는 햇 빛
들 어 라 한 탄 강 여 울 목 에 어 린 합 창



임 진 강 그 빛 속 에 출 령 출 령 구 비 처
군 자 산 그 메 아 리 열 한 골 에 퍼 지 고



우 리 들 땀 에 보 람 오 곡 익 는 연 - 천 땅
여 기 가 금 수 강 산 경 치 좋 은 연 - 천



희 망 의 일 손 모 아 번 영 - 이 피 네
합 심 해 일 손 모 아 근 대 - 화 되 네

(후렴)



일 하 세 - 나 - 가 - 세 연 천 군 - 민 아



차 탄 천 맑 은 물 에 땀 씻 어 - 보 세

향토에 대한 애향심 함양과 군민화합의 결속을 다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8년 군민의 노래로 제정

포천군민의 노래

오 치 성 작사
전 석 환 작곡



한 수 반 도 어 린 정 - 기 자 위 맏 히 어
원 산 돌 는 햇 - 빛 회 망 의 터 전



빛 왕 부 리 산 열 두 고 - 을 한 내 맑 은 곳
방 산 지 는 노 - 을 평 화 로 운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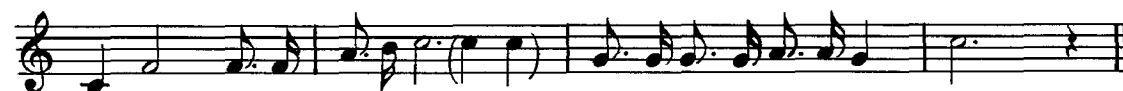
대 대 조 상 근 - 면 의 열 가 락 처 홀 러
서 로 돕 고 한 - 데 뭉 처 살 찌 는 고 을



일 한 보 람 기 름 진 땅 우 리 의 - 포 천
중 산 하 며 전 설 하 자 포 천 의 - 일 군



보 라 · 여 기 영 원히(영원히) 푸 른 강 산 우 리 의 고 장



보 라 여 기 경 기 땅(포 천) 빛 나 는 곳 우 리 포 천

군의 발전과 풍요로운 복지건설을 위한 군민단합 그리고 힘찬 전진을 특징으로 한 노래로서 1969년 6월 7일 제정

가평군민의 노래

오 치 성 작사
전 석 환 작곡

홍겨웁게

북 에 는 명 - 지 산 남 에 는 용 - 문 산
현 등 사 종 - 소 리 조 종 천 에 - 뒀 켜

북 판 에 흐 르 는 물 북 한 - 강 일 세
청 평 댐 념 치 는 물 우 령 - 찬 곳 에

개 량 되 - 는 들 - 농 사 에 늘 어 나 - 는 오 곡
고 루 가 - 꺾 을 - 창 한 숲 밤 잣 나 - 무 - 는 -

뽕 을 심 - 어 봄 - 가 을 - 누 에 를 - 천 다
알 찬 열 - 매 가 - 득 - 히 보 람 차 - 구 나

부 지 런 - 한 이 고 을 - 에 가 평 군 민 - 은

증 산 하 - 며 전 - 설 하는 일 께 이 - 로 다

명지산, 용문산, 북한강등 지형을 나타내고 농업과 부업인 잠업을 나타내며 현등사 절의 종소리는 평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지런하고 건실한 군민상을 나타내고 있음

양평군의 노래

황 규 설 작사
임 군 지 작곡



용 문 산 높 은 메 - 에 흰 구 름 가 고



남 한 강 굽 이 쳐 서 기 름 진 땅 은



그 - 이 름 양 - 군 - 지 평 양 평 - 이 - 라 네



빛 내 자 힘 을 모 - 아 우 리 양 평 군

용문산과 남한강의 기상을 이어받아 군민의 애향심, 애림정신을 고취하고 미
풍양속 보존으로 살기좋은 부촌건설을 특징으로 한 노래로서 1961년 재건국민
운동 양평군 촉진회에서 가사를 공모하여 1962년 1 월 제정

이천 애향가

Moderato *mf* 유 달 영 작사
형 석 기 작곡

1. 푸른 산 맑은 물에 기쁨진들 판정
2. 어딜 가나 풍기에는 구수한인정

오서 곡백과 쏘아 지는 우 리 고 향 은 심
오 서 로 밀 고 서 로 도 품 는 호 못 한 인 심

한 근 반 도 에 한 복 - 판 노 란 자 일 - 세
한 근 - 로 에 땀 방 울 에 꽃 이 피 어 - 서

에 헤 라 살 기 좋 구 나 정 든 내 고 향 (후렴) 천 만
에 헤 라 살 기 좋 구 나 정 든 내 고 향

대 피 저 나 갈 복 지 여 기 에 새 나

라 의 새 낙 원 을 이 룩 해 가 자

우리 이천은 내고향을 사랑하고, 드높이는 노래가 있다. 이천군민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향토애를 고취하며, 미풍양속과 자치의식을 드높여 타시·군보다도 기쁨진 농토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내고장을 가꾸어나가, 향토발전 전에 이바지하게함은 물론 으뜸가는 복지이천낙원을 꾸며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유달영 박사께서 작사하여 온군민이 어느곳에서나 힘차고 흥겹게 부르도록 되었다.

용인 애향가

유유조
인달성
상영지
창작곡

(민요조로)

동포기인것 방은름의발 에과진로이 정충골곧휘 기-과게날 모정들뽕리 여에에쳐는 수충풍하새 러의상나하 한에한이늘 조피오되아 국와곡다래 -

그조근문너 중정-도 에암의화나 도과와의의도 산이광꽃손 수죽-이을 종창휘되잡 은에에어고 용고호찬친 인결못란형 내한하하제 -고정도리쳐 향신다라람 -

무천용누민 -성추삼구고 한에의나도 봉장영창정 이렐- 봉하약하다 이다과고히 아하용역서 -름사인척로 다에초스도 운순향러와 들국기워서 -

호모집물내 -르두집얼고 는다에은을 시내길용낙 -내고삼이원 꽃향소되으 아의리어로 수수더길이 정호육이룩 같신흥사하 -고이접오오 나다다세세 -

(후렴) 대 대로 살-아나 온 정-든내고향 -

천-만대퍼-져나갈복지여-기다-

아름다운 강산과 충정의 고향인 문화전당을 바탕으로 용인군민의 사기를 높이고 군민화합을 위하여 1951년 용인애향가를 제정

안성의 노래

경쾌하게 민요조로

유 달 영 작사
이 흥 열 작곡



비 봉 과 서운 의 높은 산성에 돌 마 다 스며 있 는 민 족의 사랑



선-열 의 붉 은 피가 영 원 에-살아 복 받은 자손 들 이 여 기 퍼졌네



신 의 를 지 켜 사 니 모 든 것 이 안 성 마 춤



어 화 디 야 정 다 읍 다 아 름 다 운 내 고 향

2. 춤추는 선녀의 두소매인양 동서로 흘러가는 두줄기 강물
산마다 감돌아서 들마다 적셔 오곡과 백과가 풍성한고장
3. 흥겨운 농부가에 모가 자라고 아낙네 손이절어 가축이 크다
이름높은 비단실 유기와종이 산에는 금이나니 복지로구나
4. 울리는 종소리에 날이밝았다. 자유의 깃발아래 젊은 오뉘야
서로도와 한데뭉쳐 이룩해가자 새역사의 앞장이 우리들이다

북지농촌에서 신의를 지켜 협동, 단결하며 살아가는 군민상을 표현한 노래로
군민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1955년 제정

김포의 노래

이재택 원작
현종건 편곡



한 - 강 물 넘 실 넘실 황 해 에 흐 르 고



기 름 진 넓 - 은 들 은 우 리 의 회 망



철 - 마 다 오 곡 이 금 물 결 이 루는



다 복 하 다 복 된 고 장 우 리 의 김 포

- | | |
|---|--|
| 2. 동녘이 밝아온다 희망을 안고
모두다 일어나서 일터로 가세
오늘도 건설이다 재건의 일꾼
쉼쉴마다 함께 뭉친 우리의 김포 | 3. 부지런히 일하고 너도 나도 배워서
살찌고 슬기로운 새살림 하세
이나라 이겨레 길이 빛날곳
평화롭다 아름답다 우리의 김포 |
|---|--|

풍요로운 김포평야의 아름다움과 그속에 살고 있는 군민들의 순박하고 근면한 생활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노래로서 1948년 가사를 공모 김포의 노래로 제정 되었으나 1962년 재건국민운동 당시 현종건에 의해 편곡되고 다소 수정을 하여 군민의 노래로 제정

북지강화

유 지 영 작사
오 욱 인 작곡



마 - 니 산 침 성 대 가 운 서 에 - 높 아 있 고 -
고 - 려 산 오 색 연 당 사 찰 도 많 다 실
연 - 미 산 오 색 연 당 사 찰 도 많 다 실
소 - 모 는 저 썩 씨 는 길 엔 수 라 서 -



직 - - 너 강 줄 기 줄 기 감 돌 아 들 었 어 라 -
연 - - 심 은 그 노 송 은 어 나 메 가 가 셧 는 고
구 - - 뜰 는 지 배 노 송 은 어 나 메 가 가 셧 는 고
짜 - - 내 는 강 화 비 - 단 천 요 요 필 인 데 -



굴 - 을 따 는 처 너 들 은 셋 이 요 다 씻 인 데 -
티 - 만 남 은 주 - 구 초 엔 향 념 새 새 로 운 데
한 - - 평 야 나 는 들 은 삼 람 가 먹 고 는 건 만
오 - - 야 나 는 들 은 삼 람 가 먹 고 는 건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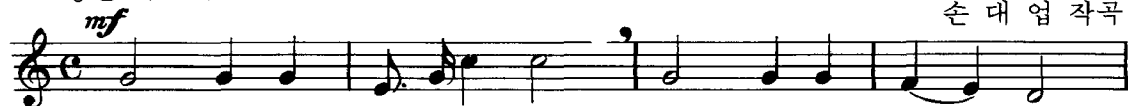
길 - 씹 하 는 아 가 - 씨 는 그 일 마 되 - 던 고
백 - 지 년 사 큰 복 소 리 으 들 해 도 지 누 나
복 - 지 년 사 큰 복 소 리 으 들 해 도 지 누 나

역사의 고장으로서는 많은 문화재와 강화 특산물인 화문석, 인삼등과 강화군민들의 성실 근면한 생활정신을 표현한 노래로서 1971년 제1회 강도문화제 개최를 앞두고 1970년 10월 2일 북지강화의 노래로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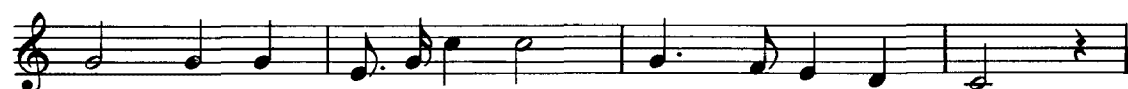
웅진군민의 노래

행진 빠르기로

윤 석 중 작사
손 대 업 작곡



서 해 에 널 러 있 는 수 많 은 섬 - 들
이 웃 섬 이 웃 사 촌 정 다 운 마 - 들



파 산 도 과 와 물 싸 우 면 서 나 라 지 키 네
산 과 물 다 스 러 서 살 찌 는 고 장



푸 른 섬 을 거 - 느 린 응 진 군 민 아
황 금 어 장 차 - 지 한 웅 진 군 민 아



우 리 는 빛 이 되 자 등 대 가 되 자
험 모 아 마 음 모 아 잘 살 아 보 자

도시의 특수여건 속에서 잘사는 길은 군민 모두가 똘똘뭉쳐 복지어촌으로 나
아가는 군민의 다짐 노래로서 1973년 7월 1일 웅진군이 2개면(백령, 송림)에
서 당시 부천군 6개면(영종, 북도, 용유, 덕적, 영흥, 대부)이 편입되어 8개
면으로 증가함에 따라 웅진군의 입지적인 산재의식을 제거하고 협동, 단결 의
지를 위하여 제정

강원도의 노래

이 은 상 작사
임 원 식 작곡

씩씩하게

새 밝 - 의 옛 - 나 라 정 든 내 고 장
바 다 - 엔 산 호 진 주 수 없 는 어 족

아 산 침 해 먼 저 받 은 우 리 강 - 원 도
마 다 언 덕 마 다 보 배 의 - 고 간

눈 부 - 신 금 강 설 악 관 동 의 팔 경
창 해 역 사 이 을 곡 만 해 일 까 보 냐

신 비 한 대 - 자 연 을 여 기 와 보 - 라
새 시 대 새 - 일 뿐 을 여 기 와 보 - 라

(후렴) 광 명 - 과 희 - 망 은 용 솟 음 친 다

동 해 의 푸 른 물 곁 부 딛 는 곳 - 에

아름다운 대자연과 풍요한 자원, 지역에서 배출된 수 많은 성현들을 노래에 담
아 도민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위하여 1958년 제정

춘천시민의 노래

마 성 린 작사
김 갑 작곡



장산 - 고은 밝은 새 - 린아 어기 정구 산물 강 의 양 - 봉소



정자 다 읍 고 부 지 - 런 한 시 민 형 제 - 들
 손 만 대 터 를 - 단 는 시 민 형 제 - 들

[illegible]

방 방 다 새 살 림 의 - 씨 를 뿌 리 - 자
 - - 고 서 로 도 와 - 기 리 내 - 자



(후렴) 건 설 이 다 약 진 이 다 일 - 터 로 '나 가 자 살 기 좋 은



우리 춘천 - 우리힘일 - 세 우리힘일 - 세

아름다운 자연과 도청소재지 고장으로서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전화로 재
만 남은 춘천시를 재건키 위하여 1952년 제정

원주시민의 노래

빠르지않게 힘있게

박 일 송 작사
윤 용 하 작곡

mf

치 악 - 산 아 침 해 에 밝 아 온 옛 터

봉 천 - 내 맑 은 물 가 백 학 이 난 다

f

아 름 다 - 운 자 - 연 에 꽃 피 운 정 서

mf

이 고 - 장 겨 레 들 아 다 시 보 아 라

(후렴) 아 영 서 에 자 - 랑 할 원 주 내 고 장

희 망 에 찬 새 - 날 의 종 - 이 - 울 린 다

- 수난에 그역사를 슬프다말라 잿더미 헤치고서 다시 일어선
불사조의 그기백 아니 장하냐 이날에 이어받을 교훈 이어라
- 단구역 그자취야 누가모르리 산나물 바구니 낀 고운아낙네
지조도 드높았던 稵谷스승의 석경촌 돌아보며 웃깃여미네
- 어질고 슬기로운 이웃이모여 서로 정 나누면서 웃고사는곳
지나는 길손이여 손꼽아보라 그옛날 복원땅에 자랑워든가

이지역 명산인 치악산과 봉천내(현 원주천)를 중심으로 시조인 학을 나타내서
밝은 원주시를 상징하며 자랑스러운 복원땅을 건설하기 위하여 1955년 제정

강릉시민의 노래

황금찬 작사
한동환 작곡

Moderats

대 관 령 은 강 룡 을 지 켜 주 는 산 이 요

동 해 는 앞 길 을 열 어 주 는 바 다 요

옛 - 부 터 임 영 토 에 사 선 이 놀 아

그 - 문 화 그 인 정 이 으 땀 이 었 네

(후렴) 자 랑 하 자 강 룡 살 - 기 좋 은 곳 자 랑 하 자 강 룡 살 기 좋 은 곳

마 음 모 아 새 살 림 을 꽃 피 워 보 자

- | | |
|-------------|-------------|
| 2. 경포의 맑은호수 | 3. 살기좋은 강릉땅 |
| 우리의 거울되고 | 전해오는 말이요 |
| 오죽헌 깊은 뜻 | 인심이 꽃같이 |
| 겨레의 자랑이네 | 피어나는 내고향 |
| 지금이라 어려운일 | 서로믿고 살아가는 |
| 있을까보냐 | 이웃이기에 |
| 서로돕고 살아가면 | 복되게 열려가는 |
| 즐거운 살림 | 우리 새살림 |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과 순박한 인심으로 미래의 발전을 지양하며 시민의 애
향심과 화합단결을 위하여 1963년 제정

동해시민의 노래

신봉승 작사
조거영 작곡

썩썩하게 (♩ = 112)

태백의 힘찬 정기 기쁨진 농 - 토

조국의 기상 일세 누 - 리 - 의 영광

새도시 새일꾼이 여 - 기 - 에 있네

(후렴)무한한 자원으로 소득의 증대

복지 - 사회 동해시의 전통 - 을 세워

빛내자 내 - 고향 우리 - 의 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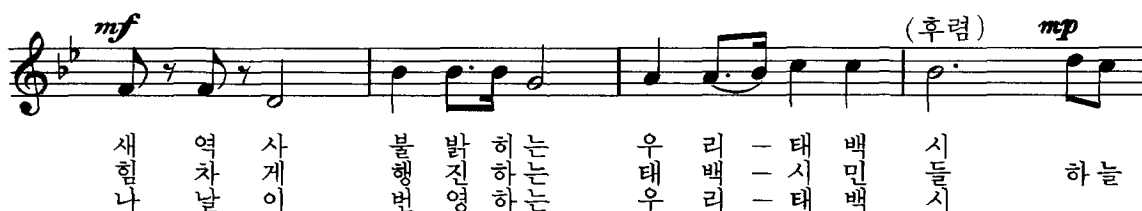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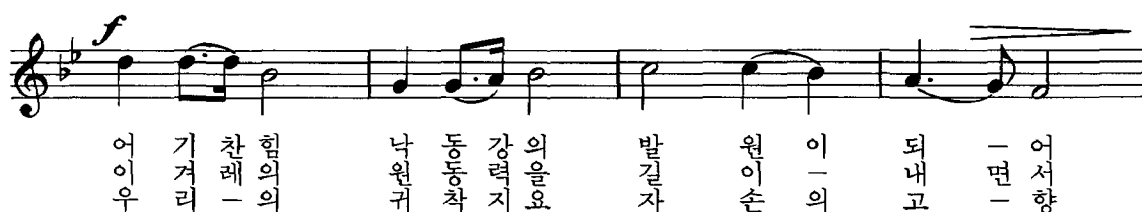
- | | |
|--|--|
| 2. 동해의 푸른물결 만선의 깃발
민족의 희망일세 우리의 행진
새역사 새일꾼이 여기에 있네 | 3. 우렁찬 기계소리 끝없는 생산
수려한 강산일세 모두의 자랑
산업의 주인들이 여기에 있네 |
|--|--|

1980년 동해시 승격과 동시 시민의 힘찬 기상과 무한한 자원으로 복지동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정

태백시민의 노래

Moderato 힘차고, 씩씩하게

유병규 작사
박재열 작곡



태백산 고원지역의 광산도시를 상징하며 1981년 태백시 승격후 시민의 애향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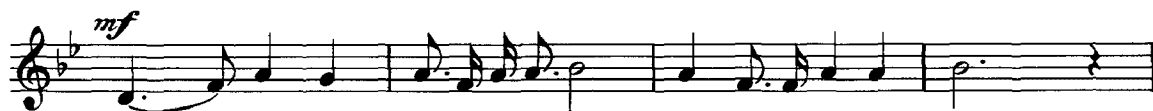
속초의 노래

씩씩하게 행진곡조로

마장건작사
황규립작곡



설하루 악아른 산들산 구꿈맑 림을은 위꾸물 에다에 드면이 높음림 이이난 솟트승 아면지



새끝오 희-망없 는도 구수모 비평-치선 는에다 해희과 돌-망개 -은을 바안 다고아



청바신 초다홍 호속사 기-습에 갓이문 나산하 고보우 동배리 이찾의 을아자 면서랑



새내빛 살집나 림에는 늘어가-는 새살림-을 우리고-장 일살기 터찌리-보 로어-빛 -내 세세자



(후렴) 오늘도 재-건이 다 내일을 위 해



새살림 늘어가-는 우리속 초

수북지역으로 실향민이 많아 1970년 고향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제정

홍천군민의 노래

<부드럽게>

박 목 월 작사
나 윤 작곡



태백산 산산 뻔부정 어내려 아수푸 누려 한터 전장 무궁화
공석 작화 산산 정기 반은 푸른 화 고양 강 회 망 이



만샘 - 발 한 보 리 울에 살 자 살 - 종 고 물 맑 은
님 - 솟 는 보 리 울에 살 자 인심 종 고 기 다 림진
- 치 는 보 리 울에 살 자 인심 종 고 기 다 림진



우 리 의 홍 천 새 마 음 한 뜻 으 로 번 영 을 찾 - 자
우 리 의 홍 천 새 마 음 한 뜻 으 로 번 영 을 찾 - 자
우 리 의 홍 천 새 마 음 한 뜻 으 로 번 영 을 찾 - 자

<씩씩하게>



(후렴) 서 로 서 로 도와가 며 꿈 을 키 우 며



새 마 을 정 신 으 로 몽 쳐 서 살 자

근면, 성실한 군민을 상징하고 한서 남궁 억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화합과 단결,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67년 제정

횡성군 노래

방 작 헌 작사
노 명 석 작곡



태 기 - 산 뽕 은 줄 기 덕 고 - 의 정 기 모 아
운 암 - 정 청 란 아 래 횡 성 교 빗 거 있 고
교 통 - 의 심 장 부 로 사 랑 뽕 은 동 맥 의 길



앞 들 - 이 넓 은 옥 토 부 강 을 자 랑 하 고
태 동 - 루 반 송 터 는 옛 일 아 회 는
경 향 으 로 사 통 오 달 거 미 가 줄 비 하 고



동 서 로 - 구 비 친 강 꾸 준 히 - 흐 르 는 곳
낙 낙 장 송 - 났 은 숲 에 홍 인 정 신 가 득 한 곳
전 통 의 산 업 정 신 께 홍 을 - 께 하 는 곳



아 름 다 운 이 - 강 산 에 빛 나 는 우 리 횡 성

전형적인 농업군의 모습과 3·1운동의 발상지인 횡성을 찬양하고 군의 발전을 의미하며 1967년 제정

原城郡의 노래

박 일 송 작사
홍 재 영 작곡



푸 른 산 맑 은 물 이 감 도 는 들 에



아 침 해 솟 아 오 니 찬 란 하 구 나



숲 속 에 새 가 울 고 기 름 진 이 땅



이 곳 이 고 향 이 다 내 살 곳 이 다



옛 부 터 슬 기 록 던 겨 레-이 거 든 우리-원 성 군
복 받 아 잘 살 리 라

치악산과 섬강의 맑은 물과 영서 제일의 옥토, 순박한 인정이 넘치는 복된 고
장을 자손만대에 보전코자 1967년 제정

영월의 노래

하 중 회 작사
이 회 목 작곡



1. 아 름 다 운 영 월 에 산 마 다 줄 줄 이 자 랑 도 많 아
2. 오 손 도 손 영 월 에 산 철 따 라 피 는 꽃 언 제 나 젊 어



향 기 로 운 영 월 에 맑 은 물 이 인 심 처 럼 넘 쳐 흐 르 네 줄 기
젊 고 푸 른 영 월 에 서 로 돕 는 우 리 사 랑 넘 쳐 흐 르 네 영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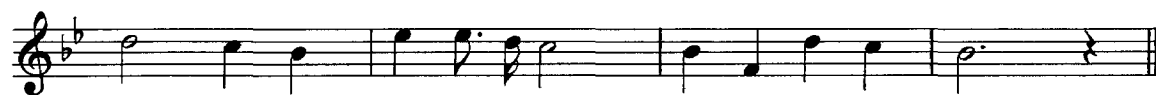
차 보 게 달 리 는 푸 — 르 른 산 처 럼 부 지
마 내 — 일 른 산 위 하 여 새 마



런 을 히 을 일 가 꾸 며 영 — 월 에 산 — 다
영 — 월 에 산 — 다



지 나 가 던 환 산 구 새 를 도 쉬 어 — 가 면 서
다 — 가 면 서



새 회 망 새 영 월 을 노 래 부 른 다
새 회 망 새 영 월 을 노 래 부 른 다

아름다운 산하와 순박한 군민의 인심과 선진 영월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1976년 제정

평창군민의 노래

힘차고 활발하게

전경재 작사
허민 작곡

mf *f*

오노조 대성상 산산의 줄옛살 기성과 줄터뻐 - 기에가 뻔아문 은룡헌 기진이 상영고 이사장

응월대 대대정손 한사손 대구물 자총려 연탑 - 의에줄 터새이 전겨땅 이진이 루문기 고화에

사무가 천성난 강한희 구산슬 비림폰 구자역 비원사 호지다 르하시 는의없 곳보도 에고록

대들 - 대로이 어반 - 은기름진옥토
- 에마는오곡백마과약초건의향소기리

평산씩 화수씩 룬중하 고고계 살인자 기정라 좋많나 은은는 우우우 리리리 평평평 창창창 군군군

f *ff*

다 - 들고가 꾸어 서기 린빛내세
다 - 들고가 꾸어 서기 린빛내세

오대산을 중심으로 웅대한 대자연과 기름진 옥토를 보존하고 가꾸어 살기좋은
고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1954년 제정

정 선 군 가

남진해 작사
박재훈 작곡

(장엄하고 힘차게)



1. 태 - 백 의 정 기 어 러 그 기 상 높 고
2. 아 우 라 지 나 기 루 터 철 길 달 리 고
3. 대 - 대 로 이 어 받 은 정 든 내 고 장



조 골 양 강 굽 이 굽 인 심 도 좋 아
새 마 다 음 새 고 마 열 새 로 가 꾸 며



산 마 다 지 하 자 원 우 리 의 자 랑
구 성 요 진 아 라 리 로 어 림 움 앓 고 는



번 - 영 을 다 저 가 는 터 전 이 되 리
을 - 해 도 마 저 마 다 풍 년 이 루 나 리
부 지 런 한 우 리 군 민 길 이 빛



(후렴) 여 - 기 는 내 - 고 장 내 고 장 정 선



힘 모 아 슬 기 록 게 이 룩 해 가 세

순박한 인심과 인내와 근면성을 그리고 무진장의 지하자원의 보고임을 자랑하
고 군민의 발전적 기상을 나타내며 1977년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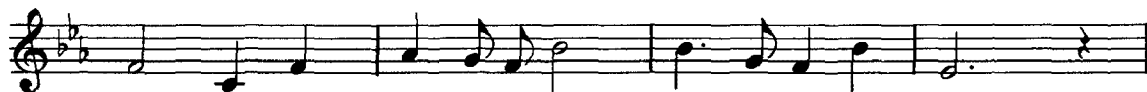
철원의 노래

moderato 행진곡풍으로 씩씩하게

향토제정위원회 작사
김 준 회 작곡



금 악 산 높 이 솟 아 정 기 감 들 고



철 만 암 고 석 정 은 우 리 의 자 랑



넓 은 들 황 금 파 도 옥 토 이 루 고



유 유 한 한 탄 강 물 구 비 치는 곳



(후렴) 기 림 진 이 들 판 에 곡 창 - 이 루



고 천 만 년 이 여 나 갈 우 리 의 철 원

아름다운 자연과 살기 좋은 땅을 전군민에 인식시켜 애향심과 군민의 긍지를
북돋기 위해 1969년 향토제정위원회에서 제정

화천군민의 노래

김 오 동 설 작사
김 오 동 설 작곡

mf

푸 드 른 산 맑 은 물 은 우 리 의 자 랑
수 높 려 은 한 파 로 동 팔 반 경 태 고 의 의 젓 신 출 비

여 기 는 평 화 의 터 정 든 내 고 향
이 북 곳 은 미 래 비 치 우 리 의 터 전

파 로 호 물 결 따 라 솟 는 아 침 해
높 은 상 상 용 용 화 로 운 인 심 을 모 아 고

예 맥 의 옛 터 전 에 날 이 밝 는 다
대 한 의 이 산 하 에 응 지 음 를 펴 자 금

강 이 활 개 뻗 고 복 한 강 굽 이 처 새

역 사 창 조 하 자 우 리 화 천 군

유구한 역사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고 선진 군민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1983년 공모 제정

양구행진곡

씩씩하게

염 석 정 작사·작곡



1. 금강산은 뜻있 게 남에 뽕히 고 돌산령은 동-편에 믿는 성되 고
 2. 월명고개 넘어 온 옥-토끼 님 비봉산에 올라 오는 금-거북 님
 3. 일곱면에 생-활 하 는 동포 야 신고수려우 리고 장 이 상적 으로



사명산은 서-편에 회망봉이 뒤흔 남북간에 내려 묻힌 우 리 양 구 라
 가-시 고 오-시 는 희 많은 세월 에 부중에-영고성 최 변 화 많 구 나 랑
 꽃을 심 고 물을 주 어 낙 원만 들 자 천 년만 년 살 고 지 고 양 구 내 사 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아름다운 내 사랑 양 구 라



사 노 라 사 노 라 사 노 라 사 노 라 나는 너를 위하여 사 노 라

양구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역출신 염 석정씨가 1930년 작사 작곡하여 불리
 어 지다 군가로 지정 되었음

인 제 군 가

♩=100

(정중하고 힘차게)

전현권 작사
박재훈 작곡



아름다운 명승지가 많은 고장으로 조상의 충효정신과 근면 협동심을 바탕으로
잘사는 내일을 건설키 위해 1980년 61주년 3.1절을 맞아 제정

고성의 노래

Marct
경쾌하게

길 옥 윤 작사·작곡



맑고 깨끗하며 청순한 군민상을 의미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1979
년도 제정

양양의 노래

박익훈 작사
황규렬 작곡

경쾌하게



수 - 성 령 옛 - 터 전 에 새 - 날 - 이 밝 - 아
해 - 안 선 구 - 비 구 비 이 - 림 - 난 승 - 지



실 - 악 산 높 - 은 봉 에 서 - 운 이 일 - 고
낙 - 산 사 오 - 색 단 풍 천 - 하 의 절 - 경



우 - 령 찬 새 - 역 사 가 창 조 되 어 가 - 는
자 랑 스 런 생 - 활 터 전 가 득 찬 - 보 - 배



평 - 화 로 운 이 - 고 장 에 행 - 복 - 이 온 - 다
발 - 전 하 는 마 - 을 마 다 웃 음 꽃 - - 핀 - 다



(후렴) 에 헤 라 광 명 과 회 - 망 이 넘 - 치 는



오 - 손 도 손 살 - 기 좋 은 양 - 양 - - 이 라 네

1966년 양양 향토지 편찬 작업중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가 없어 향토편찬위원회 권유로 제정하였으며 아름다운 고장과 생동하는 군민의 의지 표현

명주군의 노래

moderato

강 석 환 작사
조 상 현 작곡



1. 동 해 의 푸 른 물 결 끝 없 는 맥 바
2. 대 관 령 정 기 반 은 고 운 핏 줄 이
3. 역 사 로 주 림 잡 힌 오 랜 이 땅 에



청 하 산 높 은 봉 이 어 온 슬 - 기
따 학 땀 한 인 정 은 로 뻔 어 나 샷 - 내
악 만 년 이 어 나 갈 힘 이 서 났 - 내



어 진 선 비 높 은 스 님 이 곳 에 나 시 니
산 에 들 에 바 다 힘 으 로 무 진 고 의 보 고
그 - 마 음 그 그 로 갈 다 듸 - 어



그 - 이 름 이 강 산 에 널 리 퍼 졌 네
해 - 마 름 다 풍 년 가 를 높 이 불 졌 네
자 손 만 대 길 이 누 름 릴 터 전 누 세



(후렴)우 리는 명 주의 주 인 들 이 니 내 고 장 기 리 기 리 빛 내 여 보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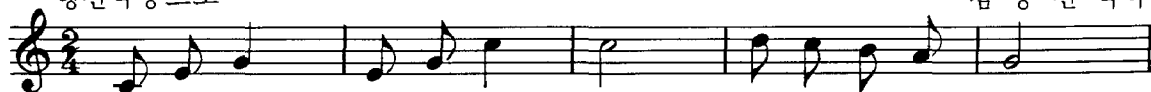
내 고 장 기 리 기 리 빛 내 여 보 세

동해의 푸른바다와 대관령과 정학산의 정기로 충정어린 선비를 배출한 고장으로
풍년을 기리는 기름진 들과 무한자원의 보고임을 노래하며 1961년 제정

삼척군민의 노래

심성근 작사
김동진 작곡

행진곡풍으로



1. 태백산 줄기 뻗어 온 동해를 안고
2. 바다에 수 - 많 은 고 기 때 놀 고



죽서루 오십천 이다 승경이 루 문 어



새 맑 은 정 기 서 려 자 리 잡 은 곳
이 나 라 살 림 살 이 열 쇠 잡 은 곳



여 기 가 내 고 장 삼 척 이 라 네
여 기 가 우 리 의 삼 척 이 라 네



자 라 는 내 고 - 을 커 가 는 삼 척



한 - 마 음 한 뜻 으 로 키 워 나 가 - 세

1966년 노래 제정당시 전국10대 공업도시이며 인구30만의 전국제1의 군세와 태백산과 동해의 아름다운 고장임을 군민에게 심어 주기 위하여 제정

충북도민의 노래

이 은 상 작사
김 등 진 작곡

역 사 의 혼 이 깃 든 마 한 의 옛 땅
소 백 산 차 령 산 맥 아 름 다 옛 워 땅 라

의 금 강 과 학 문 예 술 향 빛 나 는 전 통
금 강 언 술 덕 생 활 의 터 통 전

여 성 서 한 뽐 와 살 얼 반 고 자 랐 다
성 실 한 근 면 속 에 행 복 자 있 다

자 랑 과 힘 이 되 는 충 북 내 고 장
나 날 이 느 는 산 업 중 북 내 고 장

뭉 치 자 사 랑 하 자 서 모 두 반 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세 루 자 문 화 나 원 우 리 손 으 로
세 루 자 문 화 나 원 우 리 손 으 로

예로부터 충북은 예절과 학문을 사랑하는 빛나는 전통을 이어온 곳이다. 이러한 훌륭한 삶의 터전에서 서로 협동하고 사랑하며 잘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뜻으로 1966년에 제작된 노래임

청주시민의 노래

이 은 상 작사
오 동 일 작곡



우 암 산 무 심 천 기 름 진 들 판
가 난 과 시련 에 서 일 어 선 우 리

겨 레 의 얼 이 깃 든 역 사 의 터 전
번 영 을 다 짐 하 는 보 람 찬 대 열

학 문 과 의 열 은 우 리 의 자 - 랑
성 실 과 근 면 은 우 리 의 자 - 랑

그 전 통 이 어 받 아 바 르 - 게 살 - 자
오 늘 도 굳 은 신 념 힘 차 - 게 살 - 자

너 와 나 한 데 뭉 친 청 주 - 의 시 민

땀 흘 려 내 고 장 새 모 - 습 짓 세

우암산 무심천의 양반의 고장에서 조상들이 이룩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향해 매진하자는 진취적인 내용을 담은 곡이다

충주시민의 노래

Moderato

(사뿐한 행진곡풍으로)

조용완 작사
오동일 작곡



제천시민의 노래

활기차게 신갑선 작사
전석환 작곡

태백의 힘찬 정기 뻗어 내린 옛 터전
내토현 오랜 전통 이 어반은 이 땅에

철따라 푸른 물결 출렁이는 의림지
충효로 가득 한 얼 드높이는 이 기상

용두산 서기 어린 내륙인의 슬기 - 여
보람찬 나날 속에 서로 서로 뭉쳐 - 서

(후렴) 골마다 청풍명월 유서깊은 내 고장
새희망 복된 사회 다져가는 내 고장

건설의 맥박 소리 온 누리에 넘치고

인정을 꽃피우며 전진하는 제천시

나토(고구려때의 제천명칭)인의 진취적 기상과 충효의 전통을 계승한 제천은 1980년 4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활력있고 희망찬 새복지제천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노래임

청원군민의 노래

명랑하고 씩씩하게 김팔봉 작사
김동진 작곡

소 회 백 산 의 줄 기 줄 기 내 고 장 에 청 원 고

미 찬 호 란 찬 한 홀 태 러 양 홀 빛 을 기 바 를 진 옥 토 서

조 국 대 화 의 앞 날 위 해 모 모 든 군 민 이

한 힘 마 차 음 게 한 - 뜻 으 로 농 사 하 느 나 내 일 의

부 지 사 회 건 설 을 위 해 인 내 와 용 기 로 전 진 또 전 진

조 국 대 화 의 앞 날 위 해 모 모 든 군 민 이

한 힘 마 차 음 게 한 부 - 뜻 으 로 농 사 하 느 나

찬란한 전통문화 계승을 바탕으로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조국 근대화에 앞장섬으로써 풍요를 누리며 지역발전을 이룩하자는 뜻의 노래(1971년 제정)

우리 보은군

하 중 회 작사
김 강 섭 작곡



속 - 리 산 정 기 - 어 러 바 람 도 푸 - 르 - 고
천 - 황 봉 줄 기 - 따 라 새 길 이 열 - 리 - 고



호 - 르 는 물 - 소 리 는 오 늘 도 맑 - 아
오 - 가 는 사 - 람 들 은 오 늘 도 밝 - 아



역 사 의 향 기 가 높 이 높 이 뿜 내 고 여 기 가 우리 보은 자 랑 도 많 아
전 설 의 노 래 가 넘 쳐 넘 쳐 흐 르 고 여 기 가 우리 보은 인 심 도 좋 아



(후렴) 흘 러 가 는 저 구 - 림 도 쉬 어 - 가 - 는 - 곳



보 은 에 서 맺 은 사 랑 - 오 래 오 래 살 - 겠 - 네

속리산 법주사의 산수경관과 역사적 배경을 노래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 행진곡풍으로 리듬이 경쾌하여 누구나 부르기에 적합한 노래이다.

옥천군민의 노래

행진곡풍으로

박 화 목 작사
정 세 문 작곡



금강의 맑은 물 - 이 홀 러 서 옥 답 이 뵈네
관호 성의 옛야 에 - 는 전 설 서 깃 들 여 있었네
호 남 평야 땅 땅 동 서 로 뻗 어 나 갔네



오곡이 풍성하 구 나 그 이 름 도 옥 천 내 고 장 일 세
서대 - 금 적 하 산 구 주 는 옥 천 내 고 장 일 세
누 구 가 다 할 손 가 살 기 좋 은 옥 천 내 고 장 일 세



옥 천 군 민 아 한마 음 한 뜻 으 로 일 손 을 잡



자 자 손만 대 길 이 행 복 할 삶 의 터 전 이 루 세

산수가 수려하고 맑으며 군민이 부지런하고 명량한 고장을 계승하며, 화합과 단결을 다지기위하여 1966년에 제작된 노래로 밝고 맑은 행진곡풍의 곡이다.

영동군민의 노래

이 은 상 작사
전 석 환 작곡

힘차게

1. 백 화 - 산 황 - 학 산 동 북 에 솟 고
송 천 - 이 양 - 강 이 서 남 에 흐 러
볼 수 록 그 림 같 이 아 름 다 운 곳
<후렴>
기 - 름 진 우 리 영 동 여 기 열 렸 네
아! 생 활 의 터 전 이 다 정 든 내 고 향
아! 웃 음 과 희 망 속 에 힘 차 게 살 -- 자

2. 보아라 산구비 강기슭마다
겨레의 피와정신 아로 새겼네
충의와 예술의 빛나는 전통

3. 사랑은 힘이 다 한데 뭉치자
복지의 행진이다 모두 나서라
꾸미자 가꾸자 문화의 낙원

지리적으로 병풍같이 가리워져 있는 동북에 백화산과 황학산, 서남에 흐르는 송천과 양강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산수정기와 군민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노래한 것이며, 66년11월11일 영동군청 청사준공식에 즈음하여 곡을 만들어 각종 행사시마다 불리게 된 노래이다.

진천군민의 노래

힘차게 빠르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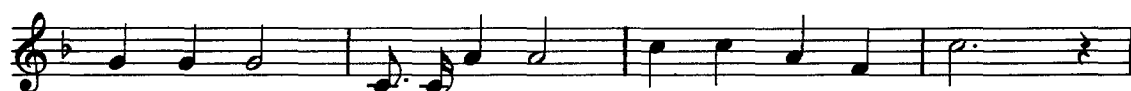
이 은 상 작사
박 태 준 작곡



만 퇴 산 배 어 낳 다 솟 은 멧 부 리
미 호 천 아 름 답 다 곶 이 후 른 강



진 천 은 우 리 고 장 역 사 어 린 곳
진 천 은 우 리 고 장 기 름 진 터 전



충 의 와 학 문 의 오 랜 전 통 이
슬 기 와 성 실 로 써 한 데 문 치 어



우 리 들 혈 관 속 에 배 어 있 나 니
새 설 계 새 생 활 을 다 집 하 나 니

(후렴)



이 산수정기반아 태어난우리 희생과 봉사로써 서로받들자 번영을 향해가는



보람찬대열 문 화 의 낙 토 건 설 우 리 손 으 로

옛부터 충의열사의 고장으로 알려진 진천을 찬미하는 곡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화합의 기풍을 조성하여 미래의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곡이다.

괴산군민의 노래

박 두 진 작사
이 홍 렬 작곡

썩썩하게

하 군 큰 늘 자 인 의 산 물 맑 산 어 은 골 지 정 작 신 기 의 이 이 샘 애 마 물 국 예 이 열 서 념 사 린 처 들

태 달 겨 백 천 래 의 푸 굽 사 른 이 표 연 홀 들 봉 러 이 품 한 별 애 강 같 안 이 이 앓 된 많 다 다

그 그 그 기 기 유 상 풍 덕 늠 는 기 름 은 리 도 도 빛 한 한 날 내 내 내 고 고 고 장 장 장 괴 괴 괴 - 산 산 산

금 산 본 수 - 강 종 반 산 고 고 내 물 널 룩 도 리 의 종 전 - 고 해 한 인 기 복 심 리 판 도 반 이 종 든 다 다

아 괴 산 괴 산 영 광 기 리 드 높 인 - 다 끝 없

이 번 영 한 아 조 국 빛 낸 다

태백산의 정기를 받아 산자수려하고 충·효·예와 학문을 숭상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온 고장으로 이를 널리 전하고 이영광을 드높여 조국을 빛내자는 뜻의 노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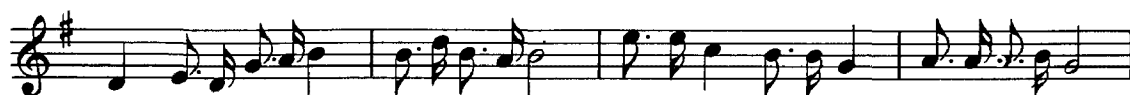
음성군민의 노래

조 건 상 작사
김 동 진 작곡

명랑하고 씩씩하게



노 령 과 소 백 의 우 람 한 줄 기 구 비 처 홀 러 간 들 과 언 덕 에
에 해 야 이 고 을 복 받 은 강 산 겨 레 의 밝 은 열 이 어 나 렸 네
의 욱 의 샘 물 이 솟 아 나 는 곳 복 지 의 내 일 은 희 망 도 밝 다



물 막 아 이 끝 어 옥 토 이 룬 곳 조 화 의 그 늘 이 감 싸 주 신 다
중 효 의 마 음 성 두 터 운 전 통 조 상 이 그 물 려 준 뜻 을 반 듣 다
나 서 자 이 루 자 내 룩 의 낙 원 새 날 을 등 티 울 의 기 도 뉘 다



기 름 진 우 리 음 성 여 기 열 렸 네 한 마 음 힘 을 내 이



고 향 빛 내 자 기 름 진 우 리 음 성 여 기 열 렸 네 한



마 음 힘 을 내 이 고 향 빛 내 자

노령과 차령산맥의 구릉지대에 위치한 음성은 예로부터 수려한 자연환경과 기
름진 옥토의 터전위에 온군민이 합심단결하여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전통에 빛
나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자연과 옥토를 알차게
가꾸고 보존하여 온군민이 풍요한 삶을 누리고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자는 뜻
에서 대학교수인 조건상씨와 작곡가 김동진씨가 힘을 합쳐 지은노래이다.

중원군민의 노래

행진곡풍으로 씩씩하게

이 글은 상작사
김동진 작곡



아에림 — — —
 솟위살 — — —
 에탑의 — — —
 북양리 — — —
 남중우 — — —
 산사자 — — —
 류열리 — — —
 풍충양불 — — —
 산대자 — — —
 등금우 — — —
 천탄키 — — —



운젼치
 다 새뭉
 — —
 림로데
 아아하
 이신다
 같정
 림와지
 그피해
 룩의의
 수레지
 볼겨복



러 통의 — — — — —
 홀전난 — — — — —
 아는의 — — — — —
 돌나무 — — — — —
 감빛문 — — — — —
 이의대 — — — — —
 강술시 — — — — —
 한예새 — — — — —
 이화식 — — — — —
 천의부 — — — — —
 관애곡 — — — — —



여기 네네네 다라졌 왔이슴 루랑모 이사새 원원원 중중중 리리리 우우우 진랜러 를오홀 -사- 기역땀



는 - 정 든 고 장 생 활 - 의 터 전 웃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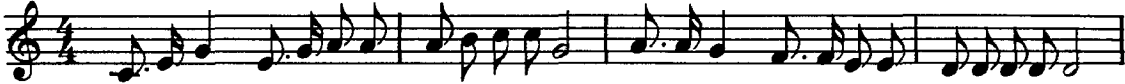


과 - 희 망 속 에 힘 차 게 살 자

남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 중원문화를 이룬 내륙의 요지를 잘 나타낸 노래이다. 남북으로 솟은 천등산 풍류산의 정기를 받고 충신 명현이 많았으며 풍물과 인심이 수려 온후한 중원의 발전을 기원하는 노래임

제원군민의 노래

명량하고 힘차게 이 은 상 작사
김 동 진 작곡



차령산 소백산- 솟아들리고 남한강 구비흘러 기름진들판
민족의 열이깃든 역사외고장 자손들 뿌리박은 생활의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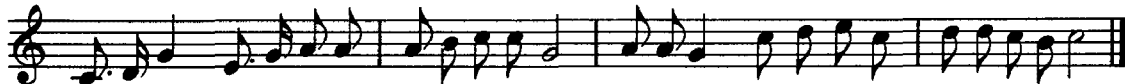
의기와 학문의- 오랜전통이 우리들 혈관속에 용솟음친다
성실과 근면속에 번영이있다 너와나 손목잡고 힘차게살자



푸른 숲 맑은 물 제원의 산수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복지다



슬기와 사랑으로 한데뭉치어 눈부신 새-고을 만들어내자

산수 수려하고 민족의 열이 깃든 역사깊은 고장에, 슬기와 사랑으로 뭉쳐 영원
무궁한 제원을 만들고자는 곡으로 군민의 의지와 기백을 담은 노래임

단양군민의 노래

이 은 상 작사
박 태 준 작곡

빠르지 않게



소 백 산 뻔 은 줄 기 기 암 괴 석 돌 린 곳
이 좋 은 강 산 따 라 맑 은 성 품 기 르 고

남 한 강 곱 이 돌 아 그 림 같 은 내 고 장
땅 속 의 자 원 으 로 조 록 부 강 이 루 리

옛 문 화 오 랜 역 사 아 로 새 진 이 큰 고 사
눈 부 신 산 업 발 전 우 리 들 의 큰 사 명

그 전 통 이 어 반 은 슬 기 로 운 자 손 들
사 량 과 협 동 으 로 새 역 사 을 만 들 자

바르게 살 자 힘 차게 살 자 단 양 은 즐 겨운 생 활 의 터 전

꾸 미 고 가 꾸 어 웃 으며 살 자 내 일 의 새 단 양 문 화 의 낙 원

천혜의 입지조건과 조상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더욱 살기좋은
내고장을 건설하자는 군민의 의지와 희망을 담은 노래임

충남도민의 노래

신승조 작사
김태영 작곡

Moderato

ff *f*

대 한 반 도 한 - 북 - 판 화 려 한 - 고 - 장

ff

칠 백 년 백 제 역 사 이 룩 - 한 터 전

mf *3* *3*

찬 란 한 - 옛 문 - - 화 새 로 꽃 피 - - 워

f *fp*

이 나 - 라 기 리 빛 널 우 리 충 - 남 - 도 맑 은

p *3* *mp*

(후렴) 바 람 밝 - 은 달 타 고 난 - 기 - 상 충 무

f *ff* *f*

정 신 드 - 날 릴 도 민 - 삼 백 만

2. 넓은들 술한곡창 혼한 해산물
한없는 천연자원 캐고 다듬어
조국통일 재건에 이바지하여
이겨레 복되게할 우리 충남도

3. 높이솟은 계룡산 맑은 금강물
그모습 그보람을 함께 본받아
자유와 평화의 앞장을 서서
온누리 널리밝힐 우리 충남도

한반도의 중심지에 위치한 충남도민 300만이 백제문화를 발전시키고 충무정신을 드날려 복되게 살자는 내용을 담은 곡

대전시민의 노래

Moderato
민요조로 J-96

이재복 작사
라창희 작곡



계식금 - 룡산 구름 - 멀리 바라 - 보 이 는
- 장강 산 아침 - 해 리 회 망 - 을 주 고
- 강을 떠 로 두 른 아 름 다 운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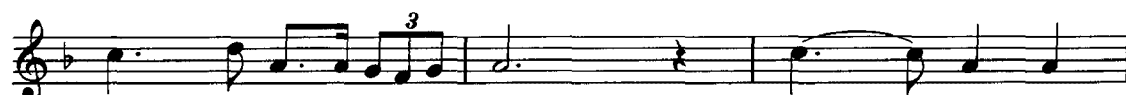
백영충 - 제 의 꿈이 - 문 힌 한 발 - 옛 들 에
- 열 탐 이 녀 - 노 을 곱 기 - 도 한 데
- 청 도 마 음 - 씨 라 착 한 - 이 웃 들



나 - 날 이 번 영 하 는 우 리 대 전 은 삼 남 의 관 문 이 라
호 - 남 선 경 부 선 이 열 히 어 있 는 여 원 는 중 문 도 이
저 - 마 다 여 기 사 는 기 뻔 을 안 고 영 기 원 히 빛 내 리 라



이 름 난 고 장 아 - 아 찬 - 란 한 전



설 은 오 늘 에 있 다 땀 - 흘 러



이 룬 - 보 람 복 되 게 - 살 자

교통의 중심지이며 삼남의 관문인 중도 대전을 소개하고 온시민이 단합하여 복된 대전을 건설하자는 내용을 담은 곡

천안시민의 노래

김나봉한 작사
나운영 작곡

명랑하게 *mf*

높새유 이벽서 솟바깥 은람은 태흔삼 조들거 - 봉어리 정기능 기적수 를올야 반리버 아먼들

씩갈굽 싹래혀 하진도 게 - 내철쭉 달로기 - 따잠는 발부기 곁훈상 - 음꿈과 으갈 로이

mp

보람 - 진 새터전 을 닭아 나가 - 는
바람기 - 직한리 새새높은 - 립뜻 이 으켜받 아 - 는서

조향문 국토화 재건설 앞 - 장선 우리 - 의 고 - 장
우우 - 장령찬 우리 - 의 고 - 장
우우 - 부신 우리 - 의 고 - 장

살기좋은 - 우리천안 솟는힘으 - 로

알뜰이 이웃하여 살아가 - 세

1963년 1월 시승격을 기념하여 만든곡으로 삼거리와 능수버들로 유명한 천안을 교통의 요충지 및 새문화가 발달하는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자는 내용

금산의 노래

힘차게 행진곡풍으로
Moderato

이 종 술 작사
황 덕 철 작곡

진 거 산 악 록 천 산 한 도 정 철 아 기 백 림 반 의 다 아 총 위 이 구 살 룩 국 기 된 의 도 터 정 중 전 기 네

산 불 다 야 려 함 의 준 게 인 곤 한 삼 은 맘 향 기 한 기 백 뜻 이 길 빛 림 이 나 도 반 는 높 들 살 아 어 림

새 새 나 살 일 날 림 끈 이 새 솟 일 회 아 어 망 나 는 생 사 낙 기 랑 원 도 도 의 중 크 향 다 다 토

빛 이 복 내 어 되 리 준 자 우 보 우 리 금 리 고 자 고 장 리 장 광 우 새 명 리 회 의 의 망 터 고 으 로 장 로

(후렴) 건 설 의 깃 발 아 래 피 어 오 른 다

힘 차 게 뻗 어 나 는 우 리 의 금 산

인삼향기 그윽한 진악산 정기와 칠백의사의 구국정신을 받들어 힘차게 발전하는 고장 금산을 상징하기 위해 만든곡

대덕군민의 노래

이 은 상 작사
이 흥 열 작곡



계진 죽역 산사 식오 랜전 산통 남부 북에 솟고 다



갑천 이로 유 등천 이로 곱한 이데 흥문 처 곳라



새겨 울레 의 유큰 성이 들상 기자 림진 들민 관주



강마 산도 마 아 림답 다 정꽃 든내 고 향



대 대 로 누 려 온 생 활 의 터 - 전



키 우 자 빛 내 자 우 리 대 - 덕

진역사 오랜전통의 대덕을 찬양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곡

연기군민의 노래

노태순 작사
김희중 작곡

행진곡풍으로(썩썩하게)

mf

은은은 주봉주 산산성 날개봉암에다 아늑한터전
미호천 구비구 비운 기름진 옥토
이땅에 자리잡은 연기기군민들
오늘도 썩썩하 게 일터로가 세
(후렴) 전설이 다 증산이 다 십만대 열발 맞추어
새 역사를 창조하는 미쁘다 연기군민들

미호천과 금강이 흐르는 기름진 옥토를 가꾸면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64년 9월에 만든곡

공주군민의 노래

(명랑하게)

임강빈 작사
윤경구 작곡



계룡산 강 높 은 뜻 물 을 우 러 - 러 보 며
비 단 강 푸 른 물 에 마 음 - 적 시 며



모 여 서 이 십 - 만 사 - 랑 하 는 땅
모 여 서 이 십 - 만 정 - 다 운 고 장



물 러 반 은 내 고 장 에 바 치 는 정 - 성
곳 곳 마 다 정 성 으 로 씨 를 뿌 리 - 며



도 - 우 며 일 깨 우 며 길 이 지 키 - 자
백 - 제 의 옛 문 - 화 새 로 피 우 - 자



(후렴) 착 하 고 부 지 런 - 히 한 데 뭉 처 - 서



새 살 림 공 주 위 - 해 힘 - 을 바 - 치 세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목적으로 만든곡

논산군민의 노래

양 지 환 작사
양 지 환 작곡

(행진곡조로)

계한인 룡운내 - 산 푸른봉에 희 - 망 - 을 신 고
- 산산골 맑은바 람에 동 - 이 트면
- - - - - 매 - 에 배 어

논연 - 뫼 별 대 지 위 에 씨 를 - 뿌 리 자
황 - 무 대 대 팔 소 리 우 릇 의 - 부 른 다
- 산 - 별 장 한 얼 은 의 - 이 른 다

칠백 년 백 제 문 화 꽃 핀 터 전 에
대피 와 땀 몸 과 마 색인 으 모 진 두 노 성 이
피 와 땀 몸 과 마 색인 으 모 진 두 노 성 이

저민내 - 마 다 여 기 사 는 기 땀 을 알 자
- 마 다 여 기 사 는 기 땀 을 알 자
- 일 의 의 산 역 사 를 지 컸 내
- 일 의 의 산 역 사 를 지 컸 내

(후렴) 다 사 한 인 - 정 아 부 지 런 히 살 아 가 라

영 - 원 히 빛 나 리 - 다 우 리 는 산 군

약 20여년전 논산군의 현상모집에 의해 당선된 곡으로 칠백년 백제문화가 꽃
핀터전에 온군민이 힘을 합하여 복된 고장을 이룩해 보자는 곡

부여군민의 노래

이 석 호 작사
송 영 위 작곡

민요풍으로

햇 빛 을 맞 - 으 - 라 삼 충 신 의 고 장

옛 문 화 은 - 누 릴 밝 히 던 터 전

늘 - 씬 한 산 하 - 는 미 소 를 -- 짓 네

mf 새 날 의 역 - 사 를 엮 어 나 가 자 일 어 *f* (후렴)

서 고 몽 친 다 이 - 십 만 군 민 들 드 -

넓 은 부 여 들 - 에 희 망 채 우 자

2. 맥맥히 이어온 궁녀의 가을은
오늘의 내사명 다 시 비치네
백제의 정기를 고도에 바쳐서
못다한 부흥을 이룩해 보자

3. 새씨앗 옛땅에 뿌리고 거두어
슬기론 낙원을 펼 쳐 나가자
이제는 폭풍우 몰아쳐 와 도
불멸의 번영을 물려줄 우 리

1965년 부여군의 현상공모에 의해 만든곡으로 옛백제인의 얼과 긍지를 살려 새
날의 역사를 엮어가고 부흥을 이룩하자는 뜻을 담은곡

서천군민의 노래

Moderato
명량하게

윤성태작사
최종석작곡



1. 산 一 천 도 아 를 답 다 인 一 심 一 도 좋 아
2. 서 해 안 의 동 배 꽃 은 사 一 시 一 의 질 결



백 — 제 옛 서 림 의 땅 내 고 장 — 서 천 —
하 — 산 의 세 모 시 는 내 고 장 — 특 산 —



내네 눈높이 가만히
 풍년이 풍요로운
 뜰소 은련 넓제
 야향 옥장
 고고 치르
 — — —
 내년
 는
 수기
 호출
 은강
 땅



새 - 나 라 - 아 침 햇 빛 찬 - 란 한 고 을 -



(후렴)에 헤 야 데 헤 야 서 천 에 헤 야 데 헤 야 서 천



십 오 만 우 리 군 민 복 지 가 여 기 라 —

1962년 8월 국민총화와 단합의 전기머련을 위해 만들어진공

보령군민의 노래

국민가요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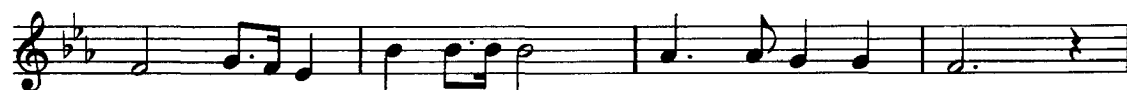
정 한 영 작사
김 희 조 작곡



차 - 령 의 정 기 모 아 성 - 주 산 높 고
넓 - 은 의 별 살 찌 목 토 오 - 곡 거 두 고
오 - 소 산 하 늘 높 이 구 름 견 히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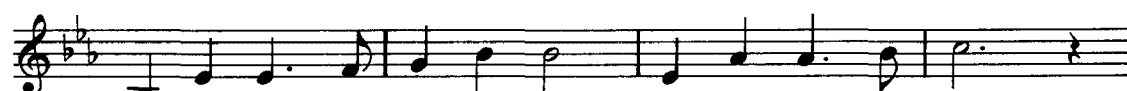
바 위 옷 핀 오 - 층 탐 가 신 남 그 일
항 위 해 에 간 자 원 땀 홀 려 얻 어
역 - 역 히 뻔은 한 내 우 리 의 기 상



외 연 - 도 동 백 꽃 바 다 에 피 니
옥 마 - 봉 문 흰 이 캐 고 또 캐 니
그 슬 - 기 그 힘 모 아 조 국 번 영 에



백 사 고 운 해 수 욱 장 이 땅 의 요 램
우 - 령 려 찬 고 새 동 소 리 지 축 을 율 려
찬 - 란 한 새 - 역 사 이 록 해 가 자



평 - 화 의 내 고 장 길 이 가 꾸 어



그 이 름 빛 내 리 라 보 령 - 1 6 만

보령군민이 화합과 단결로 내고장을 잘가꾸어 새역사를 이룩하자는 내용을 담은곡

청양군민의 노래

Moderato
mf 명랑하게

김영규 작사
강명구 작곡

차령산맥 기슭에 아름다운 터

행 - 복의 보금자리 우리청양군

겨레얼 밝힌햇불 전하여오니

길이길이 반들어 더욱빛내세 (후렴) 높은

뜻 - 굳은 절개 씩씩한 기상 이나

라 - 길이 빛낼 군민 십이만

2. 고리섬 장수평들 혼한 곡식을
뿌리고 거두어서 살림 이루고
금반석 위 아래의 많은 자원을
캐내고 다듬어서 복되게 하세

3. 칠갑산 높이 솟아 지천흐르니
그 이름 그 모습을 함께 본받아
배우고 일깨우며 더욱 꾸준히
조국통일 재건에 이바지 하세

1963년 청양군의 현상공모에 의해 만들어진 곡으로 산 좋고 물 좋은 산수를 찬양하고 옛조상들의 업적을 받들어 내일을 빛내자는 뜻을 담은곡

홍성군민의 노래

힘차고 행진곡풍으로 홍성문화공보실 제정
한상갑 작곡

백월 - 산 상봉 - 의 정기를 받 아
찬란 - 한 아 봉침 했 살 바 라 보 면 서

조상 의 빛 - 난 - 얼은 깃든 내 고 옥 장 토
대 대 로 이 어 받 은 기 림 진 옥 토

행 - 복 의 복음 자 리 내 일을 위 해
부지런 히 일 - 하고 힘 을 합 하 여

오 늘 을 개척하 - 는 군 민 이 십 만
보 람 찬 내 - 일 - 을 이 록 해 보 만 세

(후렴) 뭉 치 자 나 아 가 자 우 리 힘 으 로

영 원 히 길 이 빛 날 우 리 홍 성 군

홍성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영원히 빛날 홍성군을 건설하자는 내용으로 1970년
홍성문화공보실에서 만든곡

예산군민의 노래

민요풍으로 쾌활하게

최형도 작사
김길제 작곡



금 - 오 산 상 - 봉 위 에 동 이 트 - 이 - 니
무 - 한 천 굽 - 이 굽 이 서 기 감 - 돌 - 고
수 - 덕 사 터 - 전 이 라 이 름 도 - 높 - 아



너 - 도 나 자 - 리 - 차 고 환 개 를 - 퍼 - 자
펼 - 처 진 넓 - 은 - 옥 토 우 를 부 - 르 - 니
오 - 가 는 마 - 음 - 마 저 따 사 로 - 워 - 라



앞 서 간 충 의 열 - 사 녀 을 이 어 - 서
큰 쟁 기 물 아 취 - 고 단 는 발 길 - 에
손 잡 고 한 데 몽 - 쳐 도 의 밝 혀 - 서



우 리 는 이 - 루 - 려 다 복 된 - 고 - 장 을
내 고 장 살 - 이 - 처 다 낙 된 - 이 - 된 다
보 람 찬 내 - 살 - 림 을 가 꾸 - 어 - 보 리



(후렴) 집 집 마 다 마 을 마 다 웃 음 - 꽃 - 피 고



날 로 달 로 자 라 가 - 는 우 리 - 예 - 산 군

충의 열사의 얼을 계승하고 예산군민의 부지런함과 지역사회건설을 나타낸 노래로 군민이 어느자리에서나 쉽게 부를수 있도록 만든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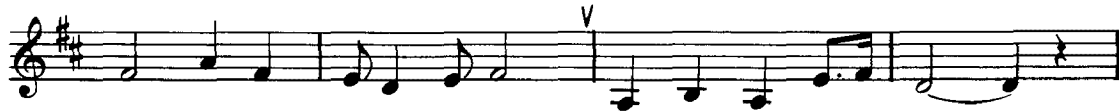
서산군민의 노래

라장조
쾌활하게

가 유 형 작사
노 완 작곡



가 들 야 산 즐 기 마 다 서 기 어 리 고
들 에 는 오 곡 백 과 풍 성 도 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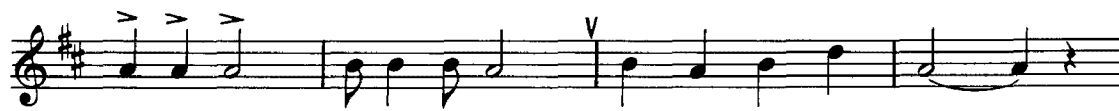
서 산 해 의 푸 른 물 결 나 출 무 령 진 거 린 다
산 에 나 바 다 에 나 무 린 한 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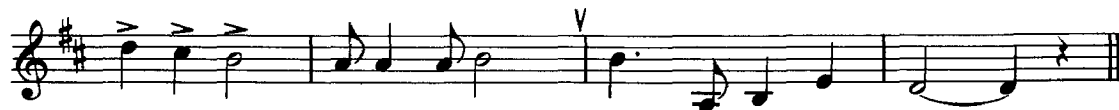
화 려 - 한 이 땅 에서 태 어 - 난 우 - 리
기 름 - 진 이 고 장 을 지 키 - 는 우 - 리



슬 기 와 용 기 로 - 서 개 척 해 보 자
배 우 고 땀 흘 려 - 서 건 설 해 보 자



(후렴) 어 서 야 일 어 나 자 서 산 군 민 들 -



뭉 치 자 일 을 하 자 잘 살 아 보 자 -

풍요로운 서산을 슬기와 용기로 가꾸어 나가면서 잘살아 보자는 내용을 담은 곡

당진군민의 노래

장규순 작사
장규순 작곡



와 학 보 유 소 정 우 리 당 진 의 살 기 좋 은 은 곳 -



지 북 평 서 선 물 들 이 는 소 들 채 운 들 -



새 - 농 사 고 동 소 리 울 려 퍼 지 고 -



철 따 라 술 한 곡 식 - 메 를 이 뒀 라 -



(후렴)나 와 나 서 로 돕 고 웃 음 꽃 피 워 -



에 루 화 복 된 고 장 - - 자 랑 해 보 자 -

1971년 10월 제33대 장규순 당진군수가 작사 작곡한곡으로 넓은 평야와 새로운 농사기술로 생산된 곡식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자랑스러운 군을 찬양한곡

아산군민의 노래

한이 봉수작사
회열작곡



1. 금수강산 한복판에 자리틀잡고
2. 강산어서 라아우리 군민 서로손잡고
3. 일어서 라아우리 군민 서로손잡고



반대만년 오랜역사 지킴온터전
자매로결연 굳게동원 된한우정



설화산 정기반아 태어 난우리
곡교천 언덕 위 에 노쌍이
새사를 창조 하 자 우손으 로



온천애 맑게은셋은 군민십만
아산만일 새살림 다에수산의자
국토통일 새바람 에에꽃을피우자



(후렴)충무공의 애국정신이 어반아서



재건으로 빛내자 우리아산군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곡

천원군민의 노래

Moderato

mf 명랑하게

김 봉 한 작사
강 명 구 작곡



흑우 성 산 푸 른 구 - 림 드 높 - 은 이 상
구 석마 찬 기 적 소 - 리 부 료 - 는 가 등 습
불



예 로 부 터 이 - 림 - 난 아 누 한 고 - - 장
푸 - - 른 들의 우 거 진 - 숲 알 맞 은 풍 - - 토
암 - 푸 의 음 악 소 - 리 흥 겨 운 고 - - 을



유 관 순 밝 힌 햇 - 불 이 어 받 들 - 어
풍 성 한 자 연자 - 원 캐 고 발 으 - 어
뛰 어 난 종 은 인 - 심 갈 고 다 듦 - 어



거 울 삼 아 나 - 간 - 다
마 음 합 처 나 - 간 - 다 군 민 이 십 만 보 람
명 랑 하 게 나 - 간 - 다



진 - 살 림 터 전 닭 - 아 - 나 가 - 는



누 - 리 에 자 랑 할 손 우 리 천 원 군

흑성산 정기와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충절의 고
장을 찬미한곡

전북의 노래

김해강 작사
김동진 작곡

강렬하게

노인삼령정백에도 피아도 는했살강산은열려

금한빛만송경이넓은벌에급이어는물-결

복차힘되림있라도기름진땅정든내-고-장

억새대만희한년살아나갈정든내-고-장 (후렴) 깃발

을올려라힘을빛내-라

밝아오는내나라우리대전북

마한의 옛도읍지로서 인정어린 아름다운 고장을 상징하고, 전통농도임과 전국의 곡창지이며,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무궁한 발전을 위해 1947년 제정

전주시민의 노래

김해강 작사
강병규 작곡

(활기있게)

보승차 아암림 라에도 저논름 밭해고 을와나 뛰기 - 는린리 새의거 빛달리 을에 비구념 - 비-

사구치 벌비는 넓감희 은-망 별도의 에는빛 퍼추벽 지천찬 는의새 햇구숨 살슬결 푸빛물

른나타 일리는 푸빛젊 른은은 빛로정 에만열 들맑모 러은두 싸그바 인슬치 곳기자 물고새

좋은나 고정라 인한새 심송살 종이림 고로에 살사어 기랑깨 도이는 좋은높 다다 빛나 (후렴)

리 꽃 피 어 라 천 세 만 세 를 우리

1. 전 주 밝은 도 시 호 남 제 일 성 2. 남 제 일 성

문화의 전통을 자랑하는 고도 전주시민임을 자부하는 시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인심 좋고 물 좋은 전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60년 후반에 전주시장이 작사를
시켜 시민이 즐겨부르고 있음

군산시민의 노래

장엄하게 *mf* 윤박 순상 석 작사 작곡

기 름 - 진 넓 은 - 별 에 돈 는 태 양 에
바 다 - 는 는 갈 매 - 기 때 풍 부 한 어 죽
산 업 - 의 보 금 - 자 리 호 남 의 문 호

f

월 명 산 흰 구 - 름 도 평 화 - 름 구 - 나
개 끄 촌 한 거 리 - 거 소 세 대 - 의 일 - 쏜
유 복 한 옷 음 - 소 천 지 - 에 찬 - 다

mp

유 유 히 - 뽕 은 - 금 강 백 제 - 의 순 결
산 천 도 - 아 름 - 답 다 인 정 - 도 곱 다
영 원 히 - 아 름 - 다 운 고 장 - 이 루 세

유 유 히 뽕 은 금 강 백 제 - 의 순 - 결
산 천 도 - 아 름 - 다 운 고 장 - 이 루 - 세

mf

(후렴) 춤 추 는 황 해 - 가 에 퍼 지 는 항 도

ff

억 만 년 빛 내 - 어 라 우 리 의 군 산

군산이 호남의 관문이자 시민의 보금자리로서 유유히 흐르는 금강변에 자리하여 자원이 넉넉한 서해와 기름진 호남평야를 끼고 발전할 요인이 양양한바 이와같은 군산시민임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자 시민의 노래를 제정

이리시민의 노래

이 동 주 작사
이 을 우 작곡



울 러 라 종 - 소 리 동 트 - 는 아 침



가 슴 마 다 꽃 - 다 운 희 - 망 - 에 차 니



만 경 강 부 품 물 도 춤 을 - 추 는 듯



기 름 진 넓 은 벌 에 힘 이 - 솟 는 다



가 꾸 자 알 뜰 하 게 내 - 고 - 장 이 리

교통과 더불어 날로 발전하는 지역을 찬미하고 만경강의 세찬물줄기와 삼남평야의 넓은들처럼 시민의 강한 의지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복된 고장을 칭송하며 희망을 복돋기 위해 1964년도에 제정

정주시민의 노래

김해강 작사
김강섭 작곡

밝고 힘차게

내알새 장차날 산계의 푸서새 른로기 줄뚝수 기고로 세서앞 차로장 계반을 뻗들서 어어라

기장드 상하높 도계은 새슬두 로기어 워롭깨 라게에 눈자자 부랑랑 신스도 햇덥높 살게다

내내내 고고고 장장장 인내으 심힘뜸 좋으가 고로는 살지밝 기켜은 도가도 종야시 은할로

빗빛빛 나나고 고고고 빗빛빛 나나거라 우우우 리리리 정정정 주주주 시시시

마만활 읊년기 읊을에 한억년 송년치 이을는 사랑으로 꽃살새 피아희 위갈망

빗빛빛 나나고 고고고 빗빛빛 나나거라 우우우 리리리 정정정 주주주 시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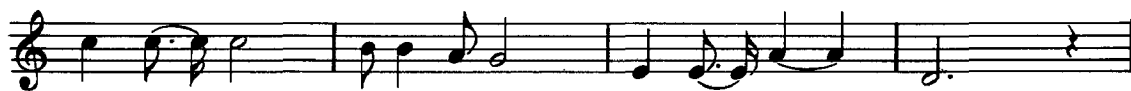
어느 시·군이든 그 고장을 상징하는 노래가 있다. 81년 시 승격으로 국립공원 내장산을 끼고 있는 정주시민의 노래를 82년도에 김해강씨가 작사 김강섭씨가 작곡을 하였음

남원시민의 노래

남원군학회 작사·편곡
조원일 작곡



소사수자 경군정락 천년품은다
연청외춤 의아와춤 매하
비운운서 안밀정린 별의이오
고이이오
-예랑-
도향이늘



목정가일 숨갈숨- 보하마령 다게다여
맑가타풍 은라래요 핏않타롭 줄은래게
안점영여 아허키물 온한눈햇
충숨심햇
효결지살
와이와과



단햇오청 심무로사 의리에이속
편아갈채 편름무밖 끝아리하
에름한는
불타이름을
정맏눈손
절-빛길
이아이



삼하온영 천년누원 리마루에
에에에록
그그그그
빛빛빛
아영선곡
롱롱마다
진히다
우우우
우그안겨
리한도할
춘대전남
향방원원
골골시시

남원시가 50년만에 읍에서 시로 승격된것과 그동안 찬연했던 역사와 전통을 찬양하고 충·효·의·열을 숭상한 고장으로서 남원의 역사적 배경과 줄기를 더듬어 군(君) 사(師) (부(父) 일체의 유교철학과 사군자(四君子)품의 양반골임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옛부터 남원하면 정절의 고장으로서 맑고 정순한 온정의 기품을 노래한 것이다

완주군민의 노래

Moderato

생기있게

이 기 반 작사

김 성 지 작곡



대 송 둔 - 산 한 냇물 에 인 심 - 도 좋 아
대 광 - 사 종 소 리 에 솟 은 - 했 발 이



대 대 - 로 모 여 사 는 다 정 한 - 우 리
대 아 - 땀 맑 은 물 로 념 처 흐 - 르 듯



기 름 진 산 과 들 - 에 희 망 을 심 - 고
도 우 머 사 랑 하 - 는 이 웃 들 끼 - 리



씨 땀 뿌 - 려 가 꾸 면 서 잘 살 아 - 보 세 복 되
땀 흘 - 려 이 룬 터 전 열 매 도 - 클 세



게 빛 내 리 라 우 리 - 의 완 주



푸 른 꿈 한 마 음 - 에 번 영 은 - 있 다

「완주군」의 전통과 군민화합을 다짐하는 노래로 1984년 5월 부르기 쉽게 작사 작곡하였음. 소득증대를 통한 복지사회구현과 15만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줌

진 안 군 가

김 재 영 작사
고 경 석 작곡

(민요풍으로)

마 이 산 높 이 올 라 내 려 다 보 니

주 천 안 천 정 천 합 수 처 용 담 이 라

용 담 에 목 욱 하 고 이 골 평 화 를

천 황 사 에 밤 낮 으 로 기 도 하 니

상 전 단 발 김 - 매 는 아 낙 네 들 과

마 령 평 지 배 미 배 미 논 매 는 농 군 들 의

우 령 찬 풍 년 노 래 백 운 과 같 이

퍼 저 가 집 집 마 다 부 귀 와 성 수



동 향 에 지 하 자 원 파 내 가 지 고



진 안 에 살 고 지 고 진 안 에 살 고 지 고



에 헤 라 좋 네 좋 고 도 좋 네



지 와 자 자 좋 고 도 좋 네

전국 제일의 명산이자 진안의 보배인 마이산을 노래속에 부각시켜 애향심을 고취시켰으며 진안군내 11개면의 특징을 고루 노래속에 나타내어 군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무주의 노래

민요답게

mf

김기동 작사
강병규 작곡



삼남을 굶어 보느 덕유영봉의
진달래꽃살구꽃이 향기풍기고
북사의새벽종이 울려나오면



안개도 자욱한 호령의분지
철따라오곡백과 쏟아지니
향로에동이트네 새날의희망



주제-에오랜전설기암에새겨 구천물구천구비홀러서도
시르-물레방아생산의고동자 홍겨운풍년가는오두재
웃으면서일하고의총게살자 산종고물막다 누가모르랴



비-선의로그림자느 물결에-뜬다
정-열로얏없힌산성 메아리-치네
을고왔다웃고가는는 옛말새-로워



아름-다운-내--고장 우리무-주군-
전-설의-내--고장 우리무-주군-
정-깊은-내--고장 우리무-주군-

무주의 노래는 산자수려한 무주군의 자연경관을 표현했고 순박하고 인심좋아 살기좋은 고장임을 노래한것임.

장수의 노래

이 태 용 작사
서 정 옥 작곡

장 안 산 울 - 을 삼 아 펄 처 있 는 곳
육 십 령 구 - 빛 길 은 영 남 의 활 로

분 수 령 맑 은 물 은 호 남 의 수 원
장 임 한 팔 공 산 에 전 설 보 치 고

재 건 - 의 합 마 소 - 리 우 령 찬 일 터
한 들 - 별 흥 년 가 - 가 메 아 리 치 니

덕 유 에 피 는 햇 살 등 불 밝 히 네
이 룩 에 새 살 림 에 터 전 을 닦 세

(후렴) 뭉 처 라 내 고 장 힘을 빛 내 - 자

그 이 름 길 이 빛 날 우 리 의 장 수

장수의 노래속에는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 그리고 8대 종산인 장안산등 산 고수장(山高水長)한 지역특성과 고매한 장수 3 절의 전통을 찬양하고 있는바, 이 노래는 62년도부터 군민에게 보급되고 있다.

임실군민의 노래

이 경 덕 작사
박 평 수 작곡

너무빠르지 않게

1. 성 수 - 산 즐 기 - 차 게 뛰 어 난 정 기
2. 섬 진 - 강 맑 은 - 물 이 어 뚝 을 밝 기

밝 찬 아 온 새 아 - 침 에 넘 치 는 기 - 뽕
찬 란 한 우 리 - 문 화 피 는 고 - 장

새 마 - 음 한 뜻 으 로 논 발 을 갈 아
울 창 - 한 산 과 산 에 정 성 을 바 쳐

희 망 이 타 오 - 른 다 피 는 내 살 림 세 나 가
복 되 게 살 아 - 나 갈 터 전 을 뒤 세

(후렴) 자 건 설 이 다 힘 찬 일 터 - 로 빛 나 는 임 실 이 라

1. (후렴) 우 리 의 고 - - 장 나 가 정 든 내 고 - - 장
2.

임실은 산자수명하고 인심이 온후한 충효의 고장으로 신비를 간직한 성수산은 이태조 건국의 웅지를 품고 기도했다는 산으로의 산세가 금만평야의 젖줄인 옥정호의 웅장한 당진담과 함께 백여리에 이르는 경관이 수려함을 찬양하여 농군으로서의 긍지를 갖게하기 위하여 작곡하였음.

남원군민의 노래

1. 지리산 자락속에 열려온 고장
삼천강 맑은줄기 젖줄로 이어
골마다 풍성하고 인심도 좋아
알차게 살아가리 정든 내향토

2. 백제의 고룡군을 새롭게 열고
면면히 이어온 국악의 예향
남녘의 으뜸가는 문화를 펴고
나날이 웅비하는 빛난 춘향골

3. 어제의 역경을 인내로 일궈
힘모아 가꾼옥토 열매를 맺어
일마다 빛이되어 내일로 쫓고
청사에 길이빛낼 우리 남원군

후렴 아 아, 자랑스런 우리 남원군
 힘모아 빛내리라 지켜 가리라

81년 7월 1일자 남원시 승격으로 군민의 노래중 가사부분의 변동으로 86년10월15일 군민의 노래 작사부분은 공모하였고 87년도 작곡부분 공모중임.

순창군민의 노래

mf

회 옥 문 천 산 수 높 았 은 불 에 해 떠 오 를 - 때
은 강 천 - 은

망 사 망 랑 하 과 펼 민 쳐 음 으 로 우 리 의 낙 토
습

f

회 보 망 찬 내 일 위 해 서 로 도 우 - 며
아 라 찬 란 한 꿈 여 기 에 심 - 어

일 알 하 는 즐 거 움 에 우 리 는 산 - 다
차 게 보 람 있 게 우 리 는 산 - 다

f

장 하 다 천 년 만 년 이 어 나 가 는

mf

살 기 좋 은 내 고 장 우 리 의 순 창

아름다운 산수의 정기를 받고 오랜 역사를 통해 가꾸고 내고장의 특산을 자랑
삼아 알뜰한 생활을 이룩하며 선배들이 끼쳐준 숭고한 얼을 이어받아 복되고
명량한 향토와 서로 힘을모아 고장의 번영을 이룩함에 있음.

정읍군민의 노래

최 동 진 작사
박 중 삼 작곡

행진곡풍으로 명랑하게

노 령 에 어 린 정 기 우 리 뻘 이 요

샘 솟 는 맑 은 물 은 우 리 맘 이 다

충무 공 녹두장군 뉘 을 이 으 니 꽃 - 피 리 그 이 름 은 -

복 지 에 정 읍 뭉 쳐 라 한 - - 맘 으 로 -

새 역 사 를 창 조 하 자 나 아 가 자

재 건 으 로 - 새 살 림 을 마 련 하 자

2. 영주의 새아침에 희망은 높다 3. 내고장 한줄흙도 어찌 버리랴
 웃으며 일터찾아 밭맞춰 가자 군세게 품에안아 사랑해 보자
 견디며 자립으로 삶을 찾으니 승공의 깃발들고 갈고 닦으니
 빛나라 그이름은 명랑한 정읍 복되리 그이름은 평화론 정읍

후렴 뭉쳐라 한마음으로 새역사를 창조하자
 나가자 재건으로 새살림을 마련하자

충무공 이순신장군께서 초대현감을 역임하고, 우리나라 근대민주주의 사상인
 동학혁명의 발산지로서, 내장산, 두승산(영주산)등 수려한 명산이 소재하고 호
 남평야의 젖줄인 동진강의 발원지로서 군민기상이 뚜렷한 곳임을 상징함

고창의 노래

조금빠르게

변성수 작사
강병규 작곡

mf

방 장 산 높 은 영 봉 선 운 사 맑 은 구 - 름

기 름 진 들 판 에 는 오 곡 이 풍 성 하 - - 고

황 해 - 수 깊 은 물 에 어 별 이 뛰 는 다 네

여 기 - 가 모 양 옛 터 복 된 내 - 고 장 -

십 오 만 고 창 군 민 한 데 뭉 처 서 -

살 기 좋 - 은 내 고 장 을 더 욱 빛 - 내 세 -

2. 전답이 비옥하면 인심도 다습다-네
뿌리고 기르어서 살찌게 하여보-세
산야가 검푸르면 나라가 가멸다-네
심으고 가꾸어서 청산을 자랑하-세

후렴 십오만 고창군민 한데 뭉쳐서
살기좋은 내고장을 더욱 빛내세-

3. 서로가 화목하여 날마다 웃음이-요
땀흘려 일을하니 해마다 풍년이-네
희망에 지고새는 복된 내고장
대대로 뻗어가는 복된 내살림

고창군민을 상징하고 군민의 화합과 애郷심을 드높이고자 1962년에 “고창군민의날” 기념행사에서 고창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코자 제정하였음.

부안군민의 노래

백양촌작사
강병규작곡

황양새 해양보 의한람 맑은바람 불힘낭 어울고 는아을 곳서에
변불희 산타망 에는은 서정막 린신아 정은온 기로다 고바우 루삐리 뺨가네 히꾸살 니세림
산풍찬 천죽란 도타한 아어문 림염화 답시의 다초탐 즐부쌈 거지아 운의을 고터리 장전어
인천새 정만나 도년라 도번깃 타영발 움해아 다갈래 사알발 랑뜰맞 의한취 고터가 장전세
영원히 빛나거라 꽃을피어라
대한의 높이솟을 우리부안군

변산의 준령과 드넓은 곡창지대를 검푸른황해가 휘감고 도는 우리부안군의 특성을 살려 군민의 넓은 포부와 이상향을 그리며 풍족한 삶을 노래한것으로 예로부터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인정이 넘쳐흐르며 나라가 위태로울땐 기꺼이 국난극복에 투신했던 용맹성과 평화로울땐 찬란한 민족문화 창달에 슬기를 발휘했던 군민성을 함축하고 있음

우리의 김제

조용건 작사
장현팔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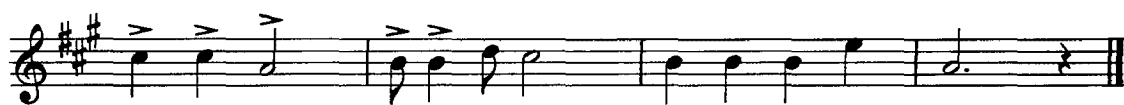
모악산 푸른 줄기 남쪽에 - 솟고
벽골제 금빛 물결 이 어 호 - 르고



금강산 굽이치는 길만 평야에
만경강 풍경소리는 김령들아네



우리 의 풍성한 땅 우리 내 고장네
우곡의 풍림살이 우령겨워지네



힘모아 재건하자 우리 의 김제
힘모아 재건하자 우리 의 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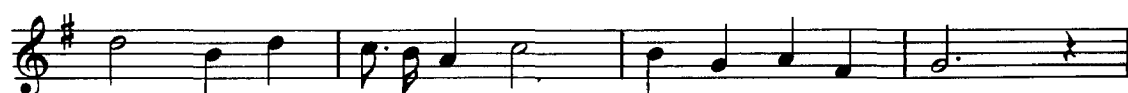
본군은 광활한 김만평야가 있고 전국쌀 생산량의 1/40을 생산공급하는 곡창지대이며 모악산이 우뚝 솟아있고 만경강 동진강이 흐르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임을 상징하여 작곡자가 1963년도에 창작 내고장의 자람을 만끽 느끼면서 군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도 즐겁게 부르고 있음

옥구군민의 노래

이 병 훈 작사
이 길 환 작곡



오금자 성만천 산경대
높천밤 푸년은 른줄문
봉기화 구서유 림해서
위에로 솟이남 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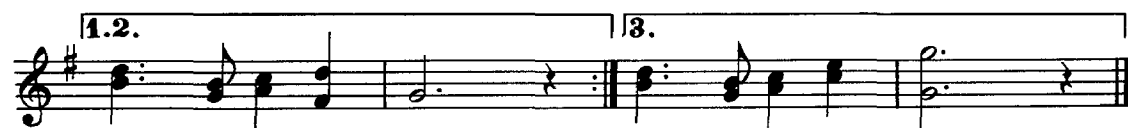
땀땀백 으깬제 로은의
갈푸순 고른결 갈물반
아축아 오보인 곡화심
이도도 찾많많
네네네



황철힘 금마모 빛다아
물풍이 결어루 친로어
다다라 호칠부 남성강
의의한 곡창창 임임임
옥옥옥 의의의 뽕뽕뽕
은은은 들들들 은은은



우리 의 기 상 대 이 여 빛 내 여 — — 라 우



리 - 의 옥 구 리 - 의 옥 구

호남의 곡창지대 및 서해안의 칠산어장을 보유하고 있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고
장을 찬양한 노래임

익산군민의 노래

흥미있게 민요풍으로

이 병 기 작사
이 흥 렬 작곡



1. 우 리 가 이 좋 은 곳 에 — 마 한 의 성 장 을 하 다 —
2. 반 만 년 고 적 을 찾 아 — 그 모 양 변 함 없 건 만 —



그 빛 이 백 제 의 성 왕 — 자 랑 한 민 족 의 군 민 —
쏟 만 한 금 지 와 지 형 — 고 향 과 단 결 하 도 다 —



순 수 한 미 — 화 속 — 에 서 향 토 의 재 건 과 산 — — 업
그 높 은 이 상 과 신 — — 념 건 설 로 홀 — 름 하 — — 다



관 민 이 즐 거 워 하 며 — 감 정 을 모 다 일 — 뵈 다
다 같 이 힘 을 다 하 여 — 우 리 군 부 를 키 — 우 다

어느 지방이든 자기지방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 우리 익산군은 백제의 고도로서 군민을 대표하는 군민의 노래가 없음을 알고 이고장 출신이신 시인 가람 이병기(1891~1968)선생께서 작사를 하시고 이흥렬선생께서 작곡하신 곡으로 익산군을 찬양하고 군민의 긍지를 갖기위한 곡으로 군민의 사랑을 받고있다

전남도민의 노래

이 은 상 작사
이 호 섭 작곡



노 령 의 큰 - 산 줄 기 타 고 내 려 와
다 도 해 푸 - 른 바 까 고 안 고 지 서
겨 래 는 고 - 난 속 에 한 덩 어 리 고



그 림 같 은 산 과 들 열 린 - 고 을 들
곳 세 - 곳 기 는 기 림 들 땅 보 배 - 의 고 나 칸
세 - 기 는 어 뎌 서 밝 아 - 오 나 니



오 랜 전 통 빛 난 문 화 실 린 그 대 로 여 기 서 나 고 자 란
너 - 와 망 나 아 침 잡 고 마 음 한 뜻 낙 토 를 만 드 리 리
희 - 망 에 침 했 빛 빛 한 아 름 안 고 나 자 역 사 의



정 든 내 고 장 문 치 자 - 세 우 - 자 힘 차 게 살
우 리 손 으 로 뎌 치 자 - 세 우 - 자 힘 차 게 살
뚜 렷 한 길 로 뎌 치 자 - 세 우 - 자 힘 차 게 살



자 이 땅 은 - 물 려 반 은 우 리 의 낙 원
자 이 땅 은 - 새 로 꾸 밀 우 리 의 낙 원
자 이 땅 은 - 길 이 길 이 우 리 의 낙 원

박철수 제2대 전남지사는 6·25전쟁후 흥흥한 민심수습과 주민단합을 위해 “도민의 노래” 제작 필요성을 주장 1951년 당시 호남신문 사장인 노산 이은상씨가 작사를, 피난차 내광하여 조선대 음악과에 재직중이던 이호섭씨가 작곡하여 “내고장”이라 명명하였다가 후일 “도민의 노래”라 개명 오늘에 이름.

목포시민의 노래

권 일 송 작사
음 협 작곡



빛 나 거 라 남 녀 바 다 햇 빛 도 밤 - 아
음 머 - 리 푸 른 물 결 전 설 의 삼 -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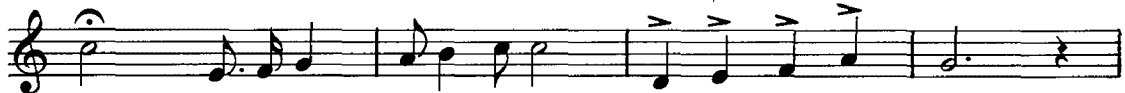
유 - 달 에 기 슷 치 는 파 도 드 높 이
노 - 적 봉 타 는 정 기 한 팔 에 안 고



가 슷 마 다 여 울 지 는 사 랑 과 꿈 을
우 령 차 게 나 래 치 는 이 상 도 높 다



가 - 꾸 며 꽃 피 우리 자 랑 의 누 리



(후렴)아 멧 뿌 리 그 큰 기 상 다 지 는 한 맘



우 - 리 는 목 포 시 민 미 더 - 운 형 제

유달산과 삼학도의 아름다운 애향의 도시로 파도 따라 농수산물의 집산지로 단
결과 화합하여 생활터전인 목포를 새로운 복지낙원으로 힘써가꾸고 항상 힘차
게 살아가자는 내용임

여수시민의 노래

(씩씩하고 명랑하게)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



중고산 솟은아래 기쁨이 진솔은 토다
단결과 사랑속



남해는 푸른물이 결다 승리의바다
복지의행정이



강산에 서려있는 충무공정신
람찬새시대 문화의낙원 그땀



전통우리여수 자랑이네
흘려우리여수 새모습자



(후렴) 생활의 터전이다 정든내고장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살자



생활의 터전이다 정든내고장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살자

충무공의 얼이 서린 우리고장 여수를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모두 단결
과 화합하여 생활의 터전인 여수를 새로운 복지 낙원으로 힘써서 가꾸고 항상
힘차게 살아가자는 내용의 의미

순천시민의 노래

순천시작사
김유섭작곡

전주 활발하게



소죽십 백두자 산봉로
높산달 은마려 정루가
기에는 삼새우 산벽령
에이찬 뽕밭철
고고마



이 - 수 의 맑 은 물 이 감 싸 도 는 곳
오 - 늘 도 우 령 차 게 팔 마 는 간 다
강 - 건 너 산 을 뿜 고 오 늘 도 간 다



넓 - 은 들 푸 른 바 다 이 어 번 지 니
밤 - 으 로 타 오 르 는 봉 화 와 같 이
밤 - 으 로 타 오 르 는 봉 화 와 같 이



여 - 기 는 호 남 영 지 그 - 이 - 름 순 천 (후렴) 키 우
나 아 가 며 호 건 설 하 는 그 - 이 - 름 순 천
나 아 가 며 호 건 설 하 는 그 - 이 - 름 순 천



자 드 - 높 이 세 워 - 진 꿈 을



우 - 리 는 순 천 시 민 새 - 세 - 대 일 께

삼산 이수 소강남의 빼어난 경치와 청백리의 표상인 팔마의 얼을 부각시켜 애
향심과 시민화합을 도모케하여 “順天心”의 영원한 전진을 표현하고 있음

나주시민의 노래

씩씩하게

오 유 권 작사
최 남 순 작곡



금 - 성 산 줄 기 줄 기 영 산 강 곶 이 곶 - 이
애 국 애 족 민 족 정 기 대 대 로 이어 오 -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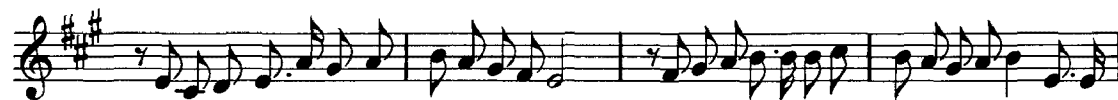
오 곡 백 과 황 금 물 결 풍 요 로 운 우 리 고 - 장
우 국 열 사 충 효 정 싣 빛 나 는 얼 총 만 한 - 곳



빛 난 전 통 이 어 온 - 호 남 의 요 략 - 새 회 망
선 비 정 신 이 어 받 은 자 랑 스 런 후 예 충 절 의



새 터 전 - 복 된 고 을 나 주 이 시
곧 은 절 개 길 이 길 이 드 높 이 세



(후렴) 하늘이 내 려 주 신 축 복 의 고 장 조 상 이 물 려 주 신 빛 나 는 유 산 한 마



음 한 뜻 으 로 굳 게 뭉 처 서 전 원



도 시 나 주 시 를 이 룩 해 보 세

금성산 줄기와 영산강을 끼고 있어 오곡 백과가 풍성한 축복 받은 전통의 고
장 나주를 온 시민이 합심하여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꾸어 보자는 뜻임

여 천 시 가

서정주 작사
김동진 작곡



명랑하고 씩씩하게

영 - 취 산 정 기 반 - 아 홍 국 사 에 어 리 는 한 - 국 의
중 무 공 이 거 복 선 - 을 만 드 시 던 이 곳 에 목 숨 반 아
보 시 는 가 우 - 령 - 찬 여 천 공 업 기 지 를 우 - 리 는



높 은 녀 - 을 자 손 만 대 이 어 - 서 여 - 천 을 이 나 라 - 의
태 - 어 - 난 우 리 들 의 자 랑 - 은 어 디 에 다 접 - 어 - 서
내 조 국 - 에 힘 을 다 해 바 쳐 - 서 나 - 날 이 좀 더 크 - 게



대 발 전 의 기 치 로 가 꾸 고 느 리 어 - 서 힘 - 차 게 나 가
대 놓 아 두 고 말 리 요 파 우 리 는 꽃 피 우 - 리 큰 꽃 되 어 빛 내
발 전 시 켜 왔 나 니 이 제 는 세 계 에 - 서 선 진 하 여 나 가



여 천 여 천 아름다운 여 천 쾌적하고 활기찬 우리고 - 장
리 세



여 천 여 천 아름다운 여 천 쾌적하고 활기찬 우리고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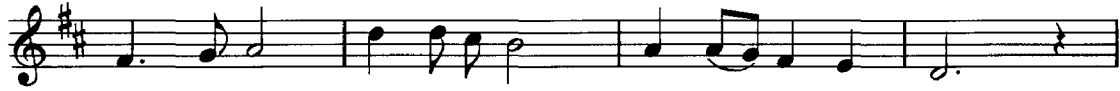
송정시민의 노래

Moderato
(명랑하게)

경정 영철 작사
영규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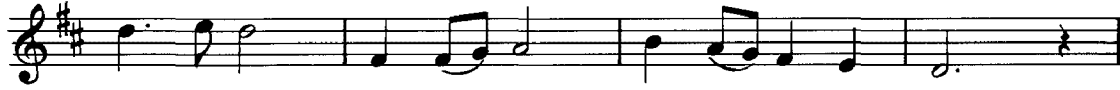
늘 - 푸 른 마 음 - 은 소 나 무 처 - 럼
다 - 사 - 로 운 한 마 음 - 은 비 둘 기 처 - 럼
은 -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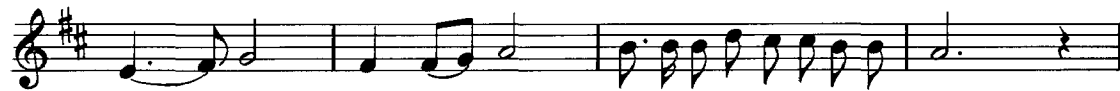
너 와 나 함 계 모 여 일 구 - 는 터 전
너 와 나 손 을 잡 고 내 일 - 을 향 해
와 와 나 민 음 으 로 사 랑 - 을 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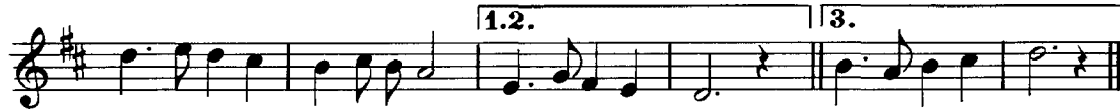
서 락 로 의 가 숨 마 다 회 망 을 신 고
박 은 러 일 일 하 고 알 뜰 히 가 꺾
은 은 빛 여 텃 마 을 두 루 비 추 고



대 대 로 우 리 역 사 이 어 - 갈 다 짐
풍 오 와 기 뻔 이 넘 치 - 는 거 리
움 소 리 집 집 마 다향 으 - 로 피 네



아 - 아 어 등 - 산 우 러 르 며 굳 게 문 처 서
아 - 아 황 룡 - 강 바 라 보 며 결 갈 은 뜻
아 - 아 저 하 - 늘 맑 은 정 기 우 리 들 의 것



자 랑 스 린 송 정 시 를 가 귀 가 리 라
아 살 기 좋 은 송 정 시 를 일 귀 가 리 라
1.2. 3. 펄 쳐 가 리 라

광산군민의 노래

허 장 연 작사
신 덕 작곡



노령 - 의 큰 - 줄 기 울 타 리 삼 아
황룡 - 강 굽 이 파 라 림진 땅 평 을 도
어 등 - 산 소 나 무 에 이 는 바 람 람



아담 - 한 터 를 이 룬 사 랑 의 낙 - 원
가꾸 - 고 거 - 두 는 호 못 의 보 - 람
대 대 - 로 이 어 받 아 흥 겨운 노 - 래



일하 - 자 땀 흘 리 자 알 뜯 - 히 살 자
일하 - 자 땀 흘 리 자 알 뜯 - 히 살 자
일하 - 자 땀 흘 리 자 알 뜯 - 히 살 자



들 - 마 다 마 을 마 다 메 아 - 리 친 다 - 보 아
집 - 다 다 거 리 마 다 메 아 - 리 친 다 -
골 - 다 가 습 마 다 메 아 - 리 친 다 -



라 - 살 기 좋 은 새 로 - 운 광 산 - 알 차



계 - 뻗 어 나 갈 정 다 - 운 고 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고장임을 널리 전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기리기 위해 1969년 군민의 노래를 만들게 되었다. 노래가락이 끊어질듯 이어지는 마디마디가 군민의 여운과 끈기를 잘 나타내 보여지고 있으며 군민전체에게 급속히 전파되어 단합된 군민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담양군민의 노래

최 일 환 작사
장 신 덕 작곡

알맞는 빠르기



추 월 산 맑 은 정 기 이 어 가 꾸 며
관 방 제 감 도 는 물 흘 러 굽 이 며

철 - 마 다 푸 른 대 숲 절 개 도 곧 다
곳 - 마 다 오 곡 백 과 살 기 도 좋 다

우 리 는 터를 닦 는 세 기의 일꾼 이룩하자 빛난 고을 뭉치 힘으로, 아
우 리 는 길을 닦 는 겨 려의 일꾼 이룩하자 복된 고을 부풀 맘으로,

아 - 드높 다 저 구름 자 유 의 낙 원 - 대

바 람 일 령 이 는 평 화 의 담 양

우리고장은 죽세공예의 특산지이자 산자수명하고 살기좋은 고장이면서도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1970년에 민경기 군수가 군민에게 현상공모하여 작사는 당시 남면국교 최일환 교사작이 당선되었고 곡은 조선대학교 음악대학장 장신덕 교수가 만들어 개창운동을 펼친결과 담양을 찬양하고 담양인의 긍지를 갖도록 하였으며 군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음

곡성군민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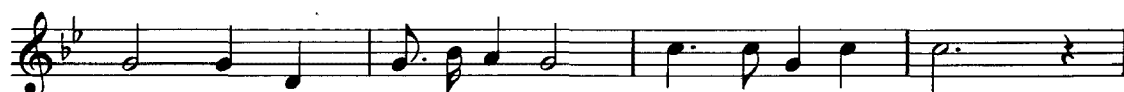
허연 작사
김형구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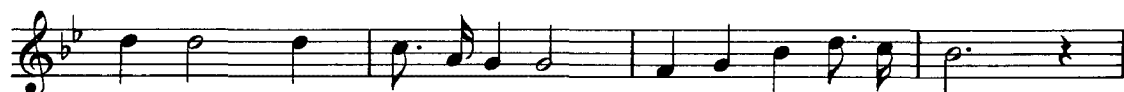
노심단 - 령진군 의강의 장맑높 한은으 줄물신 기결뜻 이굽길 곳이이 에굽받 뻗이들 어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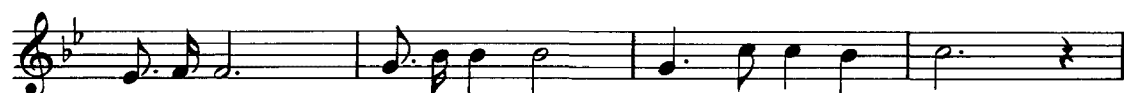
동어겨 악다레 산나의 통황어 명금진 산땅얼 은이을 맘반지 도겨켜 푸맛온 르는고 러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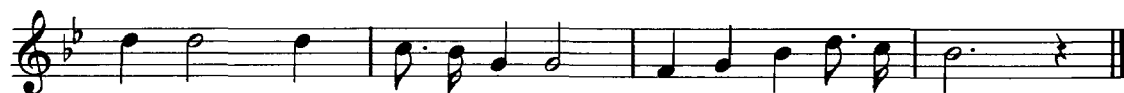
대땀설 대홀산 로려성 이일한 어한그 반보루 은람의 보알나 금뜰무 자히들 리거까 에뒤지



오아정 북끼성 한고갯 우서가 리로꾸 살도면 림와서 키복즐 우되겁 며게게 살살살 - 자자자



어하라 둥게둥게 정다운곡성



새날의 고동소리 울려피진 - 다

본군의 상징과 의지를 담아 온곡민이 향토인의 긍지를 가지고 함께 부르기 위하여 73년도에 뜻있는 분들의 입지를 모아 허연선생과 김형구선생에게 작사 작곡을 의뢰 군가로 불리워지고 있음

구례군민의 노래

경쾌하고 명랑하게

이 은 상 작사
공 석 준 작곡



바라보면 지리산 장엄한 모습 섬진강 굽이 흘러 기쁨진들판
학문과 충의는 우리의 바탕 사랑과 협동은 우리의 신조



긴 2역사 오랜 전통 정든내고장 여기는 우리 낙토 생활의 터전
내일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성실과 근면으로 힘차게 살자



아름답다 산수자연 구례의 자람



물려받은 문화재 나라의 보배



눈부신 산업부흥 우리 손으로



구례의 새 역사를 창조 하리라

역사와 전통의 고장 구례군에 군을 상징하는 노래가 없어 1974년 군민의 노래를 제작 전군민이 즐겨부르게 하므로써 본 노래를 구심점으로 총화단결 선진구례를 건설하기 위함

광양군민의 노래

이 은 상 작사
이 용 일 작곡

썩썩하고 명랑하게(보통빠르게)



백운산과
고난과
쫓겨온
아래서
정든
내선
고운
장리

섬진강을
굽이흐
러는
기쁨
람찬
대
판
열

여기
사
늘
우
창
조
하
는
생
활
의
터
전
열

웃음
과
희
망
속
에
바
르
게
살
자
오
늘
도
낙
토
건
설
하
는
차
게
살
자

(후렴)성
실
과
사
랑
으
로
한
데
뭉
치
어

땀
흘
려
새
광
양
새
모
습
짓
자

백운산, 정기와 조상이 심어온 강함의지와 투지로 고난과 시련을 딛고 약진, 번영의 선진광양을 건설코자 노산 이은상선생님의 가사에 이용일 선생님이 곡을 붙임

여천군민의 노래

박길목 월현 작사
이희목 작곡



높 - 은 산 푸 른 바 다 하 늘 에 당 고
바 - 다 로 육 지 - 로 천 리 를 달 는



호 국 충 정 푸 른 기 상 꽃 을 피 율 네
자 - 원 도 고 루 갖 춘 푸 른 산 과 들



거 - 북 선 드 나 들 떠 나 라 지 키 던 곳
조 - 상 들 슬 - 기 를 닦 던 - 내 고 장



자 - 랑 의 우 리 고 장 알 뜰 히 가 꾸 자
우 리 모 두 마 음 고 모 아 새 날 - 에 살 자



(후렴)여 천 오 여 천 생 활 의 터 전



길 이 길 이 이 어 갈 사 랑 의 고 향

이충무공의 호국 충정의 얼이 서려있는 고장으로 수산자원과 농산자원을 고루
갖춘 자연적 입지조건을 살려 다도해의 푸른물결처럼 굳센의지로 복된 고향을
만들자는 노래임

승주군민의 노래

이 은 상 작사

김 강 섭 작곡

행진곡조로



바 라 보 면 그 림 같 은 조 계 산 줄 기 보 배 의 앞 바 다 - 기 림 진 들 판
고 - 난 과 시 련 에 서 일 어 선 우 리 번 영 을 향 해 가 는 복 지 의 행 진



산 수 도 아 름 답 다 정 든 내 고 장 대 대 로 물 려 받 은 생 활 의 터 전
새 림 게 의 림 게 오 직 바 르 게 오 늘 도 굳 은 신 념 힘 차 게 살 자

(후렴)



슬 기 와 사 랑 으 로 한 데 뭉 치 어 땀 흘 려 우 리 승 주 새 림 게 짓 세



충 의 와 학 문 의 전 통 을 이 어 조 국 의 새 역 사 우 리 가 짓 세

전남 도립공원이며, 명승 제5호인 해발 887m의 조계산과 순천만에 접하고 있는 드넓은 바다, 기름진 들판, 수려한 산천경관을 배경으로 새롭고 의롭게 바르게 사는 인향의 군민상을 표현한 노래

고흥군민의 노래

홍접계 목 일 신 작사
김 재 민 작곡

mf

팔 영 산 높 은 불 의 정 기 를 받 은 —
남 요 의 후 른 불 은 우 리 의 받 기 상 —

수 려 한 이 고 장 은 우 리 의 — 낙 원 —
기 름 진 산 과 들 엔 보 람 찬 — 결 실 —

웃 는 얼 굴 일 동 하 는 손 내 일 의 행 복 —
근 면 과 협 동 으 로 알 차 게 — 자 란 —

부 강 하 게 이 룩 하 자 번 영 의 — 길 로 —
인 심 좋 은 우 리 고 장 지 상 의 — 낙 원 —

f

(후렴) 고 흥 고 흥 복 되 어 라 정 다 운 고 장 —

ff

힘 찬 전 진 끊 임 없 이 길 이 빛 — 내 자 —

우리 고흥의 명산이며 영산인 팔영산과 남해안 청정해역의 해상공원을 끼고 있는 살기좋은 고평으로 온순, 순박, 근면한 군민성을 가사에 담아 인심좋은 지상의 낙원으로 가꾸기위한 군민의 혼을 일깨우고 있다.

보성군민의 노래

힘차고 정답게

손광은 작사
양자묵 작곡



노령강 억센 줄기 뻗어 - 내 려와
보성강 억센 줄기 뻗어 - 내 려와



정기틀 한 데 모은 정든 내 고향
대대 로 누려 온 생 활 의 터 전



번성 영의 골 은 신 념 서 로 손 잡 고
성실 과 근면 은 우 리 의 신 조



오 늘 도 땀 흘 리 며 힘 차 - 게 살 자
오 늘 도 단란 하 게 웃 으 - 며 살 자

(후렴)



보 아 라 보 배 로 운 우 리 의 보 성



문 화 의 낙 토 건 설 우 리 의 손 으 로

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단합과 번영을 위하여 1975.1.22 작사 작곡. 산자 수려하고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에 인심이 순박하고 근면하여 살기좋은 천혜의 보성을 노래함

화순군민의 노래

허연 작사
박기석 작곡



만연 - 산 푸른 바 람 감 도 는 낙 원
들 열 - 과 적 른 강 이 밝 게 호 르 고
산 이 - 나 골 짜 기 나 어 디 를 가 나



대기 이 어 지 지 킨 땅 에 뿌 리 내 리 고
도 림 처 에 문 화 의 - 오 곡 기 념 물 치 고
고



따뜻한 인 - 정 으 로 감싸 주 기 에
영 조 벽 상 의 인 - 성 으 - 로 룬 들 어
조 상 의 의 - 로 운 뜻 들 어



오 늘 도 - 행 복 하 고 마 냥 즐 겁 다
알 린 도 - 고 일 운 구 꿈 이 영 글 어 간 다
묵 받 을 - 일 구 듯 이 땀 을 흘 린 다



마 을 마 다 얼 굴 마 다 정 다 운 고 향



인 심 좋 고 살 기 좋 은 우 리 화 순 -

어느 고장이든 자기 고장을 찬미하는 노래가 있다. 우리 화순은 어느고장보다 산수가 수려하고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군민들이 긍지를 갖고 사랑이 넘치는 정다운 고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의 노래를 제정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민의 노래

김 용 술 작사
신 동 민 작곡



국 사 봉 정 기 뻔 어 천 관 에 맺 히 고 - -
탐 진 강 산 을 스 쳐 들 - 을 누 비 니 - -



남 해 바 다 푸 른 물 걸 희 - 망 부 푸 네 - -
강 - 산 도 아 름 답 고 인 - 심 도 곱 네 - -



이 - 들 과 저 바 다 는 우 - 리 살 림 터 - -
조 - 상 의 피 와 얼 이 서 - 려 있 는 곳 - -



손 - 잡 고 땀 흘 리 어 살 찌 워 가 세 - -
힘 과 마 음 합 - 쳐 서 가 꾸 어 가 세 - -



금 수 강 산 남 쪽 땅 복 된 내 고 장 -



그 이 름 장 흥 장 흥 길 - 이 흥 하 리 -

산들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지역 특성과 풍요로운 인심과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고취시키는 노래. 1971년 장흥군민의 날 제정과 함께 제정된 노래

강진군민의 노래

허박 기연 작사
작곡



동유석 백자문 꽃가산 아름다운 남쪽의 낙원
주령금 강은 향기 높이는 루
소금강은 향기 높이는 루



월담부 출진위 산강사 고암벽 아름다운 자물락 기적 틈진 땅에
부위위 사강사 벽화 또 한 빛나 는 고 판
향



대대로 씨뿌리고 땀을 흘리고
모두 허가진 부친 자 기의 조 각 하 나 도
문 허가진 부친 자 기의 조 각 하 나 도



오늘도 알찬 열매 거둬들인 다
새마상 의 부꾼이 유산 매을라 지켜나 간 다
조 상 의 유산 매을라 지켜나 간 다



에 해 야 잘 살 세 복 되 게 살 세



빛 나 는 우 리 강 진 정 다 운 고 향

지역주민의 협동 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인의 긍지와 특색을 살려 10만 군민의 한마음으로 살기좋은 강진을 건설하고자 1973.5.10 강진군 조례제 481호로 제정 공포함

해남군민의 노래

예사빠르고 씩씩하게 이 동 주 작사
유 신 작곡

기 름 진 넓 은 벌 에 두 렷 산 높 이 솟 고 맑 은 물
 굽 이 - 처 서 해 로 흐 른 다 아 름 다 워 라 우 리 해 -
 가 꺾 - 준 문 화 가 빛 난 다 자 랑 스 러 워 우 리 해 -

남 살 기 좋 은 내 고 장 집 집 - 마 다 살 림
 남 살 기 로 운 내 고 장 너 도 - 나 도 마 음

늘 러 복 되 - 게 - 살 - 자 믿 음 과 사 - 랑 -
 다 저 새 일 - 께 - 되 - 자 자 자 손 길 - 이 -

이 로 의 좋 - 게 - 살 - 자 아 아 아 ---
 이 어 지 켜 - 나 - 가 -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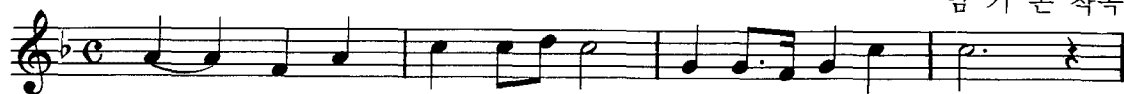
보 아 다 오 인 심 도 순 후 한 우 리 해 - 남 우 리 해 -

남 만 만 세 - 만 만 세 Fine 충 무 공

해남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옛선인들의 얼을 계승하고 군민의 화합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작곡자가 70년대에 작곡하여 온 군민이 부르게 되었음.

영암군민의 노래

백암 작사
엄기돈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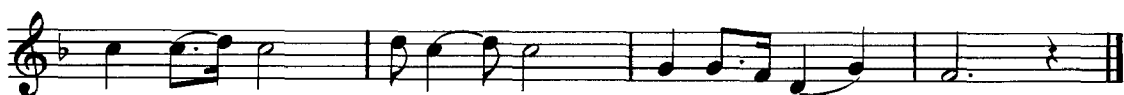
월도새근 — 출국회면 — 산사망과 — 영원새자 — 봉인설주 — 다생는로 — 정슬영힘 — 기기암을 — 가를의합 — 뽀반기치 — 고아상니



해전힘열 — 칭통차고 — 만의게을 — 푸문자옥 — 른화 — 물창 — 에조네는 — 아침해가 — 돌나 — 네가 — 네강래



낭 주 — 라 — 옛 이 — 름 — 우 리 — 의 고 장



기 르 — 고 — 가 꾸 — 어 — 빛 나 게 하 — 세

도립공원 월출산 정기를 받아 군민의 기상과 강직한 인내성을 상징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옛 성인들의 굳은 의지를 다짐한 노래로서 군민상을 정립키 위해 제정함

무안군민의 노래

리듬을 선명히 부각시켜 별대순 작사
장신덕 작곡



노령의 - 령의 - 푸른 산맥 - 정기 - 를타 - 고
의 - 산강 - 푸른 물 - 넘치 - 는옥 - 토
의 - 립고 - 슬기 - 로운 결 - 선조 - 본받 - 아

승 - 달 산 높 은 기 상 뽕 어 - 내 린 곳
서 - 남 에 은 바 다 풍 요 - 한 자
배 - 움 도 이 하 재 주 - 꽃 피 위

삼태 한 의 옛 날 부 터 지 - 킨 산 과 - 들
나 람 양 이 에 눈 부 시 게 빛 - 나 는 과 - 들
의 도 충 하 고 부 - 모 에 효 - 도

언 - 제 나 새 로 읍 게 일 - 으 켜 가 세
땀 - 흘 나 아 름 읍 답 가 - 꾸 어 가 세
살 기 좋 은 고 장 을 이 - 룩 해 가 세

(후렴) 산 - 좋 고 물 도 좋 은 아 름 다 운 땅

영 - 원 히 빛 나 거 라 우 리 - 의 무 안

조상 대대로 지켜온 아름다운 산과 풍요로운 들을 지키고 가꾸어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임

나주군민의 노래

정작곡
나주군연
주 기 석
나 허 박

흥겨웁게

노영애 — 령산부 의강터 줄기은려 뽕물반 어이은 솟감기 은돌름 금아진 성갈별 산제판

보승한 — 아 라 새 회 망 의 해 가 돈 — 으 면
— 어 치 와 민 물 장 어 념 가 노 는 — 고 장
— 처 의 땅 도 살 려 가 끈 이 — 보 람

북포지 사전화 꽃에자 배무풍 꽃우년 들이추를 어록함 울이께 린차부 — 낙가르 원듯며

오우정 늘리성 도의껏 부살새 지림나 런살라 히이를 일늘받 해어들 야만가 한간가 다다자

대 대 로 복을누 린 정 다 운 고 향

어 화 등 실 살 기 좋 은 우 리 나 주 군

유서깊은 금성산과 영산강 줄기의 기름진 평야에서 생산되는 과실과 어류, 채소 등 풍요로운 고장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여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다운고장 살기좋은 고장을 이룩하는데 있음

함평군민의 노래

허연 작사
김형구 작곡

정답고 즐겁게

태가 은 청습물 산을결 한적금 — 자 락 이 뻔강꽃 어물피 내을는 려따서 와라해

기 — 산 과 — 영 — 수 로 이 름 — 높 은 곳
따 — 뜻 한 — 인 정 으 로 지 커 — 온 고 향
여 — 기 도 — 줄 — 거 운 일 터 — 아 닌 가

기 름 진 들 과 발 에 땀 을 — 뿌 리 고
겨 려나 와 나 은 라 위 해 밝 혀 — 든 뻬 불이
팽 나 무 행 나 무 우 창 하 듯 이

대 — 대 로 행 — 복 을 누 리 어 — 보 — 세
영 — 원 히 — 자 랑 삼 아 이 어 나 — 가 — 세
새 — 씩 을 홀 룡 하 게 가 꾸 어 — 보 — 세

에 헤야(언 제나) 정 다워 라우리고향 여 기가(여기가) 여 기가(여기가)

함 평 천 지 함 평천 지 — 낙 원 이 — 로 세

기산 영수로 이름높은 함평군은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기름진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민족자주정신이 강하여 항상 구국 대열에 앞장선 명예로운 전통을 가지고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음

영광군민의 노래

허기진 작사
연작곡

흥겹게

노 감 령 의 는 뿌 리 뻗 어 다 솟 은 연 - 실 봉
대 대 로 결 이 어 사 는 정 다 운 - 고 향
기 름 진 고 넓 은 들 판 황 금 의 - 땅 을
땀 흘 려 가 - 꾸 세 알 차 게 - 살 세
지 화 자 종 을 시 고 남 도 의 - 낙 원 빛 나 는
새 - 영 광 1. 우 리 의 - 영 광 2. 우 리 의 - 영 광

노령산맥의 줄기인 불갑산과 굴비의 보고 칠산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넓고 기름진 땅 옥당골 영광을 땀흘려 가꾸며 온군민의 단결로 희망에 찬 고향으로 간직코자 1971년 8월 군민의 노래로 제정함

장성군민의 노래

박 목 월 작사
전 석 환 작곡



줄 기 차 게 뻗 은 노 령 푸 른 산 맥 은
기 름 진 땅 적 셔 주 - 는 황 룡 강 물 은



굳 건 하 게 살 아 가 - 는 장 성 - 의 등 뻗
대 - 대 로 이 어 오 - 는 장 장 성 - 의 젖 뉘



축 은 복 반 은 내 고 장 서 로 - 도 와 서
은 군 민 이 다 정 한 이 웃 - 이 되 어



더 잘 사 는 내 일 의 꿈 꽃 을 - 피 우 자
근 면 하 고 성 실 하 게 꽃 발 - 이 루 자



난 초 처 럼 향 기 로 운 그 마 음 씨



북 돈 우 머 가 꾸 - 며 더 욱 행 복 한



더 잘 사 는 우 리 - 의 장 성 - 이 루 - 자

노령산맥의 줄기를 타고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는 많은 산지와 장성의 젖줄인
황룡강 푸른물은 옥도를 적셔주고 있어 문화·경제발전과 자연산물이 풍부한
곳으로서 선비가 갖춘 덕이 있는 백양난의 향기속에서 근면 성실로 굳건하게
살아가자는 미래를 지향하는 노래임

완도의 노래

MM=120
MM=100

이 은 상 작사
이 홍 렬 작곡

국 토 의 정 기 어 려 솟 은 상 - 황 봉 -
들 에 는 오 곡 백 과 풍 성 한 - 산 물 -

푸 른 물 굽 이 치 는 승 리 의 - 바 다 -
바 다 는 무 진 장 한 우 리 의 - 보 고 -

청 해 진 고 금 진 정 통 의 - 터 전 -
오 늘 도 우 령 찬 건 설 의 - 합 창 -

민 새 족 의 얼 이 깃 든 우 리 완 - 도 -
역 사 지 어 가 는 우 리 완 - 도 -

(후렴) 흰 모 래 붉 은 동 백 아 름 다 와 라 -

내 고 장 정 든 낙 토 생 활 의 무 대 -

성 실 한 땅 의 값 은 헛 되 지 않 다 -

너 와 나 한 데 몽 처 힘 차 게 - 살 자 -

청해진 장보고 장군의 눈부신 활약과 고금진이 이순신장군의 역사적 승전의 터전임을 상징하고, 아름다운 도서의 풍경과 바다가 생활의 원천인 완도 군민의 억센 삶을 표현하려는 창작자의 의지가 물씬 풍기고 있는 노래임

진도군민의 노래

허연 작사
박기석 작곡

푸른 물 감도는 우 리 다 도 해
동 백운꽃 산아 름다 운 마 을 마 을 에

보 고 를 거 느 리 고 사 는 내 고 장
기 름 제 흥 금 땅 에 땀 흘 리 리 랑

옛 부 터 예 술 의 꽃 이 어 피 는 꽃
을 두 목 임 의 일 자 랑 삼 아 우 셔 며

새 세 대 새 바 람 의 햇 불 을 든 다
희 망 이 무 르 위 해 앞 장 을 선 산 다

큰 복 을 누 리 라 남 쪽 의 낙 원

정 다 운 진 도 진 도 알 뜰 히 사 세

푸른물 감도는 보배의섬에 찬란한 남도 문화 예술을 꽃피우고 충혼의 넋이 담긴 호국의 얼이 숨쉬는 기름진 옥주땅을 지키며 살아온 진도군민의 긍지와 얼을 표현한 군민의 노래임

신안군민의 노래

최덕원 작사
서만중 작곡

보통걸음의 속도



아 — 날 — 기 매 갈 결 물 른 푸 — 해 도 다
려 서 에 위 바 기 향 란 풍 — 한 옥 그
는 가 나 켜 지 화 문 통 정 윤 로 기 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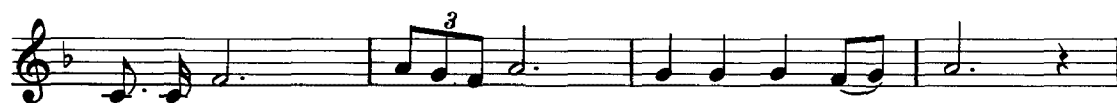
하강장 산금고 한의한 러해라 화남차 섬정음 일절 운승마 고명하 은갈림이 그이모



녀려림화
 들요당
 진는해
 림다은
 기바불
 은라에
 좋아발
 심피래
 인배모
 고에빛
 맑풍—
 물수인



세세세 보하내 아일빛살싸이 잘힐길 손어어 도되손나꾸 오하가 고계 돕나답 로와름 서너아



조 상 의 높 은 기 상 그 열 을 받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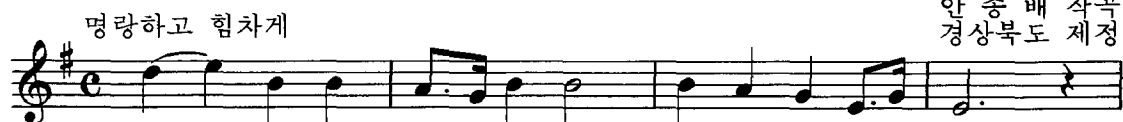


꿈 많은 남쪽 나라 우리의 신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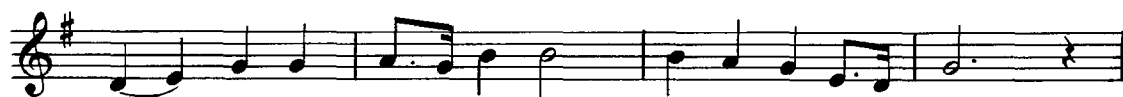
푸른물 감도는 다도해의 보고를 거느리고 옛부터 해상낙원을 이루어온 신안군
민이 조상들이 물려준 섬마을을 이어받아,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 군
민의 생활지표로 삼고자 1982년 당시 해양전문대 최덕원 교수가 가사를 짓고
작곡가 서만중씨가 곡을 붙여 불리지게 되었음

경상북도 도민의 노래

유경희 작사
안종배 작곡
경상북도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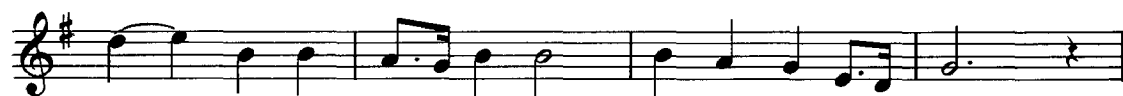
고 집 새 - 요 마 한 아 침 햇 빛 동 해 에 번 - 저
새 - 로 다 운 공 역 장 마 위 다 넘 치 는 기 - 뻘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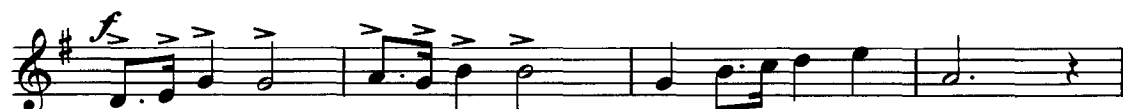
억 만 년 태 백 산 맥 정 기 어 리 - 고
년 - 금 에 꽃 백 산 맥 회 기 망 이 - 다
만 - 홀 러 노 력 하 면 번 영 이 은 - 다



낙 동 강 구 비 구 기 름 진 벌 - 판
도 시 와 농 농 이 하 나 는 로 뫼 - 쳐
오 백 만 가 습 마 다 솟 는 힘 으 - 로



서 - 라 벌 문 화 위 에 새 힘 넘 친 - 다
영 - 남 건 을 끌 고 가 세 밀 고 나 가 - 세
군 - 건 히 지 켜 가 세 우 리 의 향 - 토



부 - 르 자 우 령 차 게 도 민 - 의 노 래



빛 - 내 자 우 리 경 북 대 한 의 자 - 랑

동해의 고요한 아침햇빛과 태백산맥의 정기를 이어받은 도민의 기상과 낙동강을 낀 풍요로운 농촌생활상을 의미

포항시민의 노래

이 명 석 작사
이 진 우 작곡
박 태 준 추천



대 - 한 의 새 벽 날 이 밝 아 새 는 이 고 장



형 - 산 강 흐 름 끝 에 송 도 명 사 고 와 서



동 해 의 고 기 떼 가 모 여 드 는 영 - 일 만



갈 매 기 흥 겨 워 서 파 도 곁 에 춤 춘 다



(후렴)여 - 기 는 경 북 관 문 아 누 한 복 지



정 - 답 게 뭉 - 치 자 우 리 - 시 민 들



대 포 항 건 - 설 의 노 래 부 르 자

1958년 4월 시민의 화합단결을 위해 포항시 초대문화원장 이명석씨가 작사하였고 그의 아들로써 제11대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진우씨가 작곡하였으며 박태준씨가 추천하였음

경주시민의 노래

느릿느릿하게 민요풍으로

황 호 근 작사
권 태 호 작곡

천 - - 년 을 쌓 고 쌓 인 드 - 높 은 옛 터 전 에

금 - 오 의 정 기 가 넘 - - 쳐 서 흐 - 르 고

형 - 산 강 언 저 리 에 꽃 - 피 운 이 - - 곳

옛 님 들 이 물 려 준 아 담 한 우 리 고 향

아 - 그 - 이 름 그 - 읍 한 경 - 주

여 - 기 가 우 리 들 의 낙 - 토 이 - 로 세

2. 전설의 햇불들어 어둠 헤치고
사람마다 맘모아 새날을 향하니
날로 달로 뻗어나는 우리의 고향
거룩한 그 정신 닦아서 빛내자
아- 그 이름 빛나는 경주
여기가 우리들의 복지로세

3. 화랑뿔줄 이어받은 젊은 겨레야
동해의 동틈우 우리의 희망
이름 높은 예술의 향기에 안겨
새 역사 꾸미자 우리의 정든 고향
아- 그 이름 양양한 경주
여기가 우리들의 안식처 일세

1955.9.1 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신라의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화합과 만남을 통한 위대한 경주전설을 위하여 황호근씨가 작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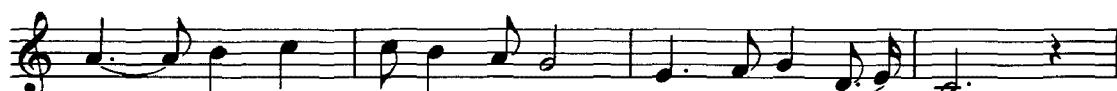
김천시민의 노래

힘차게 Moderato

정수봉 작사
김범 작곡



추적 내 - 지 - 풍감 살 령천 다
즐막 죽 기은 어 줄물 논 기 - 힐
서급 정 기돌 다 푸아 운 르홀 고 리러 장



순아 대 - 림 - 후답 대 한 다 로
인금 이 심산 어 으의 누 로터 릴
다 피평 듣어 화 은난 거 - 산화 리



조상 들 - 자 리 잡 아 기 림진 땅 은
줄기 차 게 꾸며 가 자 우 리의 고 을
오 늘 도 - 불 끈 솟 아 드 높은 해 는
연 금 토 다 이 림 높은 크 나 큰 저 자 (후렴)
내 일 에 - 활 개 처 라 영 남 의 웅 도
끝 없 이 - 뻗 어 나 갈 새 힘 을 준 다 빛 나



리 빛 나 리 라 내 마 을 김 천 부



되 리 복 되 리 라 내 향 토 김 천

1949년 8월15일 읍에서 시로 승격된 이후 6·25동란을 맞아 폐허가 된 시가지를 재건하기 위하여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힘찬 김천건설을 하기 위해 당시 정수봉씨가 작사하였음

안동시민의 노래

행진곡풍으로

김학섭 작사
유재덕 작곡



낙 동-강 푸 른 줄 기 감 도 는 터-에



태 백-산 정 기 반-아 빼 난 인 재 는



겨-레 의 앞 장이-다 역 사 의 주 인



금 지 와 회 망으-로 오 늘-을 산 다



(후렴)우-리 는 명 예로 운 안 동 의 시-민



바-치 자 몸 과 맘 을 뭉 처 이 땅 에

2. 선어대 제비원 명승 고장에
옛조상 끼쳐주신 찬란한 문화
동방의 등축이다 같고 되세워
큰소망 복된 땅을 다시 꾸민다

3. 안동포 고운솜씨 이름난 소주
땀흘린 결정이다 우리의 자랑
혈맥마다 고동쳐 힘은 넘치니
일하는 보람으로 영원을 산다

19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시민의 화합과 애郷심을 고취하고 향토인의 긍지와 명예를 부각시켜 협동심을 도모하고 희망을 가진 명예로운 안동시민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김학섭씨가 작사하였음(작곡 유재덕)

구미시민의 노래

힘차게

박 동 회 작사
이 상 회 작곡



천 생 금 - 오 두 영 봉 에 서 - 기 - 어 리 고
선 - 현 - 의 빛 난 - 열 이 - 어 - 반 아 서



낙 동 강 굽 이 처 사 구 미 - 벌 티 전
내 조 국 새 역 사 의 주 인 - 공 되 자



새 신 념 새 의 지 로 한 데 뭉 처 서
금 오 성 기 습 마 다 지 킨 그 자 국



우 령 찬 공 업 기 지 맥 - 박 도 높 다
자 자 손 물 려 - 줄 영 - - 광 의 터



여 기 가 선 주 고 을 내 고 장 구 미
영 원 하 뵈 어 가 리 내 고 장 구 미



우 리 는 구 미 시 민 보 람 에 산 다
우 리 는 구 미 시 민 긍 지 에 산 다

1978년 12월15일 인동면(천생산)과 구미읍(금오산)을 통합하여 시로 승격하면서 새신념과 의지로 화합하여 공업기지로서의 구미발전을 위하여 박동희씨가 작사 이상희씨가 작곡하였음

영주시민의 노래

홍계곡 *mf* Moderato 예종숙 작사
임우상 작곡

1. 철 - 탄 산 둥 지아 래는 자 리잡 은 내 고 장
2. 서 - 천 내 굽 이도 는 아 누한 - 내 고 장

f
우 - 링 찬 민 - 족 - 의 맥 박 이 살 아있 는 곳
영 - 원 한 조 - 국 - 의 명 예 를 안 고 갈 - 곳

mp
아 - 여 기 - 는 역 사의 땅 창 조의 도 시
아 - 여 기 - 는 충 효의 땅 회 망의 도 시

f
새 - 전 통 우 리 합 - 께 이 - 어 나 가 - 자
새 - 살 림 우 리 합 - 께 일 - 켜 나 가 - 자

mf
(후렴) 생 명 의 선 - 물 로 발 전 하는 영 주 시

우 리 는 슬 기 록 - 고 자 랑 찬 영 주 시 민

1980년 4월 1일 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소백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금지 높은 문화시민상을 정립하고 충효와 역사의 고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계승 발전 시켜 위대한 새영주 건설을 위하여 예종숙씨가 작사하고 임우상씨가 작곡하였음

영천시민의 노래

정감을 가지고 안재진 작사
안승태 작곡

mf

보근봄 현호황 산강새 굽출나 이기 굽차래 이계퍼 남굽어 으돌루 로아 뽀홀만 - 지 어려듯

온벌찬 - 정기 서려있는 조양동산 은
란 마 다 마 을마 다 북 기 후 트 러
하 다 이 수 삼 산 고 장

mp

아름답다 골벌엿터 빛나 문 - 화
이 - 겨래 - 지 - 켜온 호국 는의성 지
민 - 음과 - 지 성으 - 로 슬 기 를 다 - 해

mf

한희힘 마망차 음과게 한용창 뜻으기로 내웃약 일음진 을의 사쫓의 는는지

f

(후렴)우리는 자랑스런 영천의시민 우리는 자랑스런 영천의시민

ff

웅지로 이어가 - 자 우리 의영 - 천

1981년 7월 1일 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위대한 영천건설을 위하여 향토문화연구가인 안재산씨가 작사하였음

상주시민의 노래

활기있게 Moderato

김 일 기 작사
이 중 기 작곡



노상충 음산호 산별의 높너문 이른화 솟음유 아예산 정풍찬 기요란 어의히 리물빛 - 고결나



낙오유 - 동가구 강는한 굽인조 이정숙의 아에얼 기웃살 림음아 진꽃숨 별피쉬 판고는



은아그 - 헤노이 운한름 이보자 터금랑 - 자스 전리런 가다삼 꾸듬백 어어의 가가는 는는장



보환내 람기일 찬찬의 가결번 숨음영의 다다길 회새함 망힘께 념념나 친친가 다다자 아 -



아 뜻 두 고 힘 모 은 우 리 의 상 - 주 영 -



원 히 빛 내 리 라 우 - 리 의 상 - 주

태백산 정기와 낙동강이 흐르는 옥토에 산다는 시민들의 자부심을 가슴에 심고, 남너노소가 항상 즐겨 부를수 있도록 향토작가 이중기와 김일기씨에 의해제정 되었음

달성군민의 노래

건일 임우 영 작
달우상 군작
달성군세정

약간빠르게

mf Moderato



비슬 - 산 높이 - 솟아 큰 고을 이 루 - 고
구마 - 팔 팔 큰길들 - 아 힘 고갯 - 달 리 -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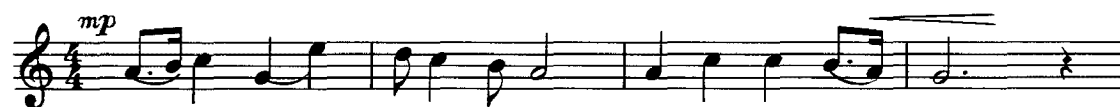
낙동 - 강 굽이돌 - 아 기쁨진 우 - 토
곳곳 - 에 산업일 - 어 활기찬 교 - 장



그 옛날 나 라 구 한 유 서깊은 곳
그 옛날 효 행 높 아 유 서러던 곳



내 일의 더 큰 꿈 을 가 꾸 어 보 세
내 일의 새 설 계 를 꾸 며 나 가 세



(후렴)아 - 아 - 자랑스런 내 고 장 달 - 성



길 이 - 길 이 빛 내 자 내 사 - 랑 달 성

달성군을 상징하는 노래가 없어 1984년 당시 군수의 배려로 의거 충효의 고장을 전승하고 군민화합을 다지는 내용으로 가사를 공모하여 임우상교수가 작곡하였음

군위군민의 노래

힘차게

김 규 련 작사
유 재 오 작곡



팔공적라 빼난-산 정기-서리-고
삼국유사서 물내-산얼준 이어-내리-고
조상께서 물려-준복된산과-들



위천-맑은-굴이굴이호른다
장군당개감도-통이일의염원
우리함께힘모아가꿔나가새



신라현옛-터아-름다운산천
삼존석불문-화재찬-란도하
변영하네발전하내고장군위



기-름진들--널살기좋은우리고장
슬기-와전--통빛-나는우리고장
나여기자손만대살아-가리-라



아-희망에-찬내고-향군위



우-리는자랑스런군위의군-민

군민의 정서순화 함양을 도모하여 내고장의 번영과 발전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군민전체의 일체감을 조성, 희망에 찬 군위건설을 위
하여 1982년 11월18일 김규련씨가 작사하였음

의성군민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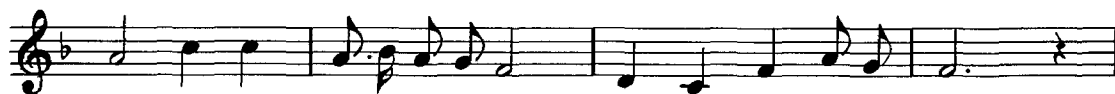
활발하게

mf

배상태 작사
최병선 작곡



우무의 장화로 한꽃운 태향구 백기름 산머리에 맥린에
돌평태 리화양 지로비 키운치 곳곳면



낙기생 동름명 강진의 푸넓중 른은소 물벌리 이엔가
감웃하 돌음늘 아이을 간핀난 곳다다



아희내 늑망일 한찬의 의생문 의산화 성의의 은성성
경높높 북이이 의썸썸 심아아 장라라



세일나 우하가 자자자 우우리의 성성
영영영 남남남 의자의 자자자 랑랑랑

경상북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목화의 전파지이며, 농산물의 생산지로서 미래문화 의성 창조를 위하여 배상태씨가 작사하였음

안동군민의 노래

힘차게 권 두 갑 작사
유 재 덕 작곡

mf

태 - 백 산 뺨 은 줄 기 뻘 와 살 되 고

낙 - 동 강 맑 - 은 물 뿔 - 줄 로 삼 아

mp

웅 부 의 이 름 떨 친 빛 나 는 터 - 전

f

억 만 년 뿌 리 깊 게 이 어 갈 이 - 땅

mp cresc

(후렴) 빛 내 라 떨 치 어 - 라 그 - 이 름 안 동

ff

영 남 의 으 뜜 일 세 겨 레 의 자 - 랑

- | | |
|---|---|
| <p>2. 드높은 향토 문화 유서 깊은 곳
— 순박한 군은 절개 타고난 기품
선조의 높은 덕을 섬겨 나가고
새 세대 새역사 창조해 보세</p> | <p>3. 이십만 한대뭉쳐 한마음이 되니
무엇인들 뒤질소냐 앞서 나가자 —
이땅은 살기좋은 우리의 낙원
내일의 영광이다 새 희망이다</p> |
|---|---|

웅부 안동의 긍지를 자랑하는 20만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통하여 선조의 높은 덕을 빛내고 섬겨가면서 새역사 창조하여 살기좋은 이땅을 낙원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당시 문화공보실장 권두갑씨가 작사하였음

청송군민의 노래

성의껏

고인조 작사
고인조 노래



굳은 철개 우람 찬 방광산이 요
옛신화로가태득찬주왕산이요
오곡백과태백령무한량이요



현달기 암맑은물우리 의 거울
그이름참보배진보있영별판



억만년비바람에 거치른향토 물려받은 푸른솔 젊음이 넘친다
억만년비바람에 거치른향토 이어받은 푸른솔 닦아서 물리다
피와땀가신옛님 묻힌이향토 전해온땅산과들 알뜰히가꾸리



살기 도종을세라 내고장청송
손잡고화목해라 내고장청송 (후렴) 밀며
내손발바치리찰진땅청송



끝어주며 흙에산 옛님의터전



새사람 새문화 새청송을하나로 뭉쳐세워길이빛내리

1956년 10월20일 아름다운 주왕산의 전경과 맑고 푸른 청송군민의 단합된 의
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고인조씨가 작사, 작곡하였음

영양군민의 노래

조지훈 작사
이홍열 작곡

민요풍으로



일 - 월 산 높 은 퇴 는 어 버 이 의 품 반 - 변 천
산 - 천 의 정 기 받 아 높 고 밝 은 뜻 나 - 라 의



맑 은 물 이 젖 줄 이 란 다 대 대 로 여 기 살 아 정 깊 은 고 장
큰 일 켜 도 예 서 자 란 다 순 후 한 인 심 이 요 알 들 한 정 성

(후렴)



이 보 다 더 좋 은 곳 세 상 에 도 없 네 영 양 영 양
이 웃 이 서 로 도 와 웃 으 며 일 하 네



우 리 고 향 그 이 름 영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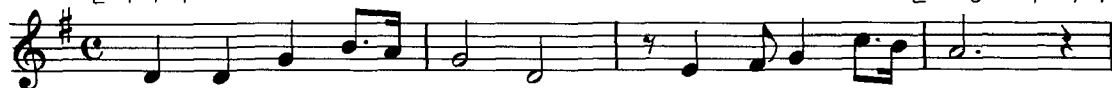
북 돈 우 어 빛 내 자 내 고 향 영 - 양

웅대한 일월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영양인들의 기개와 순후한 인심을 찬양하고, 화합과 단결을 통한 복지 영양을 이루고자 1956년 향토시인 조지훈씨가 작사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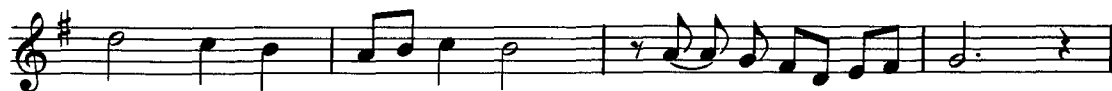
영덕의 노래

활기차게

제작위원회 작사
윤영배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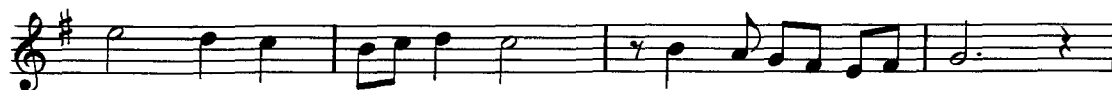
어려듯 一르리 뽕투누 에솔를 해다화 동바평 아고어 모뎃지 기어리 정피무 산꽃기 백사매 태복갈



새우우 아리리 침침침 햇햇햇 빗빗빗 담담담 아게매 누의하 —지— 리로나 에운가 —후— —되— 다예어



고전며 쉬터끼 숨갈아 이저로 혼— 총다서 다해고 마위치 이라뭇 곱나힘 루년아 마만모 산악뜻



다꾼장 —
롭 —
새일고 —
기의의 —
향덕리 —
예영우 —
라라라
따퍼리
결짜내
물활빛
늘을하
르슴원
호가영



아 - - 아 영 덕 영 덕 지켜나갈 나 의 땅 우 -



리 모두 같고 닭 - 아 길 - 이 빛 내 자

향토의식과 애향심을 높이고 화합과 질서를 유도하며 영덕인의 긍지를 되새기고, 창발의 의지를 결집하여 향토발전의 지표로 삼고자 1986년 3월 1일 군민의 노래 제정위원회에서 작사하였음

영일군민의 노래

명랑하게 유 치 환 작사
나 운 영 작곡

mf

보 아 라 동해바다 푸 른 물 끼 고 형 산 강 구 비 흐 른 기 림 진 기 습
보 아 라 영일만 에 아 침 해 뜨 면 열 리 느 니 비 학 산 고 운 멧 줄 기

아 득 한 조 상 부 터 목 숨 이 고 알 뜰 히 지 켜 온 우 리 고 장 을 영
한 아 름 한 겨 레 가 갈 고 가 꾸 며 살 뜰 이 살 아 가 는 우 리 고 장 을 영

일 영 - 일 여 기 는 희 망 부 퓌 땀 어 리 속

고 낫 은 것 은 벗 어 박 차 고 새 슬

기 새 숨 씨 새 힘 다 하 여 이 룩 하

는 아 름 다 운 낙 토 만 만 세

군민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었던 1976년 군민의 노래 제정 필요성을 느끼고 군민의 뜻에 따라 영일을 상징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제정한 노래임

월성군민의 노래

M.M. ♩ = 104

김 동 리 작사
김 성 태 작곡
(1987.4.10)



신라 천 년 옛 서 울 월성 고 을 에
침금 성 대 석 굴 암 은 새 계 의 자 랑 역



새 나 라 새 하 늘 의 새 날 이 왔 네
토 함 산 단 석 산 의 월 성 의 기 상
솔 거 김 생 고 운 은 술 의 거 술



나 아 가 자 우 리 모 두 손 을 맞 잡 - 고
나 아 가 자 우 리 모 두 손 을 맞 잡 - 고
지 난 날 의 영 - 광 오 늘 에 새 - 겨



지 난 날 의 그 영 광 되 살 려 - 보 세
이 나 라 의 새 - 날 에 꽃 을 피 - 우 세
새 월 성 의 꿈 - 으 로 꽃 을 피 - 우 세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월성군은 신라의 옛도읍임. 신라통일의 주역이었던 화랑들의 기상을 이어받아 개척정신을 일깨우고 향토애착을 간직케하기 위하여 향토작가 김동리와 김성태에 의해 제정되었음

영천군민의 노래

보통빠르기로 평화롭게

김한주 작사
이기홍 작곡



보현산의 장엄한 정기를 타고 금호벌에 펼쳐진
대천의 하늘아래 하나로 되어 영천의 호강의 펼쳐진
대천의 하늘아래 하나로 되어 영천의 호강의 펼쳐진



우리 의 고장 - 하늘 축복 내 - 리어 비옥한대 - 지 -
낙동강 되니 - 하역사의 능선 위에 우뚝 솟아 난 -
내일을 향해 - 슬기로 운 응 - 비와 창 - 조기 상을 -



서 - 로 의 마 - 음을 뭉치어 가 세 -
영천이여 온 누리에 뭉치어 가 세 -
육대주에 떨 - 치자 영원하 도 록 - 우리자손 대 - 대로



살아온 고장 - 빛나도다 그 - 이름 영 - 천 군 일 세 -

옛부터 선현들의 충효정신을 이어받아 군민의 명성과 평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
해 1987년 4월 3일 향토작가 김한주씨와 이기홍씨에 의해 제정되었음

경산군민의 노래

작사: 김윤식
작곡: 윤태정
편곡: 김호조

민요풍으로 Moderato



압 - - 독 의 옛 고 장 그 옥 한 그 역 - 사
원 - - 효 의 그 슬 기 빛 나 는 그 자 - 취



금 호 - - 강 구 비 구 비 넘 실 넘 실 흘 러 가 네
비 취 - - 빛 하 늘 높이 오 - 늘 도 옛 보 이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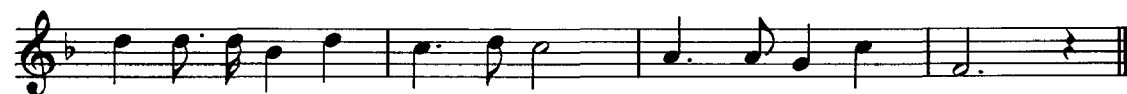
오 - - 곡 백 과 무 르 익 은 기 - 림 진 들 - 에
영 - - 광 의 새 나 라 에 지 - 성 을 다 - 해



사 과 향 기 가 득 - 히 넘 - - 쳐 - 흐 - 르 네
살 기 좋 은 내 고 - 향 만 - - 들 어 보 - - 세



아 땀 으 로 가 껴 지 - 는 꽃 피는 동 - 산



여 기 가 우 리 고 - 향 경 산 이 라 네

삼국통일과 화랑의 얼이 서린 옛 압록국땅으로서 오곡백과 무르익고 사과향기
풍성한 밝고 단합된 경산전설을 위하여 김윤식씨가 작사하였음

청도군민의 노래

최태석 작사
진성곤 작곡

mf

이 서 - 국 옛 터 전 에 자 리 잡 은 내 고 장

종 을 - 손 화 악 산 의 정 기 를 받 아

봄 동 - 산 가 을 들 - 판 우 리 힘 을 더 하 니

오 늘 - 도 내 가 숨 - 엔 희 망 이 뽀 다

(후렴) 강 철 - 같 은 힘 의 - 원 천 팔 뚝 이 - 있 다

ff

새 마 - 음 새 기 술 로 향 토 문 화 건 설 하 자

- | | |
|----------------------|---------------------|
| 2. 한넛강 동창강은 굽이굽이 또돌아 | 3. 일어나라 내형제여 일터로 가자 |
| 내고장 내형제의 힘을 북돋워 | 이슬맺힌 호미끝에 향기는 높다 |
| 민주 과학 농촌에 낡은 폐습 가시고 | 들리는 망치소리 우렁차게도 |
| 씩씩한 건아들의 피가 끓는다 | 내고장 내산업에 빛을 더한다 |

옛이서 고국에 자리잡은 내고장의 번성과 신라의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향토문화 건설을 추구하는 고장의 특성을 살린 가사 내용에 명랑하고 활기찬 곡으로 청도의 기상을 상징하는 리듬으로 작곡

고령군민의 노래

전 일 영 작사
김 도 윤 작곡



망 산 성 금 산 재 에 해 가 솟 으 면
되 중 산 기 습 - 에 해 가 솟 으 면
왕 - 정 맑 은 물 에 목 을 추 기 는 며



팔 걷 고 평 이 메 고 일 터 - 로 가 자
따 똥 한 보 금 자 리 찾 아 - 가 보 세
주 산 의 정 기 받 아 힘 을 - 기 르 자



이 천 년 꿈 이 서 문 현 우 리 고 장 을
그 옛 날 유 서 들 이 서 우 리 고 장 을
억 만 년 지 치 나 갈 우 리 고 장 을



이 재 야 낙 원 으 로 만 들 어 보 세
내 일 의 새 살 림 을 꾸 며 나 가 세
가 꾸 고 복 돈 우 자 우 리 손 으 로



(후렴)아 ———— 뉘 게 말 기 라 우 리 의 고 장



그 이 름 빛 내 어 보 세 대 가 야 고 령

1970년 10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고향을 아끼는 마음을 노래에 담아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고 찬란한 대가야문화를 자손만대 전승하여 고령인의 긍지를 가지고 살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음

성주의 노래

최열곤 작사
김공선 작곡

mf

성 산 가 야 옛 - 터 전 에 이 어 받은 선 비 문 화
가 야 산 - 낙 동 강 - 별 기 름 진 - 낙 토 성 주

높 은 기 상 맑 은 정 - 기 우 람 하 게 뻗 어 나 네
자 락 마 다 흐 름 마 - 다 별 - 처 럼 모 여 사 네

옛 - 기 운 새 - 회 망 이 하 - 나 - 로 문 처
쫓 아 나 는 신 - 결 - 들 은 하 수 를 이 루 고

풍 성 하 고 알 찬 여 - 름 신 가 슴 마 다 넘 치 네
슬 기 로 운 창 조 정 - 신 가 슴 마 다 넘 치 네

화 목 하 고 순 - 후 한 내 고 장 성 - 주
영 원 토 록 생 - 동 할 내 고 장 성 - 주

서 로 돕 고 힘 을 모 아 우 리 고 장 빛 내 자
아 름 답 게 가 꾸 모 어 우 리 고 장 빛 내 자

(빠르지 않게 한음한음 착실히)

개 나 리 꽃 웃 음 되 고 비 들 기 - 마 음 되 어

집 집 마 다 마 을 마 다 즐 거 움 을 가 꾸 세 -

성산가야의 찬란한 문화와 뿌리깊은 선비정신을 계승하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새성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열곤씨가 작사, 김공선씨 작곡으로 제정하였음

철곡군민의 노래

썩썩하게 김 경 만 작사
하 대 응 작곡

태구유 백비학 산천산 정낙영 기동봉 은은래 영전담 남설아 의을온 응안터 지아전

자유아 랑서름 할것다 손은운 그옛함 이터름 내고장 칠칠곡

대대로 물려받 은우 리의 옥 토 대대금 사꽃 창조기 하는바 기쁜름 일진 손옥 토

몽부억 처푸만 서른년 이희백 룩망어 하안자 낙동강 의기적 을

나가자 힘차게 밝은일터로

빛내자 이강토에 우리 의 칠곡

낙동강 연변의 유서깊은 문화유산을 조상대대로 이어받아 군민화합을 도모하여 아름다운 향토 철곡을 건설하고자 김경만씨가 작사, 하대응씨가 작곡하였음

금릉군민의 노래

정수봉 작사
김상환 작곡



소 - 백 산 맑 - 고 푸 른 정 기 를 타 고 -
직 - 지 내 감 - 천 물 은 연 연 한 호 림 -
산 - 좋 고 물 맑 은 무 궁 화 동 산 -



구 끝 비 구 비 아 - 름 답 다 우 리 의 - 고 을 -
이 이 없 이 산 에 펼 - 쳐 있 는 기 름 진 - 땅 을 -
이 동 산 에 기 리 기 리 대 를 누 리 먹 -



동 네 마 다 마 을 마 다 꽃 피 는 인 정 -
가 로 세 도로 평 화 룬 계 누 피 호 르 니 -
옛 김 산 의 높 은 뜻 을 이 어 가 리 니



금 빛 으 로 빛 - 나 는 금 릉 이 - 라 네 -



아 - 우 - 리 향 토 지 켜 나 가 세 -



아 - 우 리 고 장 다 들 어 - - 가 세 -

1949년 8월15일 김천군에서 금릉군으로 개칭하여 직지천 감천물로 인한 기름진
이 고장을 찬란히 빛내고 옛김천의 높은 뜻을 이어 향토를 다듬고 지켜 나
가기 위하여 정수봉씨가 작사하였음

선산군민의 노래

M.M. ♩ = 108

심재완 작사
김성태 작곡



감드 비 돌높봉 아은산 구산마 비천루 치정터 는기애 단여봉 계기기 기서대 습리두 에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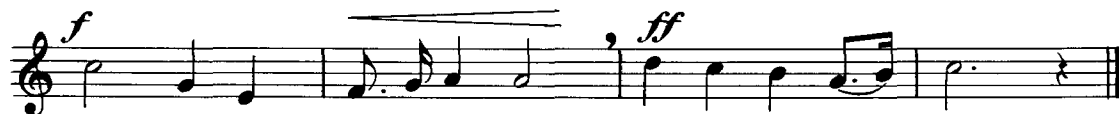
신슬비 공-기바 으로도 람 솟뻔오 아날세 난사월 푸잇한 른달결 봉아갈 -우나리니셔



우일푸 람선른 한은꿈 쪽인꽃 지재다 펄고와 쳐을라 비이길 봉름이 이높펼 라아치 -네라리



선 산 은 나 의고 장 착 한 이 웃 들



그 마 음 이 어반 아 길 이 빛 내 - 세

1982년 풍년을 기원하면서 군 중앙에 위치한 비봉산에 봉기대를 세우고 옛전
통의 계승과 군민화합 고향발전을 위해 심재완박사가 작사하고 김성태씨가 곡
을 만들었음

상주군민의 노래

김동철 작사
하대응 작곡



소백의 푸른정기 이어발아서
상산마춘리 푸른뜰엔고훈이풍이아일고
산푸물은맑고인정도고와



낙동강 구비이룬사랑의고장
풍새요한상산별엔격양가높
새살림새희망에꿈은부훈다



배넋쌍인얼을알알이모아내고장이상향을
은고치알찬수화함박꽃옷음땀어린자락엔
뒤여진연장들에새빛은일어젊음의팔뚝에는
꽃희망도아름
피위아
워쁜
다



힘차게 뻗어나고 이어나가자



그 이름 영광 되리 우리 - 의 상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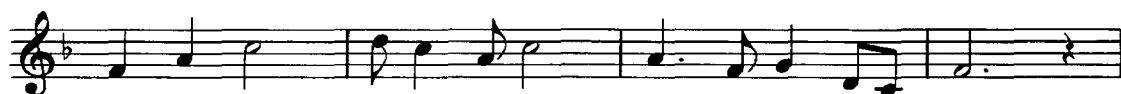
1914년 4월 1일 상주군과 함창군을 통합하여 상주군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소백산맥의 정기를 이어받아 풍요하고 활기찬 상주건설을 위하여 하대응씨가 작사하였음

문경군민의 노래

안 국 환 작사
김 대 현 작곡



새 재 의 정 기 속 에 아 침 해 솟 고



이 화 령 높은 봉 에 꿈 이 어 리 - 네



영 강 의 맑은 물 에 마 음을 씻고 천 만 년 길 이 길이 복 되



계 사 네 (후렴) 나 가 자 너 도 나 도 내 일 을 - 향 - 해



빛 나 는 우 리 문 경 대 한 의 자 랑

-
2. 공장의 굴뚝에선 새힘이 솟고
둘러맨 팽이에선 맥박이 뛰다
재건의 외침소리 툼니가 돌고
아름찬 희망속에 해가 저무네

1963년 4월 7일 순박한 군민들에게 협동정신을 불러 일으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문경을 건설하여 옛선조들의 얼이 담긴 우리의 고향을 잊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안국환씨가 작사, 김대현씨가 작곡하였음

예천군민의 노래

권 상 헌 작사
장 익 환 작곡

소단백산 우람차게 나래를 퍼 고
보결과라 학동가산에 먼동진이우튼다

내성천 구비쳐서 기름진 들 판
뜨거날운애향심에예가슬도웅상
새날의새희망에가슴부훈다

물맑고인정많은 우리예천은
남우만리전진한운다 조저언덕이넘어

옛부터인재많은 선비 의고장 빛
새문물창더잘사는문화이로장 내

자우리에천슬기의고창

샘물이솟아나듯영원하리라

찬란한 문화바탕위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왔으며 단결심이 강한 고장이지만
우리고장을 상징하여 군민이 애창할수 있는 노래가 없어 선조들의 얼을 이어
받고 군민의 화합과 단합으로 잘사는 예천건설을 위하여 1986년 권 상헌 작사
장 익환작곡으로 제작되었음

영풍군민의 노래

(씩씩하게)

mf Moderato

예종숙 작사
임우상 작곡



소 백 산 힘 찬 맥 박 우 - 러 러 보 면
낙 동 강 푸 른 줄 기 굽 - 이 흐 르 는



겨 레 의 앞 - 장 설 다 잠 이 솟 네
여 기 가 복 - 된 땅 새 살 림 이 네



철 - 따 라 넘 - 치 는 자 연 의 은 혜 입 - 은
한 - 마 음 한 뜻 으 로 힘 - 을 모 - 으 - 는



우 리 는 자 랑 찬 영 풍 군 민
우 리 는 긍 지 찬 영 영 풍 군 민



(후렴)아 - - 아 풍 성 한 내 고 장 내 힘 으 로 키 워 가 리



군 세 계 힘 차 - 게 자 랑 하 리 라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통한 소백산 정기를 이어받아 풍성한 내고장 영풍 건설을 위하여 1979년 5월25일에 예종숙씨가 작사하고 임우상씨가 작곡하였음

봉화군민의 노래

정태중 작사
강성득 작곡



우 람 한 태 백 산 이 기 등 이 되 고
다 람 판 에 는 오 곡 이 가 득



비 - 단 폭 낙 등 - 강 이 휘 감 아 돈 - 다 조 상
만 - 나 는 얼 굴 - 에 는 인 정 이 가 - 득 오 늘



의 땅 이 배 어 기 - 름 진 고 - 장 우 리
의 고 된 일 을 낙 - 으 로 삼 - 고 내 일



가 실 땅 이 다 가 꾸 - 어 가 자 아
의 번 영 위 해 전 진 - 해 가 자



아 우리 의 생 활 터 전 활 기 찬 봉 화 햇 불



을 - 밝 히 어 라 봉 화 - 의 군 민

1976년 3월 5일 산자수명하고 충효열정이 끊이지 않는 금지높은 고장을 찬미하며 군민의 화합을 통한 인정미 넘치는 활기찬 봉화를 위하여 정태중(문화원장)씨가 작사하였음

울진의 노래

민요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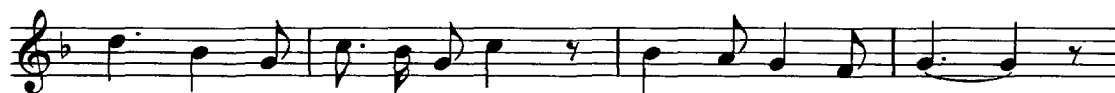
윤병환 작사
김승열 작곡



고죽선 우변사 의항라 옛원옛 고누리 은엔은 정등선 든대비 내불의 - 고밝고 장고을 -



간곳마 다 - - 산과들엔 고적도 - 많다 -
연- - 호-정 산과들엔 고적도 - 많다 -
적- - 암-과 해반월만 이 낚시꾼까 - 보냐 -



울창한 산림속엔 보배가 굴리 -
망양정찾아일갈까들 월송정굴까라 -
새시대새일꾼들 자람을보라 -



그이름도 - - 빛나 - 는 울진이 - 라네 -
관동팔경 - - 빛나 - 는 울진이 - 라네 -
희 - - 망 - 이 빛 받치 는 울진이 - 라네 -

1957년 8월15일 전군민이 예절을 다듬고 글 잘하는 문향으로 이름높은 명승지인 수려한 고장을 사랑하고 향토건설과 화합의지를 북돋우기 위하여 윤병환씨가 작사하고 김승열씨가 작곡하였음

울릉군민의 노래

(힘차게)

mf Moderato

박창규 작사
김기훈 작곡



성 인 봉 높 고 푸 른 정 기 를 타 고
동 해 물 검 고 푸 른 기 상 을 받 아



동 굴 백 꽃 불 게 필 우 리 의 마 음
새 고 고 썩 썩 한 우 리 의 마 음



새 아 침 새 힘 으 로 낙 원 이 루 어
은 - 빛 파 도 속 에 꿈 은 어 리 고



희 망 이 샘 - 솟 - 는 내 고 향 을 릉
행 복 이 물 결 치 - 는 내 고 향 을 릉

우산국인의 개척정신을 계승하고 군민의 굳센 의지와 화합단결을 통한 동해의 낙원 울릉건설을 위하여 1962년 제13대 울릉군수 박창규씨가 작사하였음

도민의 노래



1. 여 기 가 야 의 옛 터 역 사를 자 랑하 는 곳
2. 여 기 기 림 진 고 향 슬 기론 국 민이 있 다



지 리 산 정 기를 받 아 혈 관속 엔 정 의 의 기 백
성 실 한 땀 의 값 으 로 늘 고 붓 는 보 람 찬 살 림



낙 동 강 흐 름 을 따 라 문 화 의 - 전 통 물 에 베 었 네
정 다 운 우 리 낙 - 토 고 을 고 을 눈 부 신 번 영



넉 실 넉 실 남 해 의 파 도 우 리 의 겨 레 겨 레 의 기 질
새 - 역 사 지 어 나 가 자 경 남 을 위 해 나 라 를 위 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도민의 화합을 기하기 위하여 제작.

창원시민의 노래

씩씩하고 명랑하게

이 은 상 작사
김 동 진 작곡



1. 삼 한의 오랜
2. 알 뜯한 우리



역 살 사 립 전 문 통 화 의 터 낙 전 토 겨 빈 래 의 - 열 과 습 결 위
살 립 문 화 의 낙 토 빈 틈 없 는 향 토 방 위



배 어 든 곳 예 심 세 기 의 앞 을 가 는 새 도 시 건 있
굳 은 결 - 심 성 실 한 생 활 속 에 보 람 이 있



설 다 눈 - 부 신 조 국 번 영 여 기 와 보 라
우 리 모 두 술 - 기 와 힘 을 뭉 치 자



(후렴) 정병산 정기를 이 어 받 - 아 자연과 인공이 조 화 된 고 장 부 강한 공업



입 국 우리 손 으 로 창 원 의 새 역 사 를 창 조 하 리 라

창원은 삼한이래 오랜역사와 전통을 누려온 고장으로서 이곳에 조국근대화의 상징적인 새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함

울산의 노래

박 목 월 작사
박 시 춘 작곡



약진하 - 는 조국 - 의 비약울상징원 할
은려 - 는 겨레 - 의 뜨거운 열원이



건 - 설 의 도 - 시여 우리 의 - 울 산
고 동 치 는



동해의 물과 같이 뜨는 해같이 발 - 팔 한
새살 림새터전 을 굳게 다져서 오 - 늘 의



기상 으로 새아침을 노래하 자 기 - 름부 어
정성 으로 알찬내일 다 집하 자



축 - 복 된 우리 고 - 장 을 한 - 마 음



한 뜻 으로 지켜가꾸 - 자

공업도시 울산시민의 긍지와 공식행사 등에서 울산을 상징하는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당시 예종울산지부장 최종두씨의 추진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울산시가(歌)로 불리고 있음 (1973년)

마산의 노래

느리지않고 경쾌하게

마산문화인일동 작사
조 두 남 작곡

mf

무 학 산 뻗 어 내 린 푸 른 맥 박 이

남 해 의 문 을 열 어 꽃 피 운 고 장

mf

그 아 래 새 희망 을 누 려 온 우 리

보 아 라 오 - 십 만 단 란 한 가 족

mf

흙 - 산 - 좋 고

물 도 좋 아 인 심 이 후 한 곳 살 기 좋 은

1. 2. 3.

이 - 고 장 마 산 - 이 란 다 이 란 다

60년대 유서깊은 마산의 역사와 전통을 노래함

진주의 노래

조 정 재 업 작사
정 수 범 작곡



우 러 러 비봉 산 정 기 를 받 - 고
우 령 찬 향토 채 건 손 에 손 잡 - 고



남 강 물 고 운 여 울 마 음 에 새 겨
홍 겨 운 망 치 소 리 기 계 가 돈 다



임 진 의 조 상 핏 줄 잇 고 또 이 어
기 름 진 이 들 판 에 알 찬 무 배 추



줄 기 - 찬 전 통 속 에 꽃 피 운 문 화
백 사 - 장 푸 른 대 발 새 들 의 노 래



희 망 의 동 - 이 튼 다 일 터 로 가 자
희 망 의 동 - 이 튼 다 일 터 로 가 자



오 이 땅 의 - 자 랑 내 고 장 진 주
오 이 땅 의 - 자 랑 내 고 장 진 주

진해시의 노래

김영방 작곡
이민기 작사

Moderato



장진제 북해항 산만산 평비담 풍단봉 과물공 도결원 아섬거 늑마리 이수는 룬를결 터놓맬 전고고



창풍기 창어름 한선진 솔알경 바찬화 람그덕 에물산 벚선오 꽃어곡 은가이 난가풍 만득량 하해하 다라네



대갈천 천매자 의기봉 맑나굽 은래어 여젓보 울고는 꽃함남 구정국 림은의 고매보 허서금 쉬운자 고데리 <후렴>



돛이통 단겨제 배레영 한수장 가호엄 로역할 이사손 쉬여늬 어기름 간에한 행빛그 암나모 속도습 천다은 진해



는는는 푸수산 른산자 아보수 성고명 우이이 리나고 들라장 의의의 자자자 랑랑랑 진해



는 벚군관 꽃향광 의의수 성터향 우이이 리나고 들라장 의의의 자자자 랑랑랑

진해시를 상징하는 노래로써 지역특성을 찬양하는 노래이며 진해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시가를 통하여 시민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창작한곡임

충무시가

김 상 옥 시
정 관 호 곡

Moderato

Moderato

사-굽-동 직-이-방 의-치-의 기-고-등 운-불 기-감-이 -도-는-던 버-한-국 티-산-토 신-앞-의 옛-바-발 터-다-판 초-반-신

목-작-흥 도-느-이-꺼-아-는-삼-도-통-제-영-산-의-벽-찬-노-비-늘-창-창-한-보-고-통-하-오-나-니-어-

과-영-디 -갓-들 물-자-들 에-개-러 맹-세-한-임-의-넋-이-여-겨-울-장-봐 -도-농-만-드-복 는-의-숨-그-림 수-난

에-속-도 새-빨-간-동-백-이-피-네-애-오-에-아-름 룡-다-운-무-니-실 -가-을-냥-네-복-새-로

라-게-이 지-지-커-온-우-리-네-고-장-그-이-지-살-아-가-는-우-리-네-고-장-그-이-

름-름-름 꽃-느-다-와-라-충-충-충 무-무-무 시-시-시 로-로-로 세-세-세

찬란한 전통문화를 가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서 이충무공의 얼이 서
린 아름다운 시를 찬양

삼천포 시민가

행진곡 풍으로

삼천포시 제정 작사
권태호 작곡



1. 와 룡 의 높 은 - 봉 에 안 개 - 건 히 고



한 려 의 앞 바 - 다 에 해 가 돈 았 다



충 - 무 공 그 용 맹 이 길 이 넘 친 곳



영 광 과 새 희 망 의 꽃 을 피 우 자



어 - 화 야 번 영 의 땅 우 리 - 삼 천 포



영 - 원 토 록 빛 나 리 라 우 - 리 의 향 - 토

(2) 창창한 남해바다 우리의보고
기름진 뒷들판은 풍요의터전
옛부터 살기좋은 우리의고장
성실과 근면으로 가꾸어보자

(3) 각산봉 옛성터는 호국의터전
찬란한 조상들의 혼이묻힌곳
학처럼 맑고밝은 우리의기상
슬에와 지혜모아 햇불밝히자

〈후렴〉 어화야 번영의땅 우리삼천포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향토

우람한 와룡산의 정기를 이어 받고 한려의 기상이 감도는 삼천포는 내일의 번영이 약속된 희망의 도시로서 시민의 지표를 바탕으로 시민가를 제정하였음

김해의 노래

씩씩하고 장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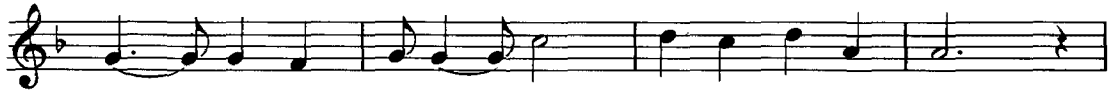
이 은 상 작사
김 동 진 작곡



駕 - 洛 國 오 백 년 전 통 터 전 을 잡 고
오 곡 백 과 무 르 - 익 은 金 海 평 野 는



나 날 이 새 시 대 를 꾸 며 온 고 장
하 늘 이 내 려 주 신 거 록 한 선 물



바 라 보 면 龜 湄 - 峰 신 비 한 근 원
여 - 기 서 땀 과 정 성 모 두 합 하 여



오 늘 도 우 리 에 게 힘 이 솟 는 다
金 海 의 새 문 화 를 우 리 가 짓 세 crese



세 - 기 를 앞 서 가 는 약 진 의 金 - 海



나 - 라 와 겨 - 레 - 의 빛 이 - 되 리 라

역사적 전통과 시민의 기상을 담아 겨레의 일원으로 공헌하자는 뜻

진양의 노래

희망을 가지고
씩씩하게

이원배 작사
김중곤 작곡



슬 기 로 운 배 - 달 - 의 정 기 를 - 반 - 아
장 엄 한 - 배 - 두 - 의 정 기 를 - 반 -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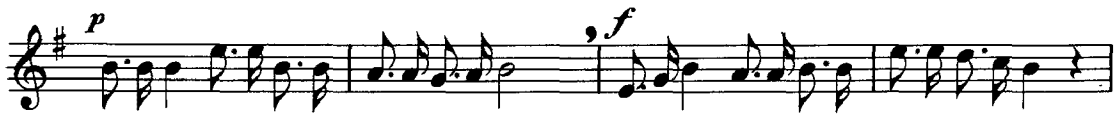
남 강 물 굽 이 치 는 내 고 장 진 양
지 리 산 줄 기 뻗 은 내 고 장 진 양



이 곳 에 이 룩 하 - 세 문 화 의 터 전
이 곳 에 이 룩 하 - 세 무 궁 화 동 산



이 곳 에 이 룩 하 세 역 사 의 기 적
이 곳 에 이 룩 하 세 평 화 의 낙 원



(후렴) 동트는 새 아침에 팡이를 메고 새 마을 건설하는 역군이 되세



아 그 모습 찬란 - 한 내 고 장 진 양

이곡은 군민의 노래로서 남강물과 지리산의 줄기가 뻗은 내고장을 다함께 건설하자는 내용임

의령군가

김성수 작사
박종원 작곡

보통빠르게



남자 강물 산 감도는 곳은 정암나루에
의병장 망우당에 충절어린내 고장
어절고고운 마음 화합으로물쳐서
번영의 터전 닦자 우리칠만군민들
기리기리꽃피우자 우리의의령

임진왜란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크게 물리친 공적을 세운 망우당 객재우 장군의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군민 화합과 복지농촌 건설을 의미하고 있음

함안군민의 노래

이진석 곡

mf

1. 여 항 - 과 방 어 산 의 품 에 안 기 어
 2. 옛 선 - 조 이 땅 - 에 품 씨 에 를 뿌 려 서
 3. 아 라 가 야 이 고 장 에 아 침 이 온 다

남 강 수 유 유 히 감 도 - 흐 르 는
 녀 원 원 보 금 자 물 려 - 주 시 니
 도 나 도 일 터 - 로 팽 이 - 를 메 고

기 - 름 진 넓 - 은 들 옥 토 이 루 니
 대 - 대 진 이 어 나 우 더 옥 의 닦 내 자
 살 - 짜 가 는 우 리 살 림

그 이 - 름 아 름 답 다 함 안 - 이 라 네
 새 로 - 름 광 름 명 으 다 길 안 - 빛 내 리
 우 리 - 는 역 군 이 다 함 안 - 의 일 끝

(활발하게)

(후렴) 오 랜 역 사 전 통 - 을 자 랑 하 - 는

아 - 함 - 안 영 원 - 의 함 안 영 원 의 함 - 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내고장 함안 아라가야의 전통을 되살려 밝고 빛나는 미래의 낙원을 이룩하고자 함

군 민 가

하 창 식 작사
공 우 일 작곡



1. 비 자 화 옛 문 화 에 뿌 리 - 를 박 고



적 - 구 를 막 아 내 던 최 후 - 의 보 투



여 - 기 에 영 - 광 의 맥 박 이 똬 다



십 오 만 함 께 뭉 처 참 되 - 게 살 자



거 룩 하 다 내 - 고 장 우 리 - 의 창 녕

2. 화왕산 옛산봉에 기상 돋우고
낙동강 푸른물에 정서를 닦아
복되게 새살림의 종이 울린다
십오만 함께뭉쳐 정답게 살자
아름다운 내고장 우리의 창녕

3. 동북으로 뻗은산에 나무를 심고
서남으로 펼친들에 오곡가꾸어
우렁찬 격양가는 들리어 온다
십오만 함께뭉쳐 알뜰히 살자
희망찬 내고장 우리의 창녕

임진왜란 당시 일제 침략에 항거하여 창녕의 명산인 화왕산에서 의병장 곽재우를 비롯한 많은 향토인이 최후의 일각까지 성을 굳건히 지켜 싸움에 승리한 옛비자화(가야)의 명승지에서 금지와 사명감을 드세우고 발전하는 창녕인의 정신적 위안을 주기위해 작사. 작곡하였음

밀양군민의 노래

(2부합창)

씩씩하게

이운성 작사
윤희철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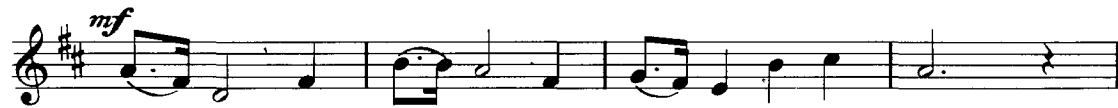
화산채색구름서리는아침
남천강맑은줄기감도는고을
영남루어린슬기끼치신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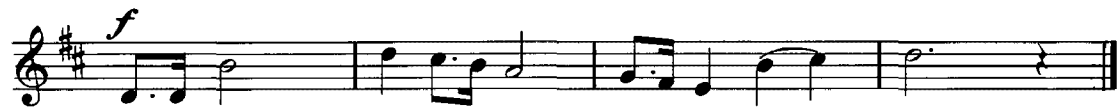
미리별의찬란한햇발이뜨다
펼쳐진산과들에기름이돈다
옛날들남긴자취향기가핀다



보아라새희망에부풀은가슴
불러라새일꾼의우렁찬노래
뒹아라새마음의빛나는지혜



새마을건설하자내고장밀양
새강산꾸며가자내고장밀양
새역사이룩하자내고장밀양



새마을건설하자내고장밀양
새강산꾸며가자내고장밀양
새역사이룩하자내고장밀양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밀양을 찬미하며 희망과 슬기로운 지혜로 새밀양 건설을 위해 1963년도 밀양군에서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군민의 노래

최 해 군 작사
조 희 조 작곡



넘쳐 나 는 기 상 인 가 동 해 의 물 결
배달 조 께 의 기 백 인 가 화 랑 의 물 후 손
선 조 께 서 북 돈 우 신 름 진 옥 토



유 구 한 젓 줄 인 가 낙 동 의 가 람
누 리 틀 밍 뽕 혀 왔 다 가 야 의 문 화
내 일 이 풍 요 로 을 을 새 도 시



내 고 장 강 과 바 다 면 면 히 이 어
내 고 장 내 전 통 을 슬 기 로 이 어
내 고 장 알 찬 보 람 땀 으 로 이 어



달 음 산 천 성 - 산 정 기 어 렵 네
통 도 사 장 안 - 사 정 령 쏘 었 네
내 계 곡 곡 일 광 전 하 흥 광 갖 났 내



우 리 는 서 로 돕 고 일 하 는 양 산 군 민



우 리 는 서 로 돕 고 일 하 는 양 산 군 민

군과 군민을 찬양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군민의 원대한
기상을 표현하면서 풍요로운 내고장 건설과 부지런하고 협동 단결하여 화합하
는 군민상 정립

울주군의 노래

정택락 작사
정풍송 작곡

Moderato

동치 해솔 의령 서충 기찬을 태양을 보며
아름답고 장쾌하여 온태백의기상
태화강산 홀러서 대해를 가듯
온늘의이기상 누리에 뻗치세
(후렴)영광된 내일위해 조국을위해
힘모아 가꾸리 우리의울주

경남의 동부에 위치한 울주군은 울산시를 에워싸고 동해안과 남해안의 교차지
역으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신라시대에는 화랑도들의 기상을 펼친 고장으로 화
랑유적이 언양 반구대에 뚜렷하며 태백산의 마지막 준령 석남사 가지산으로부
터 시작되는 칠십리의 태화강 줄기가 동해로 흘러가듯 울주의 기상을 온누리
에 펼침

김해군민의 노래

강기성 작곡
이부현 작사
장자편곡

썩썩하고 힘차게



옛한 꿈속이 깊어 잠든 가락 고도 뜰 이터전에
이 고 장에



대유 대수로한 이어나갈 곡선창에 펼쳐진곳
문화는 건설속에 잠이들고



손에손에 팽이들고 내고장은 내가먼저
새역사 이터전에 증산으로 약동하니



이것만은 이나라의 영광된보람이다
자연은 기쁨지고 오곡은 풍성하다



후렴부지런히 일하여서 우리고장빛내세



아그이름높을지라 내고장김해

군민의 합동단결과 지역발전 및 애향심을 고취하여 군민의 단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함

의창군민의 노래

행진곡 풍으로(힘차게)

설창수 작사
이용준 작곡

구사라옛조상의—목은—
서북아로뻘어—소은—
마산진해새창원—살림—

고을에가락신라살아—은
산내줄기찰백리나동강강—
내주주고하늘땅을민어

—천년—의자손다임란
—등을을감돈다바숲과
가꾸쿠는마을

왜적무찌튼—안골—
서들푸른어바린기름—
들푸른바다—겨레—

포싸—움그정기물려—
진의터전전오곡백과풍—
의뿌리리어영차영생—

반은의창—군사람—
성한우창—의창창군—
복지리리—의창

창원군에서 1980년 의창군으로 개칭되면서 의창군의 전통적인 역사와 아름다움을 전 군민에게 알리고,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의창군민의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의 노래를 제정

통영군민의 노래

명랑하고 힘차게

고 동 주 작사
김 동 진 작곡



새 아 침 갈 매 기 들 춤 과 노 래 에
포 근 한 인 정 들 은 우 리 의 자 랑



희 망 찬 푸 른 바 다 가 숨 을 연 다
기 름 진 눈 발 에 서 풍 요 를 캔 다



물 굽 이 섬 들 마 다 동 백 꽃 피 네
루 르 른 산 림 에 다 회 망 을 심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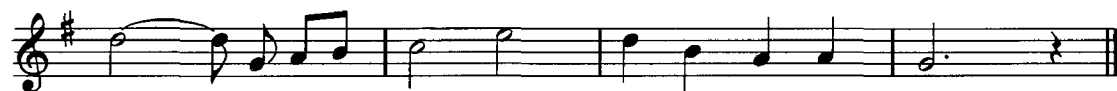
활 짝 편 팔 손 이 도 손 짓 을 하 네
바 다 의 보 고 에 서 소 득 을 리 자



여 기 는 한 러 수 도 전 승 의 터 전 충 무 공 애 국 정 신 오 늘 에 새 겨 가 꾸



자 - 아 름 - 답 게 우 리 통 영 을 빛 내



자 - 즐 기 - 차 게 우 리 힘 으 로

한려수도의 아름다움과 전승의 터전인 충무공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총화로 빛나는 내고장 건설에 기여.

거제의 노래

민요곡 김기호 작사
금수현 작곡

섬 은 섬을 돌아 연 연 칠 - 백 리

구 비 구 비 스며배인 충 무공 의 그 - 자 취

반 역 의 무 리 에 서 지 켜 온 강 토

에 야 디 - 야 우 리 거 제 영 광 의 고 - - 장

2. 구천 삼거리 물따라 골도 깊어
계룡산 기슭에 폭포도 장관인데
갈고지 해금강은 고을의 절승
에야디야 우리 거제 금수의 고장.

3. 동백꽃 - 그늘 여지러진 바위끝에
미역이랑 까시리랑 캐는 아이 꿈을랑
두둥실 갈매기의 등에다 싣고
에야디야 우리 거제 평화의 고장.

군민의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바다를 낀 도서지방의 수려한 경관을 노래한 향토가

고성의 노래

김용태 작사
정윤주 작곡

빠르지 않게



소 - 가 야 조 상 님 - 정 기 를 타 고
거 류 천 황 봉 우 리 에 서 운 감 돌 고



면 면 히 살 아 온 - 이 천 년 역 - 사
바 땃 들 일 바 람 에 웃 음 이 편 - 다



그 - 이 를 아 름 다 - 운 빛 나 는 고 성
슬 기 로 운 형 제 - 여 십 여 만 군 민



우 리 의 구 - 슬 땀 을 조 국 에 바 칠
천 하 의 살 - 기 좋 은 복 된 마 을 을



희 - 망 이 치 솟 는 - 새 날 이 왔 다
자 손 만 대 보 금 자 리 여 기 세 우 세



우 리 는 한 마 음 소 가 야 핏 줄



목 은 발 새 로 갈 아 씨 를 뿌 리 자

유서깊은 옛가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우리고장은 산이 준탄하고 들이 넓고 바다가 끼여 해륙산물이 풍부한 평화로운 고장으로, 순진한 고장의 인심을 자랑삼고 흠과 더불어 내일의 복된 살림을 이룩하도록 단합의 의지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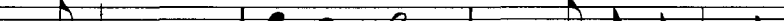
사천군민의 노래

※원조는 Eb조
행진곡조로(힘차게)

이영제
이용준

소수갈 백양매 의루기 줄동날 기이고 뽀트드 어떤는 구다옹 비솔기 치사중 -기 는인갯 다경마 도소를 해리에

사산향 물다향 의의빛 터구파 전비도 위마치 왜다는 님 어년롱 온가산 내드저 고높넉 - 장다을


 안 - 뜰 히 보 살 피 고 가 꾸 어 늘 어 나 갈
 울 - 으 머 서 로 돕 고 발 갈 씨 뿌 리 는
 굴 - 따 고 조 개 줌 는 새 파 와 물 결 위 에

세기 — 대는 건 설 이 다 향 토 의 발 전 이 다
충 — 무 의 닌 발 이 다 피 굴 는 일 군 이 다



멀리 구름
 고운 기
 만하 찬
 이 회 포
 — —
 상 만 부
 은 인 간
 하 늘 로 뻗 어 가 라
 땅 음 로 뻗 어 가 라
 바 다 로 뻗 어 가 라

[illegible]

안정과 화합으로 살기좋은 내고장 사천군의 영원한 발전을 상징

군민의 노래

남해군 제정
해군재 작곡
정작곡

Moderato(♩=88) *mp*

대사 한 의 남 쪽 바 다 화 전 옛 티 에
새면은 푸른바다 천해의풍광
니

mp

청금 사 에 길 이 빛 날 노 랑 충 렬 사
오곡은은풍유하계한국났의말

우 리 들 핏 줄 속 에 충 혼 이 잠 겨
이강바산다말은결정기만땅에이모트여면

mp

불 멸 의 애 국 정 신 자 라 만 간 다
슬기 는 지 해 립 계 파 어 만 간 다
여겨차풍어노래매아리친다

(후렴) 삼 자 의 높 은 향 기 남 해 의 자 랑

뭉 쳐 서 건 설 하 자 우 리 남 해 를

전 군민이 화합하여 남해발전을 다짐키위하여 1957년 남해군이 제정 하였으며
그후 1983년 다시 수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노래의 의미는 이 충무공의
진충보국을 계승하고 남해의 특산물인 삼자(유자, 치자, 비자)의 향기를 자랑
하고 있음

군민의 노래

행진곡풍으로

정 원 용 작사
김 남 순 작곡



섬진강 산 맑은 물은 우리 의 결 백상



노랑 앞 - 바다 물은 충무공 위 훈
새 계 사 - 새 벽 종 에 결 음 을 맞 취



오곡 이 무르익 - 는 기 림 진 옥 - 토
일 터 로 뛰 어 가 - 자 검 루 른 산 - 야



재 건 의 일 손 맞 취 보 - 무 - 도 당 당
애 끼 며 개 발 하 는 슬 - 기 - 찬 군 민



(후렴)여 기 는 하 동 이 다 내 고 장 하 동



여 기 는 하 동 이 다 우 리 - 의 고 장

하동군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하여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은 하동군을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생산적인 면을 노래함

산 청 군 민 가

장엄하게

이 도 용 작사
이 우 석 작곡



지대반 리원아 산사온 골단신 골속라 마절정 다과신 기이밀 림림반 진난침 옥울삼 토곡고



펼은장 쳐겨엄 진레한 화옷지 려입리 강히기 산신상 오삼가 십우슴 여당에 방스새 리승겨



경적대 호벽대 물강로 양푸이 덕른어 천물나 이에갈 혈백빛 맥마넬 이가내 되잠고 어겨장



유곽대 구의대 한장로 역불이 사은어 이넛나 어이갈 살흐빛 찌르넬 위고내 주있고 네네장



물레방아 돌고돌아 역사가돌아



오내고장산청에 희망이온다

장엄한 지리산 정기속에 슬기로운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우리고장을 찬미하고
기리며 군민의 밝은 앞날을 위해 작곡한 노래로서 널리불리우고 있음

함양군민가

행진가조로 힘차게

권길봉 작곡
권길봉 편곡
병길봉 악보
탁용조 작곡

mf

지리산 - 산꾼은 줄기둥으로 뻗어 내려
위천사 - 수루 광풍 루에 엮히진 옛 산문화
를

명산대 천로 간 곳 마 다 승 지 이 루 고
금빛을 - 으도 익은 곡식아 고길 개이 숙빛 내 고
고

이문용 천창추 역신세 사도찬 속비에 풍속도순후할사
옹 추 사 세 찬 포 그 힘 도창장 할가면
고

사시예 천연자 원 무진장 일세
대관림 천년자원이고모인담것네
나가세 씨씩 하게모두다함께

아 - 함양 의 옛 모 습 을 고 이 지 켜 서
아 - 함양 의 이 전 통 들 고 이 이 어 서
아 - 함양 의 그 자 랑 을 고 이 살 려 서

ff

(후렴) 내 고 장 새 - 살 림 을 마 련 해 보 자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을 노리던 문학동우회에 불리어 지던 노래를 1960년도 군민가 제정을 위해 가사를 공모하였던바 본가사가 채택되어 61년 5월 군민가로 제정 발표

거창군민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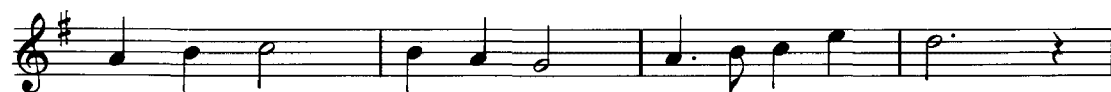
박종건 작사
이석화 작곡



소 옛 기 백 가 림 산 야 진 줄 빛 산 기 난 과 따 문 들 라 화 엔 덕 전 풍 유 통 년 산 을 가 솟 잇 높 고 고 고



유 슬 물 구 기 마 한 룬 다 낙 화 마 동 량 을 강 도 마 물 의 다 예 피 건 서 가 설 흐 름 로 른 는 안 다 다 다



산 뽕 새 높 어 나 고 난 라 물 새 새 맑 일 마 은 끈 을 아 자 꽃 누 라 피 한 난 는 거 거 거 창 창 창



어 어 어 화 화 화 라 라 라 이 이 이 강 강 강 산 산 산 이 이 이 우 우 우 리 리 리 의 의 의 향 회 일 토 망 터



(후렴)가 숨 높 이 불 러 라 건 설 의 아 침



새 고 장 이 룩 하 는 군 민 의 노 - 래

높고푸른 덕유산 정기속에 슬기로운 조상의 얼을 이어받은 우리고장을 찬양하고 기리며 군민의 밝은 앞날을 위해 작곡한 노래로서 널리 불리우고 있다

군민의 노래

이 주 홍 작사
강 수 범 작곡



1. 아 아 라 이 푸 - 르 른 하 늘 을 이 고
2. 부 지 런 을 씨 로 뽕 러 가 누 는 살 림
3. 은 은 - 한 가 야 정 기 쇠 북 소 리 로



되 천 년 물 천 년 에 터 잡 은 이 곳
누 구 년 내 풀 안 을 넘 겨 불 것 닷 아
오 늘 도 하 루 의 새 정 신 땀 아



서 - 으 론 황 매 산 - 성 동 으 론 낙 동
의 - 를 보 면 족 음 으 로 깃 발 을 꽃 는
맹 세 - 코 빛 내 리 - 라 다 함 이 없 이



쓰 고 남 아 쌍 - 도 록 기 름 지 구 - 나
그 - 옛 날 신 라 도 아 죽 을 보 - 라
조 - 상 이 꽃 파 위 준 커 한 름 - 을



(후렴) 내 고 장 은 합 천 땅 열 일 곱 집 이



한 식 구 로 모 여 서 번 영 하 는 - 집

선조들의 얼을 받들고 가야의 정기를 이어 받아 새정신을 키우고 주민의 화합
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향심고취 하고 17개 읍면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
쳐 번영의 합천군을 만듭

제주도의 노래

김진열 작사
김진열 작곡



한 높 산 라 은 종 의 산 고 장 기 물 한 습 종 기 에 은 상 는 곳 바 광 우 다 막 리 로 한 제 뻗 들 주 고 판 는



태 넓 옛 평 푸 부 양 른 터 푸 바 내 른 다 려 물 에 오 결 는 는 감 풍 풍 돌 부 속 아 한 종 드 어 은 는 장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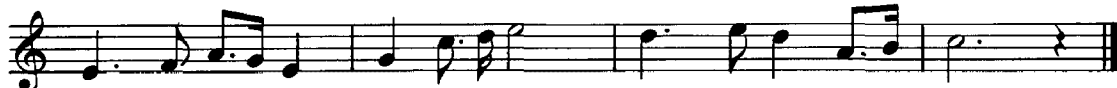
여 이 지 기 고 난 는 장 날 조 산 버 상 과 립 들 에 반 피 피 설 땀 땀 음 어 을 을 린 부 식 땅 어 고



우 푸 새 리 른 나 가 산 라 나 종 건 고 은 설 자 발 하 생 가 아 활 꾸 침 의 어 을 요 내 맛 람 고 아



어 - 서 다 일 어 서 라 굳 게 문 - 치 어
끝 - 없 는 수 산 자 개 발 하 - 여 서
우 - 리 는 서 로 돕 고 부 지 런 - 하 여



산 기 종 - 은 제 주 도 를 만 들 어 내 - 자
풍 요 로 - 운 제 주 도 를 만 들 어 내 - 자
아 름 다 - 운 제 주 도 를 만 들 어 내 - 자

영봉 한라산과 넓은 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제주도가 많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이 약속되는 아침을 맞이하여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전도민이 단합하여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기좋은 제주도를 이룩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음

제주시민의 노래

양중해 작사
김승택 작곡

mf

장전자 엄설연 한과은 한옛아 라노름 영래담 봉가고 북고자 녀인원 기옛도 슬터많 에에다

탐새엣 라포부 가화터 열향풍 린기속 날로종 의운아 꿈꽃인 에을심 안가종 기꾸은 어고곳

고높북 난은돈 을산아 이넓가 겨은꾸 내들어 고판서 빛푸행 을른복 찾바을 으다심 며엔어

아슬앞 득기으 한와로 역땀억 사을만 속부년 에어을 자커살 라가아 온는갈 고고고 장장장

p

제주시 제주시 아름다운제주시

f

우리의제주시를더욱빛내자

장엄한 한라산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제주시는 탐라개국이래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면서 이 고장을 가꾸어 온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온 시민이 단합하여 제주시를 살기 좋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자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음

서귀포시 노래

명랑하고, 씩씩하게

김광협 작사
김동진 작곡



1. 한 라의 멧부리가 곱어살 피고 태평양 거센 물결 잠드는이 곳
2. 비바람 물아쳐도 견디어 이겨 조상들 피땀 흘려 돌밭가꾸니
3. 세 계에 여기 만큼 귀한데 있나 산업도 일으키고 문화도가 뛰



여기는 서귀포 북받은 터전 이고 장사 람들 맘써고 와라
이 나라 남녘의 빛나는 터전 애써서 착한게 맡일하는 이들
누구도 우러를 터전을 닦자 나는 너 너는 나 서로 도와서



그윽할 손굴 향기 물새우 짓는 서귀포 그 이름도 아름답구 나
모여서 일으키는 새 서귀포다 서귀포 그 이름도 거북하구 나
뭉쳐서 서귀포를 일궈나 가자 서귀포 그 이름도 보배롭구 나



서 귀 포 서 귀 - 포 영영 광원이 되 어 라
길 이 빛 나 라



세 계 속 의 서 귀 포 를 만 들 어 움 보 자
가 발 기 에 있 다

풍광수려한 서귀포시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시민들의 불굴의 의지, 근면, 성실
상을 표현하면서 세계속의 서귀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음

북제주군의 노래

양 중 해 작사
나 훈 영 작곡

mf

아 남 조 득 해 상 한 의 이 역 맑 끼 사 은 처 위 물 주 에 결 신 우 굽 아 뚝 어 림 선 보 다 영 먼 운 산 서 땅

mp

거 넓 슬 록 은 기 한 들 와 한 우 험 라 거 을 산 진 모 의 숲 아 북 펼 더 녀 처 육 기 진 가 습 목 꾸 은 장 면

mf

우 천 우 리 통 리 의 의 조 터 아 상 전 들 의 에 이 피 꿈 머 와 을 언 땀 심 후 으 손 로 면 이

mf

일 영 복 구 원 되 고 히 게 가 살 살 꾸 기 아 어 좋 나 온 은 갈 푸 푸 푸 른 른 른 땅 땅 땅 이 이 다 다 여 기

가 북 제 주 군 내 고 장 이 다

모 두 다 일 어 서 라 더 욱 빛 내 자

한라산의 정기와 조상들의 슬기를 이어온 북제주군의 자랑스러운 자연자원과 광활한 축산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잘사는 고장을 건설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음

남제주군민의 노래

보통빠르기로 힘차게

양 중 해 작사
정 세 문 작곡



1. 한 라 산 남 녀 기 습 살 기 중 은 땅
2. 태 평 양 푸 른 물 겹 젖 어 드 는 땅



일 초 출 룩 봉 숲 산 방 산 의 아 꿀 득 한 사 이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는



여 기 - 는 새 시 대 의 꿈 과 슬 기 로
여 기 - 는 우 리 들 이 우 리 후 손 이



새 림 게 피 어 나 갈 희 망 의 고 장 약 진
영 원 히 행 복 하 게 살 아 갈 고 장 약 진



하 는 남 제 주 다 모 두 나 서 라 힘 -
하 는 남 제 주 다 모 두 나 서 라 힘 -



모 아 내 고 장 을 길 이 길 이 빛 내 자
모 아 내 고 장 을 길 이 길 이 빛 내 자

한라산 남녘 기슭에 위치한 자연환경과 관내 관광자원을 부각시키고 군민의 슬
기와 단합된 기상으로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
는 노래

내 고장을 讚美하는 노래

부 산 찬 가

윤이 평원 작사
이범희 작곡

수백 평 선 바라보며 - 푸른꿈을 키우고 파도
고동 울리며 - 정든님 찾아 오고 웃-

소리 들으며 - 가슴 설레 이 - - 는 여
음 먼 얼 - 굴로 - 서로 손 - 잡 - - 는

기 는 부 - - 산 회 - 망 의 고 - - 향
기 는 부 - - 산 사 - 랑 의 고 - - 향

꿈 많은 사람들이 정답게 사는 곳 - - 갈 때
정 많은 사람들이 정답게 사는 곳 - -

기 때 나는 곳 - 동백 꽃도 피는 곳 - 아 - 너 와

나의 - 부 - 산 - 갈 때 기 때 나는 곳 - 동백

꽃 도 피는 곳 - 아 - 너 와 나의 부산 - 영원하리 - -

이노래는 향토애와 시민정신 함양을 위하여 부산직할시에서 1983년에 제정한
350만 부산시민의 찬가임

내사랑 부산

김 강 섭 작곡
유 호 작사

명랑 경쾌하게



나 는 야 썩 썩 한 부 - 산 사 나 이
나 는 야 썩 썩 한 부 - 산 사 나 이

너 는 야 상냥 한 부 - 산 아 가 썩
너 는 야 상냥 한 부 - 산 아 가 썩

태 종 대 파 도 소 리 자 장 가 삼 아 오 룩 도 바 다 넘 어 꿈 을 꾸 었 네
옛 이 름 동 - 래 성 말 이 없 어 도 금 정 산 높 은 기 상 기 리 살 았 네

세 계 로 나 래 퍼 는 꿈 을 꾸 었 네 동 백 아 피 어 라 가 슴 마 다 피 어
세 계 로 뻗 으 러 는 뜻 이 살 았 네 파 도 야 출 취 라 뱃 고 동 도 울 어

라 살 아 도 여 기 떠 나 도 여 기 부 산 아 내 사 랑
라 살 아 도 여 기 떠 나 도 여 기 부 산 아 내 사 랑

아 내 품 에 서 살 고 지 고
아 내 품 에 서 살 고 지 고

부산인의 긍지와 썩썩한 기상을 나타내고 부산을 사랑하며 부산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노래임

부산 여성의 노래

아름답게, 느리지않게

김태홍 시
이상근 곡

mp
웃 는 어 머 니 는 가 정 의 태 양 이 다

mf
사 랑 도 우 리 의 정 성 으 로

무 성 한 숲 으 로 자 라 고

mp
전 통 의 강 물 을 이 루 어

평 화 는 주 부 의 손 으 로 꽃 핀 다

f
마 음 과 마 음 으 로 이 어 저

mp
하 나 의 세 계 로 오 늘 도 즐 거 운

f
오 ! 위 대 한 그 이 름 여 성

오 ! 성 스 런 그 이 름 여 성

부산에 살고 파라

밝고 아름답게

정진채 작사
김평주 작곡

mf

1. 눈 보 라 속 에 서 동 백 꽃 이 피 듯 이
2. 금 정 산 위 에 서 꽃 구 림 이 피 듯 이

끈 질 기 게 살 아 가 는 부 산 - 갈 매 기
해 운 대 로 찾 아 드 는 건 강 한 여 - 림

파 도 - 야 하 양 - 게 부 서 져 오 너 라
친 구 - 야 반 갑 - 게 웃 으 며 오 너 라

오 룩 - 도 저 너 머 로 배 를 - 띄 우 자
동 백 - 섬 저 너 머 로 꿈 을 - 띄 우 자

(후렴) *mp* 여 기 는 우 리 들 의 정 다 운 고 향 *mf*

f 오 손 도 손 마 주 보 며 사 랑 을 나 누 면

mf 무 지 개 빛 새 회 망 이 가 슴 에 핀 - 다

f 아 - - 우 리 부 산 부 산 에 살 고 파 라

부산을 그리워하며 부산에 산다는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향토를 가꾸고 애
향심을 북돋우는 노래

부산은 부른다

천 최 익 봉 작사
천 최 익 봉 작곡

Disco

바 다 가 아 름 다 운 부 산 항 구 가 아 름 다 운 부 산
하 늘 이 아 름 다 운 부 산 동 백 꽃 아 름 다 운 부 산

부 산 은 부 른 다 - 아 세 아 의 젊 - 은 이 -
세 계 의 젊 - 은 이 -

성 화 는 - 타 오 른 다 - 수 영 만 광 장 -

흰 돛 대 - 푸 른 돛 대 - 영 광 을 걸 고 -

아 - 오 른 도 앞 바 다 - 아 - 요 트 가

달 린 다 - 바 람 따 라 - 파 도 타 고 - 우 리 도 달 린 다 -

바 람 따 라 - 파 도 타 고 - 우 리 도 달 - 린 다 -

86.9.30. 19:00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제7회 부산시민의날을 경축하고자 예총부산지회 주최로 개최한 부산무대예술제 창작가요제시 발표되었음

수영강을 살리자

Moderato

정진채 작사
김평주 작곡

mf

그 옛 날 거 칠 산 국 기 름 진 땅 가 꾸 며 젖 줄 되 어
열 리 는 앞 바 다 에 요 트 장 이 생 기 고 온 세 계 의

흐 르 던 아 름 다 운 수 영 강 -
선 수 가 모 여 드 는 수 영 (만)

mp *mf*

남 시 줄 도 던 지 - 고 명 도 감 던 그 밝 은 물
무 지 개 빛 찬 연 한 꿈 밝 아 오 는 새 아 침 에

문드 명 의 그 늘 속 에 잊 혀 진 지 얼 마 던 추 가
드 높 은 시 민 의 식 너 와 내 가 발 맞 추 자

mp poco.....a..... poco..... crese

수 영 강 이 썩 어 가 네 고 운 꿈 이 멎 이 드 네
수 영 강 이 살 아 나 네 우 리 꿈 이 피 어 나 네

f

그 새 핏 줄 썩 을 수 야 그 고 운 꿈 멎 들 수 야
새 물 로 먹 을 감 고 낚 시 칠 도 다 시 하 면

f

한 동 마 음 한 뜻 되 어 수 영 강 을 살 리 자
동 백 꽃 곱 게 피 고 갈 매 기 도 날 겠 네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의 요트경기를 앞두고 오염되어가는 수영천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노래임

아세아에 빛나는 부산

정수희 작사
이예성 작곡

저수 높은 하늘을 보라 보라 기리 빛나며
수 많은 만국기 보라 보라 우리 마음

나 부끼는 화려한태극기
함께 담은 화려한만국기

부산에 아침을 보라 보라 떠오르는
힘모아 전진할 하라 파도위에

저 태양이 빛나는 부산
반짝이는 새하얀요트

우리의 가슴마다 영원한축제
부산의 빛나는 아세아축제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모두 뭉치자
모두들 뜻 모아 전진하자 힘차게

세계로 빛나는 부산이여
세계로 빛나는 부산이여

86.9.30. 19 : 00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제7회 부산시민의날을 경축하고자 예총부산지회 주최로 개최한 부산무대예술제, 창작가요제시 발표되었음.

오 륝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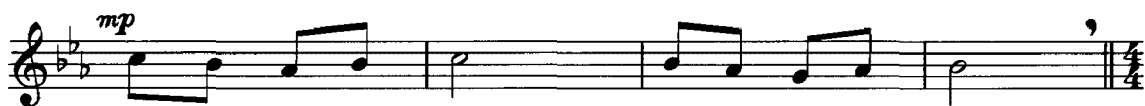
쓸 쓸 한 날 - 에 - 는 다 섯 개 로 보 이 고
비 오 는 날 - 에 - 는 다 섯 개 로 보 이 고



즐 거 운 날 - 에 - 는 여 섯 개 로 보 이 는
바 람 - 부 는 날 에 는 여 섯 개 로 보 이 는



그 래 서 그 래 서



이 - 름 - 도 오 - 륝 - 도



해 달 님 이 - 건 저 - 올 - 린 - 신 비 로 운 바 위 섬 섬
아 름 다 운 바 위 섬 섬

83년 4 월, 제 1 회 MBC 창작동요제 은상 수상작품으로 부산의 상징인 오 륝 도를 소재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부산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지은 노래이다.

우리부산 경사났네

천 김 봉 작사
중 유 작곡



경사 났네 - 경 사났 네 - 우 리부 산경 사났네 -



아 - 세 아 이 웃나 라 - 귀 한 손 님 - 찾 아오 고 -
이 웃 사 춘 - 형 제 들 이 -



오 른 도 - 앞 바 다 에 - 오 새 돛 대 요 트 띄 워 -
성 화 가 - 타 오르 네 - 동 백 꽃 도 피 어 나 네 -



바 다 제 전 바 다 축 제 천 하 일 색 장 관 일 세 이렇게 저렇게 좋 을 시 구
세 계 항 구 부 산 만 세



부 산 사 람 좋 을 시 구 — 부 산 사 람 좋 을 시 구 —



경 사 났네 - 경 사났 네 - 우 리 부 산 경 사 났네



우 리 부 산 경 사 났 네

'86.9.30.19 : 00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와 제 7 회
부산시민의날을 경축하고자 예총부산지회 주최로 개최한 부산무대예술제, 창작
가요제시 발표된 노래임

우리의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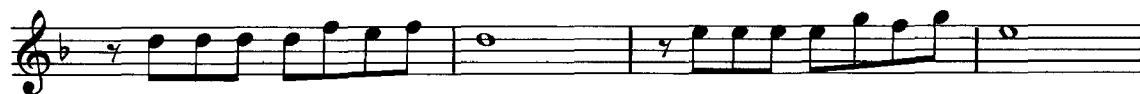
이정걸 작사
김종유 작곡



밝 아 오 는 새 아 침 에 대 지 를 달 고



동 — 백 꽃 꽃 망 을 에 햇 빛 이 솟 네



오 른 도 푸 른 물 — 결 갈 매 기 노 래 소 — 리



너 와 나 의 웃 음 속 에 오 늘 이 빛 난 다



아 — 여기 는 국 제 항 우 리 의 부 산

'86.9.30.19 : 00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제7회 부산시민의날을 경축하고자 예총부산지회 주최로 개최한 부산무대예술제, 창작가 요제시 발표된 노래임.

돌아와요 부산항에

황선우 작사
황선용 작곡
조필 노래

꽃 피 - - 는 동 백 섬 - 에 봄 이
가 고 - - 파 목 이 메 - 어 부 르

왔 던 - - 건 리 만 는 - 형 제 떠 난 서
이 거 리 만 는 - 그 리 워

부 산 항 에 갈 매 기 만 슬 피 - 우 - 네
해 메 이 던 진 진 날 에 뭍 이 - 었 - 지

오 른 도 나 돌 아 가 는 연 락 선 마 - 다 목 메 어
언 제 나 말 이 없 는 저 물 결 들 - 도 부 땃 혀

불 러 봐 도 대 답 없 는 내 형 제 여 돌 아 와 오
슬 퍼 하 며 가 는 길 을 막 았 었 지 돌 아 왔 다

부 산 항 에 그 리 운 내 형 - 제 - 여 -
부 산 항 에 그 리 운 내 형 - 제 - 여 -

부산항은 뱃길로 모국을 방문하는 재일동포에게 있어서는 첫발을 내딛는 땅이다. 재일동포의 모국방문이 한창 무르익어갈때인 1976년 발표되므로써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끌어줬던 핏줄을 다시잇는 혈육의 정을 그린 노래이다.

능금꽃 피는 고향

(대구는 내고향)



능금꽃 향기로운 내 고향 땀은 팔공산바라보는 해 뜨는 거리
끝없는 그리움을 말하여 주는 금호강 푸른 물은 흘러만가네



그대와 나여기서 - 꿈을 꾸었네 아름답고 정다운 꿈을 꾸었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가도 사모하는 마음은 변치않으리 둘이



서 - 걸 어 가 는 회 - 망 - 의 거 리 능금



꽃 - 피 고 지 는 사 - 랑 - 의 거 리 대



구 는 내 고향 - 정 다 운 내 고향 -

비약적인 대구의 발전에 전 시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1971년 4월 제정하였음

아름다운 대구

박 미 숙 작사
김 희 갑 작곡

Disco

목련이 피어 나 는 우 리대 - 구 - 는
금호강 맑은 물 는 우 리대 - 구 - 는

사 랑 - 과 인 - 정 이 넘 치 는 고 장
거 리 마 다 행 - 복 이 넘 치 는 고 장

마 음 마 다 한 아 름 들 꿈 - 을 안 고 서
떠 오 르 는 태 양 들 바 라 보 면

내 일 을 향 해 내 일 을 향 해 달 려 가 보 자
내 일 을 향 해 내 일 을 향 해 달 려 가 보 자

아 - - 대 구 회 망 의 도 시

아 름 다 운 내 고향 - 우 리 대 구 Fine

아 - - 대 구 회 망 의 도 시

아 름 다 운 내 고향 - 우 리 대 구

전국 시도 노래만들기의 일환으로 대구문화방송국에서 1984년 6월 제정하였음

능금노래

민요풍으로
느릿느릿하게

이응창 작사
권태호 작곡



능금능금능금 대대대대 구구구구 능금능금 이꽃은사 나만기시 라봐종장 의도기춘 자아괴자 랑실여셔 일것홍보 세을고세 — — —



너빛청언 도도실제 나종홍라 도고실도 손향결젼 을기치고 잡종농젼 고니아어 힘맛백불 을은년로 다다해장 해시로생 배문맺하 양지느오 하마구리 세소나다



(후렴)에 — 헤 — . 종 고 종 다 에 — 헤 —



종 고 종 다 능 금 노 래 를 불 리 보 세

대구의 상징인 능금을 노래하여 영원한 대구의 발전을 기리고자 제정하였음

갈매기 사랑

최경섭 작사
최영섭 작곡

경쾌하게

눈땀 뜨면 푸르른 하늘이 푸르른 바
고동 소리가 높이 떠나가는
다 물보라가 물대는
눈부신 아침 물새가 반짝
주는 향도 인천에
찾아온 내 사랑은 갈매기 사
두고온 내 사랑은 갈매기 사
랑 동서남북 월월월
날다치면 인천항
찾아드는 갈매기 사랑

항도 인천의 아름다움을 바다의 상징인 갈매기에 비유하여 경쾌하고 빠른리듬으로 작곡된 동요풍의 노래다

꽃 섬 나 루

빠르지 않게

박 화 목 작사
신 귀 복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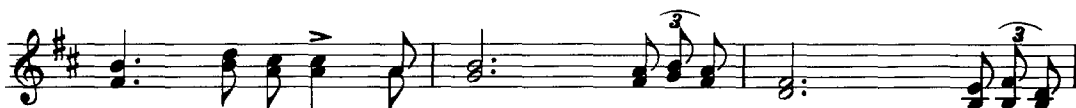
꽃 섬 나 루 나 루 터 나 릿 배 하--
향 곳 한 꽃 념 새 가 실 바 람 타 고 술--



나 나- 릿 배 손- 님 은 빨 간 꽃 - 잎 하--
술 저- 멀 리 제 물 포 에 뻗 고 동 이 한 가- 로



나 사- 공 은 (사- 공 은) 어 디 가 고 (어 디 가 고) 물 -
위 흰 물 새 가 (흰 물 새 가) 끼 룩 끼 룩 (끼 룩 끼 룩) 혼 자



결 만 철 석 이 네 하- 이 안 모 래 톱
울 다 날 아 가 네 꽃 섬 나 루 갯 별 가



에 해 당 화 꽃 피 었- - 네
에 혼 자 울 다 날 아- 가 네

섬나루 나룻터에 떠나는 배하나 타고 바닷가의 정경을 그려보면서 무심코 흘러나오는 마음의 노래를 흥겨운 곡조로 엮었다

나라의 관문

흥겨웁게

최 성 연 작사
최 영 섭 작곡



고 새 쌓 노 요 바 이 랑 에 람 는 진 잠 개 쌀 나 겨 화 더 루 있 바 미 건 던 람 에 나 포 서 눈 철 구 양 이 마 인 바 어 달 천 람 두 리 이 이 워 고



백 만 미 한 고 국 두 강 동 선 소 물 소 깃 찾 끝 리 발 아 어 높 따 들 다 이 라 던 가 눈 밀 팔 수 을 어 도 뗏 닥 잠 물 다 쳤 부 땃 네 네 들 네



신 때 한 나 기 만 밀 라 한 난 천 의 화 선 잡 관 룬 창 으 문 선 이 다 드 화 털 선 나 물 리 봉 들 쌓 고 이 면 이 울 되 서 고 고 니



부 야 한 역 두 시 밀 사 엔 장 천 의 잡 선 손 으 동 술 에 땀 산 집 이 고 요 치 흥 큰 자 쌓 청 소 랑 었 댕 리 이 다 다 쳤 로 네 네 네 다

작사자가 인천 개항의 역사적 사실과 항만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시“제물포 개항의 노래”를 지었고 여기에 흥겨운곡을 붙여 만든 노래를 개항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모습이 1 절부터 4 절까지에 잘 나타나있다.

내 고향 인천

조 병 화 작사
황 철 익 작곡

보통빠르기로



넓 푸른 서해 물 내 러 다 보 며 -
푸 른 서 해 물 결 치 는 푸 른 언 덕 에 -



우 뚝 솟 은 자 유 공 원 푸 른 숲 아 래 -
날 로 날 로 뻗 어 가 는 문 화 의 도 시 -



밝 은 오 늘 다 저 가 며 내 일 을 사 - 는 -
다 넓 고 보 다 높 이 보 람 을 사 - 는 -



아 우 리 는 꿈 - 많 은 인 천 시 민 일 세 -
아 우 리 는 꿈 과 사 랑 인 천 시 민 일 세 -



사 랑 하 세 서 로 서 로 내 고향 인 천 -



아 름 답 게 개 끄 하 게 더 욱 빛 나 게 -

고향이 경기도 안성인 작사자가 오랫동안 인천에서 교육에 전념 하면서 향도 인천이 밝게 발전해가는 문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여 지은 노래다.

내 고향 인천항

서정적으로 한 상 역 작사
전 석 환 작곡

푸 른-하 늘 푸 른바다 그 파란 나 의-요 람장
맑 은-하 늘 맑 은바다 그 맑은 나 의-고 장

여 기-에 - 아 품있어 도 내 일 은아름다 위 라
그 빛-이 - 널 리비치 니 나 여 기오래 살 리 라

자 꿈 나-깨 나 그 리워라 내 고향 인 천 항
에-서 도 못 잊어 라 내 고향 인 천 항

자 꿈 나 깨 나 그 리워-라 내 고향 인 천 - 항
에 서 도 못 잊어-라 내 고향 인 천 - 항

인천이 내 고향이라는 애향심을 가진 시민이 지극히 적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 고장 출신 작사자가 인천이 이곳에 사는 모든 시민의 아름다운 꿈이 서려있는 잊을 수 없는 고향으로 갈매기 춤추고 물새가 날아드는 아름다운 항구가될 것을 꿈에 그리며 작곡한 것으로 꾸밈없고 티없이 맑은 소녀적 감흥으로 부를수 있게 작곡되었으며 어떻게 들으면 동요같기도 하고 어떤때는 가곡같기도한 노래이다

눈 감으면 들리는 소리

한 상 언 작 사
화 문 평 곡

서정적으로



가	만	하	눈	—	감	으	면	들	—	리	—	눈	—	리	이	가
부	르	면	대	—	답	하	는	그	—	리	—	눈	—	성	고	요
수	봉	사	약	—	수	터	에	아	—	침	—	눈	—	면	팔	각



떠져 후
리성 고
— —
소음 셋
— —
동진 을
— —
고겨슴
— —
배새가
— —
는에 람
— —
이음바
레마는
설내부
— —
스한 정



다계연 — 바님저 — 에야면 — 밤새가 — 는물서 — 시는어 — 오노결 — 들에며 — 람위불 — 사결며 — 그물불 — 간다람 — 나바파



대구매 등원물
고라리 나마소
빛지리
이 나 아
별따매
몽두에
초부습
몽안기
초연저
엔신덕



잔아구
 잔이누
 어산는
 — — —
 넘는에
 — — —
 도르쪽
 — — —
 미오지
 — — —
 월떠양
 — — —
 짝게에
 반둥리
 짝게허
 반둥사
 — — —
 본말



한 — 구 에 는 비 — 가 — 개 었 — 네
 — 항 구 에 는 바 — 람 — 도 — 다
 — 항 구 이 려 가 — 운 — 말 — 이
 — 항 구 이 가 — 온 — 송 — 이

가만히 눈감고 있으면 보이는 「사상(事象)」들이 있고 들리는 「소리」들이 있다. 그것은 모두가 내고향 인천항의 그림고 아름답고 믿음직한 모습들인데 서정적인 감부으로 부를수 있도록 가곡풍으로 작곡되었으며 음악전문가(성악가)또는 합창으로 불러도 좋은 노래다.

신나는 우리 인천

경쾌하게 (※ Melody)

이진호 작사
정민섭 작곡



바닷물 이 속 삭이 는 인 천 항 구 에 -
갈매기 가 노 래 하 는 인 천 항 구 에 -



여객선 이 신 나 게 들 어 옵니 다 -
화물선 이 신 나 게 떠 나 갑니 다 -



여러 나 라 관 광객을 - 가 득 태 우 고 -
우리 나 라 수 출품을 - 가 득 싣 고 서 -



뚜 뚜 뚜 뚜 소 리 치며 - 들 어 옵니 다 -
뚜 뚜 뚜 뚜 소 리 치며 - 떠 나 갑니 다 -



인 천 은 관 광 도 시 이 름 난 항 구 -
인 천 은 관 광 출 항 구 이 름 난 항 구 -



신 나 게 손 님 들 - 이 모 여 옵니 다 -
신 나 게 우 리 상 - 품 실 어 넣니 다 -

항구를 낀 공업도시 인천이 수출한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다해왔음은 물론 월미도 자유공원등 이름있는 유원지를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경쾌한 동요풍의 노래이다.

아름다운 인천

홍겨웁게

하 황 중 문 희 평 작 사
 작 곡



푸른바다 — 춤추는인연 — 향
은물결이 짝이 없는인연 — 고향



— 아 름 답 고 — 새 — 롭 다 —
— 오 색 꿈 을 — 가 — 꾀 다 —



인 천 은 내 - 사 랑 - 밀 물 따 라 -
인 천 은 내 - 얼 굴 - 강 물 따 라 -



썰물 따 라- 웃 고 울 던 이 - 야 기 -
 물새 따 라- 오 고 가 던 배 - 들 이 -



일 — 미 도 — 작 — 약 도 — 꽃 — 으 로 피 — 였 네
 이 — 처 한 — 못 — 앳 어 — 오 — 들 도 찾 아 오 네



- 우렁우렁 - (우렁우렁-) 철석철석 -



(철 석철 석-) · 파 - 도 의 - (파 - 도 의 -)



노 래 소 리 - (노 래 소 리 -) 해 가 뜬 다 -



(해 가 뜬 다 -) 달 이 뜬 다 - (달 이 뜬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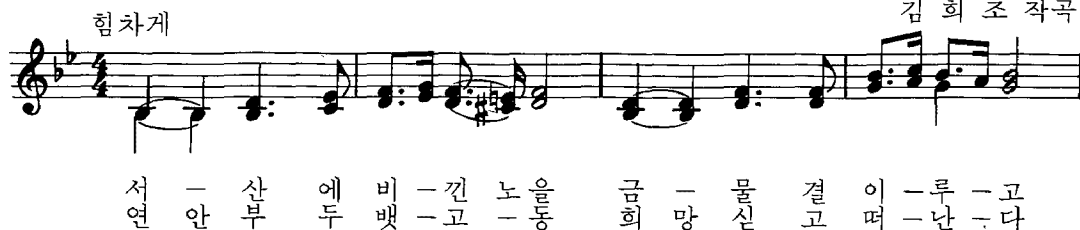


아 름 다 운 인 - 천 -

날로 발전하는 인천 약동하는 희망의 향도 인천을 힘찬 파도의 리듬위에 표현
하고자 노래하기 쉬운 말로 엮었으며 우리의 민요풍인 가락에 따라 흥겹게 부
르도록 세마치장단으로 반주가 꾸며졌다. 여러사람이 모여 부르면 더욱 좋고 굿
이 화음을 붙이지 않아도 제창으로 주고받는 노래로 불러도 좋으며 젊은이들
이 게임송으로 불러도 좋다.

영광의 내고향

모 기 윤 작사
김 희 조 작곡



개항 100년의 유서깊은 항도 인천이 시민의 부푼꿈을 싣고 자랑스럽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만든 노래로 행진곡 같이 힘차게 부르면 좋다.

월미도 타령

양명문작사
김희조작곡

민요풍으로



1. 월 미 - 도 앞 바다 푸른 파 도 헤 - 치 며
2. 흰 구 - 림 떠 가는 서해 바 다 저 - 멀 리



먼 나 라 외 항 선 뱃 고 동 이 울 린 - 제
맥 아 더 장 군 은 바 - 라 다 보 는 - 데



환 영 - 의 날 개 퍼 춤 을 추 는 갈 매 기 떼
아 득 - 한 파 돛 길 풍 - 랑 을 타 고 넘 는



에 헤 - 야 너 울 너 - 울 길 맞 이 춤 이 로 세
어 기 - 여 어 기 었 - 차 뱃 노 래 벅 차 오 네



정 다 - 운 손 길 퍼 악 수 로



맞 - 이 하 는 - 인 천 - 의



부 듯 - 가 는 역 사 - 의 항 구 - 여

항도 인천의 대명사처럼 불려져온 월미도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항구의 모습을
흥겨운 민요풍으로 작곡한 노래다

인천에서 살아요

이진호 작사
황문평 작곡

명랑하게



1. 갈 매 기 와 노래 하 며 자 유 를 노래 하 며 -
2. 바 - 다 를 바라 보 며 세 계 를 바라 보 며 -



할 아 버 지 할 머 니 도 인 천 에 서 살 아 요 -
너 - 와 나 정 - 답 게 인 천 에 서 살 아 요 -



새 문 화 꽃 피 - 운 아 름 다 운 인 천 에 서
우 령 찬 기 계 소리 들 려 오 는 인 천 에 서



상 룝 작 전 알 려 진 세 계 속 에 인 천 에 서
내 - 일 의 행 복 을 약 속 받 은 인 천 에 서

(후렴)



엄 마 도 아 빠 - 도 - 정 다 운 이 웃 - 도 -



자 랑 스런 인 천 에 서 인 천 에 서 살 아 요 -

주옥같은 동요를 많이 써온 아동문학가 이진호씨의 가사에 곡을 붙여 어린이들의 노래를 만든 것으로 명랑한 기분을 갖고 인천에 살자는 뜻을 담은 동요풍의 노래로 밝고 명랑한 기분으로 부르면 좋다

인천의 노래

세마치장단 ♩ = 100

최경섭 작사
김희조 작곡



1. 발 해 의 푸 른 물 결 - 하 인 - 앞 깃 발
2. 미 추 홀 세 물 포 에 - 인 주 - 라 인 천



갈 매 기 끼 룩 끼 룩 - 손 짓 을 한 - 다
문 학 산 저 기로 다 - 송 도 - 월 미 도



살 기 좋 은 옛 - 터 전 - 서 - 해 의 항 - 도
서 - 을 의 관 문 으 로 - 자 - 랑 도 많 - 다



정 세 다 을 손 연 안 부 두 인 - 천 이 로 세
세 - 계 로 뻗 어 가는 개 항 일 - 백 년

(후렴)



등 대 가 반 겨 주 는 에 헤 라 인 - 천



너 도 나 도 - 부 - 르 자 - 인 - 천 의 노 래

미추홀 세물포로 더 잘 알려진 인천이 1883년 개항 이래 한양을 찾는 많은 외국선사들이 묵어가는 수도의 관문역할을 해왔음을 상기하고 항도를 찬양한 노래로 흥을 돋울 수 있는 노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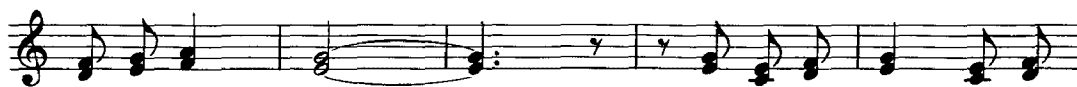
조용한 나라를 연곳이라네

경쾌하게

유경환작사
전석환작곡



1. 은	빛	바	다	가	습	에	안	—	고	나
2. 은	빛	바	다	가	습	에	안	—	고	르
3. 은	빛	바	다	가	습	에	안	—	고	를
	빛	바	다	가	습	에	보	—	며	학
	빛	바	다	가	습	에	보	—	며	학



리	무기	학	한	꽃	개	—	개	빛
로	기	슬	움	터	곳	—	곳	해
사	어	품	사	역	곳	—	곳	아
								나
								나



아
혀
해
—
—
—
발
발
저
대
아
먼
등
박
은
나
움
천
제
로
인
언
새
로
며
고
으
하
—
상
복
우
기
극
키



— — — 연두한
— — — 곳곳곳
를을글계
다죽툼툼
나닷새
한의플
용라라
조나나
— — —



이	라	네	—	조	용	한
이	라	네	—	나	라	의
이	라	네	—	나	라	를



나	—	라	를	연	곳	—	이	라	네	—
다	—	출	을	단	곳	—	이	라	네	—
새	—	롭	게	하	곳	—	이	라	네	—

일찌기 이땅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은둔의 나라에서 깨어난 활기찬 문명
 국으로 향진토록 기여할 인천항의 개항 100년을 기념하여지은 노래로 신나는
 감정을 연속적으로 읊조리는 경쾌한 리듬으로 엮어진 노래다.

하얀등대 반기는 인천항

생기넘치게

전 석 환 작사
전 석 환 작곡



1. 물 - 새 가 촌 을 추 고 하 안 등대 반 기 는
2. 수 - 많 은 세 월 속 에 하 울 고 웃 던 사 연 들
3. 월 - 미 도 잡 문 에 주 안 공 - 단 까 지



제 - 물 포 인 천 항 은 이 나 라 의 관 - 문
썰 - 물 물 에 밀 려 가 고 나 라 의 관 - 문
우 - 령 찬 기 계 소 리 힘 차 게 들 려 오 네



만 - 국 선 뱃 머 리 에 마 도 로 스 꿈 을 심 는
팔 - 미 도 만 조 속 에 갈 매 기 떼 에 춤 추 - 는
산 - 업 의 항 구 도 세 계 속 에 뻗 어 나 는



제 - 물 포 인 천 항 은 서 해 의 요 램 이 다
제 - 물 포 인 천 항 은 역 사 의 요 램 이 다
제 - 물 포 인 천 항 은 개 화 의 요 램 이 다



아 아 인 천 민 족의 자 - 랑



아 름 다 운 그 모습 을 노래 - 부 르 - 자

인천에서 학교를 나온 작사(작곡)자가 이곳을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민족의 자람이요 산업의 요람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작곡한 것으로 대중가요적 냄새가 풍기면서도 가사가 좋아서 어떤 장소에도 불러도 좋은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다.]

아름다운 광주천

김기웅 작곡
강만 작사

Moderato



누 - 가 광 주 천 을 노 래 - 하 는 가
누 - 가 세 느 강 을 노 래 - 하 는 가

누 - 가 광 주 천 을 사 랑 - 하 는 가
누 - 가 라 인 강 을 노 래 - 하 는 가

가 까 이 오 라 친 구 여 - 가 까 이 오 - 라
가 까 이 오 라 친 구 여 - 가 까 히 오 - 라

예 향 의 길 을 열 어 - 흐 르 는 강 물
흐 르 는 물 위 에 - 꿈 을 떠 우 며

우 리 가 사 랑 하 며 노 래 하 리 - 라
우 리 도 노 래 할 푸 른 강 있 - 네

남 도 의 맑 은 눈 빛 광 주 - 천 이 여

날 - 로 새 롭 - 고 아 름 - 다 위 라

光州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市民意識化運動의 일환으로 어데서나 市民모두
가 부를수 있는 市民의 노래로 昇華시킬 目的으로 製作.

고향의 봄 (경기찬가)

홍 난 파 곡

♩ = 96

나 꽃의 살-던리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꽃 - 동 - 리 새 동 리 나 의 옛 고 - 향

북 승 아란 꽃 살 구-꽃 아 기 진 달-래
파 - 란 들 남 쪽 에서 바 람 이 불 - 면

울긋 불긋 꽃-대 결 차 추 인 동-리
냇 - 가 에 수 양 버 들 춤 주 는 동 - 리

그 속 에 서 놀 던-때 가 그 립 습 니-다
그 속 에 서 놀 던-때 가 그 립 습 니-다

경기도가 낳은 근대민족음악의 선구자인 난파 홍영후 선생이 작곡한 노래로서 1986년 김용래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주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도민화합과 주민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경기찬가로 제정하였으며 각종 행사 및 집회 시 제창하고 있음

우리의 수원

박 호 석 작사
변 훈 작곡

Moderato conbrio



맑 고 맑 은 시 내 물 흘 러 넘 쳐 라



푸 른 물 결 영 원 히 흘 러 넘 쳐 라



1. 팔 달 산 의 진 달 래 불 게 불 게 타 올 라
2. 광 교 산 의 칙 달 녕 쿨 치 령 치 령 손 잡 아



사 랑 스 런 처 녀 들 노 래 - 하 며 춤 추 - 는
사 랑 스 런 처 녀 들 이 한 울 - 타 리 이 추 - 는



아 름 다 운 내 고 장 즐 거 운 고 장



남 서 문 의 대 의 새 푸 른 종 뜻 맑 등 게 실 맑 등 게 실 울 리 는 라



희 망 에 찬 내 고 장 밝 게 퍼 져 나 가 는
보 람 에 찬 내 고 장 밝 게 뻗 어 나 가 는



아 름 다 운 내 고 장 우 리 의 수 원

84년도에 작사자 박효석씨가 수원 향토애를 고취시키고자 발표한 가곡임

수원 처녀



철청 주꽃도 딸의 가을꽃이면 -



초월에는 피 - - 며 - - 는음 -



타네요 수원 처녀가 - 숨이 타네 - 요
꽃다운 수수원 처녀마 - 음을 달래 - 요



달뜨는 - 호호반 - 길님 - 과견던길
달밝은 - 호호반 - 길님 - 과견던길



첫행사복량주을맷사어놓 - 고
첫행사복량주을맷사어놓 - 고



부천 애향가

최은휴 작사
이동순 작곡



푸른 성주 동서로 가 로 지 르 고
향기로운 꽃내음 가 숨에 품 고



전원도시 들에는 정이 넘 치네
아름답게 가꾸는 새마을 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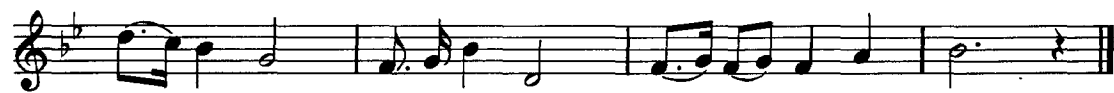
손을잡자 건설하자 우리들의 낙원
나의 사랑이 웃자 사랑의 인사를



애향의 꽃이 피는 사랑의 찬가
거리는 활기찬 사랑의 찬가



(후렴)에 해 야 우리 낙원 활기찬 새 부천



다함께 불러보 세 복사골 노래

1973년 부천시로 승격되면서 옛날부터 불리워 오던 애향가 가사를 정비하여 부천시 애향가로 제정

행주대첩가

Moderato

뜻을 생각하며

김 은 환 작사
김 다 열 작곡



한 강 물 굽 - 이 치 는
덕 양 산 행 주 산 - 성
임 진 왜 란 삼 대 첩 의

행 주 산 성 푸 른 송 정
처 절 한 그 - 싸 움 은
그 하 나 는 행 주 대 첩



그 루 마 다 서 려 있 - 는
이 루 삼 백 우 리 있 - 는
권 천 을 장 군 행 주 치 - 마

그 날 그 님 구 국 혼 은 나 와
하 나 되 어 목 숨 결 고 내
하 나 로 군 - 게 몽 처 내 나



너
노 소
라

우 리
내 도
강 산

모
나
산

두
도
을

나
힘
지

라
을
켜

의
모
주

주
아
신

인
돌
호

되
을
국

하
날
정

어
라
신



그 님 따 라 힘 을 모 - 아
권 을 장 군 영 도 아 - 래
가 숨 마 다 깊 이 새 - 겨

결 전 의 날 주 비 했 네 아
산 만 왜 적 물 리 쳤 네 아
갈 이 길 이 어 가 네 아



아 - 님 들 - 의 외 침 소 리 고 동 소 - 리



우 리 모 두 가 숨 마 - 다 깊 이 깊 이 새 겼 다 네

임진왜란 당시 3대첩중의 하나인 행주대첩의 승리의 요인이었던 행주열과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정신 함양을 위해 제정한 노래로서 고양군내 각급 학교에서는 행주대첩가의 노래와 이에 따른 무용을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강원도 아리랑





정 선 읊 에 물 나 들 이 허 풍 선 이 굴 굴 대 는 - 사 시 상 천 물 거 품 을



안 고 빙글 빙글 뱅글뱅글 요 리 조 리 조 리 요 리 -



비 빙 - - 배 뱅 글 돌 아 가 - 는 데 - - - - -



우 리 집 에 - 그 사 람 - 은 - - 돌 아 올 줄 모 - 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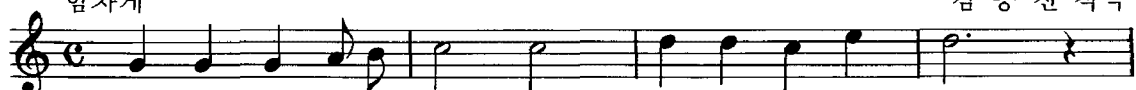


네 돌 아 올 줄 - - 모 - 르 네

강원도 응원가

강원도 작사
김동진 작곡

힘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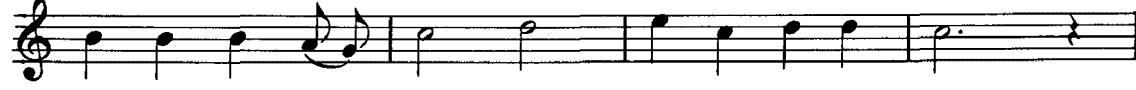
태동승 백해리 의의는 높후오 은튼직 준파하 령도나 우우리 의의기소 백상망



넉땀너 치으와 는로나 곧갈뜨 세고거 체득운 령은손 겨당하 래당나 의한로 자기몽 랑량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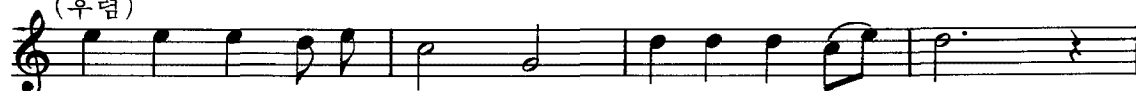


필필필 승승승 을을을 다다다 짐짐짐 하하하 자자자 우우리 선선수 - 야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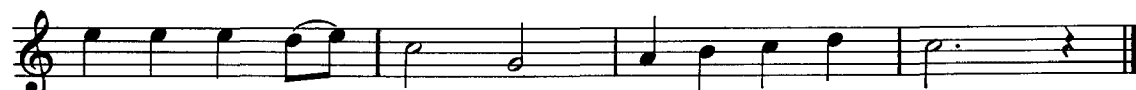


슬신불 기념타 와과는 정정투 성열- 다바지 해쳐로 싸싸싸 위위위 이이이 기기기 자자자

(후렴)



장 하 다 우리 선 수 승 리 의 기 - 수



강 원 의 영 - 광 을 기 리 빛 내 자

도 출전 선수의 사기를 앙양 시키고 승리를 노래하기 위하여 1982년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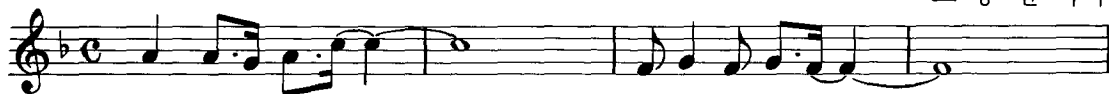
개나리 꽃피는 마을

장국진 작사
김인배 작곡



달마중가세

김성욱 작사
고봉산 작곡



달	마	중	가	세	—	—
달	마	중	가	세	—	—
달	마	중	가	세	—	—

달	맛	이	가	요	—	—
달	맛	이	가	요	—	—
달	맛	이	가	요	—	—



에 —
에 —
늘 —
하 —
—
—
세 —
가 —
이 —
맛 —
달 —
러 —
우 —
피 —
꽃 —
망 —
소 —
새 —

[illegible]

비 천 달 - 꿈 이 서 러 있 다 - 네 가 세 가 세
뜨는 달 - 꿈 이 서 러 있 다 - 네 가 세 가 세
고 이 그 백 년 정 을 가 - 꾸 세 가 세 가 세



—	세	가	이	맛	달	대	포	경	목	강		가	중	마	만
—	가	가	이	맛	달	대	포	정	음	강		가	중	마	만
—	세	가	이	맛	달	대	포	정	음	강		가	중	마	만

1978년 대중가요를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경포대를 배경으로 그린 노래

달뜨는 경포대

김영인 작사
고봉산 작곡



새 파란 바닷 - 가 - 에 새 하얀 모래밭 - - 에
오죽헌 옛 이 - 야 - 기 가슴에 색이면 - - 서



뜨거운 손 마주 잡 - 고 눈으로 얘기하 - 던
호수 같은 눈망울 - 에 이슬이 맺히더 - 니



그 많은 은밀 어들을 백사장에 묻어놓 - 고
그 많은 추억들을 나 혼자서 어찌라 - 고



가 버린 너 보고 파서 다시 찾은 경포대 - 에
가 버린 너 그리워서 다시 찾은 경포대 -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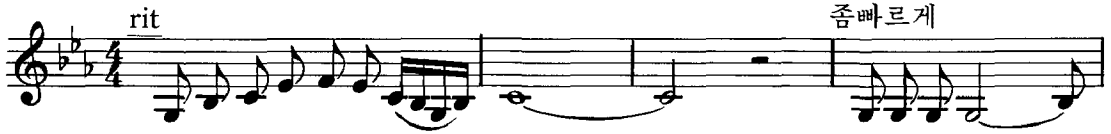
달이 - 뜬 다 해가 - 진 다 지나간 그날 처 - 럼
달이 - 뜬 다 해가 - 진 다 흘러간 그날 처 - 럼

1978년 대중가요를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1.5km의 긴해안의 모래사장과 맑은 경포호수를 그린 노래

대관령 아리랑



굽이굽이 - - 넘어간다 - 대관령 - 고 - 갯길



나를 두고 가는님 - - 아 - 산이가고 -



물도가고 - - - - 차도가니 - 넘어간다 - 유수같은 -



세월속에 - - - - 강산도변하 는구 - - 나 강 - 산도변하는 - 구 -



나 에 헤 - - - 에 - 야 - 구름 -



도 쉬어넘든고 - - - 개 - 대관령 - 고 -



개 서울길이멀 어 들고들던고갯길 옛 - 말이되 - 었구 -

나 구름-가고 - 달이 가고 -----

봄도가니----- 꽃이-진다- 유수같은 - 세월속에 -----

초 목도변하-는구 나 초-목도변하는-구- 나

에 헤 - -에 - 야 - 길 을 기 듯

울고 넘든고 --- 개 대관령 - - 고-

개 서울길 이 멀 어 돌고돌던고 갯길

옛 - 말 이 되-였 구 - 나 옛 - 말 이 되-였구 - 나

영동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인 대관령 지대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묘사한 노래

명 승 강 룡

김 성 욱 작사
고 봉 산 작곡



에 헤 야 데 헤 - 야 - 해 당 화 피 는 곳 - 에 -
에 헤 야 데 헤 - 야 - 내 고 장 종 을 시 - 고 -



우 리 의 사 랑 이 겨 레 의 자 랑 이 아 - 름 답 - 게 피 - 어 - 있 네
우 리 의 명 승 을 우 리 의 유 적 을 두 - 루 두 - 루 보 - 러 - 오 네



팔 경 의 경 포 대 연 꽃 의 활 려 정 성 지 의 오 죽 현 모두 이 라
한 송 이 해 당 화 우 리 네 고 운 맘 형 제 손 잡 듯 이 따 스 하 게



국 보 의 객 사 문 명 소 의 선 교 장 관 동 의 명 승 이 여 기 있 네
너 위 해 나 위 해 오 가 는 손 위 에 내 고 장 인 심 을 심 어 주 네



지 화 자 종 구 나 강 룡 의 자 랑 한 폭 의 그 림 이 여 기 에 - 있 네
지 화 자 종 구 나 강 룡 의 자 랑 우 리 의 사 랑 이 여 기 에 - 있 네

1978년 대중가요를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강릉 명승지를 그린 노래

반공소년 이승복의 노래

조금느리게

김 병 옥 작사
정 세 문 작곡



원 수 의 총 칼 앞 에 피 를 흘 리 며
어 린 녀 잤 든 곳 에 겨 레 가 운 다



마 지 막 주 고 간 말 공 산 당 은 싫 어 요
앞 드 려 절 한 마 음 눈 - - 물 이 솟 네



구 름 도 망 설 이 - 는 운 두 령 고 개
바 람 도 길 멈 추 - 고 어 루 만 지 니



새 우 는 오 솔 길 을 산 새 가 운 다
하 늘 이 성 이 났 을 오 략 캐 을 아

1968년 11월 2일 울진, 삼척지구 무장간첩 침투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한 이승복군의 반공정신을 기려 1972년 제정

뽕따는 평창아가씨

손 석 작사
김 강 섭 작곡

빠르게

동향 백기름이 - 머리에 - 다
- 땀은 머 - 리

- 무명치마 걸 - 쳐 입 - 고 - 강 - 원 도 -
- 붉은 댕기 곱 - 게 매 - 고 - 강 - 원 도 -

라 - 평 - 창 땅 에 뽕 을 따 는 아 - 가 -
라 - 평 - 창 땅 에 뽕 을 따 는 아 - 가 -

씨 - 나 무 하 리 가 - 는 - 총 각
씨 - 금 - 바 위 옥 - 수 - 수 발

뒷 모습 만 보 - 아 - 도 슬며시 미 소 지 며
총 - 각 만 보 - 아 - 도 공 연 히 수줍 어서

얼 굴 - 붉 히 - 는 아 가 씨 고 운 불 -
가 숨 - 설 레 - 는 아 가 씨 고 운 불 -

에 꽃 물 - 이 이 드 - - - 네 -
에 꽃 물 - 이 이 드 - - - 네 -

박경원 전 강원도지사가 평창군이 산지상전조성 최우수군으로 선정된것을 기념
하기 위해 만든노래

사임당의 노래

적당히 빠르게

이 은 상 작사
김 동 진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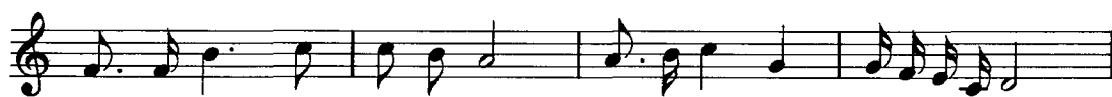
고운 모습 흰백합에 비기오리까



맑은지혜 가을달에 비기오-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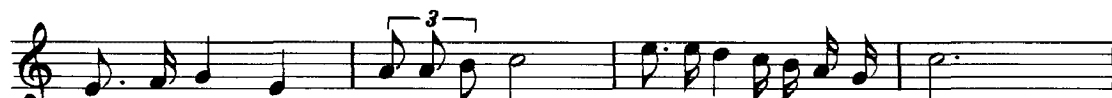
사임당 그이-름 귀하-신 이름



뛰어난 학문 예술- 높은덕을 갖-추신이여



어찌올곡선-생 어머님만 이오리까



역사위에 길이사실 겨레의어머니의 다



겨레의 어머니의 다

1975년 사임당얼 시상때 사임당의 고귀한 정신을 그려 제정

설악산 메아리

김영인 작사
고봉산 작곡



흰 - 구름 덮은 설악산 으 로그-대 와 손 잡 고
- 제봉 으 로 마능령 으 로 즐-거 운 하 이 킹



휘 - 파 람 을 불 면 서 하 - 이 - 킹 가 - 자
- 노 래 도 흥 겹 게 설 - 악 - 산 가 - 자



진 - 달 래 철 쪽 과 - 우 리 들 을 부 른 다 -
에 - 델 - 봐 이 스 가 - 우 리 들 을 부 른 다 -



레이 레 이 - 유 레이 레 이 - 유 레 이 레 이 레 이 호
레이 레 이 - 유 레이 레 이 - 유 레 이 레 이 레 이 호



산 메 아 리 들 러 온 다 - 사 랑 노 래 들 린 다
산 새 들 이 노 래 한 다 - 흰 구름 이 떠 있 다



시 원 한 폭 포 수 가 노 래 를 합 창 하 면 오 색 의 무 지 개 핀 다
금 강 산 찾 아 가 자 설 악 산 봉 우 리 된 전 설 의 울 산 바 위 로



그 대 와 손 을 잡 고 설 악 산 찾 아 가 는 즐 거 운 청 춘 하 이 킹
발 걸 음 가 버 읊 게 비 선 대 찾 아 가 는 즐 거 운 청 춘 하 이 킹

설악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1970년 제정

소양강 처녀

반야월 작사
이호 작곡
김태희 노래

해 저 - 문 소 - 양 강 - 에 황 혼

이 지 - - 면 - 외 로 - 운

갈 대 - 발 - 에 슬 피 우 는 - 두 - 견 새 야 -

열 여 똥 딸 기 같 은 어 린 내 순 정 너 마 저

몰 라 - 주 면 나 는 나 는 어 - 켜 나 아 - 그 리 워 서

애 - 만 태 - 우 는 소 양 - - - - 강 처 - - - - 너 -

1972년도 춘천댐사공 노래이후 소양강이 담수되면서 소양강을 배경으로 제정
(72~74유행)

속초에 심은 사랑

김영인 작사
고봉준 작곡
하준화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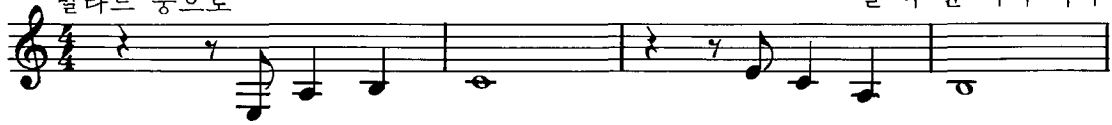


송지호 연가

GoGo

발라드 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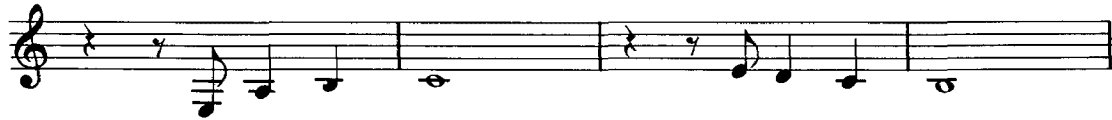
길 옥 윤 작사·작곡



1. 봄 이 오 면 꼭 온 다 던
2. 떠 난 다 고 아 주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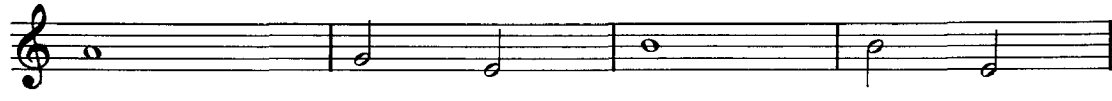
그 사람 은 왜 안 - 올 - 까
가 버 린 들 을 - 건 - 가



동 해 바 다 푸 른 물 결
그 령 계 도 애 태 무 며



그 리 운 내 님 이 여 - 송
해 어 운 진 내 님 이 여 - 송



지 호 찾 아 온 백



조 야 너 도 떠 나 나 - 이 마



음 - 전 해 다 오 - 사



랑 하 고 있 다 고 -

Fine

맑고 깨끗한 호수와 푸른 동해바다의 아름다움을 1982년 송지호해수욕장 개장시 제정

새강원 행진곡

썩썩하게 *f* 이 은 상 작사
김 동 진 작곡

동 해 의 산과바다 고 을 고 을 이 웃 음 과 회 망 에 찬 생 활 의 무 대
고 난 과 시 련 에 서 일 어 선 우 리 번 영 을 다 집 하 는 보 람 찬 대 열

성 실 과 근 먼 속 에 행 복 이 있 다 불 리 자 우 리 살 림 설 우 리 손 으 로
역 사 를 창 조 하 는 역 센 힘 이 다 문 화 의 낙 토 건 설 우 리 손 으 로

mf 겨 레 와 사 랑 으 로 한 데 뭉 쳤 다

땀 흘 려 새 - 강 원 새 모 습 짓 자

f 새 시 대 개 척 하 는 복 지 의 행 진 새 시 대 개 척 하 는 복 지 의 행 진 내 *ff*

고 장 내 조 국 새 모 습 짓 자

도민의 애향심과 새삶의 개척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1969년 제정

아름다운 땅

박건호 작사
이범희 작곡
딱다구리 노래



가 자 - 동 해 바 다로 - 푸 른 물 이 굽 이 치 는 곳 - 떠 오
가 자 - 수 물 속 에서 - 산 새 들 이 노 래 하 는 곳 - 태 고



른 적 태 양 람 이 우 리 들 을 부 른 다 -
른 적 태 바 람 이 우 리 마 음 씻 는 다 -



보 라 - 관 동 팔 경 을 - 대 자 연 의 꿈 이 있 는 곳 - 설 악
보 라 - 산 의 고 - 향 - 물 의 고 향 바 다 의 고 향 - 자연



산 의 오 대 산 치 악 산 이 부 른 다 -
산 의 신 비 가 마 을 마 다 흐 른 다 -



여 기 는 강 원 도 아 름 - 다 운 땅 -



나 무 한 그 루 풀 한 포 기 에 도 인 정 이 넘 치 고 -



사 계 절 언 제 나 살 기 - 좋 은 땅 -



한 반 - 도 의 아 침 - 이 여 기 - 있 노 래 -

강원도를 찬미하는 부르기 쉽고 흥겨운 노래를 도민의 명량한 화합과 분위기를 조성코자 1985년 제정

아리랑 강릉

김영인 작사
고봉산 작곡



하늘에 닿았느냐 - 대관령고개 아흔아홉
울면서 찾아왔다 - 웃으며 가는 인심 - 좋 고



구비 - 돌아 - 강릉 - 이 - 라 - 네 아 - 리랑 - 백사장에
살기 - 좋은 - 강릉 - 이 - 라 - 네 아 - 리랑 - 가락 속에



해당화 피고 스 - 리랑 - 남대천에 전설 - 이 - 피 -
신선 - 이 놀고 스 - 리랑 - 뜨는 달은 경포 - 대 - 자 -



는 아리랑쓰리랑 아라 - 리요 - 살기 좋은 내 - 고 - 향은 -
랑 아리랑쓰리랑 아라 - 리요 - 살기 좋은 내 - 고 - 향은 -



아 리 랑 쓰 - 리 랑 강 - 릉 - - 이 - 라 - 네
아 리 랑 쓰 - 리 랑 강 - 릉 - - 이 - 라 - 네

1978년 대중가요를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대관령 아흔아홉 구비를 내려
오면서 살기좋은 강릉을 노래

양양팔경가

최용대 작사
김병소 작곡



산 좋 고 물 맑 은 양 - 양 - 이 라 네
살기 좋 고 새 좋 은 양 - 양 - 이 라 네



우 리 자 랑 은 팔 - 경 - 이 라 네
우 리 자 랑 은 팔 팔 - 경 - 이 라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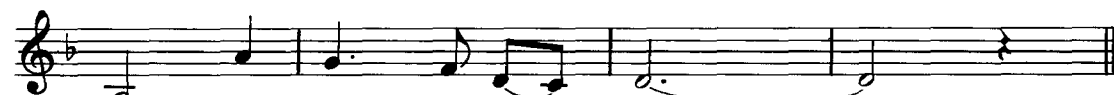
앞 에 는 동 해 안 뒤 에 는 설 - 악 - 산
밤 에 는 하 조 대 북 쪽 언 - 운 - 봉 - 산



해 안 을 끼 고 도 는 낙 - 산 - 사 로 다
청 간 정 바 라 보 는 의 - 상 - 대 로 다



(후렴)에 해 에 - 좋 구 좋 - 다



팔 경 이 로 구 - 나

췌음 아리랑



(후렴) 아 리-- 랑 아 리-- 랑 아 라 --- 리 ----



요 - - - - - 아 리--- 랑 고 개 고 개-- 로 ---



나 를 넘 겨 - - 주 - - - - - 게 - - - - -



우리 집 의 서방님 은 잘났던 지 못났던 지 얹어 메고 췌어 메고 장치 다리 곱배 팔이 는 가 지



나무 개 위 에 다 엮 전 석 냥 절 머 지 고 강 룡 삼 척 --- 에 소 금 사 러 - 가 셴 는 -



데 - - - - - 백 - 봉 --- 령 구 비 --- 구 --- 비 ---



부 디 잘 다 - 녀 오 세 - - - - - 요 - - - - -



당신이 날 마 다 고 울 치고 담 치고 열 무 김 치 소 금 치 고 오 이 김 치 초 치 고



칼로 물 친 --- 듯 이 뚝 떠 나 --- 가 더 --- 나 - - - - -



평 창 팔 십 - - 리 다 못 - - 가 고 - - 서 - - -



왜 되 도 라 - - 왔 - - - 나 - - - - -



정 선 읊 내 물 레 방 아 는 사 시 장 철 물 살 을 안 고 빙 굴 빙 굴 도 는 데



우리 집 --- 의 저 멍 텅 구 --- 리 --- 는 - - - - -



날 - 안 - - - 고 돌 - - - 줄 - - - 을 - - -



왜 - 물 - - - 으 - - - 나 - - - - -

울곡의 노래

이 은 상 작사
김 동 진 작곡

천천히 장엄하게

해 돈 는 동 해 의 나 라 애 국 의 오 랜 옛 터 에

큰 인 물 태 어 나 시 니 겨 레 의 스 승 이 시 네

눈 부 신 학 문 의 탑 이 동 방 에 우 뚝 솟 았 고

거 룩 한 구 국 의 정 신 천 추 에 남 아 빛 나 네

오 - 울 곡 선 생 그 이 름 높 이 외 우 리

오 - 울 곡 선 생 그 마 음 길 이 받 드 리

1963년 제 2 회 울곡제를 맞아 울곡선생의 구국 정신을 그려 제정

정선 아리랑



(후렴) 아 리 랑 아 리 랑 아 라 리



요 아 리 랑 고 개 고 개 로



나 를 넘 거 주 게 눈 이 오 려 나
정 명 사 십 리 가
선 읍 음 - 내



비 가 올 러 나 억 수 장 마 - 질 러
아 니 백 오 면 은 해 당 화 는 - 왜
일 백 오 십 호 몽 땅 짐 드 려
놓 고



나 나 만 - 수 - 산 검 은 구 름 이
서 모 를 일 이 이 니 님 구 름 이
이 이 이 이 맛 며 누 리 데 리 은
고



막 두 여 든 다
섬 견 새 는 왜 나
마 마 령 을 녀 우 가



아 오 라 지 뱃 사 공 아 배 줌 건 네 주 -
오 라 바 지 장 - 가 는 명 좁 에 나 가
간 - 다 못 간 지 얼 마 나 을 가
시



게 - - - - - 싸 - 리 - - - - - 골 - - - - - 울 - 동 - 백 - - - - - 이 - -
 고 - - - - - 짐 - 동 - 송 - 아 - - - - - 지 - - - - - 록 - 록 - 팔 - 아 - - - - - 서 - -
 나 - - - - - 송 - 정 - - - - - 암 - 나 - 루 - 터 - - - - - 가 - -



다 - - - - - 진 - - - - - 다 - - - - - 떨 - - - - - 어 - - - - - 진
 날 - 시 - - - - - 집 - 보 - 내 - - - - - 주 - - - - - 저 - - - - - 건 - - - - - 너
 한 - 강 - 수 - 가 - - - - - 되 - 었 - - - - - 네 - - - - - 앞 - - - - - 남 - - - - - 산



동 - - - - - 백 - - - - - 은 - - - - - 낙 - 엽 - 에 - 나 - - - - - 쌓 - 이 - -
 록 - - - - - 발 - - - - - 은 - - - - - 작 - 년 - 에 - 도 - - - - - 록 - 더 - -
 배 - - - - - 기 - - - - - 는 - - - - - 초 - 상 - 도 - - - - - 종 - - - - -



지 - - - - - 사 - 시 - - - - - 장 - - - - - 철 - -
 니 - - - - - 을 - - - - - 해 - - - - - 도 - -
 다 - - - - - 세 - - - - - 살 - - - - - 짝 - -



임 - 그 - 리 - 위 - - - - - 서 - - - - - 나 - 는 - 못 - 살 - - - - - 겠 - - - - - 네 - - - -
 날 - 과 - 갈 - - - - - 이 - - - - - 또 - 한 - 해 - - - - - 록 - - - - - 네 - - - -
 든 - 던 - 목 - 소 - 리 - - - - - 변 - 치 - 도 - - - - - 았 - - - - - 네 - - - -

이조 초기에 당시 고려 왕조를 섬기며 벼슬하던 분중에 불사이군의 충절을 다
 질하면서 송도에서 은신하다 정선군 남면으로 은거지를 옮겨 일생 동안 옛날
 모시던 임금님을 사모하며 고향에 두고온 가족과 고향을 채미하며 수절 하는
 외롭고 고달픈 심정을 읊은것이 시원(강원도무형문화제 1호)

평창아리랑



한 치 뒷 산 에	두 치 곤 두 레	사 랑 의 맛 만 같 으 면	
가 구 랑 가 에	포 림 포 림 지	나 일 자 고 하 더 니	
오늘 갈 려 지	내 일 갈 려 지	수 중 망 없 는 데	
영 일 은	덕 개 가 있 어 도	출 기 만 하 고	
신 동 면	운 치 리 로	말 주 지 말 어 라	



병 - 자 - 년	홍 년 에	도 - - -	봄 살 아 - 나 - -	지 - - - (5 회 반복)
산 - 천 초 목 이	어 우 러	도 - - -	날 가 잔 말 - - -	네 - - -
맨 드 라 - 미	줄 복 송 아 - 는	- - -	왜 - 심 었 - -	나 - - -
평 - 창	약 수 가 있 어 도	- - -	사 랑 만 - -	네 - - -
아 침 담 배 순	저 녀 설 - 이	- - -	잔 허 리 - 다	격 - 네 - - -

좀 빠르게



니 팔자나 내 팔자나 이불 담요 깔고 덮고 셋별 같은 늦요강을 발채만치 던져 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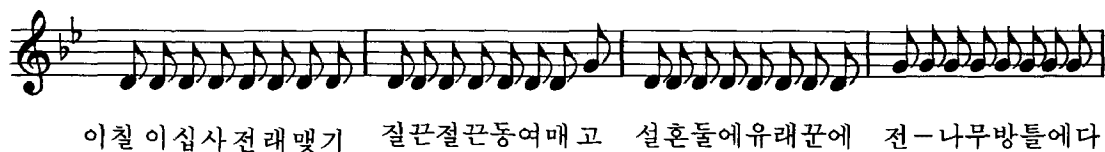
원앙금침 잡비개는 머리말에 던져 놓고 은젓같은 젓을 쥐고 권립같은 세를 물고
(혀)



두몸이 한몸이 되어 잠자 보기는 호초 강산에 일 다 글렀 으 - -



니 - - - 마틀 마 - 틀 장 석 자 리 에 - - 깊은 정 들 - -



구전으로 전래되어 오는 가난한 화전민의 회한과 앞날의 희망을 기리는 노래
(지금도 많은 군민이 구성지게 애창하고 있음)

한서의 노래

한수작사
한수작곡

Andantino (느리지않게)



태 백 산 맥 정 기 어 린 유 리 봉 위 에



구 국 의 햇 불 드 신 겨 레 의 스 승



한 평생을 나라사랑 몸 바치시 - 어



잠 자 던 겨 레 닛 을 일 깨 우 셴 네



(후렴)그 - 이 름 길 이 빛 날 남 공 역 선 - 생



무궁화이강산을지켜주소서

2. 무궁화 피고지고 독립정신은
 님의넋 길이새길 생활의 등-불
 한결같은 나라사랑 내조국위-해
 보리울 새정신이 퍼져가도다

독립운동가인 한서 남궁 역 선생의 뜻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동상과 묘역을 성역화하고 추모제인 한서제에 부르고자 1976년 제정

황병산 사냥놀이



1. 어 화 우 리 벗 님 네 - 야 이 내 말 을 들 어 보 - 소
 눈 이 많 이 내 렸 으 - 니 산 짐 승이 나 잡으려 가 - 세
 너 도 가 고 나 도 가 - 세 손 에 손 에 창 을 들 - 고
 이 산 저 산 살 피 면 - 서 황 병 산 에 울 라 가 - 세

2. 산돼지 란 놈 한 마 리 - 가 사 람 보 고 도 망 치 - 네
 사 냥 꾀 들 거 동 보 - 소 3 3 5 5 짝 을 지 - 어
 이 리 몰 고 저 리 몰 - 아 돼 지 한마리 잡 았 으 - 니
 마 을 로 - 내 려 가 - 서 풍 년 고 사 을 려 보 - 세

3. 이 마 을 도 풍 년 이 - 요 저 마 을 도 풍 년 드 - 니
 마 을 사 람 뜻 을 모 - 아 풍 년 가 나 불 러 보 - 세
 에 화 얼렷터 상 사 디 - 야 에 화 얼렷터 상 사 디 - 야

(매절후렴)

(제창)



에	화	얼	렷	터	상	사	디	야
에	화	얼	렷	터	상	사	디	야
에	화	얼	렷	터	상	사	디	야
에	화	얼	렷	터	상	사	디	야
에	화	얼	렷	터	상	사	디	야
에	화	얼	렷	터	상	사	디	야
에	화	얼	렷	터	상	사	디	야
에	화	얼	렷	터	상	사	디	야
에	화	얼	렷	터	상	사	디	야

옛부터 대관령 고산지대 주민이 겨울철 농한기 생계 및 소일수단으로 전래되
 어 오는 산짐승 사냥놀이를 묘사한 노래

충북 찬가

서 문 석 작사
최 창 권 작곡

즐겁고 슬기롭게



산 좋고 물 맑아 그 림 같 은 곳
백 목련 까 치 소리 꿈 속 의 고 향



마을 마 다 후 한 인 심 정 도 깊 어 라
마을 마 다 미 풍 양 속 슬 기 있 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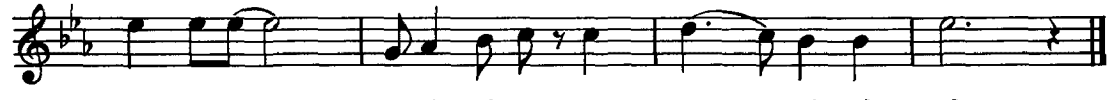
점 잡 은 풍 모 속 에 예 절 바 르 고
순 박 한 근 면 속 에 윤 기 흐 르 고



정 의 의 강 한 기 백 이 땅 지 켜 네 아
해 맑 은 마 음 들 엔 예 기 서 리 네 아



충 청 북 도 역 사 의 고 장
충 청 북 도 예 술 의 고 장



힘 모 아 복 지 낙 원 가 꾸 며 산 다
힘 모 아 문 화 낙 원 가 꾸 며 산 다

'86년 도민한마음운동의 일환으로 충청일보, KBS, MBC가 주관하여 공모 선택한 노래로, 인정과 슬기가 넘치는 도민을 상징하며 충북인의 긍지와 애향심이 담긴 생동감있는 가요풍의 노래이다.

충북학생의 노래

보통 빠르기 육진성 작사
정세문 작곡

mf

맑아 고름답 은 우 리 기 상 찬 충 북 의 자 랑 에

조 빛 상 난 의 슬 기 받 은 젊 은 우 리 들

f

이 나 라 이 겨 레 의 소 망 을 모 아 해

mf

알 - 뜰 히 갈 고 닦 아 고 장 빛 내 리
몸 과 마 음 불 태 - 워 나 라 밝 히 리

f (후렴)

우 리 는 자 랑 스 런 충 북 의 학 생 내 일

f

을 창 조 하 는 보 람 - 에 산 다

충북 학생들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충북교육위원회에서 1974년에 제정 보급한 곡이다.

우리 속리산

경쾌하고 명랑하게 이 은 상 작사
김 동 진 작곡

막 산 관 대 과 음 름 물 동 던 바 길 저 라 은 짚 보 굴 고 면 에 찾 열 해 아 리 는 드 는 저 문 곳 습 데 속 입 보 리 석 현 산 에 재

법 주 사 야 미 룩 의 도 장 은 폭 동 물 소 리
마 주 서 면 우 땃 으 한 기 개 입 장 군 엇 터 에
허 위 허 위 녀 녀 내 려 와 복 천 에 마 른 목

에 서 을 가 새 주 벼 기 긴 운 운 그 결 열 대 음 어 로 천 달 영 왕 려 산 봉 라 을 구 울 가 름 라 습 안 서 속 개 라 에 헤 문 품 치 장 고 고 대 간 섰 위 다

네 에 네 장 보 꽃 하 아 피 다 라 고 소 금 단 백 강 풍 산 한 들 맥 강 고 빨 나 눈 어 동 이 내 강 내 려 물 리 와 이 고

높 근 언 이 원 제 도 은 나 솟 모 그 아 두 림 오 여 갈 른 기 은 우 우 리 속 속 리 리 리 산 산 장 보 꽃 하 아 피 다 라 고 소 금 단 백 강 풍

산 한 들 맥 강 고 빨 나 눈 어 동 이 내 강 내 려 물 리 와 이 고 높 근 언 이 원 제 도 은 나 솟 모 그 아 두 림 오 여 갈 른 기 은 우 우 리 속 속 리 리 리 산 산

도심의 혼잡스런 생활에서 벗어나 속리산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속리산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범주사의 문화유산을 찬양한 곡으로, 리듬이 경쾌하고 명랑하여 모두가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내고향 청주

박 병 두 작사
박 병 두 작곡

Moderato
mf

울창한 가로를 동굴길 지나면 아름다운
충효와 예절 수 천년 만 년 지켜 온 백의

mp

다운전원도시 내고향청주로 다거리
민족총절도시 내고향청주로 다뿌리

mf

마교단집집마다 꽃동산이루고순박
은양반정신 몸가집바르고다정

mf

한내형제들이 - 흥을 못 한미소짓네
내내형제들이 - 즐겹게살고있네

내륙의 문화도시이며 충효의 고장인 청주의 전통을 길이길이 보존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자는 뜻의 곡으로 짙은 향수를 느끼게하는 노래이다.

탄금대

이 은 상 작사
김 동 진 작곡

Andante can spirito

p

외로운 악성 우룩 - 가얏고 당겨 안고 -

고국 정한 - - - 을 - - - 열 두 줄에 올릴 -

적에 - 심장에 피끓는 소리 도 섞여

들었으 - 리 - 다 승패를 - 묻지 마

오 신 장 군 - 그 죽음을 몸이

야 - - 천 길 절벽에 - 솟구쳐 떨어져

p

도 그 녀은 - 만고에 남아 - 울며



외 - 치 오 - 리 다 그 녀 은 - 만 고 예

남 아 - 울 며 울 며 외 - - 치 오 리 다 -

임진왜란때 호국혼을 불사른 신립장군의 유적지이며 수많은 왜군과 최후까지
고군분투하다 장렬히 전사한 장군의 충절과 위업을 기리며 악성 우륙의 가야
금 탄주에 한을 달래보고자 한 노래임

무심천

Adagletto calmato

이 은 상 작사
오 동 일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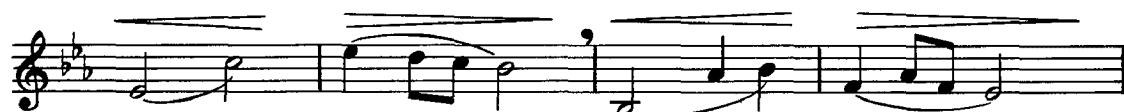
아득히 보 이 는 — — 한 벌을 헤 치 며 — 흐르는 물 소 — 리



— 무심도 하 — 여 — 라 — 지나던 옛 이 — 가 — 냇물을 따 — 르



며 — 심 중 의 속 란 — 을 — 덜고 또 덜 어 라



아 아 무심 — 천 아 아 — 무심 — 천



흐 르는 길 굽 이 — 굽이 길 은 멀 어 — 도



세 상 사 모 르 — 는 듯 흘 러 만 가 — 누 나

청주지역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무심천 냇물같이 미래를 향한 영원한 발전을 기약하는 노래이다.

보은 대추타령

최승욱 작사
김하경 작곡



울 해도 대 풍 년 대 추 가 풍 년

이 마 을 저 마 을 대 추 가 풍 풍 년
우 리 집 이 웃 집 웃 음 이 풍 풍 년

맛 좋은 대 추 요 보 은 의 명 물

시 장 집 가 갈 갈 노 처 녀 마 음 도 = 풍 풍 년
장 가 갈 갈 노 총 각 마 음 도 = 풍 풍 년

얼 씨 구 좋 구 나 대 추 가 풍 년

바 람 아 자- 거 라 대 추 떨 어 질 라
새 들 아 조 심 해 라 대 추 떨 어 질 라

노 처 녀 시 장 집 갈 밀 천 이 란 다
노 총 각 장 가 갈 밀 천 이 란 다

대 추 알 떨 어 질 까 마 음 만 탄 다

보은의 특산물인 대추의 풍년을 혼기를 앞둔 처녀(총각)들의 바람으로 비유한 민요풍의 곡으로 매우 차분한 느낌을 준다.

속리산 오솔길

정감넘치게

김 후 란 작사
김 대 현 작곡



꿈길 같 이 - 찾 아 드 니 구 름 - 속 인 가
안 개 서 름 - 숲 을 따 라 문 장 대 오 르 면



첩 첩 - 산 깊 은 - 골 물 소 리 만 흐 르 는 - 데
천 하 - 가 발 아 - 래 빛 이 있 고 사 랑 있 - 어



세 상 근 심 다 버 리 고 신 선 되 라 속 - 리 산
법 - 주 사 미 록 - 불 백 팔 번 뇌 췌 어 주 네



굽 이 굽 이 열 두 고 개 말 티 고 개 넘 어 서 니



속 리 - 산 오 솔 - 길 솔 바 람 이 시원 하 구 나

속리산의 문턱인 말티고개와 모든 자연경관 문화유산이 계곡주변을 흐르는 맑은물 오솔길과 한데 어울려져 있음을 구름속의 신비로운 절경으로 비유한 노래로 곡이 매우 부드럽고 정감이 넘쳐흐름

속리축전의 노래

이 은 상 작사
박 진 작곡



속 리 산 정 기 받 - 아 태 어 난 - 우 - 리 통
정 의 와 학 - 문 - 은 우 리 의 - 전 - 통



내 조 고 장 문 화 유 - 산 내 가 - 가 - 꾸 - 고
상 의 빛 - 난 - 열 것 들 - 어 - 있 - 네



마 주 잡 은 손 - 길 마 다 따 뜻 - 한 - 사 - 랑
마 을 마 다 녘 - 치 - 는 새 로 - 운 - 회 - 망



새 - 마 음 새 - 살 림 에 새 힘 - 이 - 솟 네
새 - 문 화 창 조 하 - 세 우리 - 힘 - 으 로



알 차 게 슬 기 록 게 한 데 뭉 치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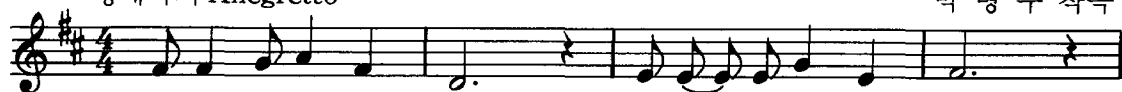
번 영 을 기 약 하 는 속 리 의 축 - 전

1977년 육인수 국회의원이 지역문화행사를 제의하여 당시 보은문화원장 김 홍락의 지역인사들이 뜻을 모아 군민축제곡으로 만든 노래로, 곡 전체가 활기에 차있고 조국의 번영과 새문화 새역사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자연 사랑 고운 마음

경쾌하게 Allegretto

박 병 두 작사
박 병 두 작곡



우 암 산 숲 속 엔 산 새 들 이 노닐 고
상 당 성 밑 에 는 약 수 - 가 흐 르 고



무 심 천 물 속 엔 충 사 리 떼 자 란 다
미 호 천 물 가 엔 철 새 들 이 모 인 다



가 꾸 자 보 호 하 자 아 름 다 운 강 산 을
가 꾸 자 보 호 하 자 날 아 드 는 철 새 을



맑 은 시 내 푸 른 산 은 우 리 고 장 자 랑 이 다
자 연 사 랑 고 운 마 음 우 리 들 의 자 랑 이 다

무심천, 우암산, 미호천, 상당산성등 청주의 상징과 주요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곡으로 날로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자는 뜻에서 작곡한 노래임

추 풍 령

전 백 성 작사
백 영 호 작곡

Trot

구름도 자고--가 는 바람도 쉬어가
구름도 자고--가 는 바람도 쉬어가

는 추풍령 구름도 자고--가 는 바람도 쉬어가

한 많은 은사--연길-- 흘러간 그 세월이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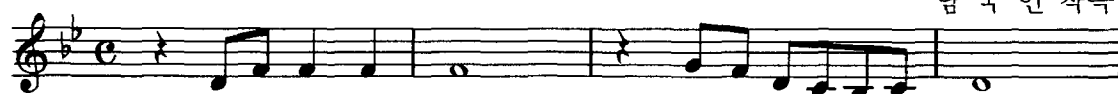
모---습호렸 구---나 추풍--

령고--개-- 개--

충북 최남단에 위치한 추풍령을 노래한 곡으로 애국충절의 의미가 서려있기도 한 이 노래는 고향의 정취가 물씬나는 대중가요로 국민모두가 즐겨부르는 노래이다.

진천 아가씨

이 동 원 작사
남 국 인 작곡



산 수 좋 - 고 인 심 좋 - - 아
굽 이 굽 - 계 곡 마 - - 다



살 기 좋 은 - 진 천 고 을 에
물 도 맑 은 - 진 천 고 을 에



꿈 을 먹 - 고 곶 계 자 - 란
약 수 먹 - 고 곶 계 자 - 란



달 - 갈 은 아 가 - 씨
꽃 - 갈 은 아 가 - 씨



꽃 두 바 - 람 상 불 어 오 - 면
두 태 - 람 상 불 어 오 - 면



가 동 습 근 설 달 레 - - 어
동 습 근 설 달 레 - - 면



자 나 깨 나 그 리 - 운 님 남 모 르 게 그 려 보 다
꿈 을 안 고 떠 나 - 가 신 그 리 운 님 생 각 하 다



부 부 러 위 - 돌 아 - 서 는
부 부 러 위 - 돌 아 - 서 는



돌 아 서 는 진 천 아 - 가 씨
돌 아 서 는 진 천 아 - 가 씨

산수 좋고 인심 좋은 “생거진천”의 고장인 진천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대내외에 과시하는 민요조의 곡으로 순진한 시골아가씨의 아름다움이 출향인들로 하여금 그윽한 향수를 느끼게하는 노래이다.

울고 넘는 박달재

반야월 작사
김교성 작곡

천둥 산 - 박달재 - 를 울고 넘는
부엉이 - 우는 산 - 물 나를 두 고

우 리 임 - 아 물 - 향 - 라
가 는 임 - 아 돌 - 아 - 올

저 고 - 리 - 가 국 은 비 에 젖 - - 는 구 - 려 -
기 약 - 이 - 나 성 황 남 계 빌 - - 고 가 - 소 -

왕 거 미 집 을 - - 짓 - 는 고 개 마 다 구 - - 비 마
도 토 리 목 을 - - 싸 - 서 허 리 춤 에 달 - - 아 주

다 - - 울 - - 었 오 소 리 는 첫 - -
며 - - 한 - - 사 코 우 는 구 - -

오 나 이 가 숨 의 터 - 지 - 도 - 록
나 박 달 재 의 금 - 봉 - 이 - 야

조선중엽 경상도의 젊은선비 박달이 과거보러 가는길에 평동마을 “금봉” 이라는 아가씨와의 애틋한 사랑이야기에 연유하여 박달재라고 불리우며 이것을 주제로 울고넘는 박달재를 작곡하였음

월 악 산

이 중 학 작사
백 봉 작곡

월 악 산 — 난 간 머 — 리 길
금 강 산 — 천 리 먼 — 길

회 — 미 한 저 — 달 — — 아 — 천년사 직
홀러가 는 저 — 구 — 림 — — 아 — 마의태자

한 이 서 — 린 일 천 삼 — — 백 리 연 너 는 —
덕 주 공 — 주 한 많 은 — — 사 연 너 는 —

아 — 느 — 나 — 아바마 마 그 리 — 움 을
아 — 느 — 나 — 하 늘 도 부 끄 — 러 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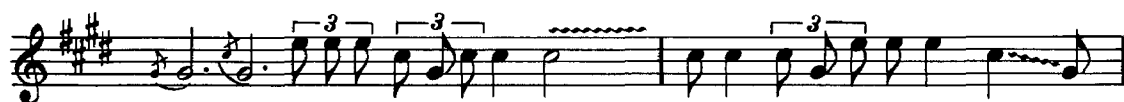
마애불 에 심 어 놓 고 떠 나 신 우 리 임 — 을
집 신 에 — 샅 갓 쓰 고 결 어 온 하 늘 채 — 을

월 악 산 아 월 악 산 아 — 말 좀 해 — — 다 —
월 악 산 아 월 악 산 아 — 말 좀 해 — — 다 —

오 그 님 의 소 — 식 — 을 — — —

이 지역 출신 작곡가 백봉씨가 가요를 통해서 고장의 명소인 월악산을 널리 알리려고 작곡. 월악산에는 덕주산성과 마애불등이 있는데 이곳에서 신라말 경순왕이 덕주공주 마의태자와 망국의 한을 달랬다는 전설이 있어 이를 가사소재로 하였음

짐배 노래



영월에영춘에 흐르고 내리는 물은 도담삼봉안고 돌고
영월에영춘에 흐르고 내리는 물은 도담삼봉안고 돌고



도담삼봉에 흐르는 물은 만학천-봉안고 돌네
도담삼봉에 흐르는 물은 만학천-봉안고 돌네



만학천봉에 흐르는 물은 옥순봉-을안고 돌고
만학천봉에 흐르는 물은 옥순봉-을안고 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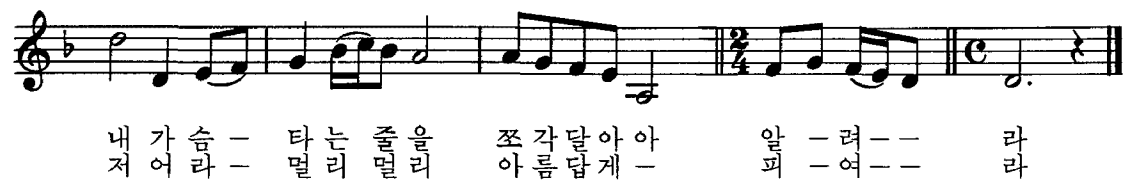


옥순봉에- 흐르는 물은 훌러훌러 잘도가네
옥순봉에- 흐르는 물은 훌러훌러 잘도가네

남한강의 발원지인 강원도 정선에서 단양을 거쳐 서울의 광나루 사이를 운항 하던 짐배(짐신는배)의 선원들이 부르던 노래로 강을 끼고 펼쳐있는 단양팔경의 절경과 시절의 태평함을 표현한 노래임

곰 나 루

이 동 춘 작사
이 동 춘 작곡
문 동 원 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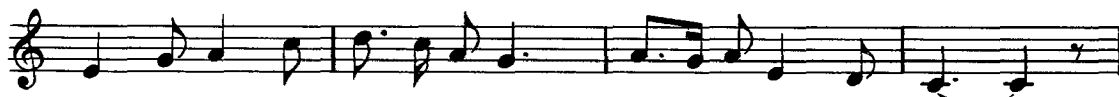
전설어린 곰나루와 유서깊은 금강을 노래한 곡

금산인삼의 노래

김 신 향 권 작곡
신 창 교 편곡



볼해 — — 여 — 를, 갈 겨 을 띠 흘 — 린 보 람 —
— — 마 — 다, 좋 아 지 는 우 리 의 인 삼 —



산내 — — — — —
과살 들림 — — — — —
마나 을라 다림 — — — — —
마살 — — — — —
웃을 — — — — —
음어 꽃만 — — — — —
피가 — — — — —
네네 — — — — —



은 — 나 라 사 람 들 이 즐 — 겨 하 면 서 —
바 다 건 녀 하 할 말 연 나 라 까 지 —



— 다산 득금 꿀물 을이 손그 라는 이가 일— 제쁜 의림 중처 삼해



늘 지 않고 젊 어 지 는 힘 이 솟 는 다 -



금 - 산 - 의 인 - 삼 을 노 - - 래 부 르 자 -

금산 인삼을 선양하는 노래

금 산 풍 경

김 원 휘 작사
주 성 민 작곡

홍접게

인 삼 --- 꽃 향 기 --- 좋 은 내 고 ---
아 득 --- 한 전 설 --- 안 고 호 르 ---

장 금 산 --- 은 진 삼 악 --- 산
는 금 강 --- 은 삼 내 --- 음

우 뚝 --- 솟 아 기 상 을 --- 일 깨 우 --- 고 ---
젓 어 --- 들 어 가 람 도 --- 으 뜸 인 --- 데 ---

천 년 에 금 강 --- 홀 러 세 월 소 리 는 맑 --- 은 ---
한 절 의 빼 --- 국 --- 소 리 풍 년 비 는 가 --- 락 인

데 --- 충 절 의 칠 백 --- 의 총 --- 충 절 의
가 --- 진 악 산 정 기 --- 내 려 려 진 악 산

칠 백 --- 의 총 두 루 보 는 저 길 --- 손 --- 아 ---
정 기 --- 내 려 만 년 향 의 인 삼 --- 꽃 --- 은 ---

가 --- 는 길 --- 재 축 --- 말 고 금 산 풍 경 새 겨 --- 가 소
이 --- 강 산 --- 좋 을 --- 시 고 금 산 명 물 자 랑 --- 일 세

금 산 풍 경 새 겨 --- 가 --- 소 ---
금 산 명 물 자 랑 --- 일 --- 세 ---

1985년도 제 5 회 인삼제에 초청된 출향인사 주성민(작곡가)씨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곡을 만들어 녹음테이프 500개를 제작 금산군에 기증 보급한 노래

꿈꾸는 백마강

김 용 호 작사
임 근 식 작곡

백 마 강 달 - 밤 - 에 - 물 새 -
가 울 - - - 어 - 잊 어 - 버 - 린 -
옛 날 - - - 이 - 애 달 - 프 고 - - - 나
- 저 어 - - 라 - 사 공 - 아
일 엽 - 편 주 - 두 둥 - - - 실 - 낙 화 - 암
- 그 늘 - 에 울 어 나 - 보 - - - 자 -

2. 고란사 종소리 사무친 옛날
구곡간장 울울이 찢어지누나
누구라 알리오 백마강 탄식을
깨어진 달빛만 옛날 갈구려

1942년 O.K레코트사에서 출판하여 히트한 노래. 백마강과 고란사를 바라보며 옛날을 회상하는 노래

낙화암 노래

명상적 이광수 작사
홍난파 작곡

사자수 나 리--는--물 에 석-- 양 이 빛 길 제 --

버 들 꽃 날 리 는 -- 데 낙-- 화 암 이--란 다 --

모 르 는 아 이 들 -- 은 피 리 만 불 건 만

맘 있 -- 는 나 그 네 의 창 자--를 꿇 노 라

낙 -- 화 암 낙 화 암 왜 말 이 없 -- 느 나 --

백제 멸망과 삼천궁녀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노래

논산들에 풍년이왔네

김명환 작사
김명환 작곡

(홍겨웁게)



1.2. 풍 년 이 왔 네 풍 년 이 왔 네 풍 년 이 왔 어



풍년이 왔어 1. 논산상월관촉들-에 풍년이 왔네
2. 연산상벌곡인삼대-추



오월 시 구 종 다 열 시 구 종 다 절 시 구 종 아



국립현대미술관 리추 우대 는는 대이 무복 연철 아 종 구 시 절



씨팔 씨순 하 고 - 늬름-하 - - 계 - 경 사 가 났 네
 씨팔 씨순 하 고 - 늬름-하 - - 계 - 경 사 가 났 네



경 사 가 났 네 경 사 가 났 어 경 사 가 났 어



강노 절 에 는 생 선 품 — 채 우 에 는 — 딸 기 — 품 —
 노 전 상 월 창 계 풍 년 양 춘 에 단 감 이 풍



— 풍 년 이 왔 네

1976년 논산군 연산면 거주 김명환이 막둔곡으로 논산들의 풍년을 찬미한 노래

대전의 찬가

길 옥 윤 작사
길 옥 윤 작곡

밝고 경쾌하게



1. 보 문 산바라보는 희망의얼굴 백 목련새하얀꽃
2. 봄 여 름가을겨울 새월이가도 언 제 나한결같은



정다운사람 오 늘도한마음의 조화를이룬 아름다운내고장
우리의마음 흐 르는금강물에 내일을신고 오를도결어가는



해 뜨는거리 우리 여기살리라 우리 여기살리라 오 대 전 오
전 원 의 거 리



1. 대 전 사 랑 의 대 전 전 우리
2.



여 기 살 리 라 우리 여 기 살 리 라 오 대 전 오



대 전 사 랑 의 대 전

대전을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가꾸고 시민의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해 1979년대 전시가 만들어 보급한 곡

만리포 사랑

반야월 작사
김교성 작곡

폴카

똑 짝 선 기 적 소 리
 점 찍 은 작 은 섬 을
 젊 은 꿈 을 신 — 고 — 서 —
 구 비 구 비 들 — 아 — 서 —
 갈 매 기 노 래 하 는
 구 십 리 뱃 길 위 에
 만 리 포 라 내 고향 사 — 랑 —
 은 비 늘 이 곶 구 — 나 —
 그 — 립 고 안 타 까 — 운
 그 대 와 마 주 — 앞 아
 울 던 밤 아 안 녕 — 히 — 희 망 의
 불 러 보 는 상 — — 송 — 노 첫 는
 꽃 구 — 림 — 도 동 실 동 실 춤 춘 다 —
 뱃 사 — 공 — 도 병 실 병 실 웃 는 다 —

똑딱선 기적소리와 갈매기가 노래하는 만리포의 아름다운 정경을 표현

백 제 찬 가

Moderato *mp* 한 상 각 작사
김 면 세 작곡

금 공 강 산 물 성 굽 이 도 는 백 제 의 고 도 산

계 룡 의 정 기 를 받 아 빛 나 도 다 그 옛 날
천 년 도 모 자 라 - 서 천 오 백 년 그 옛 날

mp

백 제 중 흥 다 그 시 절 을 - 우 러 - 러 보 면
황 흠 하 무 령 왕 등 - 눈 부 - 신 보 배

mf

조 상 이 남 긴 그 업 적 오 늘 다 시 꽃 이 피 네 아
화 려 한 백 제 문 - 화 오 늘 다 시 꽃 이 피 네

f

아 찬 란 하 다 우리 문 - 화 백 제 문 화 우리

다 시 이 어 받 아 길 이 길 이 빛 내 리 라

그 옛날 찬연했던 백제문화와 조상의 얼을 기리기위해 1978년백제 문화 선양 위원회가 만든곡

보령 찬가

힘차고 슬기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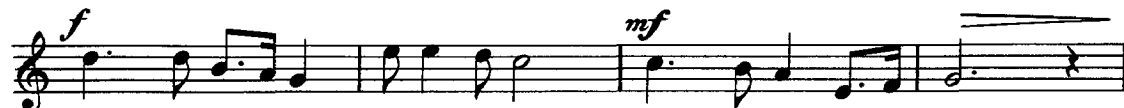
보령군 제정
이종중 작곡
이종중 편곡



차서령 산맥 푸른 정기 맷헛 힌성 주 산
높은 해은 바다에 들에 드넓은 백사장다



굳게 뭉친 우리 들의 기상이 라 - 네
밝고 루 맑은 우리 들의 정원이 한 고 - 향



산에 서 - 는 검 은 진 주 들 엔 풍 년 - 가
한 내 가 - 심 무 창 포 에 뭍 이 자 라 - 는
일 편 단 -



자랑 스런 우리 들의 보령이 라 네
자랑 스런 우리 들의 보령이 라 네



자손 만대 이어가 - 는 보령! 보령이 라 네
자손 만대 이어가 - 는 보령! 보령이 라 네
자손 만대 이어가 - 는 보령! 보령이 라 네

보령을 찬양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내용을 담은곡

봉 황 산

이 동 춘 작시
이 동 춘 작곡
문 성 원 편곡



진 - 분 홍 -- 복 송 아 - - 꽃 필 - 때 - 가 되 - 면
춘 - 삼 월 -- 잔 디 위 - - 에 진 - 달 - 래 피 - 면



말 없 --- 이 -- 돌 아 서 -- 든 그 - 대 가 그 리 - 위
지 난 --- 날 -- 그 시 절 -- 을 생 - 각 - 해 본 - 다



봉 황 산 뒷 골 목 - 에 밤 새 이 든 사 람 아
봉 황 산 오 술 길 - 을 같 이 걸 든 사 람 아



아 ----- 명 - 순 - 아 - 나 - 는 모 른 - 다

진달래꽃이 환하게 물들고 아지랑이 아른거리는 공주 봉황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

삽 다 리

조영남 작사
외국곡



요고 고리오
 나 타 - 소 주
 섰 선 피 리 내
 보 향 이 구 보
 가 장 꽃 개 날
 를 - 에 에 로
 교 서 산 발 교
 삽 에 앞 논 산
 향 양 면 연 향
 고 을 이 침 고
 내 서 봄 아 내



에경면면에 지
위구이지척
물사를어사
넛덕-떨세
시수가해이
-나-
곳지이리곳
는을참소는
-양기미-
사온고매사
만고의의이
들나물위들
람-넛두구
사지시나척
은을면엔때
좋은이넛릴
씨-름-
담천대어



조조이리다
크야놀소니
부내울종탈
고서의리
라장병의다
거
리정안당삼
리면향
다다배고
삼삼겨내
울
아든회
놓거동는
를려온오
리시교려
다하할들제

예산 삼교의 구멍. 삼다리가 고향인 조영남이 어릴때 놀던 고향을 그리면서 부른 노래

충 남 찬 가

박길악 월 작사
작곡

밝고 경쾌하게



우 리 나 라 한 발 으 로 이 름 난 고 장
우 리 나 라 충 장 부 로 커 가 는 고 장
우 리 나 라 충 장 부 로 커 가 는 고 장



산 이 종 아 물 이 종 아 인 심 이 종 아
해 가 좋 아 달 이 좋 아 산 천 과 좋 아
해 가 좋 아 달 이 좋 아 산 천 과 좋 아



계 절 따 라 오 곡 과 풍 성 한 옥 토
념 소 식 을 가 득 고 달 리 아 있 열 차
념 소 식 을 가 득 고 달 리 아 있 열 차



늘 어 나 는 도 민 들 의 행 복 한 살 림
손 자 을 나 후 어 손 에 충 칭 이 도 있 처 녀
손 자 을 나 후 어 손 에 충 칭 이 도 있 처 녀



아 름 다 운 우 리 충 남 찬 란 한 문 화 영 원 토 록
아 름 다 운 우 리 충 남 찬 란 한 문 화 영 원 토 록
아 름 다 운 우 리 충 남 찬 란 한 문 화 영 원 토 록



빛 내 리 사 랑 하 리 - 라 아 아 사 랑 하 리 라
가 꾸 리 라 꽃 피 어 우 리 - 라 아 아 꽃 피 어 우 리 라
가 꾸 리 라 꽃 피 어 우 리 - 라 아 아 꽃 피 어 우 리 라

D.C.



라 아 아 이 어 가 리 라 - -

충절의 고장 충남을 영원토록 꽃피우고 국토의 심장부로 알뜰하게 가꾸어 나가자고 충남의 특색과 자랑을 부각하여 85년 12월에 만든 충남인의 노래

전주의 찬가

하김집 중강상 희섭희 작곡노래



완 산 칠 봉 넘 어 오 는 - 불 푸 아 - 가 - 씨 - 는
덕 진 연 못 넘 어 오 는 - 푸 른 - 바 - 람 - 은



개 나 리 저 고 리 에 - 진 달 - 래 - 처 너
여 름 밤 부 채 처 럼 - 근 심 - 을 - 쫓 네



풍 남 문 돌 아 서 - 오 실 - 때 - 에 - 는
오 목 대 돌 아 서 - 가 실 - 때 - 에 - 는



어 새 는 새 정 이 드 는 - 전 - 주 라 네
새 들 도 쉬 어 가 는 - 전 - 주 라 네



내 사 랑 전 주 에 모 두 - 바 치 - 고
내 사 랑 전 주 에 모 두 - 바 치 - 고



푸 른 꿈 염 여 가 거 을 여 기 - 살 겠 네
봄 여 름 가 을 거 을 여 기 - 살 겠 네

내장산 단풍

김 동 진 작사
김 강 섭 작곡



산 - 천 도 수려해 - 라 오곡 도풍성해 - 라



흰 - 구 름 쉬 어 가 - 고 새 들 이 노래하 - 는 곳



호 남 평 - 야 정 - 읍 - 에 아 립 다 운 내 장 산 에 는



여 승 의 목 탁 소 리 - 가 내 마 음 을 울 려 줄 때 면



빨 짙 - 게 멍 이 든 단 풍 내 상 처 에 멍 이 었 느 나

60년도 작사 작곡된 대중가요로서 남 상규씨가 불러 크게 히트한 노래로서 국립공원 내장산의 붉게 물든 단풍을 노래하였음

남원의 애수

김부해작사
김화영작곡
김용만노래

트로트



1. 한 양 — 천 — — 리 — 떠 나 — 간 — 들 너를 어 이
2. 알 성 — 급 — — 제 — 과 거 — 보 — 는 한 양 이 라



간행물
모양
상하

나
예
소집
—
—
아름답
—
—
주요



— 고 개 — 마 — 루 — 나 귀 마 저 울 — 고 — 년 —
— 아 잔 — 불 — 이 도 포 자 락 적 — 시 — 었 —



네 — — — — — 추 향 아 — — — — — 울 지 — — — — — 마 — — — — — 리
네 — — — — — 급 제 한 — — — — — 이 도 — — — — — 령 — — — — — 은



— 달 — 래 — — 었 — — 건 — — — — 만 —
— 출 — 기 — — 왔 — — 건 — — — — 만 —



대우	장충	부의	가춘	스향	숙이	을가	—	울그	민민	간간	민민	—	—	이	오
----	----	----	----	----	----	----	---	----	----	----	----	---	---	---	---

[illegible]

함께 즐겨 옷어 — — 보 — 나 —
그대 품에 안기 — — 려 — 나 —

남원의 봄사건

야인초작사
한복남작곡
황정자노래

도롯도

남 - - 원 에 봄 사 건 났 네 - 전 라 북 도

남 원 고 을 바 람 났 네 춘 향 이 가 신 발

벗 어 손 에 들 고 버 선 발 로 걸 어 오

네 - 취 도 새 도 모 를 듯 이 살 짝 살 짝

걸 어 오 네 오 작 교 로 광 한 루 -

로 도 령 찾 아 해 매 - 도 - 네 -

남 - 원 의 봄 사 건 났 네

눈물의 오리정

작사: 석춘옥
작곡: 김박옥
노래: 소시두

트로트

춘향 - 아 - 울지 마 - 라 - 울지 마 -
도련군 - 님 - 만 못 가 오 - 날 - 별이 - 가 -

라말지 - 춘향 - 아 - 가면 - 은은
오오 - 아아 - 꽃다루 - 밤

- 아 - 주 - 가 - 나 - 간 - 다 - 고 - 잊 - 을 - 소 - 나 -
- 이 - 팔 - 청 - 나 - 이 - 별 - 이 - 잊 - 을 - 소 - 나 -
- 드 - 세 - 이 - 고 - 갈 - 길 - 을 - 왜 - 왔 - 었 - 나 -

사독내 - 창수사 - 공랑 - 에 - 달 - 박 - 거 - 든 - 나 - 본 - 듯
가 - 랑 - 이 - 길 - 긴 - 켜 - 밤 - 에 - 나 - 나 - 혼 - 자
나 - 가 - 마 - 라 - 나 - 는 - 나

이 - - - 보 - 아 - 다 - 오 - 옥 - 가 - 락 - 지
는 - - - 더 - 이 - 새 - 나 - 밤 - 하 - 잃 - 은
- -

동 - 글 - 듯 - 이 - 옥 - 가 - 락 - 지 - 동 - 글 - 듯 - 이 - 우 - 리 -
외 - 기 - 러 - 기 - 짝 - 잃 - 은 - 외 - 기 - 러 - 기 - 우 - 리 -
결 - 린 - 달 - 도 - 밤 - 하 - 는 - 에 - 결 - 린 - 달 - 도 - 이 - 별 -

사 - 랑 - 끝 - 없 - 으 - - - 리 -
소 - 리 - 어 - 이 - 든 - - - 나 -
이 - 씹 - 어 - 눈 - 물 - - - - -

춘향의 절개



그네줄 상처

반야월 작사
김교성 작곡
진방남 노래

민요풍으로



여봐라 춘향이 걸어온다 저봐라 춘향이 걸어와



오이씨같은 버선발로 살금살금 걸어온다



그얼굴은 반달이요 치령치령 검은머리



그네에오 락가락 다홍치마 종을시구

무주구천동

mf

넘 어 가 네 넘 어 - 가 네

소 - - 머 - 리 고, 개 - -

무 - 주 라 - - 구 천 - 동 을

살 짜 - - 기 - 오 - 네 -

산 포 - 도 머 루 - 다 래 익 어 갈 때 - 면

그 립 같 은 두 메 - 골 에 살 자 든 - 녀 이

나 를 두 고 떠 나 - 가 네

무 주 - 구 천 동 무 주 구 천 동

논 개

이 건 우 작사
이 동 기 작곡
이 동 기 노래



꽃입술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 작은 손고이 접어 기도하며 울었네
큰별이 저리 높은 아리따운 논개의 뜨거운 그 입술에 넘쳐가던 절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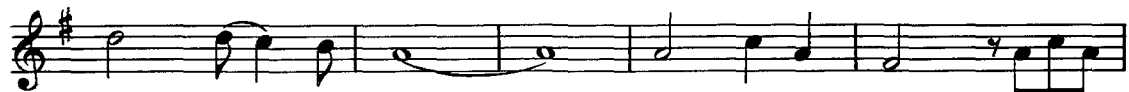
새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 눈에 선한 아름다움 잊을 수가 -



없 - 어 라 - - - - - 몸 바 쳐



서 몸 바 쳐 서 떠 내려 간 그 푸 른



물 결 - 위 에 - - - - - 몸 바 쳐 서 몸 바 쳐



서 빌 어 간 그 사 랑 그 사 랑 영 원 - 하 리

목포의 눈물

문일석 작사
손이목인영 작곡
이난영 노래

사삼 — — 공백 — — 의 — — 뱃 — — 노 — — 래 가 — — 물 — —
 갓 — — 은 — — 년 — — 원 — — 한 — — 품 — — 은 — — 노 — — 적 — —
 리 — — 떠 — — 삼 학 — — 도 — —
 봉 — — 밀 — — 에 — — 임 가 — — 신 — —
 가 — — 는 — — 데 — — 어 찌 — — 다 — —

파 도 — — 깊 — — 이 — — 스 며 — — 드 는 — — 데
 완 연 — — 다 — — 다 — — 애 탈 — — 폰 청 — — 조
 옛 상 — — 처 — — 가 — — 새 로 — — 와 진 — — 다

— 부 두 의 새 — 악 — 시 아 통
 — 유 유 달 산 바 램 — 도 도 영 산
 — 못 오 는 입 이 — 면 면 이 마

젓 은 옷 자 락 — — 이 별 의 눈 물 — — 이 나
 강 을 안 으 니 — — 임 그 러 우 는 — — 마
 음 도 보 내 것 — — 향 구 에 맺 은 — — 절
 개

to D.C.
 목 포 — — 의 — — 설 — — 움 — —
 목 포 — — 의 — — 사 — — 람 — —
 목 포 — — 의 — — 사 — — 람 — —

랑 — —

일제치하에서 억압받고 있는 설움을 노래한 목포의 눈물은 목포의 아름다움과 고향의 정취가 깃들어 국내및 해외의 많은 교포들이 애창하며 1934년에 조선일보사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가사공모에 목포출신 문일석씨가 당선하여 손목인씨가 작곡하고 목포출신가수 이난영여사가 불러서 널리 알려진 것이다.

삼학도 배따라기

정정정
승승승
원원원
작곡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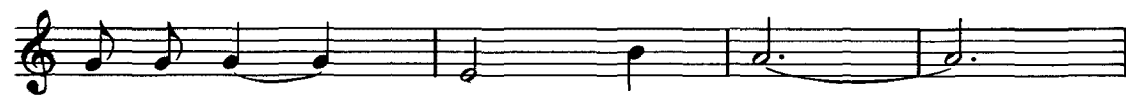
사 달 양 빛 — — 빛 젖 — — 짙 은 유 삼 달 — — 산 도



불 게 — — 물 전 — — 든 의 노 적 — — 봉 려



갈 매 도 — — 기 소 — — 만 오 락 — — 가 락



이 내 애 만 — — 태 — — 우 네 — —



에 야 디 야 랫 차 에 야 디 야 에 야 디 야 랫 차 에 야 디 야 — — —



에 야 디 야 랫 차 에 야 디 야 에 야 디 야 랫 차 에 야 디 야 —



순 — — 풍 에 — — 돌 을 달 고 — — 고 기 잡 이 나 선 네 아 비 — — 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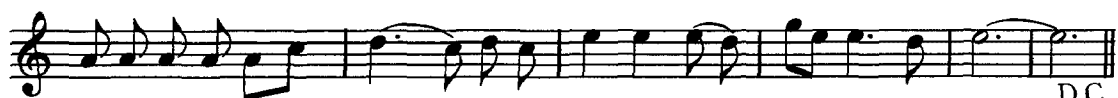
벧 — — 전 에 — — 물 밝 히 고 — — 을 때 잡 아 나 선 네 아 비 — — 는 —



삼 학 도 도 - 잇 었 는 가 - 소 식 없 기 - 삼 년 이 네
삼 학 도 도 - 잇 었 는 가 - 소 식 없 기 - 삼 년 이 네



죽 었 는 지 - 살 았 는 지 - - 저 바 다 건 너 면 만 나 려 나 -
죽 었 는 지 - 살 았 는 지 - - 저 물 지 나 가 면 만 나 려 나 -



저 승 에 서 나 - 풀 - 어 볼 뱃 놈 의 - 한 - 이 려 가 -
사 해 신 - 령 - 들 거 들 랑 이 내 한 줌 풀 - 어 주 소 -



산 천 - - 후 - - 토 일 월 - 성 - 신



하 나 - - 님 - - - 비 나 이 다



실 날 - - 같 - - 은 우 리 - 목 - 숨



살 려 달 라 비 나 이 다 -

'82년 MBC강변가요제 동상 수상곡으로 작사, 작곡, 노래자 정승원은 당시 목포대학 재학생으로 젊은 대학생에 많이 애창되었다.

목포의 노래

이은상·김일로 작사
서만중 작곡



1. 솟 아 솟 네 솟 아 솟 네 밝은해 솟 네 밝은해 솟 네
2. 솟 아 솟 네 솟 아 솟 네 뽕근달 솟 네 뽕근달 솟 네



우 리 고 — 장 — 유 달 산 에 해 가 솟 —
우 리 고 — 장 — 영 산 강 에 달 이 솟 —



네 — 에 헤 야 데 헤 야 에 헤 야 데 헤 야 에 헤 야 데 헤 야
네 — 에 헤 야 데 헤 야 에 헤 야 데 헤 야 에 헤 야 데 헤 야



에 헤 야 데 헤 야 힘 차 다 눈 부 신 아 침 — 가 습 마 다
에 헤 야 데 헤 야 너 와 나 정 다 운 저 녀 — 가 습 마 다



밝 — 은 해 솟 아 오 르 — 네 —
뽕 — 근 달 솟 아 오 르 — 네 —

'82년도에 목포의 눈물이 마치 목포를 대표하는 노래로 되어 있으나 가락의 슬프고 가사가 한맺힌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시민들 사이에 새로운 목포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으면 한다는 여론에 따라 작사 작곡한 노래이다.

여수항 경치

감정을 넣어서 조 종 응 작사
조 종 응 작곡

북 쪽 에 는 종 고 산 이 솟 아 있 고 요 -

남 쪽 에 는 장 군 도 가 놓 여 있 구 나 -

거 을 같 은 바 다 위 에 고 기 잡 는 배 -

돛 을 달 고 왔 다 갔 다 오 동 도 바 다 -

아 - 아 름 답 - 구 나 여 수 항 경 치 -

아 - 아 름 답 - 구 나 여 수 항 경 치 -

한글 학자인 조종응씨가 일제시대에 여수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산수 경치를
오선지 위에 수채화처럼 옮겨 놓았다가 해방이 되자 신문에 발표하여 여수시
민에게 보급시킴

푸른 여수항

행진곡풍으로

박 회 남 작사
김 용 호 작곡

f

소동충 나백무 무꽃공 울불얼 창개이 하피서 다는린 종오진 고동남 산도관 이숲터 여속에

mp

한등몸 러- 수대바 도불쳐 맴반나 - 짝이 구- 아는한 장수조 군평상 도선의 바벌혼 다리이

mf

다백섬 도사해 - 구비구 하얀 돛 단배
섬 사 마 - 곳 곳 마 다 구 의 의 성 지

갈꿈 매 기 - 나 는 항 - 구 잔 잔 한 물 결
슬 기 로 - 시 길 따 - 라 고 동 이 운 제 다

mp

열열열 두두달 꽃이 피네 웃음 꽃 피네
열 열 열 두 두 달 꽃 이 이 피 네 웃 음 웃 음 꽃 피 네

f

아그 림 다 운 고 장 이 다 푸 른 여 수 항
자 린 스 런 고 장 이 다 푸 른 여 수 항

여수항이 푸르르고 아름다운 경치와 열두달 꽃이 피는 밝고 명랑한 여수와 충무공 얼이 서린 성지에서 생활하는 슬기로운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음

나주의 마음

행진곡 박순용 작사
최윤환 작곡

1. 영 산 - 강 푸 른 물 결 구 비 처 흐 르 고
2. 금 성 - 산 정 기 반 아 다 저 진 터 - 고 전

칠 백 리 강 변 에 는 철 새 가 나 - 네
기 름 진 평 야 에 는 풍 년 이 오 - 네

구 진 - 포 나 루 터 에 아 침 - 이 오 면
호 르 - 는 땀 방 울 로 보 람 - 을 찾 고

우 리 들 의 푸 른 꿈 이 날 개 를 편 다
희 망 에 찬 밝 은 꿈 이 미 래 를 간 다

(후렴) 산 도 좋 고 물 도 좋 고 인 심 도 좋 - 아

화 사 하 고 향 기 로 운 배 꽃 이 활 짝 피 - 면

우 리 들 의 젊 은 꿈 은 창 공 을 나 른 다

Solo tr
청 소 년 은 나 주 의 꿈 나 주 지 켜 갈 나 주 청 소 년

작사자 박순용(동양전기 사장, 나주 출신)이 고향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애향심을 갖도록하기 위하여 제작, 보급한 노래로서 KBS 1-TV 뉴스파노라마시간('85. 12. 29)에 내고장의 노래로 방영된바 있음

영산강 처녀

작사 : 염선희
작곡 : 지운춘
창작 : 천송송 노래



영 산 - 강 구 비 - 도 - 는 푸 른 물 결 달 - 강 산 산 마 루 - 에 보 름 달

다 시 오 건 만 - 똑 딱 선 서 울 - 간 님 등 불 을 삼 아 - 오 작 교 다 리 - 놓 고

똑 딱 선 서 울 - 간 님 기다 리 는 영 산 - 강 처 녀 오 작 교 다 리 - 놓 고 기다 리 는 영 산 - 강 처 녀

못 믿 을 세 - 월 - 속 에 안타까 운 청 춘 - 만 - 가 네 밤 이 을 맞 - 아 - 가 며 우리 나 그 언 굴 - 그 - 리 네

- 길 이 - 멀 - 어 못 - 오 시 나 오 기 싫 어 서 울 - 색 - 시 고 - 운 열 나 굴 정 이 깊 어

아 니 오 시 나 아 - - 아 푸 른 물 결 구 곡 간 절 창 아 니 오 시 나 아 - - 아

너 는 알 지 말 을 - - 해 - 다 - 오 D.C. 뽕 인 눈 물 한 이 - - 서 - 린 - 다

영산강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대중가요로서 입을 기다리는 사랑의 노래로 '79년부터 가수 송애란이 불러 나주시민들 사이에 널리 유행한 노래

배틀 노래 (민요)

작사 미상
작곡 미상
석곡면돌실나이 김점순구전



세 상 에 는 - 할 일 없 이 - 청 삼 을 - 깨 어 내 며 -

배 틀 다 지 는 - 내 다 리 요 - 가 리 씨 장 - 쏘 아 놓 고 -

안 질 게 는 - 도 리 - 놓 고 나 - 삼 을 밟 앓 - 차 고 -

부 태 - 허 리 - 두 른 - 양 을 만 침 - 산 중 높은 - 봉 에 -

허 리 - 안 개 - 두 르 - 는 듯 - 복 이 라 고 - - 나 는 - 양 은 -

칠 년 - 대 한 가 무 - 림 에 - 물 만 - 먹 는 - 외 기 - 러 기 -

백 - 운 강 에 - 넘 어 - 드 네 - 보 디 집 티 는 - 양 - 은 백 림 - 같 이 -

저 리 - 내 려 - 은 가 - 닷 자 - 재 어 내 어 - 모 질 애 물 -

주는 - 잉 - 은 칠 - 팔 월 새 우 - 강 산 뿌 리는듯 -

잉 앓 - 대는 삼 형 - 제요 - 놀 림 - 대는 홀 아 비로 -

배 거 리 노는 - 양 은 이 나 라 - 장 부 - 저 노 라 - 장 부 -

만 군 - 사로 - 휘 여 - 들 여 - 용 두 머 리 - 우는 - 양은 - 청 천 - 에

외 기 - 러 기 - 벗 부 르 는 소 리 로 세 - 은 저 럽 고 -

도 투 - 머 리 - 정 저 - 럽 고 도 투 - 머 리 -

특징은 베틀기구의 구실을 치중하여 자세하게 노래하고 고사까지 인용하여 폭 넓게 구사하였으며 유래는 베틀일종의 노동요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을 할때 자연발생적으로 지루함과 피로를 풀기 위하여 대게 불리워졌을것으로 봄

구례 아가씨

김지평 작사
이인권 작곡
김부자 노래

지 리 산 - 천왕봉 - 이 기 - 자 - 랑 - 하 -
면 화 엄 사 꽃 병 풍 - - - 이 웃 -
자 - - 랑 하 - - - 네 약 수 제 풍 악 소 리
들 뜬 아 - 가 - 씨 나 풀 - 나 풀 남 치 - 마 에
꽃 댕 - 기 따 고 꽃 - 구 경 간 다 더 니
간 다 - 더 니 님 마 - 중 - 가 - - - 네

2. 천은사 개울물이 노래부르면
노고단 꽃구름이 어깨 춤추네
약수터 오솔길엔 어여쁜 처녀
울긋불긋 꽃사이로 보일듯 말듯
뽕따러 간다더니 간다더니 님마중 가네

3. 지리산 반야봉에 두견새 울어
극락전 뒷마당에 동백꽃 피면
오늘도 그님 생각 구례 아가씨
구비 구비 팔백리 섬진강 따라
달구경 간다더니 간다더니 님마중
가네

해마다 곡우절을 맞아 지리산 약수제를 거행하고 있었으나 노래말이 없어 지난 1972년 구례아가씨를 제작 전 군민이 즐겨 부르게하므로써 약수제 행사를 더욱 빛내고 본노래를 구심점으로 전 군민이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기 위함

영암 아리랑

민요풍으로

신민요
백암산
고봉편곡

달 이 - 뜬다 달 이 --- 뜬 다 --- 영 암 - -

고 을-에--- 둥근 - 달-이 - 뜬 --- 다 -

달 - 이 뜬 - 다 - 달 - 이 - 뜬 다 - 둥 - 근 - 둥 근
홍 년 이 뜬 온 - 다 - 홍 - 년 이 온 다 - 지 - 화 - 근
홍 타 령 부 - 네 - 홍 - 타 령 부 네 - 목 - 화 짐 지 고

달 이 - 뜬다 월 출 산 - 천 왕 - 봉-에 보름 달이- 뜬 다
홍 - 구 나 서 호 강 - 몽 했 - 들-에 풍년 -이- 온 다
홍 겹 계 부네 용 칠 도 령 화 목 - 짐-은 장가 밀천이라 네

아 리 랑 동 동 - 쓰 리 랑 동 동 - 에 헤 야 데 헤 야 에 헤 야 데 야 -

달 - 보 는 - 아 - 리 - 랑 님 보 는 아 - 리 - 랑

일명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영암 월출산의 정기를 받아 군민의 애향심을 기르고 찬란한 월출문화를 후세에 길이 남겨두고자 이고장 출신 백암 이환희 박사가 작사하여 군 애창곡으로 군민이 즐겨부르게 됨

낭주골 처녀

전박이 순춘미 남석자 작곡 노래



월출산신령님 — 계소원을빌었
초수동범바위 — 에이름을새겼



네네 천왕봉바라보며 — 사랑을 — 했네 꿈
네네 천왕봉바라보며 — 사랑을 — 했네 꿈

[illegible]

주 - 골 처 - 너 노 - 을 지 - 면 오 - 시 - 려 나 달 - 이 또 면 오 - 시 - 려 - 나
 주 - 골 처 - 너 노 - 을 지 - 면 오 - 시 - 려 나 달 - 이 또 면 오 - 시 - 려 - 나



때 가 - 도 먼 오 시 겠 - 지 금 의 환 향 하 시 - 겠 - 지
때 가 - 도 먼 오 시 겠 - 지 금 의 환 향 하 시 - 겠 - 지

월출산 낭주고을에서 남녀의 애뜻한 사랑이 싹터 낭군을 극진히 봉양하고 사랑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노래로 영암군 월출산을 상징함

진도 아리랑

세마치 전라도민요

아 리 아 리 랑 쓰 리 쓰 리 랑 아 라 리 가 났 네 - - -

아 리 랑 흥 - - - - 아 라 리 가 - 났 네

문 경 세 재 는 - 몇 - 굽 - - - 인 - 가

굽 이 야 - 굽 이 굽 이 가 - 눈 물 이 - 로 - 구 나

-
2.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흥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다 집을 짓고
우리님 오기만 기다리네.
 3.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흥 아라리가 났네
놀다가세 놀다가세
저달이 지도록 놀다가세.

진도지방에서 옛날부터 불리어 내려오는 민요로서 타 아리랑에서는 볼 수없는 유일한 “타령”이라고하며 그 명칭도 옛날에도 그냥 아리랑 타령이었는데 1900년 초반에 앞에 지명을 붙여 “진도 아리랑 타령” 또는 “진도 아리랑”이라하며, 그 가락은 흥겨운 멋을 간직한 속에 애절한 한이 깃들여있고 비애를 사랑으로 승화시킨 노래로써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의 하나임.

흑산도 아가씨

정박이 두수작사
박이 춘석작곡
미자 노래



남 물 래 서 - 러 - 운 새 월 - 은 - - 가 고
한 없 이 외 - 로 - 운 달 빛 - 을 - - 안 고



물 결 은 천 번 - 만 번 - 밀 려 - 오 는 - - - 데
흘 러 온 나 그 - 넌 가 - 귀 향 - 살 인 - - - 가



못 전 디 게 - 그 리 - 운 아 득 한 - - 저 육 지 를 바
애 타 도 록 - 보 고 - 폰 머 나 면 - - 그 서 울 을 그



라 - - 보 - - - 다 검 게 타 - 버 린 검 - 게 타 버 린 흑 산
리 - - 다 - - - 가 검 게 타 - 버 린 검 - 게 타 버 린 흑 산



도 아 - 가 - 씨
도 아 - 가 - 씨

서남해의 고도인 흑산도는 청정해역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다도해의 절경이 많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는 섬으로 여행온 청년에게 순정을 바쳤으나 기약 없이 떠나버리자 물에 가본 경험이 없는 섬아가씨는 육지를 상상하며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린 노래로 70년도 성명 미상의 시인이 다녀가면서 지은 가사라고도 함

경북의 노래

김효선 작사
김영광 작곡

Disco



토- 문 화 함 향 산 기 정 찬 기 어 린 - 우 리 고 장 은 -
 서 신 라 별 흠 을 다 저 - 드 담 높 겨 인 자 리 -
 푸 에 큰 밭 꿈 이 중 피 은 어 나 는 - 여 기 이 곳 에 -
 아 룡 다 룡 사 - 랑 을 - 엮 어 나 가 자 -
 언 제 나 - 아 름 다 - 운 우 리 의 경 북 -
 마 - 음 - 은 광 야 - 로 달 려 나 가 자 -

경상북도의 특성과 특색있는 명소를 찾아서 작사한 곡으로 고장이 품기는 기
 상을 도민이 음미하고, 즐겁게 부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음

경주딸네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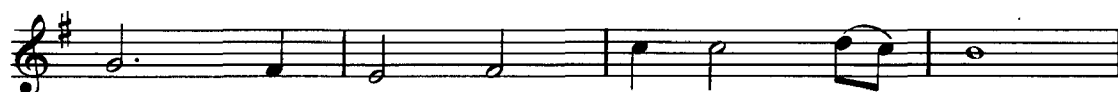
정 귀 문 작사
김 이 학 작곡



1. 구 왕 수 능 한 도 사 포 투 석 리 정 - - 에 도



정 안 이 압 든 지 님 침 을 - 따 - 라 도 -



말 백 만 조 든 노 던 는 서 겹 라 은 별 - 로 수



시 불 집 국 온 사 돌 석 짜 굴 애 - 요 도 -



아 아 버 버 님 님 어 어 머 - 머 - 님 님 -



인 전 심 설 도 도 좋 - 구 - 요 -



경상도 청년

월전김
견오상
초승희
작사
작곡
노래

트위스트

내 마음엔 나와 같아 이랑
알바 아칠 줄 사 람은 -
경상도도 그 청년년
한사 람뿐 입니 다 -
털수룩한 얼 굴에도 - 검은 수염은
나 이 보 다 신 칠 팔 세 - 위 로 보 지 만

고령 대가야문화제 찬가



찬별문 란들화 한이느 가소한 야근송 터대이 전는꽃 대우향 가특기 야의로 터가운 전락꽃



고찬꽃 귀란처 한한림 문가우 화야리 유금모 산관두 이벽아 어화름 - 준연다 고화음 장문에



빛왕가 내정야 자의의 다말후 함은예 깨샘여 슬들사 기리랑 와는과 정금봉 성림사로 힘그한 을말마 모굵음 두소되 위리어



찬오영 란백원 한년히 가가이 야야어 문도주 화읍자 대눈대 가에가 야서야 문린문 화다화

520년간 대가야의 도움지였던 이 고장에 산재해있는 많은 문화재를 노래를 통해 찬란했던 문화재를 국민모두가 바로알고 애향심을 고취코자 1971년 대가야 향토사 연구실 대표인 김도윤씨가 작사, 작곡하여 보급

햇 소 리

—경북 예천군 풍양면 공처농요 논매기—

매 : 梁 三 億
반 : 공처농요회원
이소라 채보

♩ = M.M. 55

(매)

오 해 에 이 호 호오해이 야

(반)

오 해

(매)

하 일 을 하 하 해 는 지

(반)

에 이 호 호 해이 야 아 아 아 해이 야

(매)

고 저 문날 에 이 아 우리 할 일

(반)

에 이 오 호 해이 야

(매)

태 산 일 세 남은 일 을 다 해 보 세

(반)

에 이 오 호 해이 야 야 아 해

(메) $\text{♩} = \text{MM86}$

야 오 호 해 야 잘 돌 아 갔 - 네

(반)

오 해 야 오 해 야

(메)

예 천 군 수 는 부 루 씹 싸 - 네

(반)

오 해 야 오 해 야

(메)

상 주 목 사 천 엽 씹 을 안 동 의 부 사 는

(반)

오 해 야 오 해 야 오 해 야

(메)

건 달 래 삼 고 오 해 이 늑 어 갔 네

(반)

오 해 야 오 해 오 해

결채소리

—경북 예천군 풍양면 공처농요—

♩ = J. MM.55

(메) 굴렁구

(반) 예

(메) 예천군 풍양면 공처마실에
사또가 났으니 잘 모시렸다.

(반) 예

(메) 황기석(45세·남)

(반) 공처농요회원

이소라 채보(85 9-1 1A)

(메) 
응 해 야 야 영 척 은 야

(반) 
오 해 야 오 해 야

(메) 
소 를 타 고 야 맹 호 연 은 야

(반) 
오 해 야 오 해 야

(메) 
나 귀 를 타 고 야 이 태 백 은 해

(반) 
오 해 야 오 해



깊은 물에 이 야 둥기야 둥 실 야

오 해 야 오 해 야

놀아 볼 세 야 우리 마 실 해

오 해 야 오 해

사또 입은 야 걸채를 타고 야

오 해 야 오 해 야

놀아 볼 세 야 오 해 -

오 해 야 오 해

타작소리

—경북 예천군 풍양면 공처농요—

경북 예천군
풍양면 공처

매 : 황기석 (45세·남)
반 : 공처농요회원
이소라 채보

(매) ♩. MM.60





구미의 찬가

강길옥 작사
정윤 작곡

힘차고 명랑하게



희 망 예 찬 이 거 러 는 빛 - 나 는 내 고 장 만 주
낙 동 강 굽 이 치 는 살 기 좋 은 내 고 장 눈 -



부 는 눈 길 마 다 정 - 다 - 운 미 소
신 아 침 해 가 솟 - 아 - 오 르 면



너와내가 처 음 만 나 사 랑 맺 은 금 오 - 산 봄 - 에 는 개 나 리 피
집 집 마 다 일 터 마 다 웃 음 꽃 이 활 짝 피 고 하 - 늘 에 비 둘 기 날



고 면 가 을 이 면 단 품 이 불 타 네 오! - 구 미 는
우 - 리 의 푸 른 꿈 영 그 네



내 고 장 구 미 는 내 사 - 랑 오! - 구 미 는 꿈 이 깃 든



영 원 한 내 고 향 영 원 한 내 고 향 -

이 노래는 1978년 2월 15일 시로 승격한 신생도시 구미에 살고있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고장을 가꾸고 자랑하며 화합을 위해서 고장의 특색과 기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사와 함께 힘차고 명랑한 구미의 찬가를 제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불리지고 있음

내고장 봉화

정태중작사
김차선작곡

힘차게 Moderato



장장장 고고고 리리리 우우우 은은은 잡잡잡 리리리 자자자 래래래 아아아 보보보 영영영 산산산 백백백 태태태



고고여 루루되
이이벳 이이벳
을을물이 을을물
강강내동강 강강내동
동동은은밀동 동동은은
다다합초 다다합초
이이래에 이이래에
— — 물아유유
은은림수 은은림수
셋셋산산 셋셋산산
물물한과 물물한과
보보참삼 보보참삼
유유 — — 유유 — —
과과을을산과 과과을을산



여사기
되에슬
전지은
터의높
화리고
문홀트
난맘
빛피푸
가다몸
취마한
자전튼
발산튼
현한에
명준빛
한리
수협구

[illegible]

웅장하고도 높은山들과 풍부한 地下資源및 名賢名釋, 孝子烈婦를 輩出한 傳統
의이며 人心이 厚德한 奉化의 高장을 찬미하는 노래

독도는 우리 땅

박인호 작사
박인호 작곡
정광태 노래



울릉도-동남쪽 백길따라 이백리 외로-운섬하나 새-들-의고향
릉상북도울릉군 남면도동거번지이동경-백삼십이 북-위-삼십칠
오징어-꽃뚜기 대구명태거북이동연-알물새알 해-너-대합
지중왕십삼년 섬나라우산국세종실록지리지 오십페지셋째
노일전쟁직후에 임자없는섬이라 고억지-로우기면 정-말-곤란해



그누가아무리 자기네땅이라고 겨도 독도는우리 땅 우리땅
평균온십이도 강-수-량-은천삼백 독도는우리 리- 땅 우리땅
십팔만평방미 더 우-물-하-나분화구 독도는우리 리- 땅 우리땅
하와이는미국-땅부 대-마-도-는일본 땅 독도는우리 리- 땅 우리땅
신라장군이사-부 지-하-에-서웃는 다 독도는우리 리- 땅 우리땅

무영탑 사랑

손이로 원작곡
이재호인 권 노래

트로트



부 여 길 길 - - - 오 백 리 을 길 때



님 두 고 가 는 길 - 예 -



서 라 별 탑 에 맺 은 사 - - - 랑 - 영 지 에



떠 우 먼 - - - 은 - 별 빛 - 도 실



달 흥 빛 - 도 실 울 걸 어 주 던 그 빌 - 날 - - -



밤 - 나 는 가 - - - 네 나 는 가 - -



네 네 임 없 는 부 여 땅 - - - 에 -

불국사의 밤

손로원작사
한복남작곡
현인노래

하얗하얗
 불빛불빛
 의의
 밤은
 깊은
 의의
 이
 밤
 밤
 밤

도도도
 깊은
 의의
 불
 타
 의
 처
 춘
 의

그림자
 에
 꿈
 은
 깊은
 은
 데
 천년
 설
 도
 정
 은
 깊은
 은
 데

길
 은
 저
 나
 그
 네
 풍
 경
 소
 리
 에
 무
 엇
 뜬
 세
 상
 그
 사
 랑
 을
 포
 냇
 지
 게
 말
 하
 나
 람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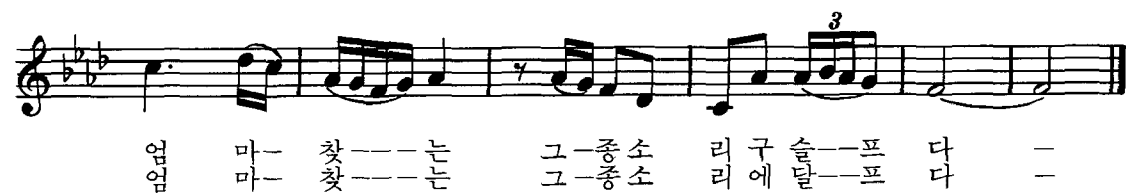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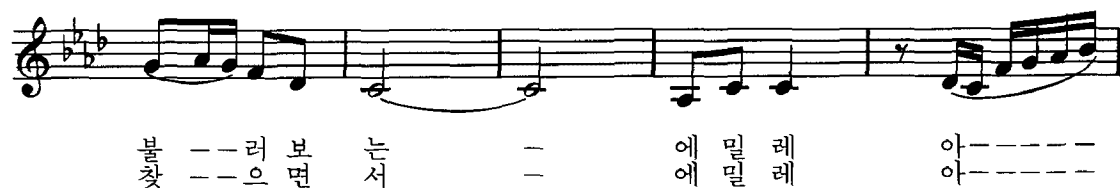
찾
 으
 러
 고
 밤
 을
 새
 느
 나
 아
 깨
 웠
 다
 고
 풍
 경
 소
 리
 나
 아
 목
 타
 소
 리
 에
 아

잠
 못
 드
 는
 불
 국
 사
 의
 밤
 이
 여
 을
 고
 신
 은
 불
 국
 사
 의
 밤
 이
 여
 눈
 물
 젖
 은
 불
 국
 사
 의
 밤
 이
 여

불국사는 찬란한 신라호국 불교문화의 대표적 예술품이다. 나라와 함께 번창하고 모든 국민의 안식처인 불국사가 점점 쇠퇴되어감을 시대적 현실에 비유하여 당시 나라없는 국민의 한과 사랑을 노래로서 승화시키고자 창작된 곡이다.

봉덕사의 종소리

작사: 김박원
작곡: 철시방
노래: 춘현



비내리는 고모령

유 박 시 호 작사
박 현 춘 작곡
현 인 노래

트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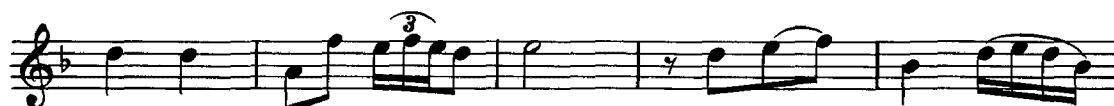
1. 어 머 - 님 의 - 손을 - 놓 - - - 고 떠 나 -
2. 맨 드 - 라 미 - 피 고 - 지 - - - 고 몇 해 -



울 때 - - 엔 - 부 영 - 새 도 - 울 었 -
이 던 - - 가 - 물 방 - 앓 간 - 뒀 전 -



다 오 - - 나 도 울 었 - - 오 - 가 랑 -
에 서 - - 맏 은 사 랑 - - 아 - 어 이 -



앞 해 이 휘 날 리 - - 는 산 마 - 루 턱 - - -
서 못 잊 느 - - 나 망 향 - 초 신 - - -



을 세 - - - - - 넘 어 - 오 - 든 - 그 날 -
비 내 - 리 - 는 - 고 모 -



밤 령 - - 이 그 리 - 읊 고 - - 나 -
령 - - 을 언 제 - 읊 느 - - 나 -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전환기에 잊혀져온 고향을 찾고 싶은 감정을 지명(경산 고모령)과 연계하여 작사하였음

신라의 달밤

유 박 현
시 호 춘 인
작 사 작 곡 노 래



아 - 신 라 의 밤 - 이 - 여
아 - 신 라 의 밤 - 이 - 여



- 불 - 국 사 의 중 - 소 - 리 들 리 어 - 온 다
아 - 림 다 운 궁 - 녀 - 들 그 리 읊 - 구 나



지 대 - 나 - 가 는 나 - 그 - 네 야 결 사
- 려 - 뒤 에 숲 - 속 - 에 서



- 음 을 멈 - 추 - 어 라 고 - 요 - 한 -
- 랑 을 맺 - 었 - 던 가 임 - 들 - 의 -



달 - 빛 어 린 금 - 옥 산 기 슬 위 에 서
치 - 맛 소 리 컷 - 속 에 들 - 으 면 서



- 노 래 - - - 를 불 러 - 보 - 자
- 노 래 - - - 를 불 러 - 보 - 자



신 - 라 의 밤 노 - 래 - 를
신 - 라 의 밤 노 - 래 - 를

신라의 북소리

야박도
인시
초춘미
작사
작곡
노래

서라 - 별도 옛춤 노이 래 나 북소리 가
들려 온 - 다 말 고 - 빠
매달리 먼 이 별하든 반 - 월 - 성 -
사랑도 두목숨도 - 이 나 - 라 에 바치자 맹세에
잠든대 걸 풍경 - 홀로 우는 밤을 궁녀들의 눈 -
물소리 나를 궁녀들이 라 눈 - 물소리
나를 첨성대 별 - - - 은 -
를 이 밤 새 도 - - - 록 -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신라 천년 사직의 마지막 멸망하는 슬픈사연을 회상하며, 6·25를 맞아 시대적 현실을 신라역사와 비교하여 애국과 승전을 기원하기 위한 창작곡이다.

신라제 길손

손로원작사
박시춘작곡
백년설노래

Fox Trot

고가가 향을 눈 -- 물속 에 두 고
가슴에 맺 -- 힌 한 음 풀 어
잇 건 -- 만 -- 낮 설 은 타 --
볼 길 -- 은 새 날 의 나 --
향 에 -- 도 신 라 제 -- 노 -- 래
팔 소 -- 리 들 러 오 -- 는 날
-- 남 하 한 피 -- 난 민 -- 에
-- 경 주 평 봄 -- 빛 속 -- 아 가
젊 은 가 스 -- 을 -- 한 없 이
다 시 필 적 -- 에 -- 사 립 던
도 는 꿈 속 -- 에 -- 나 이
울 -- 려 -- 주 -- 는 -- 한 없 이 -- 울 -- 려 --
어 -- 머 -- 님 -- 이 -- 그 립 던 -- 어 -- 머 --
그 -- 맹 -- 세 -- 만 -- 사 나 이 -- 그 맹 --
주 님 -- 는 -- 피 리 -- 복 소 -- 리 --
세 -- 이 -- 보 고 -- 싶 구 -- 나 --
-- 만 -- 아 -- 있 구 -- 료 --

상주연밥노래(합창곡)

상 주 민 요
이 성 수 편곡



상 주 — 합 창 — 공 갈 — 못 — — 에 —



연 밥 — — 따 — 는 저 처 — 자 야



연 — 밥 — 줄 — — 밥 — — 내 — 따 — 줄 — — 께 — —
잠 — 들 — 기 — — 는 — — 어 렵 — 잠 — 으 — — 나 —



내 품 — — 안 따 기 가 잠 들 — 어 라
연 밥 — —



obligato

음 — — — — — — — — — —



음 — — — — — — — — — —

choir

연 - 밥 - - 줄 - - 밥 - - 내 - 따 - 줄 - - 깨 - =
 잠 - 들 - - 기 - - 는 - - 어 렵 잠 - 으 - - 나 -

내 품 - - 안 - - 에 잠 들 - - 어 라
 연 밥 - - 따 기 가 어 렵 - - 도 다

공갈못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 형성된 민간의 노래로 지방성과 토속성을 짙게 띤 민요의 성격으로 이 노래의 내용은 연정, 사친(事親), 호련(護蓮)등의 유형을 이루었음.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대상으로 한 한국민요의 대표임

상주서보가(합창곡)

Allegro *p* Dolce 상 주 민 요
이 성 수 편곡

상 주 서 보 유 명 - - - 하 - 다

서 보 수 문 - 만 열 - 어 놓 면

상 주 앞 - 들 수 천 - 두 - 락 - 에

이 논 귀 저 논 귀 물 - 이 념 네

에 헤 야 열 렬 러 상 사 - 디 야

에 헤 야 열 렬 러 상 사 - 디 야



에 헤 에 루 와 중 - 고 중 - 다



풍 년 - 이 로 구 나



풍 년 - 이 로 구 나

옛부터 수리의 편리를 주는 보가없어 몽리자들이 애타게 생각하던중 숙종 27
 년에 고을원인 이시필(李時弼)이 처음으로 서보를 축조하였다. 이때가 숙종
 27년(1701년)이다. 위와같이 서보의 시발은 280여년 전에 축조된 것임

석굴암

최재호 작사
이수인 작곡

Andantino 표정을 지니고

도함 산 - 잣은고 개 돌아보 면 쪽빛동

해 낙 략 한 장송등 걸 다 래 녕 쿨 휘 감기

고 다 략 쉼 자로 앞 질 러 발 을 멎 게 하 - 여

라 한 고 비 또한 고 비 올라

서 먼 넓은 한 계 스 러 진 신라 천 년 꿈 도

서 려 감 도는 가 막 달 아 아늑한 여기 - 굴 이

하 나 열 렸 네 흠 뿌

리 - 엉 긴 흠 을 둘러 막 은 십 육 나 한 차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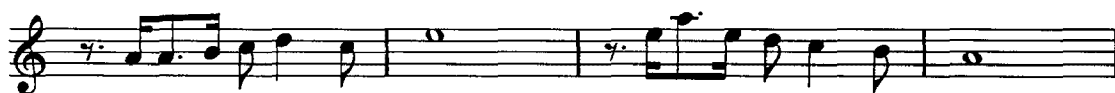
안동부르스

김진경 작사
김성숙 작곡
경근자 노래

Blues



이 별 이 안 타 까 - 워 가 는 님 부 여 잡 고
마 지 막 밤 열 차 - 에 사 랑 을 빼 앗 기 고



얼 마 나 울 었 던 가 이 별 슬 픔 안 동 역
몸 부 림 치 며 우 는 눈 물 젖 은 안 동 역



서 울 행 밤 열 차 - 는 소 리 치 는 데
무 정 한 스 피 카 - 는 소 리 치 는 데



나 홀 로 남 겨 놓 고 떠 나 가 는 무 정 한 사 람 아 -
외 로 이 남 겨 놓 고 떠 나 가 는 야 속 한 사 람 아 -

울릉도 민요

작사·곡 미상

동해바다 — 다한복판 — 에 —
 향 — 나 — 무늬 — 은 — 곳 — 시 —
 — — — — — — — — —

충성바 암안위 절 — 벽 — 백호 이 십 리
 — — — — — — — — —
 — — — — — — — — —

굽부일 이창만 돌부이 — 아 — 솟았 으 — 니 —
 — — — — — — — — —
 — — — — — — — — —

그복꿈 리을나 움반라 — 의 — 울릉릉도도라
 — — — — — — — — —
 — — — — — — — — —

에 헤 라 닷 감 아 라 두리등 실 — 돛 을 달 아 라

울 — 릉 도 물 — 결 — 천 리 갈 매 기 와 갈 — 이 나 가 세

작사, 작곡자 미상의 이노래는 대부분 울릉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고향을 떠나 이주해온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주민에게 향수를 달래줌과 아울러 울릉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속에서 개척인의 의지와 자부심을 갖고 끈끑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위해 창작한 곡으로 1950년대에 널리 불리워졌음

울릉도 트위스트

황 우 루 작사
황 우 루 작곡
이시스터즈 노래



울릉 울릉 울릉대는 가슴안고 - 연락선을타고 가면 울릉도라 -
울릉 울릉 울릉대는 울릉도길 - 연락선도형편없고 지쳤구나 -

백머리도신이 나서 트위스트 - 아름다운울릉도
어지러워비틀비틀 트위스트 - 요게바로울릉도

불평게피어나는 동백꽃잎처럼 아가씨들예쁘고
평생다가도록 기차구경한번 못해보고살아도

둘이먹 - 다가 하나죽 - 어도 모르는 - 호 - 박 엿
기차보 다 좋은 비행기는 구경 실컷하 - 며살아 요

울릉 울릉 울릉대는 처녀가슴 - 오징어가풍년이면 시집가요 -
싱글벙글생글생글 처녀총각 - 영감마님어서와서 춤을춰요 -

육지손님어서와요 트위스트 - 나를데려가세 요
오징어도대풍일세 트위스트 - 사 - 랑을합시 다

동해의 거센 풍랑을 헤치며 장시간 여객선을 타고 심한 배멀미로 고생하며 여행은 작자가 울릉도에 대한 선입감과는 달리 비록 문화생활수준은 낮아도 자연 경관과 인심은 티없이 좋을뿐만 아니라 오징어 풍년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울릉도 주민들의 낙천적인 생활상에 감탄하여 지은곡으로 노래가 매우 흥겨워 온주민들로부터 애창되고 있음

울릉도 사랑

월견초작
이종목작곡
김세레나노래

민요풍으로



울릉도 동백꽃이 곱게 나 - 피 - 먼
울릉도 동백꽃이 다 새 빨간 - 정 - 을



섬 - 처 너 빨간순정은 안 으 로 타 - - 네
버 - 리 고 가 신임 은 오 시 지 앎 - - 네



목 - 호 로 떠 난임이 는 돌 아 올 까 - - 봐
목 - 호 로 떠 나 가 는 뱃 고 동 소 - - 리



뱃 고 동 야 울 때 마 다 가 습 설 레 - - 는
나 도 야 입 에 게 로 찾 아 갈 까 - - 나



포 - 구 - 에 - 피 는 사 랑 울릉도 사 - - 랑
포 - 구 - 에 - 지 는 사 랑 울릉도 사 - - 랑

영일만 친구

최 백 호 작사
최 백 호 작곡



바 닷 가 에 서 - 오 두 막 집 을 짓 고 -



사 는 어 린 적 내 친 구 -



푸 른 파 도 마 시 며 - 넓 은 바 다 의 아 침 을 맞 는



다 - 누 가 뭐 래 도 -



나 의 친 구 는 - 바 다 가 고향 이 란 다 -



갈 매 기 나 래 위 에 - 시 를 적 어



우리는 - 젊은 날 -



뛰는가 숨안고 - 수평선까지 - 달려나가는



뚝 을 높 이 - 올 리 자 - 지 친 바다를 달 려라-



영 — — — 일 만 천 — 구 야 —

영일만을 끼고 있는 영일군에 고향을 두고있는 군민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보람을 갖게하고 고향을 떠나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는 노래로 군민과 더불어 널리 애창되고 있음

영일만 처녀

박성진 작곡
박성진 작사
김나미 노래

GoGo

아저씨들 히리 수평선 에
노을이 물들면
가임마 숨만 태우려는
영일만 처녀
(후렴)바람아 바람에 불지를 마라
정든님 오신단다 불지를-마-라 아-
아-아-애만태우네영
일만 처녀

에밀레종

김영일 작사
김성근 작곡
이미자 노래

트로트



아 - - 아 우는구 나 - 우는구 나 - 봉덕이 가
아 - - 아 우는구 나 - 우는구 나 - 봉덕이 가



우 는 - - 구 - 나 - 처 럼 하 게
우 는 - - 구 - 나 - 어 린 목 숨



목 이 - 메 - 어 술 피우 는 저 종 소 리
쇠 에 - 녹 - 혀 만 들어 진 저 종 소 리



- - 너 하나 를 믿 고 - 살 던 봉 덕 - 아
- - 너 하나 를 정 을 - 불 인 봉 덕 - 아



- 울 지 - - 마 - 라 이 애미 가 - 죄가 많 아 - 이에미가 죄가 많
- 울 지 - - 마 - 라 이 애미 가 - 죄가 많 아 - 이에미가 죄가 많



아 에 밀 레 - 에 밀 레 -
아 에 밀 레 - 에 밀 레 -



넋 이 되 어 우 는 구 나 -
넋 이 되 어 우 는 구 나 -

에 밀 레

작사 : 사
작곡 : 폭
범 : 노
범 : 래
동 : 김
동 : 김
김 : 김



휘늘 어 진 저 소 나 무 너 의 마 음 알 아 줄



까 둥 그 런 가슴 속 에 - 깊은 사 연 - 남아 있



네 찬 서 리 모 진 바 람 잠 못 이 룬 술 한 세 월 뜨 거



운 너 의 소 원 이 제 는 모 아 실 고 울 려



퍼 저 라 멀 리 멀 리 에 밀 레 에 밀 레 멀 리



멀 리 퍼 저 가 라 에 밀 레 에 - 밀 레

추 풍 령

전백산맥 眼部에 자리잡은 추풍령고개는 임진왜란의 忠臣 장지현의 護國精神
을 되새기고 조국의 산하를 생각하며 작곡한것으로 알려짐

소울

구 름 - 도 자 고 가 는 바 람 도

쉬 어 가 는 - 추 풍 - 령

구 비 마 다 한 많 은 - 사 - 연

- 흘 러 간 그 세 월 을 뒤 돌 아 보 - 는

주 름 진 그 얼 굴 에 이 슬 이 - 맺 - 혀 그

모 - - - - 습 흘 렸 구 - - 나

추 풍 - 령 고 - 개 -

소백산맥 眼部에 자리잡은 추풍령고개는 임진왜란의 忠臣 장지현의 護國精神
을 되새기고 조국의 산하를 생각하며 작곡한것으로 알려짐

토 함 산

송창식 작사
송창식 작곡
송창식 노래



토 암 산 에 올 랐 어 라 해 를 안 고 았 어 라
힘 - 차 게 뻔 었 어 라 해 를 향 해 올 렸 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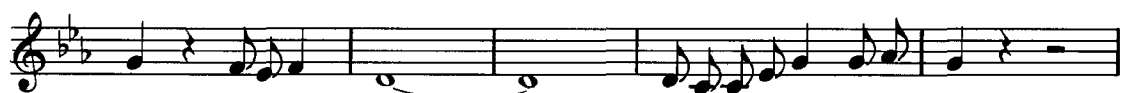
가슴 속 에 품 었 어 라 세 - 월 도 아 - 품 도
팔 을 든 채 이 대 가 로 또 - 다 시 천 - 년 을



품 어 버 렸 어 라 - - 터 저 부 서 질
더 하 겠 - 어 라 - - 세 월 이 흐 른



듯 미 소 짓 는 님 의 얼굴 에 도 - 천 - 년 의 품 파 세
뒤 다 시 찾 는 님 - 하 나 있 어 - 천 년 더 한 이 가슴



월 담 졌 어 라 - 바 람 속 에 실 렸 어 라
을 달 고 시 게 -



흙 이 되 어 남 았 어 라 님 - 들 의 발 자 취



마 음 속 에 사 무 처 서 좋 - 앓 어 라 - -



아 하 - 한 발 두 발 걸 어 올 라 - - 라



맨 발 로 땀 흘 려 올 - 라 라 그 몸 뚱 이 하 나 발 바 닥 들 - - 을



천 - 년 의 두 께 로 떠 받 처 라 산 산 이 가 루 지 어 공 중 에 흘 - 어 진



아 침 그 빛 을 기 다 려 하 늘 을 우 리 러



미 소 로 웃 - - 는 돌 - - 이 - 되 - 거 라

포항의 찬가

길옥윤 작사·작곡
조영성 남희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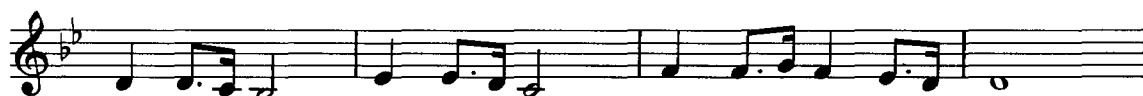
밝고 경쾌하게



파도 - 여 바람 이 여 형 산 - 강 이 여
동 트 - 는 동 해 안 을 바 라 - 보 며 는



우 리 들 은 이 - 나 라 를 사 랑 합 니 다
햇 불 처 럼 희 - 망 이 타 오 름 니 다



별 이 - 여 달 님 이 여 햇 님 - 이 시 - 여
새 소 - 리 망 치 소 리 노 젓 - 는 소 - 리



앞 으 - 로 가 - 는 길 을 밝 혀 주 소 서
활 기 - 찬 이 - 거 리 를 감 싸 줍 니 다



피 주 여 나 는 한 - 아 름 의 장 미 꽃 처 - 럼
주 고 받 는 한 - 마 디 에 마 음 이 가 - 고



향 기 룬 고 푸 르 - 른 향 나 무 같 이
바 라 보 는 눈 길 - 마 민 음 이 있 네

슬기롭고 울바르게 살아-가리-라 오오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인심-도 좋-은 오오

오오 포-항 정-다 운내 고 향 오오

오오 포-항 영-원-하리-라 라 오오

오오 포-항 영-원-하리-라 -

85년 5월 제14회 전국소년체전이 포항에서 개최됨에 따라 노래를 통한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고자 85년 4월 작곡가 김옥윤씨에게 의뢰하여 작사, 작곡하였다.

포항타령

길옥윤 작사·작곡
조영성 남희 노래

흥겹게 민요조로

에 야 디 여 에 야 디 여 에 야 디 여 에 야 디 여

동 이 튜 다 동 이 튜 다 동 해 바 - 다 에 동 이 튜 다
오 손 도 손 우 리 식 구 웅 기 종 - 기 - 우 리 마 을
산 과 바 다 만 나 는 곳 솟 소 리 - 가 - 쟁 쟁 난 다
서 라 별 의 일 을 은 산 업 - 사 - 화 랑 들 아

해 가 뜬 다 - 해 가 뜬 다 - 영 일 만 - 에 - 해 가 뜬 다
인 심 좋 고 - 정 도 많 은 - 우 리 고 - 장 - 살 기 좋 네
새 벽 부 터 - 일 을 하 고 - 별 빛 밟 - 고 - 집 에 가 세
한 마 음 과 - 한 뜻 으 로 - 선 진 조 - 국 - 이 룩 하 세

바 다 에 는 - 물 고 기 폐 땅 위 에 는 오 - 곡 백 과
형 님 좋 고 - 아 우 좋 고 산 높 으 니 물 - 도 많 네
나 라 사 랑 - 이 웃 사 랑 부 모 사 랑 형 - 제 사 랑
언 덕 위 에 - 집 을 짓 고 장 미 꽃 과 향 나 무 심 고

서 - 로 돕 고 - 뭉 - 치 며 는 - 안 될 일 이 - 무 엇 이 나
토 끼 꼬 리 나 - 범 - 꼬 리 나 - 일 새 안 고 - 춤 이 추 네
사 - 랑 아 - 내 - 사 랑 아 - 어 허 동 - 내 을 추 아
아 - 들 낳 고 - 딸 - 도 낳 고 - 한 오 백 년 - 살 아 보 세

아 ~ 에 야 디 여 에 야 디 여

에 야 디 여 에 야 디 여 -

85년 5월 제14회 전국소년체전이 포항에서 개최됨에 따라 노래를 통한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고자 85년 4월 작곡가 길옥윤씨에게 의뢰하여 작사, 작곡하였다.

가 고 파

이 은 상 작사
김 동 진 작곡



내 고 향 남 쪽 바 다 - 그 파 란 물 - 눈 에 보 이 네 꿈 엔



들 - 잇 으 리 오 - - 그 잔 잔 한 - 고 - 향 바 다 지 금



도 그 물 새 들 날 으 리 가 고 파 라 가 고 파 어 린



제 같 이 놀 던 그 동 무 들 그 리 워 라 어 디



간 들 잇 - 으 리 오 - 그 뛰 놀 던 고 향 동 - 무 - 지 금



은 다 무 얼 하 - 는 고 - 보 고 파 라 보, - 고 파 (Hm)



Hm

그 물



새 그 동 무 들 고 향 에 다 있 는 데 나 는



왜 어 이 타 가 떠 나 살 게 되 었 는 고 온 갖



것 다 뿌 리 치 고 돌 아 갈 까 돌 - 아 가 가 서



가 서 한 테 열 려 한 테 열 려 옛 날 같 이 옛 날 같 이 살고 - 지



살 고 지 - 고 내 - 마 음 색 동 웃 입 혀 - 웃 고 웃 고 지 - 나 고 자 - 그 날



그 - 눈 물 없 던 때 를 - 찾 아 가 자 찾 - 아 가

노산 이은상 선생이 서울에서 맑고 푸른 합포만을 잊지 못하여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망향을 노래함

고향 생각

이 은 상 작사
홍 난 파 작곡
김 규 환 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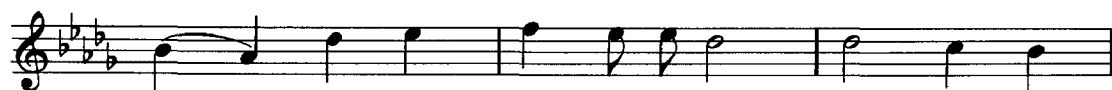
Moderato



어 제 온 고 깃 배 가
고 개 을 수 그 리 니



고 향 으 로 간 다 하 기 소 식 을 전 차 하 고
모 래 으 는 물 결 이 요 배 뜬 곳 바 라 보 니



갯 구 가 으 로 나 갔 더 니 그 배 문 는
구 가 으 만 몽 게 몽 게 때 문 은



멀 리 떠 나 고 물 만 출 령 거 리 오
소 매 를 보 니 고 향 더 육 그 립 소

노산 선생이 1923년 8월 아버님을 여의고 슬픔을 달래기 위해 가덕도에 계실 때 고향을 그리면서 읊은 노래

고향의 봄



1. 나 의 살 - 던 리 고향 은 꽃 피 는 산 - 골
2. 꽃 - 동 - 리 새 동 리 나 의 옛 고 - 향



복 송 아 꽃 살 구 - 꽃 - 아 기 진 달 - 래
파 - 란 들 남 쪽 - 에 서 바 람 이 불 - 면



울 냇 곳 불 곳 꽃 - 대 께 차 리 인 동 - 리
넷 - 가 에 수 양 버 들 춤 추 는 동 -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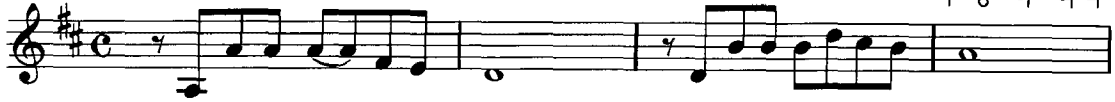
그 속 에 서 놀 던 - 때 가 그 립 습 니 - 다

이원수 선생의 고향인 창원시 소담동을 회상하며 지은 동요이며 창원과 마산에 고향의 봄 시비가 있음. 8·15해방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창가 그늘아래 우리노래 부재의 현실을 바로본 작곡가가 애국애족의 혼을 우리노래 창작으로 달랬던 것이다.

그리운 충무항

Slow Go Go

이 종 목 작사
이 종 목 작곡



1. 갈 매 기 춤 을 추 - 는
2. 동 백 꽃 붉 게 피 - 는

그 리 운 한 려 수 - 도 원
추 억 의 남 망 산 공



잔 잔 한 그 물 결 위 에
들 이 서 거 널 던 그 때

조 각 배 오 고 가 네
그 얼 굴 떠 오 르 네



노 을 이 물 든 그 바 다
갯 내 음 싱 그런 오 술 길

물 보 라 무 지 개 로 꽃 이 피 던 곳
뱃 고 동 아 려 하 게 들 려 오 던 곳



언 제 나 다시 갈 까
못 잊 어 다시 가 네

언 제 나 찾 아 갈 까
그 리 워 찾 아 가 네

충 무 항 마음 의 고 향
충 무 항 마음 의 고 향

타향에서 아름다운 고향 충무항을 못잊어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

그리운 하동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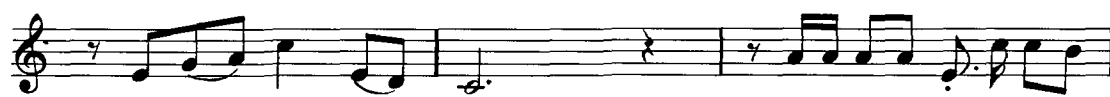
정 두 수 작사
한 사 도 작곡



1. 쌍 돛 - 대 는 님 을 - 신 - 고 포 구 로 돌 -
2. 자 고 - 가 는 저 구 - 림 - 을 머 리 에 이 -



고 섬 진 강 물 은 맑 - 고 맑 아
고 지 리 산 낙 - 낙 장 송



은 어 - 때 논 - 다 쌍 계 사 에 쇠 북 소 리
드 리 - 뵈 는 - 데 다 도 해 로 가 는 길 목



은 은 히 울 먼 여 기 가 산 이 좋 아 물 빛 이 좋 아
섬 진 강 물 은 정 답 계 속 삭 이 머 어 디 로 가 나



아 느 하 계 자 - 리 잡 - 은 하 동 - 포 구 - 야
조 용 하 계 돌 - 아 았 - 은 하 동 - 포 구 - 야

섬진강, 쌍계사, 지리산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찬양하는 노래임

김해시민 행진곡

한 경 동 작사
劉 炳 武 작곡



1. 보아라 푸른 하늘 해가 솟는 다
2. 오너라 이 땅 위 꽃을 피우자



구지봉 서린 정기 누리-에 퍼져
낙동강 굽이 굽이 기쁨-진들 환



가락의 옛터전에 밝은새아침 뜨거운정성으로 희망을안고
선진의 힘찬고동 메아리친다 땀흘려가꾼보람 서로나누며



오늘도 앞서가는 - 우리의 고 장 아 -
언제나 정다워라 - 우리의 고 장 아 -



김해 김해 남도의자랑 한마음 한뜻으로 길이빛내리

예절바르고 질서지키는 시민상 정립을 위하여 제작

내 고향 진주

반야월작사
손석우작곡



삼 천 리 방 - 방 곡 곡 아 니 간 곳 없 다 - 마 는
고 향 은 그 - 누 군 들 꿈 에 두 고 있 으 - 려 만



비 의 봉 산 — 품에안 — 겨 — — 남 강 — 이 흘려가 — 는
 곡 사 — 종소리 — 에 — — 논 개 냇이 잠이 들 — 은



내내 고향향 진진 주주-만은은 진정 정말 못-해- 라-
 고향향 진진 주주-만은은 진정 정말 못-잇- 어-



유리관 칠리 십년 만에 고향 찾아가
타노라 노노라



그 이 름 부 리 면 - 서 달 려 왔 노 라
그 이 름 부 리 면 - 서 달 려 왔 노 라

진주를 상징한 노래

논 개

조 선 종 작 사
조 선 종 작 곡
이 미 자 노 래



백 사 - 장 도 - 슬 퍼 하 고 - 물 결 도 울 - 고 - 간 - 다
 말 도 - 없 이 - 흘 러 가 는 - 푸 른 물 남 - 강 - 수 - 야



논 개 혼 - 적 - 새 - 긴 - 바 - 위 비 바 - 람 - 치 - 네
거 룩 하 - 신 - 논 - 개 - 혼 - 은 어 디 - 숨 - 것 - 느 - 나



고도 리바 울불을 천리 산소 춘곳 一신 청계 은혼 갈개 꽃논 가오 는다 찻해 바말 해아 위를 굴구 누른



— 천 — 년 —
 — 강 — 에 —
 수 남
 — 님 —
 — 고 —
 — 그 —
 — 없 —
 신 —
 가 이
 나 달
 때 대



모	—	말	이	—	없	구	—	나
짜	—	말	이	—	없	구	—	나
민	—							
의	—							
바	—							
물	—							
기	—							

논개의 충절을 기리는 가요

마금산 온천팔경

민요풍으로 흥겨웁게

이 민 기 작사
조 두 남 작곡

mf

마 금 - 산 기 슬 기 에 실 안 개 들 - 면
백 룡 - 산 새 벽 종 은 그 옥 도 한 - 데

펼 꼬 - 리 그 리 운 정 봄 날 은 - 질 - 어 신 천 - 들
쳐 태 - 낀 기 암 마 다 향 불 이 - 돋 - 네 부 룡 - 봉

백 사 정 에 물 새 가 울 - - 고 낙 동 - 강
선 녀 인 양 쌓 인 하 얀 - - 눈 백 월 - 령

정 답 고 야 뚫 단 배 - 한 - 척 좋 을 시 고 -
서 린 구 름 하 소 가 - 깊 - 네

mf

마 - 금 산 마 금 - 산 온 - - 천 넘 치 - 는 더 운 물 에

꽃 이 - - 핀 - 다 네 에 헤 야 - 좋 을 시 고

Fine D.C.
꽃 이 - 핀 다 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마금산온천의 아름다움을 구전으로 전해오던 팔경을 60년대 당시 창북중학교 교장이 노래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재정비하여 현재 지역주민과 관내 학생에게 노래를 보급하여 지역에서 불리어지고 있음

모심기 노래(긴등지)

♩ = MM60
이 상 수 창

아 래 - - - - - 옷 - - - - - 논 - - - - - 모 - - - - - 끝 - - - - - 들-아-헤

에 헤-- 춘삼 - - 월 므-이- - 어 느--맨- - - - - 고

유 영 레 창

우 - 러 - - - - - 님- 아 가-- 실-적 - - 에 -

헤 - 이 춘 삼 - 월 - 에 - - - - - 오 마--더-라

40여명의 모꾼들이 덧배기 가락에 춤을 추며 입장하여 모찌기 작업에 들어간다. 「모찌로 나오시오」 「모찌로 감시다」하고 외치면 모꾼들이 옷을 걸어 올리고 모판으로 들어서게 된다.

모심기 노래 (점심등지)

♩=MM67

주는소리(유영례)

받는소리(김석명 외 일동)



더 디 다 더 - - 디 다 - 점 심 채 미 가 더 디 다



술 가 락 단 반-에-이 세 니-라 고 더 디 다

미나리 찻국에 맛본다고 더디나-더디다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

바가지 죽반에 끼니라고 더디다-더디다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

짜런치매 진치매 끈니라고 더디다-더디다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

짚신한짝 메트리 한짝 끈니라고 더디다-더디다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

삼간집 모랭이 도니라고 더디다-더디다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

작은애미 큰애미 싸운다고 더디다-더디다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

동세야 동세야 한꾸네 가자 요네 점심도 다되었네- 더디다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

40여명의 모꾼들이 덧배기 가락에 춤을 추며 입장하여 모찌기 작업에 들어간다. 「모찌로 나오시오」 「모찌로 감시다」하고 외치면 모꾼들이 옷을 걸어 올리고 모판으로 들어서게 된다.

모짔때의 노래(긴등지)

♩ MM75
주는소리(이상수·유영례) 김 석 명 모 음
이 소 라 채 음
받는소리(김석명의 일동)

들 어 어 - - - 내 세 - - - 세 - 세 - -

들 어 어 내 세 - - 에 헤이이중 - - - 판 - - -

을 을 - 들 - - - 어 어 내 - 서

에 - 에 와 아 - - - - 아 - - 네 - - 세

에 - 에 헤 와 - 네 에 세 - 헤 - 이 - 이 - - 오 - - -

자 리 에 에 와 아 네 에 세

10여명의 일꾼들이 논메기 작업을 하면서 상사디여와 방아타령을 부르고 난 다음 풍작을 기원하며 치기나 칭칭이 소리를 하는데 이때는 큰 머슴을 불러 땀이 자루를 태우고 한바탕 즐긴다.

모질때의 노래(짧은등지)

주는소리(이상수·유영례) 받는소리(김석명 외 일동)

조 리 자 조 리 자 이 모 자 리로 조 리 자

여 러 분 들 손 - 을 - 모 아 이 모 자 리로 메 우 세

영천초목에호미야손들놀리소 -조리자 조리자 이모자리 조리자

밀쳐라 닥쳐라 더우야 잡아 시기소 -조리자 조리자 이모자리 조리자

에우세에우세 이모자리 에우세 -조리자 조리자 이모자리 조리자

10여명의 일꾼들이 논메기 작업을 하면서 상사디여와 방아타령을 부르고 난 다 음 풍작을 기원하며 치기나 칭칭이 소리를 하는데 이때는 큰 머슴을 붙들어 댕 이 자루를 태우고 한바탕 즐긴다.

밀양아리랑

Andantino

날 좀 - 보 - 소 날 좀 - 보 - 소 날 - - - - - 좀 -
 보 - - - 소 동 지 - 설 - 달 - 꽃 본 - - 듯 이 - -
 날 - - - - - 좀 - 보 - - - 소
 날 좀 보 - - 소 날 좀 보 - 소 날 - - - - - 좀 -
 보 - - - 소 어 - 아 - 이 - 리 - 랑 - 고 - - - 개 로
 나 를 - 념 - - 겨 - 주 - - - 소
 아 리 아 리 랑 스 리 스 리 랑 아 라 리 가 났



새마치(괭과리·장고·북)



조용히 - - 이 - - 오 시 는 - 데 인 사 도 못 - - 해 - -
 따르 - - 이 루 - - 민 - - 는 - 을 아 - - 가 - - 니 - -



행 주 치 - 마 - 입 에 물 - 고 - 입 - 만 - 방 - 굿 -
아 - 길 - 위 - 에 - 과 - 가 - 선 - 해 - 있 - 네 -



Andute
(solo)

아 리 랑-- 스 리 랑 아 라-리-가 났 - 네

아 리 랑 고 개로 - 날 - 념 겨주-- 소

Allegro

영 남 - 루 아
저 건 - 너 내

래 - 의 남 천 - - 강 - - 물 - - - 은
숲 - 은 외 외 - - - - - 한 - - - - - 데

아 랑 - 의 - 정 절 절 - 이 -
아 랑 - 의 - 정 절 절 - 이 -

어 피 애 어 답 있 포 네 -
어 피 애 어 답 있 포 다 -

청하하고 한적한 서울풍에 비해 원숙하면서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4. 4조 가락에 전통적인 얼이 담겨있고 무엇(해방, 자유, 행복, 사랑하는 님등)인가를 갈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요로 해방이전부터 전해내려오고 있음

밀양의 노래

(밀양향토가)

민요풍으로
가사뚝뚝히
느리지 않게

이운성 작사
권태호 작곡

화영동 악산은 세월에
하늘 발돋움 이뚝
솟섰고 고고
남아재 천랑강의
여울여울이 호
죽약 르는
곳에
에
회전들 오설판 리푸마 진른
역사 의
숨은 결의
을 따
라
아先들 득賢마 한의
신라가
야이
향기
가
피
나
네
찬란한 새나라의
아침이
왔다
우리모두
마음
모아
노래
를
부
르
며
내
고
향
미
리
벌
에
꽃
을
피
우
자
-
내
고
향
미
리
벌
에
꽃
을
피
우
자
-

1963년 음력 4월 16일 제 1 회 아랑제때 제작되었음

봄 편 지

서덕출
윤극영
유곡



연 못 가 에 새 - 로 편 비 들 앞 을 따 - 서요



우 표 한 장 불 - 여 서 강 남 으 로 보 - 내 면



작 년 에 간 제 비 가 푸 른 편 - 지 보 - 고 요



대 한 봄 이 그 - 리 워 다 시 찾 아 옵 - 니 다

하반신을 못쓰는 불구의 몸인 “서덕출”선생이 1925년 어느봄날 제비는 봄소식을 알고 돌아오는데 일제 압박에서 고통을 받고 봄을 갈망하는 이 민족에게 언젠가는 해방이 오리라는 기대속에 겨레의 마음을 달래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곡을 만들었다고 함

사명대사 찬가

Andant *mf* 신 소 야 사
권 영 철 곡

1. 강 산 은 피 바 다 되 고 겨 레 는 흘 어 지 고
2. 평 화 는 피 맺 힌 소 원 원 한 도 녹 이 시 고

원 수 의 복 새 질 - 에 초 목 도 시 들 때
한 몸 을 내 어 던 - 겨 적 진 을 나 들 때

가 사 를 벗 으 시 고 큰 칼 을 잡 으 시 고
도 적 도 눈 이 부 셔 머 리 를 조 아 리 고

앞 장 서 적 을 막 - 아 이 나 라 건 지 시 니
헛 된 꿈 깨 어 나 - 서 다 투 어 물 러 가 니

f (후렴)
거 룯 하 셔 라 사 명 대 사 그 자 - 취

rit
태 양 처 럼 빛 나 는 사 명 대 사 그 자 취

임진왜란때 승려의 몸으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무찌른 용맹성을 찬미한 노래

산토끼 행진곡

이 일 레 작사
이 일 레 작곡



산 토 끼 토 끼 야 어 디 를 가 느 냐
산 고 개 고 개 를 나 혼 자 념 어 서



깡 토 총 실 깡 토 총 실 뛰 알 밤 서 어 주 디 워 를 가 올 테 냐
깡 토 총 실 깡 토 총 실 뛰 알 밤 서 어 주 디 워 를 가 올 테 냐

1930년 일제시대 이일레 선생이 이방국교 재직중 소풍을 갔다가 동네뫼산인고
장산에서 토끼가 자유롭게 뛰어가는 것을 보고 일제하의 억압받는 민족을 생
각하며 지은 노래임

3·1 사의 노래

최현배 작사
나운영 작곡



1. 황 방 산 뻔 어 내 려 천 연 성 이 났 으 니
2. 무 룡 산 눈 이 솟 아 달 빛 이 더 욱 밝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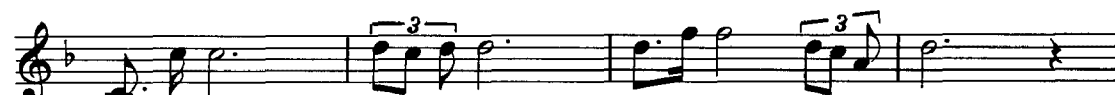
나 라 를 지 켜 오 던 좌 병 영 이 아 닌 가
산 천 색 맑 고 맑 아 나 라 안 으 뜜 일 세



시 루 성 염 포 강 은 왜 란 을 내 쫓 던 곳
수 러 한 일 산 수 에 선 창 도 빛 났 도 다



삼 일 사 열 사 들 은 독 립 을 외 쳤 도 다
우 리 는 힘 을 다 해 낙 토 를 이 룩 하 자



(후렴) 청 년 아 청 - 년 아 울 - 산 청 - 년 아



삼 일 정 신 이 어 받 아 나 라 위 해 일 하 - - 세

울산의 병영 3·1독립만세 사건에 연루된 순국한 의사들을 모신 3·1사당 에서
매년 추모제를 올릴때 부르기 위한 한글학자 최현배선생이 작사하여 만든 노
래로 3·1사 봉제위원회에서 제정함

삼천포 아가씨

반야월 작사
송운선 작곡



비 나 리 -- 는 -- -- 삼 -- 천 포 -- -- 에 부 산 배 는 떠 나 -- 간 --
조 개 곁 -- -- 질 -- -- -- 웅 -- 기 중 -- -- 기 포 개 놓 은 백 사 -- 장 --



다 어 린 나 -- -- 를 -- -- 울 려 -- 놓 고 떠 --
에 소 품 장 -- -- 난 -- -- 하 던 -- 시 절 잊 --



나 는 -- 내 님 -- 이 -- 여 이 제 -- -- 가 면
있 나 -- 입 이 -- 시 -- 여 이 배 -- -- 타 면



오 실 -- -- 날 자 일 년 이 요 이 년 이 -- -- 요
부 산 -- -- 마 산 어 디 든 지 가 련 만 -- -- 은



돌 아 와 요 네 돌 아 와 요 네 삼 천 -- 포 내 -- 고 -- 향 으 -- 로
기 다 려 요 네 기 다 려 요 네 삼 천 -- 포 아 -- 가 씨 -- -- 는

삼천포는 1956년 시로 승격된 신항구 도시로서 부산 여수간의 한려수도 뱃길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노래가 나올때쯤에는 시승격후 10년을 바라보는 때여서 그 면모가 사뭇 변해 있었는데 반야월의 날카로운 눈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선 구 자

윤 해 영 작사
조 두 남 작곡



일 - 송 정 푸 른 솔 은 홀 - 로 늣 이 갔 - 어 도
용 - 두 레 우 물 가 에 밤 - 새 소 리 어 들 - 어 때
용 - 주 사 저 녀 종 이 비 - 암 산 에 을 - 릴 때



한 - 줄 기 해 란 강 은 천 - 년 두 고 흐 - 른 다
뜻 - 길 은 용 문 교 에 달 - 년 두 고 비 - 른 다
사 - 나 이 굳 은 마 음 길 - 이 새 겨 두 - 었 네



지 난 - 날 강 가 에 서 말 달 리 던 선 - 구 자
이 역 하 늘 바 보 며 활 쏘 던 선 - 구 자
조 국 - 을 찾 겠 노 라 맨 세 하 던 선 - 구 자



지 금 은 어 느 곳 에 - 거 - 친 꿈 이 깊 었 나

가사의 내용이 기마민족의 기상이 스며드는 곡이다. 진취적이며 깨끗한 의지가 상행하는 악곡의 구성과 밀접하게 잘 표현되었다. 국민가곡으로서 오랜 동안 애창되어 왔고 기상과 기백이 잘 표현된 가곡이다.

쇠머리대기 노래



서 화 골앞딛마지기 쇠머 리-대어 살 풀고 개양쫓고 신 떨 어-왔네
집채같은쇠머리대기 옥짜 는-등치 아 무렴 우리신명 당 해 내-려고



장 하도다 동군 소- 억세구나서군-소 동 군기사백만군사 짜고오-른 다
성 난머리 버쩍 들어, 회회받아넘겨-라 끝 이번쩍천지-가 울려퍼-졌다



(후렴) 반 아 라 (하) 떠 밀 어 라 (하) 옥 박질 러-- 라



밀 어 불 여 이 겨 - 라 풍 년 이 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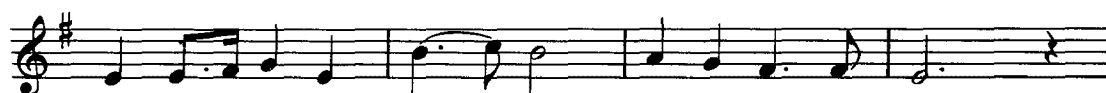
무형문화재 제25호인 영산 쇠머리대기 행사의 주제곡

시민응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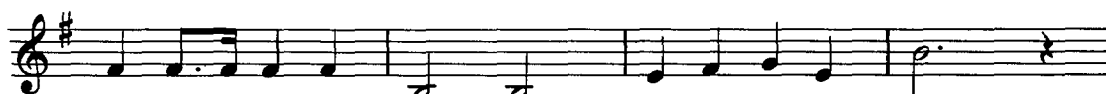
남도영 작사
유병무 작곡



소백산 뽕어 내 - 려 구 간 을 낚 아
힘오른가간정손빛내에는살러
유오구한락신우리



금별의 넓은 들 - 이 건 아 를 길 러
낙동강진긴가뽕이젇줄로살아
힘쓰자몽쳐뛰자길합계



김해의 높은 기 상 여 기 에 편 다
김해의의역한센검힘신을여기없보인편다



(후렴) 분 산 성 싸 음 정 - 신 되 살 러 내 - 자



달 러 라 뛰 어 라 드 높 이 쳐 들 - 자

각종 경기시 선수단의 사기 진작에 최대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작

아 림 은 내 고향

최길원 작사
파도성 작곡
오균아 노래

디스코

1. 덕 유 산 눈 이 녹 - - - 아 - 칠 십 리
영 호 강 - 은 - 수 승 대
바 윗 - 돌 을 입 을 안 듯 돌 아 가 네 -
뽕 을 따 서 누 에 치 던 산 골 짝 은 정 - 든 고향
오 고 가 지 못 - 하 는 그 시 절
그 추 - - 억 에 - 그리 움 - - 은
달 러 - 가 네 아 림 은 내 고향 -

2. 시악실 건제정에 진달레 봄이오면 우두렁 뻐쭈새도
숨이차서 울고넘네 빨간능금 따내던곳 그 골짜은 내 살던곳
뒤돌아서 보건만 청춘은 간곳없고 황혼길에 달려가네 아 림 은 내 고향

1980년 고향을 아끼고 음악을 사랑하는 거창출신 최길원씨가 고향의 사계절을 각 유원지 및 특산물에 묘사하여 고향에 대한 애뜻한 정을 그리워하면서 거창출신 가수 오균아씨가 노래를 불러 지금도 이고장에서 자주 불리워지고 있음

약진의 마산

썩썩하고 힘차게
느리지 않게

정진업 작사
조두남 작곡



옛동산에 올라

이 은 상 작사
홍 난 파 작곡

내 늘 던 옛 동 산 에 오 늘 와 다 시 서

니 산 천 의 - 구 란 말 옛 시 인 의 허 사 로

고 예

섰 던 그 큰 소 - 나 - 무 버 허 지 고 없 구 - 료

지 팽 이 도 루 짚 고 산 기 습 돌 아 서

니 어 느 해 풍 - 우 엔 지 사 태 저 무 너 - 지 고

그

흠 에 새 술 이 - 나 - 서 키 를 재 려 하 는 구 료

노산선생이 1928년 일본유학을 마치고 고향인 마산에 돌아와 생가의 뒷산인 제비산에 올라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읊은 노래

울산 시민의 노래

설 두 하 시
이 상 근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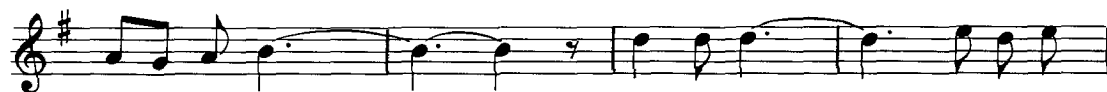
1. 금 수 강 산 동 남 을 그 옛 날 부 터
2. 대 한 의 동 읍 을 타 힘 찬 호 흡 에



곧 전 하 게 지 켜 온 이 고 장 이 다
문 화 의 아 름 다 운 꽃 을 피 워 라



(후렴) 일 어 서 라 - 시 민 들 아 - 다 일



어 서 라 - - 이 제 는 - 우 리 들



의 - 일 할 차 - 례 다 - -



이 제 는 우 리 들 의 일 할 차 - 례 다 -

울산시의 시 승격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 부를수 있는 노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과 시당국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 짐

울산아가씨

작사 미상
작곡 미상



1. 동 해 나 - 울 산 은 - - - - - - - - - -
2. 울 해 산 의 - 아 가 씨 - - - - - - - - - -
3. 울 산 의 - 큰 애 기 - - - - - - - - - -



경 치 도 - - - - - - - - - -
입 오 실 - - - - - - - - - -
가 신 님 - - - - - - - - - -
중 지 만 - - - - - - - - - -
문 전 에 - - - - - - - - - -
기 다 려 - - - - - - - - - -
인 심 도 좋 고 요
쌍 초 통 달 고 요
애 타 는 마 고 음



큰 애 기 - - - - - - - - - -
삽 살 개 - - - - - - - - - -
이 마 에 - - - - - - - - - -
마 음 은 - - - - - - - - - -
재 - - - - - - - - - -
손 - - - - - - - - - -
열 두 폭 치 - - - - - - - - - -
문 밖 에서 - - - - - - - - - -
넋 없 이 서 - - - - - - - - - -



실 백 - 자 - - - - - - - - - -
이 제 - 나 - - - - - - - - - -
언 제 - 나 - - - - - - - - - -
없 어 서 - - - - - - - - - -
저 제 나 - - - - - - - - - -
오 시 나 - - - - - - - - - -
전 복 씬 - 일 세
기 다 린 - 다 내
그 리 운 - 님 아



에 헤 - - - - - - - - - - 야 -



에 해 - - - - - - - - - -
울 해 산 의 - 아 산 은 - - - - - - - - - -
산 산 의 - 큰 애 가 씨 - - - - - - - - - -
을 산 의 - 큰 애 기 - - - - - - - - - -
중 기 도 - 하 지
유 정 도 - 하 지
초 조 한 - 모 습

울산과 포항 연안에서 불리지던 고대의 민요를 작곡가 김희조씨가 편곡한 것임

유자따는 남해처녀

이 원 철 작사
한 산 도 작곡
하 춘 화 노래

Modera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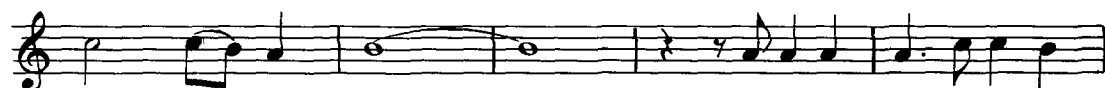
한 나 절 바 닷 길 이 그 령 게 도 멀 - 다 - 먼
금 산 에 바 실 안 개 가 산 허 리 를 감 - 돌 - 고



육 로 길 구 름 - 다 리 타 고 오 - 시 - 지
치 자 꽃 시 들 - 어 도 소 식 이 - 없 - 나



이 락 - - - 포 기 숨 - 에 - 서 유 자 따 는
상 주 - - - 포 바 닷 - 물 - 에 처 녀 노 을



남 해 - 처 녀 섬 돌 아 오 는 배 를
타 는 - - 데 애 타 는 내 마 음 도



지 켜 보 는 가 숨 에 물 결 만 일 령 이 - - -
그 리 움 에 설 움 에 뜬 겹 게 노 을 처 - - -



네 그 리 - 움 처 - - 림
림 타 기 - 만 하 - - 네

1972년 남해개발에향단합회에서 동양 최대의 다리인 남해대교 개통을 앞두고 관광남해의 특산물인 유자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남해군청 재서울남해향우회, 재부산남해향우회의 후원을 받아 가수 하춘화의 노래로 디스크를 만들어 무료로 보급하였음

의령 청소년 노래

♩ = 76 이 재 만 작사
여 야 성 작곡

사 랑 이 꽃 피 고 - 용 기 가 샘 솟 는 -
행 복 이 꽃 피 고 - 의 지 가 샘 솟 는 -

우 리 는 가 시 내 - 우 리 는 머 스 마 -
우 리 는 가 시 내 - 우 리 는 머 스 마 -

달 리 자 달 려 가 자 내 일 을 향 - 하 여 -
달 으 자 달 아 보 자 내 일 을 향 - 하 여 -

정 암 강 물 결 따 라 세 계 를 돌 자 -
자 암 굴 구 름 따 라 세 계 를 돌 날 자 -

라 라 라 탈 라 라 - 라 라 라 탈 라 라 -

꽃 처 럼 피 - 리 라 의 령 - 청 - 소 년 -
별 처 럼 빛 - 나 리 의 령 - 청 - 소 년 -

오 늘 도 내 - 일 도 먼 훗 날 - 에 도 -
오 늘 도 내 - 일 도 먼 훗 날 - 에 도 -

의령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중인 여야성이 의령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노래를 보급하고자 의령의 상징인 차굴산 및 정암강(남강)을 배경으로 1985년 작곡 의령군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보급하여 불려지고 있음

의병의 노래

이 정 호 작사
이 상 근 작곡



구 통 산 골 짜 기 에 말 굶 소 리 진 동 하 고
홍 의 장군 앞 장 서 니 맨 주 먹 - 백 성 들 이



정 암 강 푸 른 물 결 선 혈 로 얼 룯 졌 네
이 강 토 방 방 곡 곡 불 길 갈 이 일 어 났 네



임 - 진 년 사 월 달 에 왜 - 구 떼 침 노 하 니
전 - 술 도 신 출 귀 몰 왜 - 적 떼 물 아 내 니



의 병 의 첫 함 성 을 겨 레 에 - 외 치 었 네
의 병 의 구 국 항 쟁 이 나 라 를 구 하 었 네



(후렴)아 거 룯 타 그 용 맹 호 국 의 방 패 되 어



아 받 들 자 그 의 기 충 의 의 얼 - 이 어

임진왜란시 의병을 일으켜 수많은 왜적을 물리쳐 많은 전공을 세운 만우당 객재우 장군의 충절을 기리고 군민들에게 의병 정신을 계승하고자 1972년도에 작곡하여 의병제 행사시 불려지고 있음

조국과 함께 영광있으리

최 종 두 시
김 창 근 곡

(♩=84) *mp* 전주 4 소절

아 득 한 우리 의 선 사 인 들 은 이 고 장 깊은 산 골

넓 은 계 곡 을 찾 아 - 바 위 에 돌 로 새 겨 풍 년 을 빌 었 다 네 -

mf 산 짐 승 도 물 고 기 도 더 욱 많 이 수 화 하 고

발 갈 아 뿌 - 린 씨 아 토 도 주 령 주 령 풍 년 이 와 서

아 득 한 옛 날 그 때 이 미 이 땅 은 옥 토 였 었 네 -

(♩.=92) *mp*

기 름 진 옥 - 토 풍 성 한 바 - 다 -

울 창 한 산 - 골 산 과 바 다 어 울 려 -

mf 축 복 받 은 이 땅 에 개 변 천 신 은 -



학 을 타 고 날 아 와 신 주 산 정 수 리 에 -



날 개를 펴고 - 학 성 고 을 을 이루 었 으니 아 - 살 기 좋 은 고 장 은 -



그 때 이 미 하 늘 의 축 복 을 받 - 았 네 -



하 늘 의 축 복 속 에 이 어 진 고 장 풍 성 함 이 언 - 제 나 이 어 진 고 장



신 라 고 려 이 조 의 수 많 은 인 결 이 이 고 장 의 혼 적 을 남 겨 남 - 겨



나 라 향 한 충 성 은 들 꽃 처 럼 어 우 러 저



치 술 의 정 절 - 호 국 의 전 통 - 이 나 라 를 지 키 는 일 에



초 개 갈 이 목 - 숨 을 내 - 던 - 진 임 란 의 공 - 신 이 수 없 이 나 - 왔 네

(♩ = 84)



이 전 통 이 기 개 이 기 상 이 오 늘 의 고 장 을 있 게 했 으



니 기 미 년 인 들 어 찌 그 냥 보 고 만 있 었 으 라 -



황 방 산 기 습 에 울 려 퍼 진 그 함 성



만 세 - 만 세 를 외 치 던 우 - 리 의 선 - 인 - 들



그 나 라 사 - 랑 일 념 이 살 아 있 는 가 -



민 족 의 비 - 극 육 이 오 침 략 에 도



끝 내 - 끝 내 이 땅 은 짓 밟 히 지 않 - 았 으 니



영 원 한 조 국 이 여 이 고 장 을 지 키 는 동 해 의 처 - 용 이 -



지 금 도 살 - 아 있 - - 음 - 인 가 -

(♩=110) 힘차게

아득한 우리의 선 - 인들 - 이

일찌기 이 - 땅을 기름지 게 꾸었 듯 이

번영의 깃발을 높이 - 세우 고

약진약진조 - 국의 조국의선봉이 되 어

아 - 살기 좋은 우리고 장울 산울 산 우리의울 산 -

조국과함께 영광있 으 리 조국과함께

영광 있 으 리 -

83년 10월 “울산예술제”의 종합무대 “울산대행진” 서막곡으로 제정함

줄다리기 노래

홍겹게 (♩=60) 유 병 무 작곡



서풍을 불물신 이치고신 큰백줄 들-에-사 큰줄 당-겨-서-
을 불물신 갈고신 줄을 만-군-다 해발떨 장-한-데-
어-진-다



애살심고신명-떨-고 물음가-뿔-네-
대창님은말달-리-고 진치-는-승-기-
진동하느천-지-에 터지는함-성-



오-왜- 증산-아 술만들어 증산-아
위야 위야 차 줄잡이겨 라 당겨 라 (하) 위야 위야 차



줄을메고 나-가-자 풍년-을-메 자-
밀어라야 들이쳐-라 송전-을-쳐 라-
이졌다 춤을춘다 달이-두-둥 실-

무형문화재 제26호인 영산 줄다리기 행사의 주제곡

진주라 천리길

작사 미상
작곡 미상

진진 주주 라라 천천 리리 길길 을을

내내 어어 이이 왔왔 든든 고고

서달 장도 대박 에은 찬남 바강 램만

나 무기 등을 일겨 싸안 고서

아 타향살이 내심사

아 불려보던 옛노래

를는 위로 할어 줄데 모르느 냐

진주를 그리워 하는 노래

축석루의 하룻밤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하룻밤 울 - 고 - 갈 - 길 내 -



어이 - 왔던 - 고 기둥 없 는
속절 없 는



주춧돌 만 달빛속 에 - 우 - 는 - 구 - 나
세월 속 에 내청춘 만 - 시 - 들 - 었 - 네



허물 - 어 - 진 축석루 에 나만 홀로 -
호국 - 사 - 의 종소리 가 처량하 게 -



앞 - 아 - 서 데 그 옛 - 님 - 을
우 - 는 - 데 의 지 - 할 - 을



불 - 러 - 보 - 는 고 - 달 - 폰 - 길 - 손 - 인 - 가
없 - 는 - 이 - 몸 어 - 디 서 밤 을 새 가
리

허물어진 축석루의 옛모습을 그리는 노래

충효정(면민관) 노래

전희수 작사
박노희 작곡



가 세 가 세 찾 아 가 세 면 민 관 으 로



경 치 좋 고 인 심 좋 은 충 효 정 으 로
늑 수 청 산 천 지 낙 원



우 리 들 의 전 당 이 요 노 인 들 의 보 금 자 - 리
충 효 예 는 우 리 근 본 우 리 들 의 자 랑 이 - 라



오 손 도 손 의 논 모 아 내 고 장 을 만 들
서 로 서 로 화 합 하 여



자 내 고 장 을 빛 내 리

1979년 유어 면민관 건립시 면민화합을 목적으로 작곡 노래로 이어오고 있음

하동포구 팔십리

남 대 우 작사
이 재 호 작곡



1. 하 동 포 구 팔 십 - 리 에 물 새 - 가 - 을 - 고



하 동 포 구 팔 십 리 에 달 이 뜬 - 니 - 다



섬 호 - 정 - 땃 돌 위 에 시 를 쓰 는 사 - 람 - 은



어 느 고 향 떠 나 - 온 풍 류 - 객 인 - 가

2. 하동포구 팔십리에 굽돌이 배야
하동포구 팔십리에 봄을 실어라
백사장 모래위에 남아있는 글자는
꽃바람에 쓸리는 충성충자요

3. 하동포구 팔십리에 물결이 고와
하동포구 팔십리에 인정이 곱소
쌍계사 종소리를 들어보면 알게요
개나리도 정답게 피었습니다

하동포구의 아름다운 절경과 섬진강 맑은물, 흰백사장에 드나드는 풍류객을 위
로하기 위하여 지은 노래임

해거름 등지(저녁무렵등지)

유 영 레 창



오 - 늘 -

해 - - - - 가 다 - - 졌 - 는 - -



가 - 헤 - - - 이 - 골 - 골 - - 마 - 다 - - - 연 기 - 나 - 네



우 러 어 어 어 예 에에반어 어 데 가 아 고 예



에 이 - 동 절

할 - 줄 그 - - 모 - 르 - - - - - 는 고



저 건네 너리석 바 구 앵 피배자를걸었더니 바 램이불까 말까



걸 어 갈 까 열려로세 여기도 꽃고저기도꽃고 주인네마누라살에도꽃세



쏘목쏘목송거라 - - 마댕이나메우세 드문드문송거라 - - 고랭이나메우세

저녁무렵부터 20여명이 삼적에 필요한 도구를 들고 입장하여 삼을 삼으면서 합창한다.

향 토 송 가

이 민 기 작사
제 갈 삼 작곡



1. 우	리	봉	허	리	안	개	열	두	꼭	—	병	풍	—
2. 봉	래	정	질	벽	난	간	뿌	린	가	—	량	비	—
3. 돌	문	안	아	침	구	름	다	홍	치	—	마	꼭	—
4. 여	항	산	능	선	마	다	눈	보	라	—	칠	맨	—



빠	꾸	기	애	절	한	정	꽃	—	이	—	지	네	—
파	래	끼	여	을	물	에	은	—	가	—	뎌	다	—
단	풍	인	오	술	길	이	가	—	거	—	리	고	—
의	림	사	저	녀	종		목	—	머	—	울	고	—



냉	천	골	약	수	터	에	심	—	신	다	음	어	—
짙	음	을	안	겨	주	는	광	—	암	해	수	욕	—
해	저	문	능	지	물	이	희	—	배	불	타	면	—
현	뎛	배	돌	아	오		솔	—	섬	나	루	터	—



회	상	의	옛	가	락	을	달	래	나	—	불	까	—
물	새	도	백	사	장	은	나	이	가	—	젓	네	—
님	보	낸	갯	마	을	에	밤	새	외	—	로	워	—
아	가	씨	목	수	건		눈	가	인	—	인	다	—

의창군 진동면이 고려때 우산현으로 설치되었을시 우산현의 아름다운 팔경을 노래한 것으로 구전으로 전해오다 65년곡을 명문화하여 삼진학생들에게 보급되어 불리워지고 있음

감 수 광

(제주도의 방언으로「가시리」와 같은 말임)

길 옥 윤 작사
길 옥 윤 작곡



바 람 부 는 제 주 에 - 는 돌 도 많 지 - 만
겨 올 오 는 한 라 산 - 에 눈 이 닳 혀 - 도
어 찌 다 가 나 를 두 - 고 떠 난 다 해 -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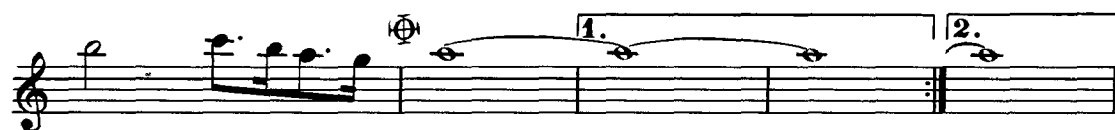
인 정 많 고 마 음 씨 고 - 운 아 가 씨 도 많 - 지 요
당 신 있 - 어 그 리 - 우 - 면 혼 볼 조 들 아 읊 - 서 오
못 잊 - 어 그 리 - 우 - 면 혼 볼 조 들 아 읊 - 서 예



감 수 광 감 수 광 날 어 떠 험 령 감 수 광



설 릉 사 람 보 낸 시 엇 가 거 들 랑 - -



혼 조 읊 서 예 예



순박하고 마음씨고운 제주아가씨가 사랑하는 님을 육지로 떠나 보내면서 다시 재회하기를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을 표현

삼다도 소식

유 박 시 호 작사
준 작곡

삼 다 도 라 제 주 에 는 아 가 씨

도 많-은 데 바 닷 물-에 셋 은 -

살-결- 옥 갈 이 귀 엽 구- - 나 -

미 달 역 을 따 오 리 까- 소 라 를 딸- 까 비 바 리

하 소-연 이 물 결- -속 에 꺼-저-가 네 응 -

들 러-오 는 물 결 에 꺼 저-가- 네 -

돌, 바람, 여자가 많은 삼다의 섬 제주도를 부각시키면서 순박한 제주 아가씨와 아름다운 정경을 노래

서귀포 사랑

강사랑 작사
나화랑 작곡



추억이 서린 서귀포에서의 옛사랑의 향수를 그리워 하면서 슬픈 마음을 달래려
는 마음을 표현

서귀포를 아시나요

정유 태권민 작사
유성민 작곡



밀석 감양 향빛 --- 기 풍긋 겨단 오배 는가



가 고 싶 은 내 고 --- 향
그 립 같 은 내 고 --- 향



칠 백 --- 리 바 다 건 - 너 서 귀
칠 백 --- 리 바 다 건 - 너 서 귀



포 를 아 시 - 나 요
포 를 아 시 - 나 요



동 백 꽃 산 송이 처 럼 예쁘 게 핀 비바리 들
한 라 산 망아 지 들 한가 로이 물을 뜬 고



꽃 노래 도 흥 겨 읊 게 미역 따고 밀감을 따 는 그 리
구 비 구 비 폭 포 마 다 무지개가아름다 - 운 그 리



운 내 - 고 - 향 - - 서 귀
운 내 - 고 - 향 - - 서 귀



포 를 아 시 - 나 요
포 를 아 시 - 나 요

요

그리운 마음의 고향 서귀포를 그리워하는 향수를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정경을 회상하며 표현한 노래.

서귀포 칠십리

추미림 작사
박시춘 작곡

트로트



바닷물--이 철철--철철-- 파도치는
자갯--물--이 철철--철철-- 물에젖는

서--귀--포--진주--개--는
서--귀--포--머리--빨--던

아가씨--는 어디--로--갔--나
아가씨--는 어디--로--갔--나

휘파람도--그리워라--쌍뚫대도
저녁달도--그리워라--저녁별도

그리--워--서귀포--칠
그리--워--서귀포--칠

십리--에--항--하--이--진--다--
십리--에--물--새--가--운--다--

서귀포 바닷가의 아름다운 정경으로 제주아가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승화시켜 표현

오돌또기

굿거리 <메기는소리>

제주도 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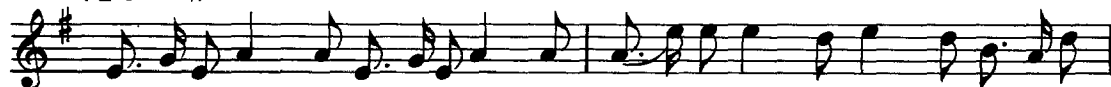


오 - 돌 - 또 - - - 기 저 - 기 춘 - 향 - 나 - - 온 - 다
한 - 라 - 산 - 중 - 허 - 리 에 지 - 러 미 은 송 - 만 - - - 송
청 사 - - 초 - - - 롱 에 불 - 밝 혀 - - - 뚱 - - 고 - -



달 - - 도 밝 - - - - 고 내 - 가 머 리로 갈 - 까 나
서 - - 포 해 녀 - - - 가 바 다 에 든 - 송 갈 - 까 나
춘 향 - 의 방 - - 으 - 로 에 루 와 감 돌아 드 는 구 나

<받느소리>



둥 그데 당 실 둥 그데 당 실 여 - 도 당 실 연 자 버 리 고



달 - 도 밝 - - - - 고 내 가 머 리로 갈 - 까 나

제주도의 대표적인 놀이요로 제주도의 향취를 흠뻑 담고 있는 노래로서 제주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요이다. 이 민요에는 임진왜란 무렵 제주도의 한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 안남국에 표류하여 그곳에서 결혼하여 3남3녀를 두고 생활하다 고향에 돌아온 후 안남에 두고온 처자 생각이 간절하여 남쪽을 바라보며 부르던 노래라는 전설이 있다. 악보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간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 민요편, 1984)”에서 채보하였음.

이야홍 타령

세마치 제주도 민요

이 - 야 홍 타 령 - - 에 - - - -
 한 - 라 산 타 상 령 - - 에 - - - -
 성 - 산 일 상 출 - - 봉 - - - -

정 떨 - 어 - 졌 - - 구 - - 나 - 이 - 야 - 홍 -
 높 고 - 도 - 높 - - 은 - - 봉 - 이 - 야 - 홍 -
 해 뜨 는 - 건 - 고 - - 와 - - 요 - 이 - 야 - 홍 -

그 - 령 구 말 - - 구 요 - 이 야 - 홍
 그 - 령 구 말 - - 구 요 -
 성 - 산 일 - 출 - 이 라 -

야 아 - 홍 - - 다 - 끝 을 말 - - - 인 가 -

오돌또기와 더불어 제주도의 대표적 놀이요로 가장 널리 알려진 제주도 민요로서 제주도 소리꾼의 허벅장단에 의해 볼때 3분박 3박에 알맞게 구성됐다. 음조식은 4도 현상에 의한 두음계의 결합형으로 볼 수 있다. 악보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간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 민요편, 1984)”에서 채보하였음

해녀소리

제주도 민요

이 여 도 사 나 - 에 - 에 이 여 도 사 나 - 에 에

이 여 도 사 나 에 - 에 이 여 도 사 나

이 여 도 사 나 에 에 이 여 도 사 나 에 에

에 에 이 여 도 사 나 이 여 도 사 나

요 벨 타 고 - 오 - 오 어 - 덜 갈 고 어 어
미 연 감 테 - 어 - 어 휘 - 칩 휘 칩 어 어
한 번 캐 연 - 어 - 어 맛 - 을 보 난 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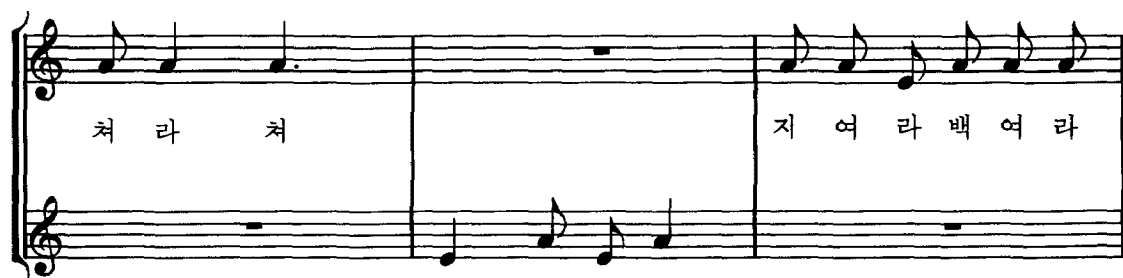
이 여 도 사 나 - 에 에 이 여 도 사 나 -

진 - 도 바 당 - 아 - 아 골 로 - 간 다 아 - 아
홍 - 합 대 합 - 아 - 아 비 쪽 - 비 쪽 어 - 어
일 - 천 간 장 - 아 - 아 시 르 르 한 다 아 - 아

에 에 이 여 도 사 나 아 아 이 여 도 사 나



이 여도사나 - 에 에 이 여도사나



쳐라 쳐라



지여라 백여라

콩 콩 지여라

제주도 해녀들이 작업하기 위해 노저어 나가면서 부르는 소리로 가끔 해엄쳐 나가면서도 부른다. 한 사람이 3분박 2박에 메기면 다른 사람이 역시 3분박 2박에 소리를 받아 노동의 동작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독특한 효과를 자아낸다. 제주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요이다.

악보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간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 민요편, 1984)”에서 채보하였음.

〈索引目錄〉

市道 象徵物 指定現況

시 도 별	꽃	나 무	새	면
釜 山	동 백	동 백	갈 매 기	11
大 邱	목련	전 나 무	독 수 리	12
仁 川	장 미	목 백 합	두 루 미	13
光 州	철쭉	은행 나 무	비 들 기	14
京 畿	개 나 리	〃	〃	15
江 原	철쭉	잣 나 무	빼 꾸 기	16
忠 北	백 목련	느티 나 무	까 치	17
忠 南	국화	능수 버 들	원 앙 새	18
全 北	백일홍(목백일홍)	은행 나 무	까 치	19
全 南	동 백	〃	산 비 들 기	20
慶 北	백일홍(목백일홍)	느티 나 무	왜 가 리	21
慶 南	장 미	〃	백 로	22
濟 州	영 산 홍	녹 나 무	큰오색딱다구리	23

市郡 徽章指定 現況

시 도 별	시 군 별	면
경 기 도	수원시~용진군	29~36
강 원 도	춘천시~삼척군	37~42
충 청 북 도	청주시~단양군	43~46
충 청 남 도	대전시~천원군	47~51
전 라 북 도	전주시~익산군	52~56
전 라 남 도	목포시~신안군	57~63
경 상 북 도	포항시~울릉군	64~72
경 상 남 도	창원시~합천군	73~79
제 주 도	제주시~남제주군	80

市郡 象徴物 指定現況

시 군 별			꽃		면	나 무		면	새			면
경기도												
수원시	원시	시	철	쪽	92	은	행 나 무	103				
성남시	남시	시		〃	92		〃	〃	까		치	109
의정부시	정부	시		〃	〃	жат	나 무	103	비	들	기	113
안양시	천시	시	개	나 리	85	은	행 나 무	103	독	수	리	110
부천시	천시	시	개	복 사	89		〃	〃				
광명시	명시	시	장	미	91		〃	〃	까		치	109
송탄시	탄시	시	개	나 리	85		〃	〃	비	들	기	113
동두천시	두천	시	장	미	91		〃	〃		〃		〃
안산시	산시	시		〃	〃		〃	〃		〃		〃
과천시	천시	시	철	쪽	92		〃	〃		〃		〃
구리시	리시	시		〃	〃		〃	〃		〃		〃
평택시	택시	시	개	나 리	85		〃	〃		〃		〃
양주시	주시	군		〃	〃		〃	〃	까		치	109
남양주시	양주	군		〃	〃		〃	〃	크	낙	새	114
여주군	주군	군		〃	〃		〃	〃	백		로	112
평화군	화군	군		〃	〃		〃	〃	까		치	109
시흥군	흥군	군		〃	〃		〃	〃	비	들	기	113
파주시	주시	군	진	달	92	느	티 나 무	98	종	달	새	114
고양시	양시	군	코	스 모	92	은	행 나 무	103	까		치	109
광안군	안군	군	장	미	91	향	나 무	106		〃		〃
연천군	천시	군	개	나 리	85	은	행 나 무	103	제		비	113
포천시	천시	군		〃	〃	대	추 나 무	99	비	들	기	113
가평군	평군	군		〃	〃	жат	나 무	103	까		치	109
양평군	평군	군		〃	〃		〃	〃		평		110
이천시	천시	군		〃	〃		〃	〃	까		치	109
용인군	인군	군	진	달	92	소	나 무	102		〃		〃
안성군	성군	군	진	철	〃	전	나 무	104		평		110
김포군	포군	군	개	나 리	85	은	행 나 무	103	까		치	109
강화군	화군	군		〃	〃	느	티 나 무	98		〃		〃
옹진군	진군	군	백	일	88	감	나 무	97	종	달	새	114
			해	당	93	해	송	106	갈	매	기	109
강원도												
춘천시	천시	시	개	나 리	85	은	행 나 무	103	산	까	치	113
원주시	주시	시	장	미	91		〃	〃		학		111
강릉시	릉시	시	백	일	89	소	나 무	102	까		치	109
			홍	(목백일홍)								

시 군 별			꽃			면	나 무			면	새			면
동태속삼춘홍황원영평정철화양인고양명삼	해백초척성천성월창선원천구제성양주척	시시시시군군군군군군군군군군군	매산월국철진작도철살철개진살철해황매철	목계달라구나달구당매	화련화화쪽래약지쪽꽃쪽리래꽃쪽화화쪽	86 93 91 85 92 〃 91 85 92 90 92 85 92 90 92 93 93 86 92	은주은향대찾느대전찾찾총주은적석	행나목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송류	103 104 103 106 99 103 98 〃 99 104 103 〃 105 104 〃 103 〃 〃 〃 101	갈산비갈청까백평견까비두피백까크갈	매까둘매동오치로칠견둘루꼬비나매	기치기기리치로새치기미리 〃 기치새기	109 113 113 109 114 109 112 110 111 109 113 111 110 〃 112 109 〃 114 109	
충청북도														
청주충제청보옥영진괴음중제단	주주천원은천동천산성원양	시시시시군군군군군군군군군군	백코개백개진장미개진철	목스나목나달선나달	련스리련리무꽃리래쪽	88 92 85 88 85 〃 92 91 87 85 92 〃 〃	느은대은감은느은	티행티추행나티행티	98 103 〃 98 99 103 97 103 98 103 〃 103 104	까비까비산까	치둘기치기치 〃<			

시 군 별			꽃	면	나 무	면	새	면
금	산	군	백일홍(목백일홍)	89	은 행 나 무	103	까 치	109
대	덕	군	개 나 리	85	〃	〃	〃	113
연	기	군	복 사 꽃	89	향 나 무	106	제 비	113
공	주	군	개 나 리	85	느 티 나 무	98	까 치	109
논	산	군	〃	〃	〃	98	〃	〃
부	여	군	〃	〃	은 행 나 무	103	〃	〃
서	천	군	〃	〃	은 행 나 무	103	〃	〃
보	령	군	동 백 꽃	86	느 티 나 무	98	〃	〃
청	양	군	진 달 래	92	〃	98	〃	〃
홍	성	군	개 나 리	85	〃	〃	〃	〃
예	산	군	〃	〃	은 행 나 무	103	〃	〃
서	산	군	국 화	〃	동 백 나 무	99	갈 매 기	〃
당	진	군	개 나 리	85	백 합 나 무	100	학	111
아	산	군	장 미	91	은 행 나 무	103	까 치	109
천	원	군	〃	〃	호 두 나 무	106	〃	〃
전라북도								
전	주	시	개 나 리	85	은 행 나 무	103	까 치	109
군	산	시	동 백	86	동 백 나 무	99	〃	〃
이	리	시	백 목련	88	히 말 리 아 시 다	97	까 치	〃
정	주	시	〃	88	단 풍 나 무	97	비 들 기	113
남	원	시	국 화	85	은 행 나 무	103	까 치	109
완	주	군	철 쪽	92	느 티 나 무	98	〃	〃
진	안	군	〃	〃	전 나 무	104	비 들 기	113
무	주	군	〃	〃	주 목	104	피 꼬 리	110
장	수	군	〃	〃	은 행 나 무	103	까 치	109
임	실	군	개 나 리	85	〃	〃	왜 가 리	113
남	원	군	철 쪽	92	전 나 무	104	비 들 기	113
순	창	군	백일홍(목백일홍)	89	느 티 나 무	98	까 치	109
정	읍	군	〃	〃	〃	〃	파 랑 새	114
고	창	군	동 백	86	은 행 나 무	103	비 들 기	113
부	안	군	철 쪽	92	〃	〃	〃	〃
김	제	군	백일홍(목백일홍)	89	느 티 나 무	98	두 건 새	111
옥	구	군	목련	87	은 행 나 무	103	까 치	109
익	산	군	백일홍(목백일홍)	89	〃	〃	〃	〃
전라남도								
목	포	시	목련	87	비 파 나 무	100	학	111
여	수	시	동 백	86	동 백 나 무	99	갈 매 기	109
순	천	시	철 쪽	92	매 화 나 무	99	비 들 기	113
나	주	시	배 꽃	88	은 행 나 무	98	산 비 들 기	111

시 군 별			꽃	면	나 무	면	새	면
여	천	시	백일홍(목백일홍)	89	느티나무	98	학	111
송	정	시	들국화	86	소나무	102	비둘기	113
광	산	군	백합	89	은행나무	103	비둘기	113
담	양	군	매화	86	대나무	99	〃	113
곡	성	군	개나리	85	느티나무	98	까치	109
구	례	군	개철쭉	92	산수유	101	산비둘기	111
광	양	군	동백	86	고로쇠	97	까치	109
여	천	군	〃	86	동백나무	99	비둘기	113
승	주	군	국화	85	감나무	97	비둘기	113
고	흥	군	동백	86	유자나무	102	〃	113
보	성	군	영산홍	91	은행나무	103	〃	113
화	순	군	국화	85	느티나무	98	〃	113
장	흥	군	진달래	92	동백나무	99	비둘기	113
강	진	군	동백	86	은행나무	103	까치	109
해	남	군	〃	86	〃	103	산비둘기	111
영	암	군	매화	86	느티나무	98	〃	111
무	안	군	국화	85	느티나무	98	백로	112
나	주	군	배꽃	88	배나무	100	비둘기	113
함	평	군	백일홍(목백일홍)	89	은행나무	103	산비둘기	111
영	광	군	진달래	92	소나무	102	까치	109
장	성	군	백양	88	단풍나무	98	비둘기	113
완	도	군	동백	86	동백나무	99	갈매기	109
진	도	군	〃	86	후박나무	106	백조	109
신	안	군	해당화	93	소나무	102	갈매기	109
경상북도								
포	항	시	장미	91	향나무	106	갈매기	109
경	주	시	개나리	85	백일홍(목백일홍)	100	매평	110
김	천	시	목련	87	은행나무	103	까치	109
안	동	시	백일홍(목백일홍)	89	느티나무	98	까치	109
구	미	시	개나리	85	은행나무	103	비둘기	113
영	주	시	개나리	85	느티나무	98	까치	109
영	천	시	장미	91	은행나무	103	비둘기	113
상	주	시	목련	87	느티나무	98	까치	109
점	춘	시	철쭉	92	은행나무	103	〃	109
달	성	군	국화	85	〃	103	비둘기	113
군	위	군	개나리	85	느티나무	98	왜가리	113
의	성	군	백일홍(목백일홍)	89	〃	98	〃	113
안	동	군	매화	86	은행나무	103	먹황새	111
청	송	군	작약	91	소나무	102	평	110
영	양	군	국화	85	〃	102	까치	109

시 군 별			꽃			면	나 무			면	새			면	
영	덕	군	복	송	아	89	해		송	106	갈	매	기	109	
영	일	군	국		화	85	은	행	나 무	103		〃		109	
월	성	군	장		미	91		〃		103	왜	가	리	113	
영	천	군	목		련	87	은	행	나 무	103	왜	가	리	113	
경	산	군		〃		87		〃		103	까		치	109	
청	도	군	철		쪽	92	감	나	무	97		〃		109	
고	령	군		〃		92	오	동	나 무	102	왜	가	리	113	
성	주	군	개	나	리	85	은	행	나 무	103	비	들	기	113	
칠	곡	군	장		미	91		〃		103	왜	가	리	113	
금	릉	군	산	수	유	90	전	나	무	104	비	들	기	113	
선	산	군	백일홍(목백일홍)			89	느	티	나 무	98	까		치	109	
상	주	군	매		화	86	감	나	무	97		〃		109	
문	경	군	산	목	련	93	박	달	나 무	100	왜	가	리	113	
예	천	군	목		련	87	은	행	나 무	103	독	수	리	110	
영	풍	군	철		쪽	92		〃		103	왜	가	리	113	
봉	화	군	산	목	련	93	춘	향	목	103	산	까	치	113	
울	진	군	개	나	리	85	굴	참	나 무	97	갈	매	기	109	
울	릉	군	동		백	86	후	박	나 무	106	흑	비	들	기	115
경상남도															
창	원	시	개	나	리	85	히	말	리 야 시 다	97	까		치	109	
울	산	시	철		쪽	92	은	행	나 무	103	비	들	기	113	
마	산	시	장		미	91	은	행	나 무	103	깡	이	갈 매	기	109
진	주	시	석	류	꽃	90	석	류	나 무	101	백		로	112	
진	해	시	벼		꽃	89	편	백	나 무	105	백		구	109	
충	무	시	동	백	꽃	86	종	려	나 무	104	갈	매	기	109	
삼	천 포	시	진	달	래	92	동	백	나 무	99		학		111	
김	해	시	매		화	86	은	행	나 무	103	제		비	113	
진	양	군	개	나	리	85	대	추	나 무	99	부	영	이	112	
의	령	군	진	달	래	92	은	행	나 무	103	비	들	기	113	
함	안	군	백일홍(목백일홍)			89	감	나	무	97	까		치	109	
창	녕	군	국		화	85	은	행	나 무	103		〃		109	
밀	양	군	백일홍(목백일홍)			89		〃		103		〃		109	
양	산	군	목		련	87	이	팝	나 무	103		〃		109	
울	주	군	개	나	리	85	은	행	나 무	103		〃		109	
김	해	군	개	나	리	85	감	나	무	97	까		치	109	
의	창	군	매		화	86	히	말	라 야 시 다	97	비	들	기	113	
통	영	군	동	백	꽃	86	팔	손	이 나 무	105	갈	매	기	109	
거	제	군		〃		86	동	백	나 무	99		〃		109	
고	성	군	국		화	85	은	행	나 무	103	까		치	109	
사	천	군		〃		85		〃		103		〃		109	

시 군 별			꽃		면	나 무		면	새		면
남	해	군	치	자	92	비	자	101	해	오	115
하	동	군	철	쪽	92	은	행	103	비	둘	113
산	청	군	목	화	87	대	나	99	피	꼬	110
함	양	군	철	쪽	92	느	티	98	까	치	109
거	창	군	개	나	85	감	나	97	비	둘	113
합	천	군	매	화	86	жат	나	103	까	치	109
제주도											
제	주	시	수	선	90	노	가	104	휘	파	115
서	귀	포	한	화	93	동	백	99	동	박	110
북	제	주	문	란	87	평	나	105	중	달	114
남	제	주	금	란	85	담	팔	98	빠	꾸	112
			잔	화							

• 市 · 道, 市郡(民)의 노래 現況

시민의 노래	119
대구시민의 노래	120
인천시민의 노래	121
광주시민의 노래	122

경 기도

경기도 노래	123
수원의 노래	124
성남시민의 노래	125
의정부 시가	126
안양시민의 노래	127
부천시민의 노래	128
광명시민의 노래	129
송탄시민의 노래	130
동두천의 노래	131
안산시민의 노래	132
파천 시가	133
구리시 시가	134
평택 애국가	135
양주군 애국가	136
남양주 군가	137
여주의 노래	138
평택 애국가	139
화성의 노래	140
시흥의 노래	141
파주의 노래	142
고양의 노래	143
광주의 노래	144
연천군민의 노래	145
포천군민의 노래	146
가평군민의 노래	147
양평군의 노래	148
이천 애국가	149
용인 애국가	150
안성의 노래	151

김포의 노래	152
복지강화	153
용진군민의 노래	154

강 원 도

강원도의 노래	155
춘천시민의 노래	156
원주시민의 노래	157
강릉시민의 노래	158
동해시민의 노래	159
태백시민의 노래	160
속초의 노래	161
홍천군민의 노래	162
횡성군 노래	163
원성군의 노래	164
영월의 노래	165
평창군민의 노래	166
정선군가	167
철원의 노래	168
화천군민의 노래	169
양구 행진곡	170
인 제군가	171
고성의 노래	172
양양의 노래	173
명주군의 노래	174
삼척군민의 노래	175

충청북도

충북도민의 노래	176
청주시민의 노래	177
충주시민의 노래	178
제천시민의 노래	179
청원군민의 노래	180
우리 보은군	181

옥천군민의 노래	182
영동군민의 노래	183
진천군민의 노래	184
괴산군민의 노래	185
음성군민의 노래	186
증원군민의 노래	187
제원군민의 노래	188
단양군민의 노래	189

충청남도

충남도민의 노래	190
대전시민의 노래	191
천안시민의 노래	192
금산의 노래	193
대덕군민의 노래	194
연기군민의 노래	195
공주군민의 노래	196
논산군민의 노래	197
부여군민의 노래	198
서천군민의 노래	199
보령군민의 노래	200
청양군민의 노래	201
홍성군민의 노래	202
예산군민의 노래	203
서산군민의 노래	204
당진군민의 노래	205
아산군민의 노래	206
천원군민의 노래	107

전라북도

전북의 노래	208
전주시민의 노래	209
군산시민의 노래	210
이리시민의 노래	211

정주시민의 노래	212
남원시민의 노래	213
완주군민의 노래	214
진안 군가	215
무주의 노래	217
장수의 노래	218
임실군민의 노래	219
남원군민의 노래	220
순창군민의 노래	221
정읍군민의 노래	222
고창의 노래	223
부안군민의 노래	224
우리의 김제	225
옥구군민의 노래	226
익산군민의 노래	227

전라남도

전남도민의 노래	228
목포시민의 노래	229
여수시민의 노래	230
순천시민의 노래	231
나주시민의 노래	232
여천시가	233
송정시민의 노래	234
광산군민의 노래	235
담양군민의 노래	236
곡성군민의 노래	237
구례군민의 노래	238
광양군민의 노래	239
여천군민의 노래	240
승주군민의 노래	241
고흥군민의 노래	242
보성군민의 노래	243
화순군민의 노래	244
장흥군민의 노래	245
강진군민의 노래	246
해남군민의 노래	247
영암군민의 노래	248
무안군민의 노래	249

나주군민의 노래	250
함평군민의 노래	251
영광군민의 노래	252
장성군민의 노래	253
완도의 노래	254
진도군민의 노래	255
신안군민의 노래	256

경상북도

경북도민의 노래	257
포항시민의 노래	258
경주시민의 노래	259
김천시민의 노래	260
안동시민의 노래	261
구미시민의 노래	262
영주시민의 노래	263
영천시민의 노래	264
상주시민의 노래	265
달성군민의 노래	266
군위군민의 노래	267
의성군민의 노래	268
안동군민의 노래	269
청송군민의 노래	270
영양군민의 노래	271
영덕의 노래	272
영일군민의 노래	273
월성군민의 노래	274
영천군민의 노래	275
경산군민의 노래	276
청도군민의 노래	277
고령군민의 노래	278
성주의 노래	279
칠곡군민의 노래	280
금릉군민의 노래	281
선산군민의 노래	282
상주군민의 노래	283
문경군민의 노래	284
예천군민의 노래	285
영풍군민의 노래	286

봉화군민의 노래	287
울진의 노래	288
울릉군민의 노래	289

경상남도

경남도민의 노래	290
창원시민의 노래	291
울산의 노래	292
마산의 노래	293
진주의 노래	294
진해시의 노래	295
충무시가	296
삼천포 시민가	297
김해의 노래	298
진양의 노래	299
의령군가	300
함안군민의 노래	301
창녕군민가	302
밀양군민의 노래	303
양산군민의 노래	304
울주군의 노래	305
김해군민의 노래	306
의창군민의 노래	307
통영군민의 노래	308
거제의 노래	309
고성의 노래	310
사천군민의 노래	311
남해군민의 노래	312
하동군민의 노래	313
산청군민가	314
함양군민가	315
거창군민의 노래	316
합천군민의 노래	317

제주도

제주도의 노래	318
제주시민의 노래	319
서귀포시 노래	320
북제주군의 노래	321
남제주군민의 노래	322

• 내 고향을 讚美하는 노래

부산직할시

부산찬가	325
내사랑 부산	326
부산여성의 노래	327
부산에 살고파라	328
부산은 부른다	329
수영강을 살리자	330
아세아에 빛나는 부산	331
오륙도	332
우리부산 경사났네	333
우리의 부산	334
돌아와요 부산항에	335

대구직할시

능금꽃 피는 고향	336
아름다운 대구	337
능금노래	338

인천직할시

갈매기 사랑	339
꽃 섬나루	340
나라의 관문	341
내고향 인천	342
내고향 인천항	343
눈감으면 들리는 소리	344
신나는 우리 인천	345
아름다운 인천	346
영광의 내고향	348
월미도 타령	349
인천에서 살아요	350
인천의 노래	351
조용한 나라를 연 곳이라네	352

하얀등대반기는 인천항	353
-------------------	-----

광주직할시

아름다운 광주천	354
----------------	-----

경기도

고향의 봄	355
우리의 수원	356
수원 처녀	358
부천애향가	360
행주대첩가	361

강원도

강원도 아리랑	362
강원도 응원가	364
개나리꽃피는 마을	365
달마증가세	366
달 뜨는 경포대	367
대관령 아리랑	368
명승 강릉	370
반공소년 이승복의 노래	371
뽕따는 평창 아가씨	372
사임당의 노래	373
설악산 메아리	374
소양강 처녀	375
속초에 심은 사랑	376
송지호 연가	377
새강원 행진곡	378
아름다운 땅	379
아리랑 강릉	380
양양팔경가	381
위음 아리랑	382
울곡의 노래	384

정선 아리랑	385
평창 아리랑	387
한서의 노래	389
황병산 사냥놀이	390

충청북도

충북찬가	391
충북학생의 노래	392
우리 속리산	393
내고향 청주	394
탄금대	395
무심천	397
보은대추타령	398
속리산 오솔길	399
속리축전의 노래	400
자연사랑고운마음	401
추풍령	402
진천아가씨	403
울고넘는 박달재	405
월악산	406
짐배노래	407

충청남도

곰나루	408
금산인삼의 노래	409
금산 풍경	410
꿈꾸는 백마강	411
낙화암 노래	412
논산들에 풍년이 왔네	413
대전외 찬가	414
만리포 사랑	415
백제 찬가	416
보령 찬가	417
봉황산	418

삼다리	419
충남찬가	420

전라북도

전주의 찬가	421
내장산 단풍	422
남원의 애수	423
남원의 봄사건	424
눈물의 오리정	425
춘향의 절개	426
그네줄 상처	627
무주 구천동	428
논개	429

전라남도

목포의 눈물	430
삼학도 배따라기	431
목포의 노래	433
여수항 경치	434
푸른 여수항	435
나주의 마음	436
영산강 처녀	437
베를 노래	438
구례아가씨	440
영암 아리랑	441
낭주골 처녀	442
진도아리랑	443
흑산도 아가씨	444

경상북도

경북의 노래	445
경주팔네집	446
경상도 청년	448
고령대개야 문화제 찬가	450
공처농요(햇소리)	451
공처농요(겉채소리)	453
공처농요(타작소리)	456

구미의 찬가	458
내고장은 봉화	459
독도는 우리땅	460
무영탑 사랑	461
불국사의 밤	462
봉덕사의 종소리	463
비내리는 고모령	464
신라의 달밤	465
신라의 북소리	466
신라제 길손	467
상주 연밥 노래	468
상주 서보가	470
석굴암	472
안동부르스	473
울릉도 민요	474
울릉도 트위스트	475
울릉도 사랑	476
영일만 친구	477
영일만 처녀	479
에밀레종	480
에밀레	481
추풍령	482
토함산	483
포항의 찬가	485
포항타령	487

경상남도

가고파	488
고향생각	490
고향의 봄	491
그리운 충무항	492
그리운 하동포구	493
김해시민 행진곡	494
내고향 진주	495
논개	496
마금산 온천팔경	497
모심기 노래(긴등지)	498
모심기 노래(점심등지)	499
모절때의 노래(긴등지)	500

모절때의 노래(짧은 등지)	501
밀양 아리랑	502
밀양의 노래	505
봄편지	506
사명대사 찬가	507
산토끼 행진곡	508
3·1사의 노래	509
삼천포 아가씨	510
선구자	511
쇠머리대기 노래	512
시민옹원가	513
아름은 내고향	514
약진의 마산	515
옛 동산에 올라	516
울산시민의 노래	517
울산 아가씨	518
유자따는 남해처녀	519
의령청소년 노래	520
의병의 노래	521
조국과 함께 영광이 있으리	522
줄다리기 노래	526
진주라천리길	527
촉석루의 하룻밤	528
충효정 노래	529
하동포구 팔십리	530
해거름 등지	531
향토 송가	532

제주도

감수광	533
삼다도 소식	534
서귀포 사랑	535
서귀포를 아시나요	536
서귀포 칠십리	538
오돌또기	539
이야홍 타령	540
해녀 소리	541

編輯擔當者

〈內 務 部〉

地方行政局 社會指導擔當官室 行政事務官 卞 相 皓 (720~2364)

〈市 道〉

釜山直轄市 市政課 社會指導係長	鄭 然 雨 (463~4604)
大邱直轄市 “ “	許 俊 澤 (423~2192)
仁川直轄市 “ “	尹 相 直 (427~0073)
光州直轄市 “ “	韓 楨 洙 (55~8013)
京 畿 道 地方課 社會指導係長	任 忠 彬 (42~4784)
江 原 道 “ “	成 鶴 濟 (2~2011)
忠 清 北 道 “ “	鄭 允 澤 (52~4284)
忠 清 南 道 “ “	張 禹 鎔 (23~4942)
全 羅 北 道 “ “	洪 性 復 (2~4251)
全 羅 南 道 “ “	朴 來 永 (232~7129)
慶 尙 北 道 “ “	南 成 大 (93~1616)
慶 尙 南 道 “ “	許 舜 道 (83~5301)
濟 州 道 “ “	安 大 榮 (27~2404)

*無窮花 寫真：大韓 無窮花 女性中央會 常任專門委員 朴 春 根 提供

◇ 編輯後記 ◇

내고장 象徵物 特히 꽃·나무·새의 自然스러운 모습을 담은 寫眞(슬라이드 필름) 蒐集에 도움을 주신 學界 및 斯界의 專門家를 비롯하여 本總覽의 發刊에 直·間接으로 參與하여 주신 분들께 感謝를 드립니다.

本 總覽의 發刊計劃 및 推進에 參與하셨던 분

- 前鄭石謨 金宗鎬 內務部長官
- 前地方行政局長 任仕彬(現企劃管理室長)
- 前社會指導擔當官 任錫鳳(現總務課長)

꽃과 나무의 天然色 寫眞을 提供하여 주신 분

-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名譽教授 李昌福 博士
- 三育大學 및 農業專門大學 園藝科 尹平燮 教授
- 農村振興廳 園藝試驗場 花卉科長 洪永杓 農業研究官

새의 天然色 寫眞을 提供하여 주신 분

- 慶熙大學校 文理大學長 元炳昨 博士

資料整理 및 校正作業에 手苦하여 주신 분

- 本部 社會指導擔當官室 行政主事補 李旭鉉 金忠一 朴榮富
- 各市道 市政(地方)課 社會指導係 實務擔當者 13名

1987年 5 月 4 日 印刷

1987年 5 月 9 日 發行

내고장 象徵物總覽

發行人：京 畿 道 知 事

編輯人：內務局長 朴 明 緒
地方課長 李 東 雨

發行處：京 畿 道 地 方 課

☎ 42-4784

印刷處：三 和 印 刷 株 式 會 社

(非賣品) 政府刊行物審議 畢

審議番號：87-4

審議日字：87.1.30

